차 례

단편소설집 《불타는 섬》에 대하여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이였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준엄한 반제반미투쟁이였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보람찬 나날에 조국의 귀중함을 심장으로 체득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영웅적조선인민의 기개를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이 나날에 우리 소설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가르치심과 세심한 지도,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조국해방전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진실하고 감동깊게 형상하였으며 예술적화폭속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추악하고 악랄한 본성과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단편소설집 《불타는 섬》에는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창작된 이러한 소설작품들가운데서 대표적인 단편소설들을 실었다.

단편소설집에는 우선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결전에서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한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형상한 단편소설 《최후의 피 한방울까지》(유항림), 《강》(리갑기), 《나팔수의 공훈》(윤시철), 《불타는 섬》(황건), 《벼랑에서》(박태민), 《고향의 아들》(천세봉), 《구대원과 신대원》(윤세중)이 실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성과 완강성을 묘사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소설가들은 불비 쏟아지는 격전장들에 뛰여들어 전사들과 함께 전투에도 참가하고 생활도 같이하면서 조국보위의 숭고한 애국심을 안고 원쑤격멸의 성전에서 불멸의 공훈을 세운 인민군전사들의 투쟁과 영웅적성격을 그린 우수한 소설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우에서 언급한 작품들은 바로 이러한 소설들의 대표작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들은 전쟁의 진행과정에 따라 다양한 소재들을 취급하고있다.

단편소설 《최후의 피 한방울까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우리 인민군대가 불의에 감행된 적들의 무력침공을 좌절시키고 남조선전역을 해방하기 위한 진격의 길에 오른 전쟁의 가장 첫 시기 전투를 반영하고있다. 단편소설 《강》은 그후 가장 치렬하게 진행된 전투의 하나였던 금강도하전투를, 단편소설 《나팔수의 공훈》은 전쟁 제1계단에서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으로 진행된 대전해방전투를 그리고있다.

단편소설 《불타는 섬》과 《벼랑에서》는 미제의 대규모적인 무력간섭으로 하여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하게 된 어려운 속에서 굴함없이 싸우는 인민군전사들의 투쟁을 그리고있다면 단편소설 《고향의 아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 기여든 원쑤들을 섬멸하며 재진격의 길에 오른 인민군전사들의 용기백배한 투쟁모습을 그리고있다.

단편소설 《구대원과 신대원》은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적방침에 따라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을 벌리며 전쟁의 승리를 안아온 인민군전사들의 투쟁을 그리고있다.

작품들은 각이한 소재들을 형상화하면서도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존엄과 령토를 목숨바쳐 지킨 인민군용사들의 투쟁모습을 진실하고 감동깊게 묘사하였으며 그 거대한 힘을 낳을수 있은 사상정신적바탕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히였다.

이 작품들가운데서 특히 우수한 작품은 작가 황건이 창작한 단편소설 《불타는 섬》이다.

작가 황건은 조국해방전쟁의 개시와 함께 종군작가로 활동하면서 준엄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발현되는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의 영웅적성격을 창조한 단편소설 《안해》(1951), 《그가 돌아온 길》(1951), 《막심 56호》(1951), 《불타는 섬》(1952), 중편소설 《행복》 등 우수한 소설작품들과 종군기, 정론, 실화문학을 비롯한 많은 글들을 썼다.

작가는 자기의 작품들에서 시대와 생활에 대한 가장 절박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 특히는 삶과 죽음, 생의 참된 가치와 보람과 같은 인

생관문제를 대담하게 제기하고 인물들의 극적인 체험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시대의 전형을 창조하였다. 또한 간결하면서도 속도있는 구성조직, 정황의 극적인 예리화와 진실하면서 집약화된 묘사, 박력있고 감동적인 언어구사, 탄력있는 문장조직 등으로 작품의 견인력과 감화력을 높이였다.

황건이 창작한 단편소설 《불타는 섬》은 소설이 이룩한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작가의 대표적인 단편소설로 되는 동시에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된다.

이 소설은 미제가 수많은 추종국가들의 군대까지 동원하여 대규모적인 무력간섭을 감행한 1950년 9월을 시대적배경으로 하면서 적들의 발악적인 인천상륙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영웅적으로 싸운 월미도해안포중대원들의 투쟁모습을 감동깊게 그리고있다.

당시 월미도의 방어전투는 매우 가렬하였으며 월미도를 지켜싸운 해안포병들의 투쟁은 참으로 영웅적인것이였다. 하늘을 까맣게 덮고 날아와 쉴새없이 폭탄을 쏟아붓는 적기들, 바다를 꽉 채우며 밀려와 낮에 밤을 이어 함포사격을 해대는 수백척의 적함선들, 상륙을 꾀하며 달려드는 수많은 상륙정들, 적들의 이 방대한 무력과 화력앞에서 해안포병들은 단 네문의 해안포를 가지고 불바다속에서 불사신처럼 싸우며 적들의 상륙기도를 지연시키고 아군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위한 귀중한 시간을 보장하였다.

소설은 월미도해안포병들의 이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그림에 있어서 두명의 나어린 녀성통신수와 함께 월미도해안포중대에 배속되여 섬에 도착한 해군통신수 안정희를 시점인물로 설정하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과 그속에서의 그의 체험세계를 진실하고 섬세한 묘사로 그려내였다.

안정희의 눈앞에 펼쳐진것은 그야말로 불바다였고 불사신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이였다. 월미도의 해안포병들은 하늘을 까맣게 덮은 적기와 새벽부터 일제히 아가리를 쳐든 함포들이 낮에 밤을 이어 폭격과 포격으로 섬을 불바다로 만든 속에서, 수많은 비행대와 각종 함선의 엄호밑에 80여척의 경비정, 상륙정, 상륙함이 상륙을 시도하며 해안으로 밀려드는 긴박한 정황속에서 중대장 리대훈을 중심으로 굴함없이 싸운다. 포결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졸음도 배고픔도 잊고 무너진 전호를 파올리고 위장하고 희생된 전우들을 묻고 부상병들을 후송

하고 포탄을 나르고 포를 쏘고 또 쏜다. 그들은 이렇게 싸우며 련일 적함선들을 격침시키고 월미도를 지킨다.

치렬한 격전이 낮에 밤을 이어 계속되는 가운데 희생자가 늘어가고 포들은 파괴되고 나중에는 전투원 몇사람에 포 한문이 남고 포탄도 거의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리대훈과 해안포병들은 전혀 대비도 되지 않는 힘으로 적들의 상륙을 막고 큰 전과를 올린데 대하여 긍지높이 생각하면서 투지만만하여 마지막싸움을 준비한다. 그들속에는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으며 모두가 오직 조국보위성전에서 한목숨바쳐싸울 각오로 충만되여있었다.

소설은 특색있는 시점인물의 설정과 그 시점에서의 진실하고 섬세한 묘사로 우리 인민군전사들이 발휘하는 대중적영웅주의와 완강성, 불굴의 투지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집약화하여 감동깊고 인상깊게 그려내고있는것이다.

소설에서는 특히 우리 인민군전사들이 영웅적투쟁정신을 발휘할수 있은 사상정신적기초가 무엇인가를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깊이있게 밝히였다.

마지막최후결전을 앞두고 리대훈과 안정희는 자신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소중한 감정들을 서로 터놓으며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런 대화를 나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불타는 이 월미도를 지켜보고계시겠지요?》

《지켜보고계실겁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지도앞에서 월미도를 꼭 보고계실겁니다.… 원쑤들이 더러운 발을 들여놓은 조국땅 어디에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그중에도 미더운 당원들이 총칼을 들고 서있는 모습을 모든 정을 기울여 지켜보고계실겁니다.》

리대훈과 안정희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터치면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조국의 귀중함을 더욱 사무치게 느낀다.

소설은 이 화폭속에서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심장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며 수령님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우려는 끝없는 충실성,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그를 지켜 한몸 서슴없이 바쳐 싸우려는 숭고한 애국심이 깊이 간직되여있다는것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히였다.

소설은 또한 영웅전사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삶과 죽음에 대한 고결

한 인생관을 안정희의 심리세계에 대한 섬세한 묘사를 통해 보여주었다. 안정희는 돌아오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았을 때 생명을 내대고 싸우는 해안포병들과 함께 조국보위의 결전장에서 한목숨바쳐 싸우는것이 자기의 생을 가장 귀중하게 빛내이는것이라고,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돌이킬수 없는 후회가 남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동무들은 돌려보내고 자신은 섬에 남는다. 소설은 조국을 지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우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생각하는 고결한 인생관이 영웅전사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되여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수령님 계시여 조국이 있다는 숭고한 자각, 귀중한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조국보위의 길에 한목숨바치는것을 가장 빛나는 삶으로 간직한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였기에 우리 인민군전사들이 그토록 영웅성과 완강성을 발휘할수 있었다는것을 힘있게 밝히였다. 그리고 숭고한 충실성과 참된 인생관에 기초하여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정신을 발휘해가는 인민군전사들의 전형적성격을 훌륭히 창조하였다.

소설은 월미도영웅들을 형상하면서 그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우며 소박하고 꾸밈없는 인간미를 인상깊은 세부와 섬세한 묘사로 그려내였다. 하여 가장 참되고 아름다운 인간으로서의 인민군전사들의 모습을 인상깊게 보여주었다.

소설은 또한 이야기줄거리를 극성으로 충만시켜 독자들이 작품의 세계에로 깊숙이 끌려들도록 하였으며 특히 마지막장면, 월미도해안포병들이 포탄이 떨어질 때까지 적들에게 멸적의 포화를 들씌우고 섬에 기여오르는 적들을 맞받아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용맹하게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장면을 안정희가 날리는 무전문을 통해 간결하면서도 집약화되고 극적감정이 고조된 화폭으로 펼쳐보임으로써 강한 여운을 남기고있다.

소설은 이와 같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숭고한 조국애,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조국보위의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성격과 불멸의 위훈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한것으로 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의 영웅성과 완강성을 형상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되는것이다.

작품집에 실려있는 작가 윤세중이 창작한 단편소설 《구대원과 신

대원》도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투쟁을 그린 단편소설들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계렬에 속하는 작품이다.

작가 윤세중은 해방전부터 창작생활을 시작하여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에도 건국사업에 일떠선 로동계급과 농민들속에서 그들의 드높은 애국열의를 형상한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되자 그는 첫날부터 남진하는 인민군전투대오속에서 락동강을 지나 팔공산계선까지 종군하면서 영웅적인민군대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많은 소설작품들과 종군기, 전선실기 등을 창작하였다.

전쟁시기 그는 단편소설 《편지》(1951), 《분대장》(1951), 《우정》(1951), 《구대원과 신대원》(1952), 《분대장과 신입대원》(1952) 등 여러편의 단편소설들을 창작하였으며 이 시기 창작한 단편소설들을 묶어 1953년에 단편집 《분대장》을 전선문고로 내놓았다.

전시 작가의 작품에서 특징적인것은 많은 경우 준엄한 전투의 불길속에서 성장발전해나가는 새 세대 전사들의 전형적모습을 그리는데 누구보다 깊은 주목을 돌리고 그러한 전형들을 통하여 우리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이 무엇이며 그러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깊이있는 해답을 준것이다. 또한 전우들사이에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의 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인민군전사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우월성을 보여주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 자신의 독특한 창작적개성을 보여주었다.

작가의 이러한 특징이 집중적으로 구현된 작품이 바로 단편소설 《구대원과 신대원》이다.

소설은 고지를 사수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돌출부에서 밀려드는 적들과 격렬한 전투를 벌리는 부분대장 장수철과 신입대원 박성구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통해 인민군전사들이 발휘한 영웅성과 완강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중요한것은 부분대장 장수철의 참다운 동지적사랑과 사심없는 방조속에서 신대원 박성구가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전사로 자라나는 과정을 통하여, 돌출부를 지키는 싸움에서 그들사이에 발휘되는 동지애의 숭고한 화폭을 통하여 우리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과 대중적영웅주의의 생활적기초를 해명하고있는것이다.

40여차에 걸치는 큰 전투들에 참가하여 적지 않은 공훈을 세운 장수철은 신대원들이 도착하자 자진하여 신대원 박성구를 맡아 훌륭한

전투원으로 키우기 위해 애쓴다. 그는 박성구에게 수많은 전투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그의 가슴속에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우는데 인민군전사의 가장 값높은 삶이 있다는것을 깊이 심어준다. 박성구는 장수철이처럼 훌륭한 인민군병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나날에 장수철과 박성구사이는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굳게 이어지며 그 사상감정은 돌출부를 지키는 싸움에서 높이 발휘된다.

전투를 능숙하게 이끌면서 박성구가 조금이라도 상할세라 자기와 꼭 같이 행동할것을 요구하는 장수철, 포화속을 뚫고 중대에 탄약과 수류탄을 가지러 갔다와야 하는 어려운 일을 자신이 맡아나섰다가 남은 여섯개의 수류탄으로 또다시 밀려드는 적들을 견지해야 할 보다 어려운 전투정황이 조성되자 그 위험을 자기가 막아나서고 성구를 중대로 보내는 장수철, 탄약과 수류탄을 가지고 돌아와 쓰러진 수철의 모습을 보고 성난 사자와 같이 용감하게 싸워 돌출부를 끝까지 지키는 박성구, 그것은 진정 동지적사랑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숭고한 화폭이다.

소설은 장수철과 박성구사이에 흐르는 혁명적동지애와 전투적의리의 세계에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고 그 사랑속에서 박성구가 훌륭한 전사로 자라나고 무비의 용맹을 떨치게 되였다는것을 강조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뭉친 인민군대의 고결하고 숭고한 정치사상적풍모는 우리 인민군전사들속에서 대중적영웅주의가 높이 발휘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는것을 깊이있게 밝히였다.

소설은 단편소설의 형태적특성을 잘 살려 형상을 집약화하였으며 인물들의 영웅적행동과 교감의 세계를 분석적으로 묘사하면서 일반화와 개성화가 잘 결합된 전형적성격을 그려내놓았다.

작품집에 실려있는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투쟁을 그린 그밖의 다른 소설들에서도 영웅적성격의 바탕을 해명하는데서 자기의 특색을 살리였다.

단편소설 《최후의 피 한방울까지》가 조국결사수호전에서 한목숨바쳐 싸우려는 인민군전사들의 혁명적각오와 불굴의 투지를 보여주었다면 단편소설 《나팔수의 공훈》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의 악정아래 시달리는 남조선인민들을 하루빨리 해방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인민군전사들의 불타는 열망을 보여주었다. 단편소설 《벼랑에서》, 《고향의 아들》에서는 인민군전사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조국과 고향, 부모처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 원쑤에 대한 천백배의 복수심,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것을 최대의 수치로 생각하고 나라와 인민의 행복을 지켜 원쑤격멸의 성전에 한목숨바치려는 높은 자각과 깨끗한 량심을 그려내였다.

특히 단편소설 《강》은 미제와 정면으로 대전한 첫 시기에 벌써 전사들의 심장마다에 타오르는 미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적개심,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기어이 꺾어버리고 조선인민군의 영웅적기개를 만천하에 시위하려는 전사들의 필승의 신심과 각오, 전투적기백을 그려내였다.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미국놈들을 격멸소탕하자.》고 웨치며 거센 파도와 같이 적진에 돌입하여 육박전을 벌려 한개 대대의 력량으로 중무장한 한개 련대의 적들이 진을 친 방어선을 점령하고 부대주력의 도하를 보장한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위훈을 감동깊게 보여주었다. 소설은 이 형상적화폭속에서 필승의 신심과 원쑤격멸의 의지로 충만된 우리 인민군대는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높이 발휘하여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타승하고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기개를 온 세상에 높이 떨쳤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작된 인민군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불멸의 공적을 감동깊게 형상한 이러한 단편소설들은 우리 인민군전사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우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세우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단편소설집에는 다음으로 인민군대와 함께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싸움에 한목숨바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한 단편소설 《회신속에서》(류근순), 《기관사》(최명익), 《보비》(리정숙), 《첫눈》(변희근) 등의 작품들이 실려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문예방침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루는것은 전선의 영웅들과 함께 후방과 적의 강점하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잘 그리는것이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된 첫날부터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우리 인민들은 후방에서 전시생산과 전선원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투쟁

하였으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적들과 직접 맞서 용감히 싸움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와 불굴의 투쟁정신을 잘 보여주었다.

소설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후방과 일시적인 적강점지역에서 벌린 인민들의 투쟁, 이 과정에 그들속에서 발현된 열렬한 애국심과 대중적영웅주의, 불굴의 투지와 계급적성장에 대하여 그리는데 큰 힘을 넣었으며 하여 전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우수한 단편소설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작품들은 이러한 소설들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라고 할수 있다.

단편소설 《회신속에서》는 후방에서 적들의 야수적인 폭격으로 파괴된 공장을 한시바삐 복구하고 전시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몸바쳐싸우는 로동계급의 투쟁을 그리고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중요하게 강조된것은 후방을 지키는 투쟁에서의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이다. 적들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공장은 불바다로 변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에 겁을 먹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지만 당원들은 목숨을 바쳐 귀중한 기계부분품들을 구출하고 당조직에 굳게 결속하여 공장복구를 앞장에서 밀고나간다. 당원인 윤봉수는 폭격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지만 원쑤를 복수하는 심정으로 복구에 앞장서며 가족과 함께 피신한 비당원 권치돌을 찾아가 적극 교양하여 공장복구에 나서게 한다.

소설은 이러한 당원들의 형상을 통하여 어려운 때일수록 전쟁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 대중을 앞장에서 이끌어 단합된 힘으로 난관을 뚫고 힘있게 전진하는 후방의 로동계급, 당원들의 필승불패의 기상과 애국적헌신성을 보여주었다.

단편소설 《기관사》, 《보비》, 《첫눈》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공화국북반부에 기여든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운 인민들의 투쟁을 그리고있는 작품들이다.

여기서 단편소설 《보비》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적들이 강점한 모든 지역에서 광범하게 조직되여 눈부신 활동을 벌린 인민유격대의 투쟁에 대하여 진실하게 보여주면서 원쑤와의 싸움에서 필승의 신념을 안고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후방인민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한 우수한 작품이다.

소설은 인민유격대의 과업을 받고 놈들의 우편국 교환수로 침투한

보비가 그의 정체를 밝히려드는 원쑤들의 간악한 촉수에도 두렵없이 비밀정보를 알아내고 적의 통신망에 일대 혼란을 주어 유격대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민하고 담차고 슬기롭고 용감한 처녀주인공의 성격적특질을 인상깊게 부각하였다.

주인공 보비의 성격적특질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대목은 절정부분이다. 유격대의 습격을 받고 응원대를 부르는 적들의 다급한 고함소리는 수화기를 통하여 강하게 울린다. 그때 적의 통신련락을 차단한 보비는 원쑤들이 당장 문을 차고 뛰여들상싶은 긴장하고 위급한 정황에서도 눈 한번 깜박하지 않고 신호를 연방 들이대는 35번선신호불만 보고있는다. 곁에서 지켜보다가 마음의 균형을 잃는 경애에게 보비는 이렇게 말한다.

《경애언니, 무서워말아요. 우리에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이 계셔요. 나 하나의 위험은 아무것도 아니야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여 그렇게도 마음이 든든하고 수령님께서 계시여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 이것이 보비로 하여금 그처럼 담대하고 슬기롭고 용감한 심장의 소유자로 되게 한것이다.

소설은 보비의 형상을 통하여 정든 땅과 일터가 적들의 발굽아래 일시적으로 짓밟힌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필승의 신심에 넘쳐 원쑤들을 몰아내기 위한 적극적이며 대담무쌍한 활동을 적극 벌린 적강점지역 인민들의 투쟁과 영웅적성격을 잘 일반화하여 보여주었다.

소설은 단편으로서의 째인 구성과 설득력있는 형상, 갈등의 예리성과 그에 의한 성격과 사상의 심화, 세부의 진실성과 형상의 개성화 등에서도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다.

단편소설 《첫눈》은 적강점지역에서의 인민들의 계급적성장과정을 진실하게 그리고 계급투쟁의 비타협성과 철저성을 힘있게 확증한것으로 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작품이다.

주인공 명옥은 적들이 거리를 강점한 후 미국놈들의 《위세》와 만행앞에서 위축되여 불행을 모면할 생각만 한다. 그러던 명옥은 미국놈들에게 치욕을 당할번 하고 아들까지 잃은 다음에는 원쑤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슴불태운다. 미국놈을 공손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죄》로 류치장에 갇힌 명옥은 적들에게 체포되여서도 굴함없이 싸우는 애국자들의 영향아래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간직하게 되고 자신도 적들과

싸울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 그는 탈출한 다음에는 곧 유격대지하공작원들의 지도밑에 원쑤치는 싸움에 뛰여들며 적들에게 죽음을 안기는 습격전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아안고 대담하고 용감하게 싸운다.

소설은 준엄한 계급투쟁속에서 투사로 자라나는 명옥의 형상을 통하여 귀중하고 행복한 모든것을 지키자면 행복을 짓밟는 원쑤들과 목숨걸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것을 밝히였으며 적들이 공화국북반부의 일부 지역을 일시적으로 강점한 어려운 시련속에서 체험을 통해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싸움의 길에 나선 적강점지역 인민들의 계급적성장을 진실하게 잘 보여주었다.

조국결사수호전에 한몸바쳐나선 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들은 우리 인민들이 필승의 신심을 안고 인민군대와 한덩어리가 되여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기 위해 더 힘껏 싸워나가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단편소설집에는 미제의 추악하고 악랄한 본성과 야수적만행을 폭로단죄한 단편소설 《승냥이》(한설야)도 실려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예방침을 제시하시면서 미제침략자들의 악랄한 본성을 예리하게 발가내고 놈들의 야수적만행을 폭로단죄하는 작품을 창작하는것을 중요한 사상주제적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미제는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행위를 감행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철천지원쑤이다. 특히 미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조국강토를 재더미로 만들고 적강점지역들에서 짐승도 낯을 붉힐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의 본성과 죄행을 예리하게 폭로단죄하는 문학예술작품들을 적극 창작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철저한 반제반미투쟁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미제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시대적과업이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죄악을 폭로단죄하며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확인하는것을 주되는 형상과제로 내세운 소설작품들이 활발히 창작되는 한편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을 반영한 작품들에서도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야수적만행을 폭로단죄하는 기백이 높이 울림으로써 전시소설문학은 반제반미문학으로서의 특성을 뚜렷이 나타냈다.

단편소설 《승냥이》는 이러한 흐름속에서 미제가 력사적으로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라는것을 폭로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창작된 작품이다. 소설은 해방전의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성을 적라라하게 폭로단죄하고있다.

해방전 침략의 길잡이로 우리 나라에 기여든 미국선교사놈은 자기의 아들놈이 조선의 한 어린 소년을 공도적으로 몰아 사정없이 때려 빈사상태에 이르게 하자 아들놈의 살인마적죄행을 감추기 위해 소년을 교회병원에 입원시킨다. 그리고 전염병에 걸렸다고 거짓진단을 내린 다음 소년을 독살하여 죽이고 시체를 불태워버린다.

소설은 치떨리는 강도적살인만행을 꺼리낌없이 감행하는 선교사놈과 그의 처, 아들 시몬, 교회병원 원장 맥부인을 미제의 야수성과 교활성을 집중적으로 체현한 전형적인 인물들로 그려내면서 그 형상을 통해 《하느님의 사도》로, 조선사람의 《벗》으로 자처하는 미국놈들이 그 진면모에 있어서는 현대의 가장 흉악무도한 야만이며 인두겁을 쓴 승냥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소설은 주제사상을 해명하는데서 주도적역할을 담당한 소년의 어머니와 선교사놈과의 적대적갈등관계를 날카롭게 설정하고 시종일관 첨예한 대립과 충돌속에서 긴장하게 사건을 끌고나감으로써 작품을 강한 극성으로 일관시켰다. 또한 단편으로서는 비교적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켜 생활을 다면적으로 풍부하게 전개하였으나 그것들을 다 기본인물, 기본사건선에 유기적으로 맞물려 집약적으로 형상함으로써 소설의 사상주제적특성을 원만히 살려내였다.

소설은 이룩한 성과로 하여 미제의 추악한 본성과 죄악을 폭로하고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확증한 여러 작품들과 함께 우리 군대와 인민이 철저한 반제반미투쟁정신으로 무장하고 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전화의 불길속에서 창작되여 전쟁승리에 이바지한 우수한 단편소설들은 그 견인력과 감화력으로 하여 오늘의 선군시대에도 우리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훈대로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 치렬한 반미대결전과 조국결사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떨쳐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할것이다.

최 광 일

최후의 피 한방울까지

유 항 림

이름난 씨름군인 경준이와 사단써클에도 가끔 가수로 뽑히군 하는 동근이는 정찰임무를 받고 나가게 되였다.

6월 25일 새벽에 공화국북반부에 전면적으로 침공해들어왔던 괴뢰군은 조선인민군의 반격을 받고 패주하기 시작했고 조선인민군부대들은 드디여 반공격으로 넘어갔었다.

두 전사가 소속되여있는 중대는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여기까지 다달았으나 완강히 저항하는 적진지에 부딪쳤다. 중대병력만으로 공격한다는것은 무모한 일이였다. 후속부대를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은 중대장은 그사이에 적병력배치를 알아둘 필요가 있었던것이다.

《동근이, 노래나 한번 불러보지 않을래?》

정찰임무를 받고 떠나 나오던 경준이는 두툼한 볼의 살을 늘름거리며 파탈해웃었다. 이런 때에도 롱담 한마디는 잊지 않는 배짱좋은 경준이다. 또 사실 동근이는 노래를 세끼 밥보다도 좋아했다.

《에끼, 실없는 사람!》 하고 동근이가 돌아보자 경준이는 《그럼 내가 한곡조 불러볼가?》 하고 딴전을 부렸다.

《메로 독치듯 하는 동무의 목소리는 돌격때에나 괴뢰군놈들을 혼내워주라구.》

《동근동무두 노래를 사양할 때가 있었네.》

경준이도 물론 노래부르고있을 경황이 아니라는걸 모르는바는 아니다. 성미가 새침하고 표표한 동근이도 걸음을 멈추고 경준이를 앞세우면서 눈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듣고싶다면 서울 가선 내 한번 멋지게 부를테니 어서 가기나 하세.》

하늘엔 어스름달이 걸려있고 둘이 내려가는 산비탈밑에서는 저녁이면 커지는 개울물 구으는 소리가 골짜기에 가득히 깔려있었다. 엎드린 소의 등같이 보이는 산허리가 남쪽 어슴푸레한 하늘을 검은 그림자로 드러내며 주저앉아있는것이 그들이 목표로 하고있는 적진지다.

골짜기의 개울을 조심히 건느고 개장변에 널린 돌들을 골라디디며 네발걸음을 하다싶이 몸을 숙이고 둘이는 걸었다.

개울물소리는 뒤에 남고 앞에는 밀이삭이 한뙤약 깔려있었다. 경준이의 넙적한 엉뎅이가 밀밭가운데로 사라지자 동근이도 기여들었다. 밀이삭이 얼굴을 간지럽힌다. 조금만 정신을 팔아도 밀수염이 눈을 찌르러 달려들었다. 기다말고 고개를 들적마다 설레는 밀이삭의 수염이 아지랑이와도 같이 뽀얗게 감실거린다. 까만 눈을 깜박이며 신경을 거슬러올리면서도 동근이는 밀이삭 하나를 손바닥으로 비벼서 밀알을 입에 넣었다. 달크무레한 풋밀맛이 분여받은 고향집 터밭을 련상시켰고 괴뢰군에게 랍치되여간 아버지를 회상케 했다. 고향인 벽성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작년에 랍치되여간 아버지, 뜬소문으로는 놈들에게 학살되였다고도 하는 아버지—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는 믿고싶지 않았다. 어찌 그리 쉽게 단념할수 있으랴!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있으리라고 그는 믿어왔다.

밀밭이 지나자 다박솔이 드문드문 서있는 산비탈이였다. 가파롭지는 않으나 몸감추기가 곤난했다. 둘이는 나무그림자들을 리용해가며 신중한 걸음으로 올라가야 했다. 키작은 관목의 가시가 바지가랭이를 물어뜯는 소리도 조심성스러웠다.

둘이는 서너길이나 되게 우뚝 솟은 바위가 바라보이는 곳까지 와서는 한참동안이나 동정을 살폈다. 바위의 생김생김이나 위치가 화점을 만들기에 십상 좋은듯싶어보였기때문이다. 십분 가까이 감시하고있었으나 쥐죽은듯 고요할뿐이다. 동근이는 속삭였다.

《저 바위우에 무에 있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아? 난 외편으로 돌아서 올라갈테니 동무는 바른편으로 올라가보라구. …》

경준이는 잠자코 생각하고있더니 잠시후에 되물었다.

《그럼 어디서 만날가?》

《아까 어둡기 전에 봐두었던 그 밤나무밑에서 만나자구. 조금 더 올라가면 늙은 밤나무 한그루가 따루 떨어져있는걸 알지?》

경준이는 고개를 끄덕여보이고는 름름한 몸집을 소리도 없이 움직여 조금 뒤로 움치더니 연기 사라지듯이 도랑으로 기여들었다.

동근이는 나무그림자를 골라잡아가며 그 바위가 엇비슷이 내려다보이는 자리까지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올라갔다. 바위우는 번드름한

풀밭이였다. 한참동안 귀를 기울이며 응시해보았으나 의심스러운 점은 보이지 않았다. 만일에 자기가 잠복한다면 하고 그럴만한 자리도 유심히 찾아보았으나 수상스러운데는 없었다. 그래도 조금 더 가까이까지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바위우로 가는 길에는 다박솔들사이에 끼여 혼자만이 싱겁게 우뚝 선 도토리나무 한그루가 있었다.

동근이가 그 그림자밑으로 숨어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화드득 하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일어났다. 서슬에 그는 따바리를 틀어쥐면서 땅에 엎드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우를 쳐다보았다.

커다란 새 한마리가 엷은 구름뒤에 가리워있는 달을 향해 솟구쳐오르더니 산너머편으로 훨훨 날아간다. 부엉이였다. 부엉이란 놈이 자기 앉은 나무밑으로 총을 든 사람이 다가오는것을 보고 놀라 달아난것이였다. 별놈의 새가 사람을 골려먹는군… 하고 동근이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차근차근히 사위를 둘러보았다.

이 부엉이는 동근이만을 놀라게 한것이 아니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때 마침 그가 올라가던 산비탈 바로 웃쪽에서 적정찰병 세놈이 그리로 향해 내려오다가 부엉이가 날개치며 날아나는 바람에 놈들도 깜짝 놀랐다. 놈들은 땅에 납작 엎드려서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래서 놈들은 머리우를 날아가는 부엉이는 보지도 못했고 따라서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숨을 죽여가며 오래동안 엎드려있었다. 한참만에야 고개를 간신히 쳐든 놈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자기네를 놀라게 한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낼 때까지는 몸을 일으킬 용기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동근이가 몸을 일으켜 어스름달빛아래 전신을 드러내놓고 조심조심 걷는것이 놈들의 눈에 띄우게 되였다. 동근이가 경솔했다고만도 할수 없는 일이다. 부엉이가 무엇에 놀랬을가 하는데 대하여 만일에 적이 이 부근에 있다면 의심을 품게 될게고 따라서 부엉이가 날아난 근방이 목표가 되리라는것을 알아차린 그는 꽤 오래동안 거기 엎드려서 주위의 동정을 살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밤새도록 엎드려있을수도 없는 일이다. 어차피 겁을 집어먹고 운신을 못하는 놈들보다는 먼저 움직이기마련이였다.

눈앞에서 벙끗벙끗 불꽃이 이는것과 함께 왼편어깨죽지가 몽둥이같은것으로 얻어맞은듯이 뒤로 젖혀지면서 그의 입에서는 《아차.》 하

는 외마디소리가 나왔다. 그는 헛기침을 한번 컥 깇고는 가슴을 그러쥔채 그만 엉덩방아를 찧고 쓰러졌다.

그는 땅을 짚었던 손을 가누어올려 총탁을 더듬어 찾았다. 피묻은 손가락은 총탁우에서 미끄러진다. 다시 방아쇠를 찾았다. 어깨에 불을 달아놓은듯싶은 아픔을 참느라고 입술을 악문 얼굴은 구겨졌지만 머리속은 이상스러우리만큼 다시 침착해짐을 느꼈다.

(음, 그렇지! 아직 오륙분 아니, 잘하면 십분은 싸울수 있겠지. …)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아찔아찔 흐려지려고만 하고 총을 잡은 손은 아픔을 참느라고 경련적으로 떨렸다. 숨결은 높아지고 시간은 무작정 길어만 보이고 적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것이 안타까왔다.

무한히 길어보이는 시간을 아픔을 참아가며 기다리고있는중에 세 그림자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놈들은 동근이가 쓰러지는것을 확인하자 마음놓고 그에게로 다가오던것이였다.

흐렸던 눈정기는 대번에 밝아지고 전신의 힘이 손으로 모였다. 얼굴에는 빙그레 웃음까지 떠올랐다.

(이놈의 자식들, 모두 잡았다!)

혼자말과 함께 그의 손에서 따바리가 뚜르르륵 하고 불을 뿜었다. 세놈이 쓰러지는것을 보자 이제는 내 할일은 다했다는듯이 그는 그만 몸을 길게 펴고 누워버렸다.

한편에서 이 접전이 벌어지고있을 때 경준이는 약속했던 밤나무밑에 방금 다달아있었다. 그는 아래쪽에서 어지럽게 울리는 총소리를 들었고 또 얼마후 따바리소리가 산울림을 일으키는것도 들었다.

그는 덤비지는 않지만 급한 걸음으로 아래를 향해 내려오기 시작했다. 나무그림자들을 리용해가며 발소리를 삼가하는것은 여전했지만 이번엔 주저하며 지체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었다. 그의 눈에 먼저 보인것은 쓰러져있는 세명의 적이였다. 둘은 움직이지도 않았고 한놈만이 기여보려고 기쓰는 모양인데 팔은 무사한듯싶으나 척 늘어진 두다리를 질질 끌고있었다. 좌우다리가 다 탄환에 맞은 모양이다.

(동근이는 어디 있나?)

경준이는 사면을 두리번거렸다. 나중에 일어난 따바리소리로 미루어 얼마간 락관했던 그는 가슴이 덜썩 내려앉음을 느끼면서 안타까운 눈으로 동근이를 찾았다. 때마침 달을 가리웠던 구름이 벗겨지며 환

히 밝아졌다. 저 아래편에서 움직이는것이 보인다. 팔굽을 세우고 일어서려다가 다시 쓰러지는 동근이였다. 경준이는 그달음으로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원쑤들편으로 눈을 돌리며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동근아, 잠간만 기다려라!)

적 두명은 확실히 절명한 모양이고 다리를 끌며 기고있는자밖에는 다른자가 없다는것을 그자의 거동으로 알아차리는 순간 그는 질풍같이 달려들었다.

《손들엇! 덤비면 쏠테다. …》

낮은 목소리로 꾸짖었지만 본시가 메로 독치듯 한다는 굵직한 목소리라 호령기가 적의 기를 눌렀다. 기던자는 공포에 눈이 크게 떠지며 떨리는 손을 들어보려고 하다가 그만 코를 박고 앞으로 쓰러졌다. 경준이가 적들에게서 무기를 거두는것을 보고 공포에 휩싸인자는 얼혼이 나가서 변명만 하는것이였다.

《난 쏘지 않았어요. 내가 쏘지 않았어요.》

경준이는 그자를 똑바로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이런 비겁한자가 그처럼 알뜰하고 믿음직한 자기의 전우를 쏘았거니 하는 생각에 격분이 치밀어올랐다.

《이 비겁한 놈의 자식…》

그러나 이미 항복한 이상 이제는 벌써 원쑤가 아니라는 생각에 분격을 참느라고 황소숨을 내쉬고나서 그 가련한 목숨을 향해 경멸의 눈을 던지면서 동근이께로 내달렸다. 동근이는 기진한 손으로 간신히 어루만져가며 품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고있다. 경준이가 달려오는것을 보자 《경준동무요?》 하며 웃어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웃음이 채 되지 않았다. 총맞은 자리를 헤쳐놓으려고 하는줄로 지레짐작한 경준이는 의복을 쭉 찢어 헤쳐놓으며 물었다.

《어디를 다쳤어?》

동근이는 고개세로 왼편가슴을 가리켰다.

《상처는 여기요.》

그러면서 바른손에 쥐였던것을 내주었다.

《여기 내 군인증이 있소. 내가 이 군인증을 더럽히지 않았다는것을 만족히 여기더라고 전해주시오.》

둘이는 여느때는 서로 해라를 하는 사이였지만 이런 엄숙한 시각에

는 저절로 인민군대의 동용어인 하시오로 바뀌여지는것이였다. 경준이는 그의 군인증을 도로 밀어주면서 일변으로 그의 따바리까지 벗기여 세자루의 카빙총과 함께 왼쪽어깨에 둘러멨다.

《왜 그렇게 성급히 속단을 해? 빨리 돌아가서 응급치료를 하면…》

《안야, 저 부상당한 포로를 업구가야 할거 안야. 그래야 적정을 알아낼텐데…》

《그건 걱정말라구. …》

경준이는 제잡담하고 우격다짐으로 동근이를 업고 일어섰다.

《안야, 이건 동지애도 아무것도 안야. 임무를 생각해야지…》

《그건 걱정말라는데두. …》

경준이는 그를 업은채 살아남은 적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입을 닥치고 업혀라!》 하면서 우직스러운 손으로 그자의 목덜미를 잡아일으켰다. 《정말 내가 쏘지 않았어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살려주겠기에 업구가는거 안야?》

경준이는 다시한번 꾸짖으며 짐짝을 둘러메듯이 그자를 동근이와 함께 껴업었다.

《아이구구 아이구구 아이구구, 어머니, 나 죽소.》

《조용하지 않으면 내려놓구 당장 쏠테니 떠들지 말어!》

경준의 으름장 한번에 다시는 떠들지 않고 조용해졌다. 황소같이 뚝심이 센 경준이였지만 다섯자루의 무기와 두 부상병을 업고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는 첫걸음부터 비틀거렸다.

×

고지우에 집결하여 반항하는 적에 대한 공격은 동틀무렵에 시작되였다. 정확한 포사격과 기총사격의 엄호밑에 인민군보병들은 적진지 가까이로 접근하고있었다.

경준이는 포복전진하다가 바위뒤에 엎드려서 다음에 진출할 기회를 엿보는 사이 손을 등으로 돌려서 아직도 채 마르지 않은 동근이의 피를 만져보았다. 동근이가 중상을 무릅쓰고 최후의 힘을 다하여 쏘았으며 자기가 업고온 포로의 입에서 상당히 중요한 적정이 알려졌다는 것은 짐작할수 있었다.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에 중대장이 자기더러 하

던 몇마디 말에서도 그것을 느낄수 있었다. 손끝에 만져지는 풀같이 꺼분꺼분한 피, 그렇게도 알뜰한 전우의 피를 느꼈다.

서울 가서는 노래를 멋지게 부르마고 하던 동근이의 말소리도 귀에 그냥 남아있었다.

(간밤에 곧 야전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더니 어떻게 됐을가? 나더러 메로 독치듯 하는 목소리라며 적을 혼내워주라고 했겠다! 아무렴, 혼내워주고말고…)

이런 생각을 하고있을 때 맹렬한 아군의 포사격은 일시에 그치고 만세소리와 함께 돌격이 시작되였다. 그때 돌격의 만세소리에 섞여서 메로 독치듯 하는 굵직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삼천리 아름다운 우리의 강토는
인민의 주권으로 행복한 나라

콩볶듯 하는 얼크린 총소리를 엎누르며 만세소리는 산을 덮었고 그 만세소리가운데서 경준이의 노래에 호응하는 전사들의 노래들이 하나둘 늘어 드디여 우렁찬 합창이 되고말았다.

김장군 애국전통 높이 받들어
하늘 땅 우리 조국 지켜나섰다

이날 싸움에서 완강히 반항하던 고지우의 적의 태반이 소탕되였으며 다수는 포로되였다. 포로들의 말에 의한다면 돌격전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는 패잔도주하던 적의 기세를 눌렀고 적으로 하여금 간담이 서늘케 했다고 한다.

×

포연이 채 가시지 않은 해방지구 야전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동근이는 혼수상태에 빠져있었기때문에 서울해방의 소식은 며칠후에야 들었다. 그러나 수원해방의 보도를 라지오로 들었을 때는 《제길, 나만 여기 누워있담!》 하고 부러워했다. 한때는 의사들도 자신을 못가지던 중상이였지만 그의 젊음과 그 불타는 생활의욕탓에 병세는 날

로 좋아졌다. 그리하여 조치원해방의 보도가 전해지던 날 아침에는 남의 손을 빌지 않고도 돌아누우며 말을 건넸다.

…

두루 말들을 주고받으며 누워있는데 방문앞에서 까까숭이소년이 방안을 들여다본다.

《아저씨, 인제 깨셨어요? 조금전에 왔더니 주무시더군요.》

야전병원이라 하지만 빈농가를 리용하고있는 병실이였다. 옆집에 산다는 이 소년은 무시로 부상병을 찾아오군 했다. 동근이가 고개를 돌려 머리맡을 보았더니 침대옆에 놓인 꽃병에는 노랗고 흰 들꽃들이 꽂혀있다.

《순일이, 네가 또 꺾어다놓았구나!》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저한테 심부름이든 뭐든 시킬 일이 없어요?》

《별로 없다. 네가 이렇게 늘 꽃을 꺾어다주고 매일 놀러와주는것만두 여간만 고맙지 않다.》

《아저씨, 그러지 말고 뭐든 제게 심부름이라두 시켜주세요.》

이 야전병원으로는 리승만도당의 생지옥에서 해방된 이 고장 인민들이 날마다 정성껏 위문품들을 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한 부상병들을 찾아보러 왔다. 그런데 순일이는 리승만도당에게 아버지가 학살된 후 그러지 않아도 구차하던 살림이 아주 말 못할 지경에 빠져있으므로 무엇 하나 들고올 물건이 없었다. 그래서 날마다 꽃을 꺾어오고 무엇이든 시중이라도 들고싶어하는것이였다. 그에게 청할 일이 없어서 소년을 매양 서운하게 하는것이 보기에도 딱했다. 동근이는 생각던 끝에 한가지 청을 들기로 했다.

《너에게 부탁할 일이 한가지 있다. 우리 아우한테 편지를 한장 썼으면 하는데 너 좀 써주지 않으련?》

그러자 회색이 돌았던 소년의 얼굴은 단박 흐려졌다.

《국민학교 3학년에 다니다가 그만둬서… 내가 뭐 편지를 쓸줄 알아야지요.》

《내 부를테니 그대로만 쓰면 된다. 그리구 틀린자는 내 고쳐주지. …》

이 말에 소년은 안심하듯 바삐 병실로 들어왔다. 그리하여 둘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동생 창근에게

나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싸움터에서 나의 얼뜬 행동으로 말미암아 부상을 입고 지금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이렇게 시작된 편지는 집안문안과 전년에 랍치되여간 아버지소식은 아직 없느냐는 말 그리고 자기가 부상당한 경로와 치료경과 등을 대강 설명해내려갔다. 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씌여있다.

《나는 이 전투의 경험으로 더욱 확신하게 되였다, 최후의 피 한방울까지 싸우는 때에만 살수 있다는것을. 내가 탄환을 맞았을 때 만약에 살려고만 해서 비겁해졌었다면 나는 죽었을것이다.

이는 한 례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조국의 운명도 또한 그러하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최후의 피 한방울까지, 마지막숨결까지 바쳐싸울 각오를 다지는 때에만 침략자를 물리치고 자유와 독립을 수호할수 있을것이다.

이 말은 내 입으로나 붓으로만 하는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내가 흘린 피가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있는것이다.》

—1950년 7월 막내동생을 전선으로 보내는 날—

회신속에서

류 근 순

1

공장일대가 불바다로 화하였다. 삽시간의 일이였다. 여직껏 눈앞에 아름다운 풍경으로 전망되던 규모정연한 공장건물들과 아롱아롱한 프랑카드로 장식된 거리들과 사택들과 병원, 문화회관 그리고 8월의 맑고 높은 파란 하늘로 기운차게 내뿜던 수많은 굴뚝들과 배소로와 그 탑들이 금시 폭진속에 휩싸였고 폭발하고 번져가는 불길이 하늘을 그스을듯 충천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계들의 동음은 사라지고 그대신 공장건물의 기둥뿌리가 허궁 들렸다. 쾅쾅 쓰러지는 소리며 유리가 부서지고 통기와가 튀고 허공에 덩실 높이 달렸던 기중기들이 곤두박질해 떨어지고 바지작바지작 타는 소리만이 악착스럽게 들릴뿐이다.

불길은 무작정 번져나갔다.

고깔지붕을 쓴 가스탕크에도 불이 당겼다. 빵! 빵! 터지는 폭발소리와 함께 풀썩 솟구치는 흰 가스에 불이 당겨 불길은 곧 날개를 펼치듯 자욱한 연기우로 쫙 퍼지면서 다른 어느쪽보다 더 큰 불기둥이 솟아오른다.

윤봉수는 확확 끼얹어오는 화염속을 헤치듯이 제1호직장쪽을 향하여 내달았다.

그는 그 못미처 방공호속에 대피해있다가 해제경보가 나자 곧 자기 일터로 달려가는중이였다. 그러나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방향을 가려볼수가 없었다. 그는 지금 제일 불길이 거센 배소로쪽으로 빠지는 좁은 통로에 들어섰다가 주춤 발길을 멈추었다.

《이게 어데냐!… 아니, 제1호직장은 어딘가?》

윤봉수는 어리벙벙했다. 두리번두리번 주위를 살펴보니 제1호직장이라면 쌍닫이 큰 유리창들이 칸칸이 보일터인데 그저 절벽으로 높다란 세멘트바람벽만이 연기자욱한 저편에 가로막아선것이 희끄무레

하게 바라보일뿐이였다.

길을 잘못 들었구나 할 사이도 없이 그 바람벽뒤로부터 별안간 배소로탑이 탕 하고 벽을 밀치며 앞으로 쓰러진다. 그 바람에 벽뒤에 몽켜있었던듯 한 불더미가 왈칵 터져 윤봉수 있는데까지 화염이 막 휩쓸려나온다. 얼굴을 쳐들수 없는 혹심한 열도가 그의 온 몸뚱아리를 감쌌다. 그는 엉겁결에 두손으로 머리를 부등켜쥐며 날쌔게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뒤에서도 역시 거센 불길이 금시 발꿈치를 핥을듯이 기승을 부리고있었다.

윤봉수는 진땀이 배인 전신에 전률의 소름이 끼쳤다. 그는 발길을 돌리자 처음에 들어온쪽으로 쏜살같이 도로 내달았다.

그는 연기와 화염이 소용돌이치는 불길을 박차고 장애물을 피하면서 공장문화회관 앞뜨락에 있는 작은 련못앞에까지 달려가 비로소 큰 숨을 내쉴수 있었다.

공장문화회관은 직탄을 맞아 빈 공지로 화하여버렸고 학이 목을 길게 뽑아들고 물을 쫙쫙 뿜어올리던 아름다운 분수도 형적없고 그 주변일대는 그저 늪이 되고말았다.

윤봉수는 그속으로 첨벙 뛰여들어갔다. 옷이 그슬리고 달친 몸에 물은 사뭇 시원했다. 그는 앞가슴에다 연방 물을 앙구어 끼얹었다. 그리고는 곧 다시 허둥허둥 나와 불붙는 형편을 잠시 바라보다가 또 곬을 살피며 뻰질나게 내뛰였다. 그러나 얼마 못 가고 그는 폭탄에 패인 큰 구렁텅이속으로 발이 미끌며 굴러떨어졌다.

흙구뎅이속은 후끈후끈 달았다. 윤봉수는 두팔로 땅판을 짚어가며 엉기적엉기적 웃갓으로 기여오르려고 했다. 그 순간 《누구야!》하고 기급스런 소리와 함께 털썩 윤봉수의 뒤덜미를 움켜잡는 사람이 있었다. 윤봉수는 홱 뿌리치며 돌아섰다.

연기가 앞을 가려서 서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나 제1직장의 윤봉수요. 동문 누구요?》

《누구구 뭐구 왜 함부루 싸다녀요?》

상대방의 퉁명스러운 소리다. 바로 보니 공장경비대정복을 입은 젊은 동무였다. 경비대원동무는 똑바로 윤봉수를 쏘아보며 한쪽손으로 벌써 윤봉수의 축축한 옷을 샅샅이 더듬으며 몸수색을 하는것이였다.

《경비대동무군요. 신분증 내라우?…》

《…》

《제1호직장이 어찌됐나 해서 가보는 길입니다.》
그러나 경비대원동무는 몸수색을 다한 다음에야 《여긴 소방대가 활동할 장소니깐 동문 어서 피하시오!》 하고 등을 쿡 떠밀어치는것이였다.
윤봉수는 손바닥을 툭툭 털며 웃갓으로 어슬렁 올라섰다. 그러나 경비대원동무가 황급히 딴 곳으로 뛰여가는것을 보는 순간에 윤봉수는 또 움쭉 자기 일칸쪽을 눈어림하며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한참 뛰다가 굵직한 증기관을 걷어차고 하마트면 코방아를 찧을번 했다. 그러나 얼른 한손으로 무릎을 짚는 순간 그는 저쯤앞에 검은 연기속으로 큼직한 벨트콘베아의 활차 하나가 뿌레에 물린채로 땅판에 동댕이쳐있음을 보았다. 윤봉수는 번쩍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황황한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러자 이어 그는 저켠 작은 개울 건너편에 찌그러진 가스탕크곁에서 유리창마다 세찬 불길을 토하고있는것을 보았고 그것이 바로 목적해온 제1호직장이라는것도 알수 있었다.
처마는 직탄에 맞아 부서져 내려앉았고 웃층과 아래층사이의 바람벽은 로케트폭탄에 펑펑 구멍이 뚫리여 그속에서는 독체같은 불길이 연신 훌쩍거리고있다. 윤봉수는 머리가 아찔해졌다. 설마하니 저런 변이 있나 하는 생각에 도리여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그러나 암만 보아야 그것은 자기의 일칸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두주먹을 부르쥐고 훌쩍 개울을 뛰여넘자 그길로 쏜살같이 가스탕크어구로 달려나갔다.
공장은 속내부가 용광로모양으로 이글이글 타오르고있었다.
윤봉수가 일하던 2층작업장 제1호구의 남향한 유리창들은 온통 폭풍에 휩쓸려 달아났고 그 구멍으로는 활활 꼬리를 내젓는 거센 불길이 타래를 지으며 쓸어나오고있다. 그것을 보는 윤봉수는 저절로 주먹을 으스러지게 움켜쥐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앞이발로 깨물었다.
그의 눈앞에는 방금전까지 제품이 콸콸 쏟아져나오던 벨트콘베아가, 바로 그것이 바로 눈앞에서 그슬려 타들어가는것이였다. 그뿐아니라 모든 중요한 기계들이 불길속에서 전부 불성모양으로 오그라들고 녹아 찌부러지고있었다. 그같이 영악스러운 불바다속에서 저 육중한 기대 전부가 영영 수명을 버리게 되나싶으니 윤봉수는 과연 기가 막히지 않을수가 없었다.
《이놈들아, 이 소중한 기계들을… 이 개새끼들아!…》
윤봉수는 원통하고도 분한 끝에 불길과 연기가 뽀얀 하늘을 쳐다보

며 목이 터져라고 웨쳤다. 그리고 눈에서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질끔질끔 흘러내려 엉성한 광대뼈를 흥건히 적시였다.

불살은 점점 더 기승스러워갔다. 윤봉수는 물러설 생각도 못하고 억이 막히다못해 한자리에 굳어버린대로 불가항력으로 타번지는 자기 일칸을 우두커니 지켜보고만 있었다.

15년동안이나 자기 집처럼 다녀온 곳이 아니였던가— 더우기 해방후에는 그 기계와 그에 달린 모든 부속들을 윤봉수는 제 몸처럼 아끼고 살뜰히 다루어왔던것이다. 그것들이 원쑤의 폭탄불길속에서 저 모양으로 깡그리 타서 못쓰게 되거니 생각하니 윤봉수는 마치 자기 가슴뼈를 추려내서 불에 바작바작 태우는듯이 아프고 분하고 괘씸스러워서 견딜수 없었다. 더더구나 이달 그믐전으로 금년도의 년간계획량을 초과완수할양으로 윤봉수는 기계의 제동기를 전부 발판식으로 개조하기에 한창 분주스레 지내온터였다. 여직껏 손으로 조종해오던것을 윤봉수는 기사동무들과 상론하고 10여일전부터 그 개조사업에 착수했던것이다.

손잡이로 하면 기계심봉의 중심이 기울어지기가 례사요, 따라서 회전상태가 일률적이 못되여서 제품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없지 않았다. 이제 발판식으로 전부 고쳐만 놓으면 그런 페해들을 완전히 극복할수 있고 따라서 제품의 질을 훨씬 좋게 함으로써 원가저하에도 막대한 도움을 주게 될것이다. 윤봉수는 그것을 실제로 실험한 결과 수자적으로까지 따져낼수 있었다. 그런 창의고안을 한 윤봉수의 노력을 높이 찬양하고 직장장동무는 나머지 기대들도 어서빨리 발판식으로 고쳐놔야겠다고 윤봉수보다 오히려 조급히 서둘러온것이였다.

그 기계칸이 지금 화염속에 휩싸여 타고있는것이다. 아니, 그 기계칸만이 아니였다. 수천명의 로동자들의 손에서 기름이 흐르도록 잘 닦이여서 언제나 정확하게 부드럽게 돌아가던 모든 작업칸들이 졸지에 불더미에 싸여 금시 목숨을 빼앗기게 된것이다.

윤봉수의 끄름투성이의 얼굴에는 격분을 참지 못하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였다.

얼마 지나서 윤봉수는 너덜너덜한 팔소매로 눈물을 훔치고있는데 등뒤로 어느새 왔는지 모르게 직맹문화부에 있는 지도원인 김병호동무가 씨근거리며 나타났다.

《아니, 동문 예서 뭘하오? 다들 모였는데 제정신있소?》

병호의 말소리는 대뜸 노기가 서리였다. 윤봉수는 별안간 놀래서 눈물자국이 말라붙은 얼굴을 벌름 돌리나 그는 눈만 멍하고 아무 말도 못 낸다.

《어서 갑시다. 시당위원장동무랑 와계신데… 단독행위는 왜 해요, 예?…》

병호동무는 눈에 서리가 돋혔다.

여태껏 윤봉수를 찾아다닌 눈치였다. 두사람은 한처마밑에서 사는 처지여서 김병호는 방공호에서 빠져나오자 벌써 윤봉수부터 살피게 되였던것이다.

《뭐? 당위원장동무가 날 찾아?》

《긴말말구 어서 가요. 긴급회의가 있는 모양인데 글쎄 셈판이 있소?》

그 바람에 윤봉수는 어리둥절하여 눈을 슴벅거리다가 곧 발길을 돌려 병호의 뒤를 쫓아 내뛰였다.

윤봉수와 병호가 공장옆 공지로 뛰여갔을 때 거기는 벌써 여러 일군들이 모여있었다. 로동자들의 옷은 흙과 재에 뒤범벅이 되였고 얼굴들도 매연에 그슬리여 눈동자들만 반짝거리였다. 거의모두는 당원들이였다. 시당위원장동무를 위시해서 공장지배인동무와 직맹위원장동무며 그외에도 시당간부동무들이 쭉 앞에 따로 모여섰는데 다들 비장한 얼굴들이였다. 그 사람들 머리우로 검은 재티가 푸실푸실 내려떨어졌다.

윤봉수와 병호동무가 군중들의 맨 뒤꼬리에 와 끼여서는데 시당위원장동무는 연기와 불길에 싸인 불타는 공장을 원망스럽게 쏘아보며 더욱 흥분에 사무쳐가지고 아까부터 시작했던듯 한 말을 계속하고있었다.

《…동무들! 우리 공장은 원쑤들에 의해서 불더미가 되였습니다. 저걸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던 공장과 기계들이 다 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무들! 우리는 락심하지 맙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용기를 내야 하겠습니다. 하나의 힘이라도 분산하지 말고 더 굳게굳게 결속하여 조직적으로 행동을 합시다. 그것이 바로 적을 때려부시는 우리들의 힘인것입니다.

동무들! 나는 동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 처해서야말로 과연 그 어느때보다도 조선로동대중의 선봉부대라는 고상한 영

예감을 굳게 지니고 이 순간부터 벌어질 공장복구사업에 전체 비당원 군중들을 이끌어나가야 하겠습니다. … 동무들! 바로 이와 같은 중대한 과업이 지금 우리들 량어깨에 걸머져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

당위원장동무는 모자를 구겨쥔 손을 연방 내휘두르며 불을 토하듯이 말했다. 그는 잠시 군중들을 사뭇 준엄한 눈으로 쏘아보다가 다시 어조를 높이며 말했다.

《…그러나 또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혼잡한 때일수록 반동들이 날뛴다는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나는 동무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반동들에게 절대로 빈틈을 주지 말것이며 혁명적경각성들을 고도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구 겁쟁이, 우울분자— 이런것들두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들과도 우리는 견결히 싸워야 하겠습니다. …》

2

《아니, 내가 뭐 나머거리요? 피해조사반에 가라는건 뭡니까? 저는 소화반에서 일하겠습니다.》

윤봉수는 얼굴을 막 붉혀가지고 구역당부 조직부장앞에서 말하였다.

《동무! 왜 자꾸 말썽이요? 지금은 다만 명령에 움직일 때요. 피해조사반의 역할이 더 중요한걸 모르오?》

《아닙니다. 제일 년한이 많은 사람을 소화반에 보내줘야 불끌 곬을 더 잘 알수 있잖습니까?》

《글쎄 념려마오. 그쪽은 다 조직됐단데 왜 자꾸 앙탈쓰오. … 오히려 년한이 많은 사람이라야 피해정형을 더 잘 알수 있소.》 하고 젊은 구역당부 조직부장은 바쁜중에도 빙그레 웃어보이며 윤봉수의 어깨를 툭툭 두들겨주었다. 그러나 윤봉수는 달갑지 않은 낯빛으로 그를 한참 쳐다보았다. 조직부장동무는 또 한번 씽긋 웃으며 《어서 여러말말구 나가오. 다른 동무들두 배정해야잖소.》 하고는 차례를 기다리는 저켠 사람들께로 돌아서며 호명을 계속하는것이였다.

윤봉수는 더 조르지 못하고 피해조사반복구책임을 맡아가지고 나갔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일칸이 불타는것을 여전히 걱정스럽게 몇순간 서서 바라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자기 손으로 자기 일칸의

불을 끄고싶은때문에서였다.
윤봉수가 책임맡은 북구는 제품하조장을 중심한 분석소로부터 구내정거장을 거쳐 변전소 있는데까지의 그 부근일대였다. 반원은 18명이였다. 윤봉수는 곧 반원들을 인솔하고 우선 하조장쪽으로 나갔다. 하조장에서는 벌써 소방대가 한창 뽐프질을 해가며 일어서는 불길과 싸우고있었다. 두껍고 누빈 갑옷에 투구같은 갑모를 박아쓴 몇동무가 드높은 2층꼭대기에 곡마하는 사람처럼 발을 붙이고서서 짚단같이 솟구치는 연기를 무릅써가며 호스로 물을 쫙쫙 갈겨 답새긴다. 물줄기는 불길속으로 퍼부어들어가 혀를 훌찍거리는 화염을 가까스로 억눌러버린다. 아까 해제직후에 뛰여와보던 때보다는 불세력은 사뭇 꺾인듯 했다.
피해조사반에서는 소화작업이 어느 정도 자리잡힐 때까진 기계피해정형보다 인명피해조사를 먼저 하기로 지시를 받았었다. 윤봉수는 흰헝겊에다 《피해조사반장》이라고 붉은 글씨로 쓴 완장을 팔뚝에 끼여차며 부반장인 리창수동무를 불렀다. 그들은 하조장곁에 허리갱이가 뭉청 부러진 집채만큼한 굴뚝우에 우릉주릉 올라서있었다. 윤봉수는 창수동무와 마주서서 몇동무씩 갈라서 분공줄것을 상의했다. 한데 상의하는 도중 문득 그는 권치돌이가 생각났다. 권치돌은 늘 자기와 맞붙어다니는 극진한 사이요 또 동배이기도 했다. 그래 윤봉수는 분공조직을 짜면서 권치돌이가 이런 때 자기곁에 없는 일이 서운하다기보다 점점 이상스럽게 생각되였다. 더구나 아까 방공호안에 대피해있을 때까지도 자기와 꼭 한자리에 붙어있었던것을 생각하면 더욱 궁금한 일이였다.
《창수동무, 우리 권동갑이 어느 반에 갔는지 모르오?》
윤봉수는 창수에게 서둘러 물어보았다.
《피— 그 사람을 찾아선 뭘하오?》
창수동무의 대답은 단박 이런 코방귀였다.
《왜요?… 어쨌소?》
《원, 고린내나서… 여보, 뺑소니친지두 오래다오.》
《에?… 아니, 언젠데?…》
윤봉수는 깜짝 놀랬다.
《해제되자마자 미친개눈질 흘끔흘끔하더니 어느새 슬쩍 꽁무닐 뺐잖우! 암데두 있어야지, 쳇.》

창수동무의 이런 대답을 듣고보니 아닌게아니라 권치돌이가 이런 때엔 약한 사람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은바 아니였다. 그는 워낙 산간지대의 어느 두메에서 살다 내려온 사람이였다. 공장에 온것은 재작년도 가을이였다. 그런 산골사람이 되여 그러한지 아까 방공호속에 서로 붙안고 앉아있을 때도 권치돌은 남달리 질겁해서 덜덜 떨던 일을 윤봉수는 불현듯 생각했다. 그런 주제로는 미상불 해제가 나자 그냥 어데로 도망쳐갔음직도 한 일이였다.

윤봉수는 권치돌의 일이 한심하기도 하고 또 슬그머니 분하기조차 했다. 하나 그만 일은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단박은 당에서 위임받은 피해조사임무를 철저히 집행할 일이 급선무였다. 윤봉수는 리창수동무와 상론한 결과 16명을 매 분조로 갈라서 따로따로 방향을 줘 내보내고 자기와 창수동무는 지도부 겸 한개 분조가 되여 하조장의 남서켠쪽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공장변두리를 우선 방공호속부터 샅샅이 조사하였다. 방공호들은 전부가 큰 건물밑으로 아궁이를 내고 깊숙이 옴을 파들어갔고 지상에는 높직하게 토담들을 쌓아올렸기때문에 직탄을 맞지 않는 한 별로 큰 사고는 없었다. 간혹 폭풍과 파편에 약간씩 뒤가 흔들리고 한쪽뿌다귀가 패여진데가 있었으나 그속의 사람들은 모두가 무사했으리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직탄을 맞아 없어진 대피호는 불과 세네군데밖에 없었다.

한데 그날 저녁 퍽 저물은 때였다. 약간 시장기가 난 윤봉수와 창수동무는 제3호직장앞에서 수도배수관이 터져 물이 콸콸 용솟음치는데로 달려가서 랭수를 실컷 들이키고 돌아왔다. 둘은 물 묻힌 수건으로 얼굴을 벅벅 훔치며 올라오는데 바로 하조장 서북켠 벽가로 통한 하수구의 좁은 다리를 건너 제3호직장의 철장출입문으로 향해 들어가는 통로에 웬 이상한 물체가 피투성이 되여있음을 발견하였다.

《이게 뭐가!》

《예!… 아뿔싸, 사람 아니요?》

둘은 어안이 놀랐다. 그들은 한순간 멈칫 섰다가 일시에 살같이 그리로 뛰여갔다. 그것은 사람이 옳았다. 찬찬 셋이 한군데 쓰러졌는데 모두가 땅판에 엎드린채 두팔로 뭣인가를 꽉 부둥켜안고있었다. 한사람은 잔등팍과 목덜미에 주먹이 나들만 한 큰 파편구멍이 두군데씩이나 펑 입을 벌리였고 그속에 화로재 같은것이 뿌옇게 덮였었다.

이 동무들은 필경 중요한 기계부속을 제각기 뜯어내여 안전한 장소에 간수하려다 그만 시간을 놓쳐서 이같이 된 모양임이 분명하였다. 그들옆에 허리를 숙이고 선 두사람은 하도 감격한 나머지 눈을 마주칠뿐 한참은 어찌할바조차 몰랐다. 그러다 윤봉수가 먼저 손을 댔다. 그는 맨 첫머리의 동무의 머리를 슬며시 쳐들고 그의 피투성이얼굴을 착히 들여다보았다. 도무지 알아볼 면목이 아니였다.

《어느 직장 동무들인가?》

《글쎄요, 얼굴이 형편없구만. … 하여튼 저쪽에다 맞들어 옮겨놓구 봅시다.》

《옳소, 장소를 옮깁시다. 그리구 몸속두 한번 살펴봐야지.》

그래 둘은 한사람씩 맞들어선 저쪽 평평한 자리에 갖다 나란히 눕혀놓았다. 그런 연후에야 두사람은 마침내 그 동무들이 어느 직장의 사람들임을 곧 알게 되였다. 그것은 시체가 엎드렸던 자리에 바로 그 동무들이 자기 앙가슴으로 깔아감췄던 큼직한 쇠통들이 그 동무들의 직장을 이야기해주었던때문이다.

《하하, ○○○주머니로구만! 제2호직장동무들일세, 그렇지?…》

《호, 옳습니다.》

창수동무는 물씬 눈덕이 확 달아서 눈을 마구 슴벅거린다. 그리고 얼른 그 주머니에 입을 맞출듯이 얼굴을 숙이고는 주머니우의 먼지를 입으로 훅훅 분다.

윤봉수도 급기야 두눈에 더운물이 핑 괴였다. 그것은 이 공장 제품생산에 있어 매우 귀중한 촉매작용을 노는 기계부속이요, 또 귀금속이였다. 8.15직후 일본놈들이 패망하고 도망칠 때 이 부속품을 파괴하려다 우리 로동자들에게 들켜놔서 일대 소동까지 일으킨 그러한 귀중품이였던것이다. 그것을 미제악귀들의 피묻은 발톱에 다시 뺏기지 않으려고 세 동무는 결사적으로 구출작업을 하다가 고귀하게 희생되였던것이였다. 아아! 기계는 살고 사람은 죽은것이다. 세 동무의 목숨으로써 이 귀중품들은 다시 생명을 가지게 된것이요, 공장이 살게 된것이다.

이처럼 고결한 정신을 눈앞에 보게 된 윤봉수는 비분한 생각이 북받쳐서 견딜수가 없었다.

《창수동무, 저… 저… 시체…곁에 이걸… 갖…갖다 안겨주자구.》

윤봉수는 종시 흐느껴져서 말이 꺽꺽하고 더듬어졌다. 그러니 저켠

으로 슬그머니 돌아앉아서 코를 힝힝 풀며 소매로 눈물을 훔치던 창수동무가 아무 말도 없이 그러나 민첩하게 그 부속품보관통을 하나하나 들어다 그 기계의 임자들의 겨드랑이에 뭉뭉 껴안겨주었다.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는 력사가 많고 이야기도 많았다. 왜놈들이 도망칠 때 그것들의 일부 내부구조를 파손해놓아서 해방후 우리 로동자들이 그것을 고치기에 무척 애쓰고 신고했을뿐아니라 그 장치를 바로잡아놓기에 여간 수고를 한것이 아니였다.

윤봉수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더운 한숨과 함께 눈물을 씻고 정중히 시체앞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그앞에 묵묵히 쭈그리고앉았다. 윤봉수는 곧 세 동무의 아직 채 감지 못한 눈을 자기 손으로 조심조심 쓰다듬어 감겨주었다. 그리고 새삼스레 울컥 북받치는 눈물먹은 소리로 《동무들! 용… 용감했소. …이… 이제 고요히 누… 눈들을 감으시오. 동무들이 갚지 못한 원… 원쑤를 우… 우리가 기어쿠… 기어쿠! …갚 …갚아드리겠소. …》 하고 그는 주먹으로 땅을 치며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떠듬적떠듬적 이런 말을 뇌이고 또 뇌였다. 그런 사이에 저편 창수동무는 쓰러진 세 동무들의 갈기갈기 찢어진 옷자락들을 끄르고 그 품안을 샅샅이 더듬어보기 시작했다. 한데 그는 첫 동무의 옷섶을 헤친채 깜짝 놀란듯 외마디소리로 윤봉수를 불렀다.

《여보, 윤동무!》

윤봉수는 머리를 쳐들었다.

《이걸 와 좀 보오.》

창수동무는 윤봉수의 시선과 마주치자 노끈에 단단히 꿰매여 찬 납작한 가죽주머니를 그 죽은 동무의 단추 끄른 옷섶사이로 반쯤 끄집어내보였다.

그것은 분명히 당원증주머니였다.

《옳소! 그래 저쪽 두 동무도 다 봤소?》

《아직 안 보았소.》

창수동무는 말을 그치기도 전에 다시 저편 두 동무들에게로 가서 계속 그들 가슴팍을 뒤지였다.

그 동무들도 역시 매한가지로 당원증주머니들을 차고있었다.

《다 있지, 예?》

《예.》

둘은 세 동무가 모두 당원이란데에 새삼스러이 뜨겁게 느껴지는 동

지애로 저절로 머리가 수그러졌다.
당장 기발이라도 있으면 이 고귀한 죽음을 한 세 동무들의 시체우에다 화려하게 오래오래 덮어주고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래 당원증들을 몸에서 풀어낸 뒤에 윤봉수는 목책을 펴들고 창수동무가 당원증을 펴보며 불러주는대로 그 이름을 기록하였다.
《김재욱동무.》
윤봉수는 부르는대로 《김 재 욱.》 하고 떠염떠염 되받아 중얼거리며 썼다. 한데 그다음 창수동무는 《장진동무.》 하고 두번째 동무의 이름을 부르려다말고 거기 붙은 사진에다 시선을 콱 박으며 《아니!… 이 동무로군!》 하고 사뭇 놀래는것이였다.
《누구요? 알만 한 동무요?》
윤봉수는 어슬렁 곁에 다가오며 급히 물어보는데 《하, 이 동무구만. 윤동무, 왜 모르겠소? … 그 장동문데.》 하는 창수는 그 장동무에 흥분을 느끼기까지 하는 모양이였다. 그러나 윤봉수는 벙벙하였다. 그는 고개를 기웃거리였다.
《난 잘 모르겠는데…》
《왜, 접때 창의고안표창식날 윤동무랑 같이 상장 탄 동무를 모르오?》
《오, 그래… ○○○내부구조를 고친 동무…》
《옳소, 이게 그 동무 아니요!》
《하…》
윤봉수는 그제야 알았다. ○○○촉매성능을 자기의 기술창안으로써 제고시킨 동무였던것이다. 두사람은 오래 장진동무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표창식이 거행되던 그날의 광경을 선히 회상하였다. 윤봉수는 다음번 동무의 이름까지 다 기록하자 곧 당원증 셋을 당부에 갖다맡기고 돌아왔다. 그리고 ○○○은 공장본부에 들여보내고 세 동무의 시체를 집결처소에 운반해갔다.

3

다음날 아침 푸름푸름한 때 윤봉수는 비로소 공장을 나섰다.
그는 밤을 새며 공장안에서 피해조사사업과 겸하여 경비를 보았던것이다. 자지 못한 그의 눈두덩은 부석부석하였다. 공장안의 불들은

인젠 대충 소화가 돼가나 아직 변전소와 제2호직장의 불길만은 여전히 꼬리를 내젓고있었다.

동켠출입문을 나서면서 윤봉수는 공장밖을 한고패 휘바라보았다.

휘연히 밝아오는 동녘하늘은 선선한 바다바람을 휘몰아와 무르녹는 한여름의 넓은 대지우를 어루만져주었다. 그러나 자기가 지금 밟고서 있는 아스팔트와 길바닥은 깊은 폭탄자국이 여기저기 패였고 아직도 화염을 뿜어오는듯 했다. 그런 길가의 전선주들은 모두가 이리저리 기울어졌고 그모두가 먼지털개를 곧추 세워놓은듯 머리들을 탁탁 풀어헤쳤었다.

가로수들은 하루밤새에 말끔 잎사귀들이 누렇게 단풍졌고 어떤 나무들은 밑그루에 불길이 달려서 그만 숯검댕이로 화해버렸었다.

길건너편 기술전문학교며 우편국이며 그 좌우로 연줄연줄 린접한 큰 건물들 전부가 큰 폭탄에 맞아서 반이상씩 허궁 뭉청 달아났고 뼈가지같은 서까래들만이 재더미우에 댕글하게 올라앉았다.

맞바라보이는 산밑턱에 외따른 도서관건물도 단매에 풀싹 날아나 없고 까칠한 기둥목 몇개만이 나딩굴고있을뿐이다.

행길복판으로 들어서니 이번에는 저쪽철다리 웃켠 사가집들과 조쏘문화협회며 국백, 소비조합, 영화관 그리고 가게들이 즐비하던 거리와 골목들마저 몽땅 뒤집혔는데 그곳에선 아직도 화로불같은 불길이 무데기무데기로 타오르고있었다.

윤봉수는 그 정경을 면바로 바라보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였다.

그는 실상 시가지까지 이처럼 황량해졌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었다.

로동자회관이며 그너머편 공장사택들도 역시 재더미였다.

(이런 동떨어진 사택지구까지…) 하는 생각에 자기 집으로 가던 윤봉수의 걸음은 더욱 급해졌다.

《아니, 정말 모두 살아있기나 할가?》

그런 불안이 가슴에 꽉 차오는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눈앞에 서물거려서 봉수는 점점 걸음이 황황해졌다.

내무서앞을 지나 로동자회관뒤 등마루의 올림길을 막 올라섰을 때 여느때 같으면 거기에서는 벌써 자기 집이 눈에 선뜻 보일터나 지금은 딱히 어느것이 자기 집이였던지 분간할수 없으리만큼 모두가 옥갠듯 파괴되여있었다.

빨간 벽돌들은 무쇠메로 함부로 빵빵 후려끈진듯 콩가루처럼 허물어졌고 기초세멘트들은 회가루를 뿌린듯이 먼지만 뿌옇다. 지붕도 태반 허궁 들려서 바람이 휑휑 나들 지경이 되였었다. 윤봉수는 발끔치를 돌려세우고 목을 기웃기웃하며 한참 살펴보고서야 비로소 자기 집을 발견할수 있었다.

역시 엉망진창이였다.

벽은 삼분의 이나 훌 없어졌고 지붕은 겨우 변소간쪽만 다소 보이나 그마저 삐닥 밀어올린 캡모양으로 한심하게 붙어있었다. 그래도 그쯤이나마 집형적이 남아있다는것만도 다행이였다. 만약 터무니 아주없이 사라졌던들 과연 자기는 지금 어데로 가야 할것인가!

공장목욕탕앞을 빠져 골목길을 내려오는데 마침 자기 안해가 뜨락앞의 광이 허물어져 내려앉은 바람벽밑에다 쇠풍로에 남비를 올려놓고 불을 피우고있는것이 보였다.

이어서 또 옥희년이 조끼치마에 저고리는 홀랑 벗어버린채로 바가지를 들고 빨랑빨랑 나오는 참이였다. 그것을 보는 윤봉수는 버쩍 반가와서 빙긋이 웃음을 지었다. 자기 집식구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것을 막상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니 반가웁기 비길바 없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아들놈이 보이지 않는것이 의아쩍게 여겨졌다. 하나 집안에서 구들이라도 치우고있는가싶어 그는 오솔길어구에 벽돌무더기짬을 징정징정 골라딛고 뛰여넘어가며 《여보! 살아있소?》 하고 반가운 소리로 안해를 불렀다. 안해는 남편의 말소리에 놀래여 문득 일어서는데 머리는 풋밤송이처럼 흐트러져있었다.

《…아니, 살아있었소!》

윤봉수는 재우쳐 큰소리를 지르며 줄달음을 쳐갔다. 그런데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막 달려온 옥희년이 윤봉수의 무릎에 와 덥석 매달리더니만 아무 말도 없이 아버지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며 손가락을 입에 박고 눈물을 쭈르르 흘리는것이였다.

《너, 아바질 보니 반갑니? 무척 놀랬지? 어데 가있었데. 오빠랑 함께 있었데?》 하며 윤봉수는 딸년의 다박머리를 슬슬 쓰다듬어주나 옥희년은 손가락을 입에서 슬며시 빼며 와 하고 우는것이였다.

《아ㅡ니, 너 왜?…》

윤봉수는 어린 딸을 두팔로 허궁 추켜안으며 다우쳐물었으나 옥희는 그냥 느껴가며 울기만 하는것이다.

윤봉수는 갑자기 불길한 생각에 머리를 얻어맞은듯 했다.

그는 딸을 안은채로 안해 있는데로 뛰쳐가서 《여보!…》 하자 《홍섭이가 어델 갔소?》 하고 막혔던 소리가 북받쳐나오듯이 물었다.

안해는 외면하고 서서 대답을 못하고 앞치마자락으로 눈물을 훔칠뿐이였다. 그 순간 윤봉수는 눈앞이 아찔하였다. 홍섭이가 죽었다는것임을 그는 알아차렸다. 하면서도 그의 눈에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한참동안 장승모양으로 뻗쳐 서있다가 별안간 맥이 탁 풀리여 옥희를 땅에 내려놓고 저켠 허물어진 문지방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얼마동안 그 모양으로 있던 윤봉수는 불현듯 고개를 번쩍 들고 《여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하고 그냥 대답이 없는 안해에게 얼빠진 고함을 질렀다. 윤봉수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여있었다. 그러나 치마자락에 얼굴을 파묻은 안해는 더 참을수 없는듯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다. 옥희도 어미어깨에 가 엉켜붙으며 엉엉 운다.

윤봉수는 졸연간 미친 사람 모양으로 안절부절했다. 안해와 딸의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듣게 된 그는 점점 가슴속이 뒤집히는듯 했다. 그는 일어섰다앉았다하다가 별안간 으흐흐 하고 흐느끼였다. 그리고 벌떡 마당복판으로 나서자 벌건 가슴팍을 주먹으로 두들기며 《이 개새끼들아! 내 아들을 어떡했느냐?… 이놈들아…》 하며 하늘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그럴수록 윤봉수의 눈에는 야무지게 생긴 홍섭녀석의 얼굴이 한꺼번에 여러개로 되여 나타났다.

홍섭이는 초중 2학년생이였다. 윤봉수에게는 서른아홉 되도록 여직껏 금이야, 옥이야로 키워오던 외아들이였다. 그는 친척붙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워낙은 경상도태생이였다.

열살이전에 부모를 여의고 외가집눈치밥으로 몇해를 살다가 윤봉수는 15～16살때부터 바람 불리는대로 돛을 단다고 이리저리 머슴군으로 돌아다니였다. 그래 강원도 춘천으루다, 강릉으루다 하고 강원도땅에까지 와서 돌림살이를 하다가 18년전에 이 고장으로 내려왔던것이다. 그후 로동살이를 시작해서 꼭 3년만에 같은 로동군의 딸이였던 고분녀하고 결혼을 했었다. 그 이듬해에 태여난것이 홍섭이였다. 첫아들을 본 윤봉수는 무척 기뻤었다. 그래 윤봉수는 아들 난 고장이름자 하나를 따서 홍섭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던것이다.

홍섭이는 학교성적이 늘 우등줄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게다가

소년단분단위원까지 하는 씩씩한 어린이였다.

안해는 방안으로 들어가 천정이 훌렁 달아나 새파란 하늘이 쳐다보이는 방안이나마 비로 깨끗이 치우고 남편더러 어서 들어와 쉬라고 했다. 윤봉수는 허청거리며 방안으로 끌리다싶이 들어가 몸을 탁 바리고 누웠다. 그러나 그는 도로 벌떡 일어나 도사려앉으며 또 황소소리로 물었다.

《글쎄 여보! 홍섭이가 어떡허다 죽었냐 말이요? 그 애 시체는 어데다 묻구?… 어서 말이라도 속시원히 해줘야잖소?》

그제야 안해는 마지못한듯이 곁에 와앉으며 비로소 홍섭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했다.

—홍섭이는 학교소년단에서 한달동안 수집한 파고철을 손달구지에 싣고 시전선협조위원회에 갖다바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철다리어구에서 변을 당한것이였다. 경보가 나자 곧 홍섭이는 길가대피호속에 냉큼 뛰여갔었으나 놈들 폭격방향이 바로 대피호부근으로 미침을 알자 그안의 사람들은 모두가 굴을 빠져나왔다. 사람들은 와 물밀듯이 조쏘문화협회 뒤산밑 채석장 굴로 온통 뛰여올라갔었다. 어른들은 재빠르게들 갔으나 홍섭이는 발이 채 미치지 못하여 건너편 도서관 앞턱 수수밭속으로 황급히 기여들어갔다. 그러자 거의 동시에 놈들은 그속에다 대고 따르륵 기총질을 했다. 홍섭이는 꼼짝 못하고 수수밭속에서 복부관통상을 받고 쓰러진것이였다.

안해는 목이 메여 한참 치마폭에다 코와 입을 싸쥐고 흐느껴울다가

《…소식 듣기야 걔들또래가 채석장까지 뛰여와 알려줬으니 말이지 하마트면 상구두 모를번 했다우. … 그래서 옥희를 이끌구 산에서 내려오는 길로 학교부터 찾아갔잖우! 당신이야 그저 죽었는줄만 알았지요. …그래 학굘 찾아갔더니만 글쎄 홍선생이 눈물을 닦으며 그렇게 됐다는군요. 당체 울음이 콱 막혀서 말이 나가나요! 나중에 시체는 어떡허셨느냐구 찾았더니만 학교에서 소년단장을 치르겠다구 사정허시드군요. …》

안해는 연신 코물을 훌쩍훌쩍 들이키면서 점점 고개가 무겁게 숙어지는것이였다.

《좋소, 그만하우. 이젠 다 알았소. 내 아들이 그만함 값없이 죽은 것은 아니요… 여보, 울음 싹 거두라구. 운다구 죽은 애가 돌아오겠소?…그래 소년단장은 언제 헌대?…》

《오늘 저녁에 장사를 치른다나봐요. 이따 당신 가보시는게 좋을것 같애요.》

안해는 부성부성한 눈을 가까스로 쳐들고 더운 숨을 몰아쉬며 말한다.

《장례 치른다면야 당신두 함께 가야 할게 아니요.》

그래 그날 해질무렵에 윤봉수는 안해와 옥희를 데리고가서 죽은 아들의 장례식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는 공장에서 희생한 동무들의 합장식에도 참가하여 집에 돌아오기는 밤이 깊어 캄캄한 때였다.

4

맑은 날씨가 련일 계속되였다.

흐린 날만 골라가며 날아와 지랄부리던 적들 비행기도 볼수 없었다.

공장에서는 불같은 기세로써 복구작업이 벌어졌다.

윤봉수는 제동기를 죄이던 손에 외뿔곡괭이를 틀어잡고 날마다 불에 탄 기계들을 재더미속에서 쾅쾅 찍어 추려내기에 바빴다.

그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선 조금도 께질께질한 생각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보다 원쑤들때문에 사랑하는 공장과 아들마저 뺏겼구나 하면 견딜수 없는 격분과 증오심이 불타올라 그 복수심에 질려서도 한결 더 일에 열성을 기울이였다.

그런데 윤봉수와 친한 사이인 권치돌은 그후도 계속 보이지 않았다. 윤봉수는 하루저녁 일부러 틈을 타가지고 권치돌이네 집을 찾아갔다. 가본즉 지붕이 마당에 탕 무너내려 금시 쓰러질듯 한 그의 집은 흉가처럼 꼭 잠겨졌고 인기척도 없었다.

《허, 갔군. … 그 사람, 그렇게도 겁이 많담! 제길…》

윤봉수는 슬그머니 화가 나서 건침까지 탁 뱉았다.

권치돌은 1년반남짓 지내오는 동안 극진히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였다.

윤봉수는 자기가 보고난 소책자는 누구보다도 먼저 권치돌에게 넘겨줘선 학습에 더욱더 열중하도록 도와주었었다. 또 직장에서 일할 때도 기계다루는 방법을 일일이 손목을 이끌어주다싶이 하면서 가르쳐주었던것이다. 사람됨됨이 부지런하고 순박한데 혹하여 윤봉수는 앞으로 제가 보증을 해서 권치돌을 기어코 당원이 되게 하려고까지 마

음먹어온터였다.
당장 화가 나기는 하지만 그만한 사람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 그다음 저녁에 윤봉수는 생각다못해 직장장동무에게 사연을 말하고 권치돌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오려고 일부 겁쟁이들이 폭격을 피하여 숨어있다는 봉인동골로 터벅터벅 올라가기 시작했다.
산은 무척 골이 길었다.
송림이 빽빽이 우거져서 사람이 들어사는데라고는 생각되지 않을만큼 으슥한 산골이였다.
공장에서 한 7리가량 그곳으로 올라갔을 때는 벌써 밤이 다되여서 맑은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보이였다. 그런 산협속에서도 피난민들이 저녁끼니들을 끓이는 모양으로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수선대는 소리가 들리였다. 그들은 마치 야영생활을 하는 모양으로 나무숲속을 잘 리용하여 제법 부엌칸까지 만들어놓고 끼니를 끓여먹는터이였다.
윤봉수는 사람소리 나는데마다 수소문하여 권치돌이가 있는 곳을 물어보았다. 하나 무슨 단속이라도 있듯 한결같이 그들은 모른다고만 하고 실토해주지 않았다. 오래 칡덩굴속을 돌아다니던 끝에야 윤봉수는 마침내 권치돌의 거처를 찾아내고야말았다.
권치돌은 풀을 베여다 깔개를 삼고 소나무숲우에 가둑나무를 찍어다 두텁게 지붕처럼 엮어놓았었다. 그런 속에서 권치돌은 지금 자기 안해와 막 말다툼질이 벌어진 판이였다. 안해가 당장 쌀이 떨어졌다고 댕댕 고아대는데 권치돌은 결이 펄쩍 나서 드립다 쏜다.
《그런데 왜 그어쿠 오자구 했냐 말이야?》
《흥! 안되면 늘 조상탈이지! 산(화전)에서 나오지 않었으면 이런 봉변이야 당한담!》
《듣기 싫어! 인전 내려가두 괜찮단데 군소리는 웬 군소리야! 여기 있음 어디 쌀 대줄 사람 있나?》
《여보, 딱한 말 작작하우. 겨우 천명에 목숨 건진게 원쑤같수?》
《저런 맹충일 보지! 그럼 쌀타령이나 말지…》
《새끼들 우는걸 그럼 어쩐단 말이요?》
안해는 벌컥 신경질을 낸다. 아닌게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린것들이 셋씩이나 달려있었다. 윤봉수는 멀찌감치에 서서 짐짓 엿듣고있다가 뜻밖에도 권치돌이가 어서 산을 내려가자고 고성대성하는 일이 다소 반가와서 씽긋 웃음을 띠우며 일부러 크게 인기척을 내고 터벅터

벅 내려왔다.

《동갑 계시오?》

윤봉수가 찾으니 권치돌은 귀익은 소리에 어리둥절하여 황급히 걸어나왔다.

《나요, 나 윤봉수라니깐!》

《예?…》

권치돌은 짜장 놀랬다. 그는 머리끝이 쭈볏해서 주춤주춤하다가 다시 《…아니 어떻해서 이렇게, 예?… 혼자 왔수?》

권치돌은 반가우면서도 한편 면구스러워하며 그제야 윤봉수의 손길을 두손으로 움켜쥔다.

《나두 좀 산에서 살라구 왔지요.》

윤봉수는 시치미를 뚝 따고 빈정대며 또 씽긋 웃는다.

《…동갑이, 나를 떠보려는 심이구마. … 자, 아무튼 좀 들어오라구.》

권치돌은 윤봉수의 손목을 잡아끌며 어서 들어와앉으라고 한다.

윤봉수는 남비를 걸어놓은 솔뿌리결의 떼풀우에 털썩 앉았다.

《동갑 올라온 내막을 내 알겠소. 어쩌겠소, 용서해주다. 속에 아직 찬게 없는탓이 아니겠수.》

권치돌은 새삼스러이 죄지은 사람모양으로 손길을 썩썩 마주 비비며 다시한번 면구스럽게 윤봉수를 쳐다본다.

윤봉수는 그저 싱글싱글 웃기만 했다. 권치돌은 곧 자기의 비겁한 행동에 대하여 자세한 고백을 했다.

권치돌은 그날 해제경보가 가자마자 허둥지둥 공장밖으로 뛰쳐나온 길로 곧장 집에 올라간즉 가족들은 이미 산에 올라가고 없었다. 그래 그는 다시 뒤산 채석장굴로 올라가 구석구석 찾아보는데 마침 굴어구에서 어린것들을 업고 안고 사상이 되여 덜덜 떨고있는 안해를 발견했던것이다.

안해는 남편이 살아난것을 보자 금시 환장한 사람처럼 반가와하며 눈이 휘둥그래가지고 숱한 시민들이 올라간 봉인동골로 떠나자고 남편의 손목을 이끌었던것이다.

《그래 정작 올라오구보니 담날부터의 때살이가 바르잖겠수! 그래 내려가기두 아닌게아니라 량심에 걸리구 호미난방격이 됐거던. … 시방 이렇게 동갑이가 와준 일이 정 반갑소다, 하하…》

권치돌은 열적게 웃으며 자기의 뉘우침을 죄 말했다.

《옳소, 알만 하오. 더 어둡기 전으로 날래 내려갈 차비나 하라구.》

윤봉수는 실상 한번 짜게 쏘아주려던 마음속이였으나 솔직하게 실토한 사정을 알고보니 되려 기쁜 생각이 들어서 좋은 낯으로 말했다. 그러나 저켠에 돌아앉아 젖먹이를 품고있는 권치돌의 안해는 힐끗힐끗 윤봉수를 쏘아보다가 냉큼 가로채고 대드는것이였다.

《아주바니, 남의 멱살은 왜 끗차구 해요? 제 발목이 물에 젖었음 고만이겠지 남의 발까진 왜 적시랴는거예요?》

그는 뾰로통해서 턱까지 쳐드는것이였다. 그것을 보는 윤봉수는 화가 버쩍 치받쳐올랐다. 울뚝한 말로 하면 대뜸 《여보! 그것두 말이라구 하우? 나는 기둥같은 아들을 놈들에게 뺏기구두 공장을 떠나지 않구 있소. 공장이 대저 누구의 공장인데 그따위 소릴 하는거요!》 하고 된방망이질을 하고싶었으나 윤봉수는 미운 놈을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강히 성을 참고 도리여 차근차근히 말로 타이르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듣소다. 내가 동갑을 구제는 못할가망정 설마 죽을 굴속에야 끌고가겠습니까? 인민학교 애들까지 지금 꼭두새벽부터 줄을 져다니며 우리들을 격려하느라고 노래를 부르구있습니다. …그런데 사족이 펀펀한 어른들이 이런 산속에 와서 멀쩡하게 앉아있어야 옳겠습니까? 내놓고 말이지 여직껏 어디서 쌀 타잡쉈거나 집쓰구 살았습니까?… 이루 다 말해서 알 일입니까?》

이렇게 해설하듯이 말하니 권치돌은 자기 안해가 주제넘게 말참견하는것이 미욱스러워서 짐짓 가로 흘겨보다가 윤봉수에게 《동갑, 괜히 노엽게 생각마오다. 다 내가 잘못 처신한탓이 아니겠소.》 하고는 자기 아낙더러 《어따대구 대꾸질이야! 되지 못하겐. … 군소리말구 어서 갈 준비나 하라구!》하고 소리쳤다.

그리고 또 시퍼런 눈으로 안해를 흘려쏜다.

안해는 씨무룩하고 좀체 말이 없다가 권치돌이가 잽쳐 어성을 높이니까 마지못해 훌떡 일어서며 젖먹이부터 걷어업는것이였다.

권치돌은 안켠으로 들어가 큰딸과 작은놈에게 각각 잔짐들을 꾸려서 지우고는 자기도 와락와락 보따리를 꾸둥치며 짐바까지 메워서 죽죽 끌고나온다.

안해는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로 왈강달강 세간그릇들을 함지에다 담아이고는 두덜두덜하며 나선다.

《옳소, 아주머님 생각 잘했습니다. 개들이 한번 지랄부렸다구 겁

먹어서야 쓰겠습니까?… 애기를 흘러내리지 않게 더 단단히 업으시오.》

윤봉수는 권치돌의 안해더러 우정 비위를 돋구며 벙실벙실 웃는데 《동갑 갑세.》 하고 권치돌은 어느새 이불보따리우에 잡은것들을 산처럼 꾸려지고 떡 나섰다. 윤봉수는 권치돌의 앞으로 횅 달아났다.

《내 하나 들어줌세. 우엣걸 하나 내려놓라구.》

《아, 놔두라구. 그걸 빼면 짐 다 망가진다니까. …》

《그럼 큰 냄비나 하나 빼쥐게. 자, 걸으라구.》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구슬을 박은듯이 반짝거린다. 건너편 언덕 솔밭숲새로는 붉은별 하나가 배시시 얼굴을 내밀고 이쪽을 본다. 그 별을 바라보니 권치돌은 그편에 자기가 늘 일해오던 공장이 있으려니 생각하면서 두다리에 힘을 주며 걸음을 옮기였다.

5

이튿날 아침.

권치돌은 동틀무렵에 바삐 서둘러 밥통보자기를 싸쥐고 공장으로 나갔다. 사택어구에 나와 멀찌감치 공장을 바라보니 실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불과 며칠밖에 안되는데 그 사이가 마치 휴가로 쉬다 돌아온 때처럼 오랜것만 같고, 뿐만아니라 콩가루가 다 되였으리라고만 알았던 공장이 헐끔하게나마 륜곽이 대충 남아있었다.

아스팔트길바닥에 폭탄자국이 푹푹 패여 상처입었던 자리도 말끔 수리되여 제 모양대로 되였고 기차레루가 복구되여 기관차가 꽥꽥 고동을 뽑으며 달리고있다. 길어구로 나가니 벌써 거기에는 새로 만들어 세운 표어판과 만화판, 벽보판들이 줄줄이 늘어섰는데 만화와 복구작업하는 그림이며 격문, 벽시 그리고 전파보도들이 전과 다름없이 꽃테두리속에 울긋불긋 나붙어있었다.

그는 표어판앞으로 어슬렁어슬렁 다가서며 우에서부터 찬찬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한데 그는 《○○○축매기계를 목숨으로 사수한 세 동무》라고 표제가 달린 기사에 시선이 끌리자 별안간 전기에 닿은듯 흠칫 놀랐다. —그것은 희생당한 김재욱동무와 장진동무 그리고 최호필 세 동무의 이야기였다. 생산에 있어 절대로 없어서는 안될 가장 귀중한 기계부속품을 놈들의 폭격속에서 끝끝내 잃지 않으려고 불속도 두

려움없이 용감하게 뛰여들어가 목숨과 기계를 바꾸어낸 일을 생각해 볼 때 권치돌은 끝없이 자기자신이 못난이같이 부끄러웠다.
자기는 그 순간에 뭣을 하고있었던가. 공장에서 뺑소니를 쳤고 넋없이 산속으로 도망쳐가 여직껏 멀쩡하게 숨어있지를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하는 권치돌은 그 글발을 다시 쳐다볼수 없으리만큼 눈덕이 뜨거워나고 머리가 천근이나 된듯 무거워졌다.
(내가 나이깨나 한두살 더 먹었단 놈이 이게 무슨 주젠가? 왜 그런 극성을 부렸던가? …이런 놈을 그래 공장에서 집을 주고 쌀을 먹여 살려줬던가?)
권치돌은 량심이 저리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공장출입문을 들어서면서도 줄곧 그러한 자책에서 깨여나지 못했다.
공장구내로 막상 발길을 들여놓으니 겉보기와는 달리 내부가 몹시 파괴되여있었다. 공장건물은 겨우 철골만 앙상하게 붙견디여있을뿐으로 속통은 완전히 재더미로 화하여있었다. 한데 제1호직장에선 벌써 숱한 일군들이 한창 검댕이재를 뒤집어쓰고 곡괭이로 불에 탄 기계들을 재무지에서 찌르렁찌르렁 추려내고들 있었다. 그것을 보자 권치돌은 불현듯 놀라서 멈칫 섰다.
(저 동무들은 대저 언제 나온 동무들일가?)
제깐엔 누구보다도 일찍 서둘러나온듯싶었는데 뛰는 우에 나는 격으로 벌써 저렇게 많이들 나와 일하고있지 않는가. 차츰 가까이 가보려니까 그속엔 직장장과 윤봉수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전신에 물땀을 철철 흘리며 여념없이 뿔곡괭이들을 휘두르고있다. 권치돌은 점점 망설여졌다. 과연 이대로 들어가야 옳은 일인지 아닌지 그는 갑자기 몸움직일 방향을 종잡을수 없었다. 그런 순간 그는 문득 그 일군들이 전부가 당원들임을 알수 있었다. 직장장, 윤봉수, 리창수, 복만이 그외도 숱한 동무들이 모두가 확실히 당원들이였다.
《음! 당원들이 솔선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는구나. …》
그러자 그는 복구가 지금 어떻게 되여 이처럼 빠른 속도로 진척되여져가고있는가를 깨달아졌다.
아스팔트길바닥이 매끈매끈해진것이며 공장구내가 폭격을 받았던지 안 받았던지 모르리만큼 깨끗이 정돈되여져있는것이며 또 아까의 그 벽보판에 전시된 많은 그림들과 격문, 벽시가 나붙은것이며 기차레루가 말짱 복구되고 기차가 챙챙거리며 쏘다니는것이며 그 모두가 저 모

양으로 밤을 새워가며 선봉적으로 싸우고있는 당원들이 있음으로 하여 이룩된 일이리라고 권치돌은 절절하게 깨달아졌다.

기계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세 동무는 누구였으며 산속에 도망간 자기를 밤길을 타고 일부러 헐씽거리며 찾아와서 손수 이끌어준 사람은 누구였던가. 그들은 모두가 보통사람들이였던가? 아니였다. 모두가 당원들이였다.

권치돌은 당원이란 진실로 어떠한 사람들이라는것을 이제야 비로소 뼈속깊이 깨달아보는듯 했다.

참말로 그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이 닥쳐온 때에야 그는 당원과 보통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르냐는것을 똑똑히 체험해보는듯 했다. 그러할진대 여태까지는 비록 자기가 비겁했다손 치더라도 이후도 그냥 이대로 가만있어야 옳은 일일가? 아니다.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자기도 이제부터 더욱더 열성을 내여 그들만큼 일을 해야 할것이요, 그들의 정신을 본받아서 자기의 비굴성을 깨끗이 없애버려야 할것이였다.

(옳다! 나는 저 사람들속에 끼여들어가야만 보람있는 인간이 될수 있다!)

권치돌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마음속에다 강한 채찍을 휘두르고 기운차게 자기 일칸을 향하여 성큼성큼 걸어들어갔다.

그는 사뭇 마음이 시원하다.

직장장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라 오래 망설이였던것이 지금엔 도리여 어서 빨리 직장장을 만나 깍듯이 사과를 하고 저 사람들처럼 명랑한 얼굴로 씩씩하게 일하고싶은 충동만이 가슴 하나가득 뭉클뭉클 용솟음쳤다.

《직장장동무!…》

권치돌은 마치 어린 학생이 자기 선생을 부르듯이 별안간 입에다 손나팔을 붙이고 큰소리로 웨쳤다.

《직장장동무! 수고하십니다.》

권치돌은 더욱 환희에 벅찬 얼굴로 씨근거리며 뛰여가선 직장장동무의 손목에 매여달렸다.

《이거 권치돌동무로구려! 아니, 집식구들은 다 무사하오?》

직장장동무는 장갑낀 손을 저켠에 대고 툭툭 먼지를 털고나서 권치돌의 어깨우에 살며시 손길을 올려놓는다. 권치돌은 꽁무니에 찼던 수

건을 빼서 힝힝 코를 풀고 굽실 허리를 굽히며 다시금 직장장동무의 손목을 굳게 잡아흔들었다.

《우둔한게 죄가 컸습니다. 직장장동무, 다시는 그따위짓을 안하기루 맹세했습니다. …인제부턴 정말 겁쟁이가 되지 않겠습니다. 굳세게 일하겠습니다.》

《허허허… 됐소. 아는게 힘이라구 하잖나. 깨닫는게 제일이요, 허허허…》

직장장은 쾌활하게 웃으며 권치돌의 손목을 잡아이끌고 공장안으로 들어갔다.

공장안에 들어선 권치돌은 뿔곡괭이를 하나 둘러메자 우선 자기가 늘 일하던 웃층작업장으로 올라가보았다. 포화기는 직탄을 맞아 봉당에 허궁 떨어졌고 자기가 애지중지 소제하고 기름을 먹여주던 벨트콘베아는 다 타버리여 빈 활차만 파쇠처럼 남아있었다. 10여일전에만 해도 기름에 번질번질한 벨트콘베아는 한초도 쉬지 않고 생명가진 동물처럼 왕왕 돌아쳤었는데 어쩌면 이 모양으로 맹탕 파쇠무지로 돼버렸을가— 이것이 모두가 어느 놈들때문에 생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니 참말로 권치돌은 자기의 원쑤가 미제국주의자들이란것이 더욱 똑똑히 깨달아졌다. 그는 원쑤가 불사른 기계들을 한시각이라도 더 오래 남겨두지 말고 깨끗이 정돈해야겠다고 마른 손바닥에 침질을 해가며 곡괭이를 힘껏 쿵쿵 찍어선 파쇠가 된 기계들을 뜯어내였다.

그날 이후 권치돌은 내내 한결같이 아침 어둑해선 공장에 나갔다가 해떨어져 뭇별이 반짝일 때 집으로 돌아왔다.

한편 성가시게 굴던 안해도 막상 윤봉수의 말대로 인민학교 어린 아동들마저 노래를 부르면서 거리를 행진해다니는것을 보니 제가 못난짓한것을 가까스로 깨닫고 후회를 했었다. 그는 녀맹사업에도 차츰 나비치게 되였다.

그런 며칠이 지난 어느날 저녁.

권치돌은 붉은 노을이 막 빛이 식어지려는 서켠하늘을 바라보며 공장을 나섰다. 그는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오래간만에 윤봉수의 집에 잠시 들렸다. 윤봉수는 웃통을 벗어젖히고 저녁상을 받은 참이였다.

그는 피로에 지치여 눈을 그물그물하고있었다.

《동갑… 밤낮 일하시니까 곤하시리다.》

권치돌은 문지방너머에 걸터앉으며 묻는데 《뭐 곤할거야 있소. 다

사랑하는 일인데 괜찮아요.》 하고 윤봉수는 우물우물 씹던 입에 볼이 두둑해가지고 빙긋 웃는다. 그때 부지중 방안을 두리번두리번 살피던 권치돌은 불현듯 홍섭이가 보이지 않아 《이 집 재롱바치는 어델 갔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네, 먼델 보냈다우.》
윤봉수는 갑자기 안색이 초라해지며 뜨아히 대답하는데 그의 안해는 졸지에 가슴꺼지는 한숨을 후— 내뿜고 머리를 푹 떨어뜨리는것이였다. 권치돌은 의아쩍어서 다그쳐묻는데 윤봉수는 맥없이 숟가락을 밀어놓고 덤덤히 권치돌을 바라보는것이였다.
《아니!… 어찌된 일이요?》
《잘못됐소다. 바로 그날이지요. …》
《하, 이거 웬 끔찍끔찍한 소리요?》
한데 그러한 처지에 있으면서 여태껏 태연스럽게 일칸으로 나가서 그것도 밤낮을 꿰창배기로 일하는 윤봉수임을 알자 권치돌은 죽은 아들보다 윤봉수의 일이 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니, 그래가지구 동갑은 날마다 밤대거리를 빼지 않소!…》
권치돌은 과연 탄복했다.
《아들 하나를 뺏겼다구 들어앉구 집이 없어졌다구 놀구 하면 공장은 누가 복구하오?… 그 원쑤를 갚을라구두 기껏 힘을 내서 공장을 일떠세워야지. … 동갑이 왔으니 말이오만 우리 집서두 녀맹복구대로 나가게 됐다오.》
그 말에 권치돌은 거듭 가슴속이 뜨끔했다. 아주머니까지 녀맹복구대로 공장에 나간다는것은 말이 쉽지 좀처럼 범상한 일이 아니다.
《동갑… 내 외려 부끄럽기 짝이 없소다. 내 오긴 밤대거리에 붙게 해달라구 부탁하러 온 길인데 이러구보니 참 인사가 늦었소다. …》
권치돌은 얼굴을 점점 벌겋게 해가지고 말하였다.
《좋습니다. … 정말 얘기 난김이니 말이지 나와주시오. 8.15전으로 거두매질을 끝낼 계획이 아니요? 동갑도 아다싶이 지금 민청원들은 전부가 전선에 동원된 판에 우리가 인젠 주동이 돼야잖겠소?》
윤봉수는 권치돌의 열성에 반가와서 빙그레 웃었다.
《오늘 밤부터 나가리다. …》
《암, 좋다마다요! 누께 물어볼 일이요? 모두 자발적으로 나와야지요.》

그날 밤부터 권치돌은 윤봉수의 뒤를 따라 밤대거리에 붙어 밤을 새며 일을 하였다.

8.15가 가까운 열이튿날 밤이다.

권치돌이가 밤대거리에 붙은지도 이미 일주일이 되였다. 한낮은 지질듯이 무더우나 밤을 당기며 불던 바다바람이 쓸쓸히 불어와서 밤이 깊을수록 늦가을 날씨마냥 싸늘하였다.

윤봉수는 권치돌이와 맞패를 지어가지고 합성탑칸에서 뿔곡괭이질을 쿵쿵하다가 새날이 잡아들무렵해서 한숨 쉴겸 둘이는 5백마력모터의 망가진 대아래서 등을 붙이고앉아 담배를 한대씩 피웠다.

《윤동갑, 한상 안 낼 작정이요?》

《한상은 무슨 한상이요?》

윤봉수는 담배내를 푸— 하고 내뿜는다.

《그러지 말라구. 래일부텀은 동갑 아주머니도 나온다면서!》

윤봉수의 안해가 녀맹복구대로 동원되는 날이 바로 래일이였다.

《그래 부럽소?》

윤봉수가 익살맞게 픽 웃으니까 《아니, 사실은 우리 집서두 그속에 끼운다나봐요!》 하고 권치돌은 사뭇 상냥스럽게 말한다.

그 소리에 윤봉수는 까들 놀랬다. 그 말은 당초에 실답지 않았던때문이다.

《그게 정말이요?… 예?》

《어떻게 된셈인지 기운을 내드군요!》

《하하, 그럼 여보, 동갑이야말루 한상 내야겠소. …》

윤봉수는 반가운 나머지 팔꿈치로 권치돌의 옆가슴을 슬쩍 다쳐놓으며 실쭉실쭉 웃는다.

그렇게도 톡톡 신경질을 내며 산을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앙탈을 부리던이가 복구대로 나온다는 말은 두번 곱쳐 들어도 아예 거짓말만 같았다.

《그 참, 신통하네그려!…》

《그러니까 내가 자주 교양사업이야 했지오다. 윤동갑은 달매 아들하나 잃구두 아주머님까지 복구대로 나간단데 펀펀한것들이 어떻게 집안에 배겨앉아서 놀수 있겠는가구… 그랬더만 어제라나! 글쎄 반장더러 신청해놓았다는군요.》

권치돌은 점점 신이 나서 말한다.

《동갑! 이거 정말 내 한상 내겠소. 이젠 동갑 아주머님을 만날 면목두 제법 섰구만. …》

윤봉수는 가슴속이 뻐근했다. 그는 담배맛이 한결 난다고 또 련달아 한대 붙여물고 뻐금뻐금 연기를 내뿜었다. 한데 바로 그판에 난데없이 김병호가 허둥거리며 이 장소로 찾아왔다. 병호는 가죽신발에 자갈을 쩌렁쩌렁 걷어차며 바쁘게 걸어온다.

《이거 병호구려. 어떻게 돼서 야밤에 와?…》

윤봉수는 병호가 찾아온데 대하여 이상한 예감이 떠올랐다.

《네, 리별주 한잔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그 소리에 윤봉수는 벌떡 일어서며 《아니! 통지서가 나왔단 말이지?》 하니 병호는 대답대신 모자를 쓴 귀뿌리에다 군대식으로 거수경례를 척 붙이며 벙글벙글 웃는것이다. 그는 밤을 새며 로동자회관의 허물어진 바닥에서 8.15경축 연극련습을 지도하던중 동원통지서가 나와 그길로 종이쪽지를 쥔채로 뛰여온것이라고 했다.

《그래 언제 떠나나?》

《시방 떠나야지요.》

《나가는덴?…》

《그것두 가봐야지요. … 어쩌나 이 공장을 굉장히 큰 영웅공장으로 만들어주우다.》

병호는 여전히 싱글벙글 웃으며 하는 소리였다.

《그런 걱정은 아예 말구 아무튼 잘 싸워주게. 그놈 우리 공장을 파괴한 개새끼들을 생포해오게. 알겠나?》

윤봉수는 가슴속에서 새삼스러이 복수심이 뒤설레며 금시 눈방울이 시퍼래진다.

《네, 념려마시오. 다 잡아오겠소다, 다 잡아와. …》

그리고 병호는 다시 군대식으로 차렷하고는 거수경례를 붙이고 자리를 떠나 나갔다.

병호를 보내고난 뒤 윤봉수는 종내 속이 쓰리였다. 자정이 다 돼서 잠시 자리에 누워보았으나 여전히 잠은 오지 않고 병호의 얼굴만 자꾸 눈앞에 서물거리였다. 병호동무는 자기처럼 외지에서 온 청년이였다.

친척도 없는 사람이고 아직 장가전인데다 부모도 동생도 없고 다만 파파 늙은 할머니 한분만이 있어 병호의 식사를 해주었다. 윤봉수네와는 아래우가 되여서 서로 큰집, 작은집처럼 가까웠다. 윤봉수는 종

내 꼬박 뜬눈으로 새고말았다.

동이 휘연히 밝아올 때 윤봉수는 혼자 담배를 피우다가 푸실푸실 일어나는 권치돌이더러 말을 꺼냈다.

《동갑, 인제사 일어났소?》

《왜요?…》

《병호동무가 시방쯤은 어디까지 갔을가?》

《인제요?… 영신나루는 과차했을걸요!》

《그 동무 똑똑하지요?》

《네, 잘 싸울거요!》

《우리 곁집에 산다오. … 그 동무는 정말 잘 싸울거요.》

그리고 윤봉수는 별안간 흥분해서 담요를 활짝 제끼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6

그날 아침 윤봉수는 차마 여느때처럼 일찍 집으로 돌아갈수 없었다.

그는 계속하여 낮대거리에 붙어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래일모레가 8.15이다. 공장일군들은 8.15까지 피해자재의 정리를 완수하겠다고 부쩍 열의가 들끓는 판이였다.

놈들의 폭격에 비참하게 파괴된 장소마다엔 《보아라! 원쑤들은 이처럼 우리 공장을 파괴하였다! 우리는 이 원쑤를 기어코 복구로써 대답하자!》

《미제야수들의 만행을 우리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다! 동무들! 더욱 용감히 궐기하여 영웅공도를 창건하자!》

이러한 프랑카드들이 큼직큼직 나걸리여 맑은 하늘밑에서 기발처럼 나붓기고있었다. 공장일군들은 이 프랑카드들을 쳐다볼적마다 모두가 이발을 갈며 돌덩이같은 주먹들을 움켜쥐군 하였다. 제1호직장의 동무들은 이제 마감으로 남은 포화기가 달렸던 웃층바닥이 쿵 떨어져 내려앉은것을 쇠메로 짱짱 빻아서 그속의 철근들을 추려내느라고 바삐 지냈다.

윤봉수는 찬물에 가 세수를 하고 돌아오자 곧 연장창고에 가서 자루가 제일 단단히 물린 함마를 하나 골라쥐군 작업칸으로 들어갔다.

권치돌이도 그뒤를 쫓아들어갔다.

아침해가 막 피였다. 펑펑 아가리를 벌린 천정으로 부채살같은 광선이 쏵 비쳐들었다. 콩크리트는 두자남짓하게 두께가 있었다. 그것을 쇠메로 빻아서 콩가루처럼 세멘을 바수어내는 일은 조련한 일이 아니였다.

《동갑이, 저쪽에 가 서라구.》

《옳소, 한치 해봅세.》

두사람은 세멘바닥우에 떡 가로타고선 마주섰다. 그리고 끙끙 안깐힘을 쓰며 메를 꼰지기 시작했다. 둘은 어깨받이에서 불이 펄 나게 씽씽 휘둘러놓으니 콩크리트바닥에는 어언간 쟁반만큼한 구멍이 펑 나고 뜬김이 사방 죽죽 달아난다. 지적이 와글와글 일어났다. 그러자 저켠 동무들도 여기저기서 《영치고, 힝 쳐라.》 소리가 경쟁적으로 일어난다.

어느새 먼지가 뿌옇게 피여올라 공장안엔 안개가 서린듯이 자욱해졌다. 그런 우로 해발이 갈기갈기 쏴들어서 마치 무늬어린 포단필같이 아름다웁다.

《여보, 동갑… 좋은 수 하나 있군.》

윤봉수는 한참 메질을 하다가 불현듯 메를 놓고 허리를 쭉 펴는것이다. 권치돌은 영문을 모르고 고개를 쳐든다.

《이걸 다 걷어둘 필요가 있군. …》

윤봉수는 쇠메대가리로 철근살을 쩌렁쩌렁 건드리며 말한다.

《그건 해서 어따 쓴담?》

《왜요?》

제동기감으로 사용할 심산이였다. 어지간히 통배가 굵어서 제동기의 크랑크론 제격이였다. 그는 사실 공장이 불타 없어졌어도 제동기의 개조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머리속에 골똘하고있었다.

《글쎄 쓸만 하오만 인전 다 꿈얘기 아니요!》

그러니 윤봉수는 권치돌을 힐끔 치떠보다가 《왜요!… 우리 공장이…복구…복구가…그리…오랜줄…알우. … 한달만…한달만…》 하며 별안간 그는 쇠메를 씽씽 휘둘러박는다.

권치돌은 그 모양을 보니 공연히 부질없는 소릴 했구나싶어 어름어름하다가 자기도 벌떡 메를 둘러메군 쥐여박는다.

《옳소다. … 옳소. …기끈…기끈…해…보자구. …보자구. …》 하고 권치돌은 더 세차게 메질을 한다.

여러 직장들중에서 현재 가장 복구가 빠르게 수습되기는 제3호 직장이였다. 그 직장은 비교적 폭격이 심하지 않은탓도 있었으나 다른데보단 규모가 작고 소화작업도 잘된데다 보수작업도 빨라서 이제 뽐프시설만 해박으면 제창 생산까지 낼수 있는 형편이였다. 그래 지금 제3호직장 동무들은 8.15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자기들의 년간계획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들 기염을 올리고있다.

오종 불고난 뒤다. 제1호직장동무들은 졸연간 환성을 올리며 문간으로 물밀듯 뛰여나왔다.

그것은 녀맹복구대가 응원작업을 들어온때문이였다.

윤봉수와 권치돌이도 드바삐 일손을 놓군 뻔질나게 나가보았다.

본즉 정말 맨 녀성들로만 뭉친 대부대가 동켠출입문께로 쩌렁쩌렁 노래를 부르며 들어오고있다. 무려 4백～5백명은 될상싶었다. 모두가 덧바지들을 가뜬히 졸라매입고 머리엔 흰 수건들을 썼다. 그리고 군대처럼 어깨마다에 삽장들을 둘러메였는데 그 날들이 해광에 번쩍번쩍 빛을 내뿜는다.

《자, 굉장하구마!》

《여보, 공장안이 환하우다!》

윤봉수와 권치돌은 반가운 얼굴을 마주대고 벙글벙글 웃는다. 그러면서도 둘은 서로 눈에다 심지를 점점 돋구며 그 대렬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두리번거렸다.

원쑤들의 침략폭탄 사나웁게 비발쳐도
사랑하는 나의 도시 나와 함께 있으리
자유와 평화위해 건설로써 이겨온
청춘의 우리 고향 영원토록 자랑하자
용감하고 강의한 나의 도시 동무들아
영웅공도 사수하며 나아가자 앞으로!

우렁한 복구건설대의 노래소리는 공장구내를 떠들썩하게 울린다. 대렬꼬리는 아직 출입문밖 세줄울타리 뒤길에서 들어오지 못했다. 선두사람들은 제1호직장의 굴뚝어구에까지 와서 북쪽으로 굽는데 아마 제4호직장쪽으로 가는가보다.

윤봉수와 권치돌은 연신 목을 기웃기웃 추켜세우며 열심히 자기 안

해를 살피기에 바빴다. 한데 그 얼마후 권치돌이가 먼저 《동갑! 저기로군, 저기. …》 하고 윤봉수의 손을 덥석 잡았다.

《어데야, 어데?…》

윤봉수는 여직껏 찾지 못해 저켠손으로 권치돌의 어깨를 꾹 내려짚고는 한결 목을 뽑아세운다.

《저—게, 중간쯤 보라구. … 자, 내 손 가는데만 보오.》

권치돌이가 손길을 장대처럼 내뻗치는 방향을 윤봉수는 고개질을 하며 바라보았다. 그러자 다음순간 그는 마침내 발견했다. 그들 안해는 학교아이들처럼 나란히 서서 밥보자기를 한쪽손에다 내려드리우고 제법 활개까지 치며 척척 걸어오고있었다.

《옳구려, 챙겨놓니까 둘다 희한 멋들어졌는걸! 허허허…》

윤봉수는 막 기뻐서 권치돌의 잔등판을 커다란 손으로 넙적 갈겨답새기고 곤드라지게 껄껄 웃는것이였다.

1950. 10.

고향의 아들

천 세 봉

장마가 멎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였다. 하늘에서는 쟁쟁한 해별이 내려쪼이고 땅에서는 후끈후끈 더운 김이 서려오른다. 나무잎사귀와 풀포기들은 모두 케케 먼지를 쓴채 기운없이 휘늘어져있다. 오늘은 웬일인지 어데서도 포소리는 들리지 않고 전장판은 기이할만큼 고요하다. 눈앞의 산봉우리들이 호수같이 맑은 하늘을 떠이고 폭양에 깜박 취해 잠이 든것 같은 순간이였다.

《흥, 오늘은 이상하게도 양캐들이 한마디두 짖지 않는구나. …》

아까부터 전호옆 바위밭에서 시적시적 총신을 닦고있던 박동구가 널직한 가둑잎으로 얼굴을 활활 부치며 힐끗 전호쪽을 돌아보았다. 동무들은 이런 정적을 타서 잠이 든 모양으로 전호속도 고요한데 그 웃턱 나무가지에는 산새 한마리가 날아와 날카로운 주둥이를 갸우뚱거리며 이따금씩 지절거린다.

전호속에서 잠든 동무들의 코고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간혹 있는 전투여가의 꿀같은 휴식이다. 그중에서도 아직 어린 리창배의 얼굴에는 별이 쪼여 땀이 수굴수굴 내돋았다. 창배가 스스로 복점이라고 하며 가끔 만져보는 귀젖이 꽈리같이 붉게 익어 매달려있다. 박동구는 그것을 바라보고 빙그레 웃다가 나무가지를 꺾어 그옆에 꽂아 음달을 만들어주었다.

이 박동구의 분대가 여기 온것은 이틀전 밤중이였다. 그들은 오자마자 두차례의 격전을 치렀다.

요새 와서 놈들은 하루에도 몇차례씩 저희놈들의 피와 고기덩이우에다 또 새 피와 고기덩이를 덧덮고 패주하는 결과밖에 못 얻는 공격을 무시로 감행해오고있었다.

이날 박동구분대의 전사들은 산밑으로 내려가 적의 측면으로 육박하여 놈들의 땅크를 까부시였다. 리창배는 다람쥐같이 땅크로 기여올라가 그속에 불을 처박았다. 그는 벌써 이러한 기습작전에서 같은 방법으로 땅크를 넉대나 불붙이였다. 그는 《땅크사자》라고 부를만

큼 유명해졌다.

이날 전투가 끝나서 대오로 돌아왔을 때 창배는 이번전투에서 적진에 돌입하여 사면팔방으로 자동총을 휘둘러댄 박동구의 용감성을 오히려 찬양해주었다.

《허허허, 아무렴 싸움능수인 창배동무만치 싸웠을라구. …》

《천만에요. 싸움능수가 다 뭐요. 난 언제든지 분대장동무의 용감성에 탄복해요.》

창배는 어린 아이 같다. 창배의 나이 열아홉이고 박동구가 서른하나니까 십여년이나 차이가 있다. 더구나 학교에서 연필을 놓고나온 민출한 창배의 손에 비해서 농사일에 잔뼈가 굵은 박동구의 매듭진 손가락이며 아직도 애티가 있어 불그레한 창배의 뺨에 비해서 박동구의 불끈 솟은 관골이며가 싸움능수라고 해도 실상 과언은 아닐게다.

바로 이 격전이 있던 날 밤 중대지휘처에서 련락이 왔다. 해뜨기 전으로 2키로메터 남쪽릉선첨단까지 이동하여 그곳을 사수하라는 명령이였다.

박동구는 지휘처의 명령을 충분히 리해할수 있었다. 이처럼 방어전면에 소수병력을 분산매복시키는것은 제2계선에 보유한 병력으로 놈들이 일정한 계선에까지 침입했을 때 결정적섬멸을 주자는 이를테면 큰 싸움의 전초선이다.

박동구는 즉시 대원들을 지휘해가지고 행동을 개시했다.

달은 이미 산마루를 넘어가고 릉선아래에는 침울한 새벽공기가 꽉 찼다. 전사들은 이끼푸른 바위들을 끌어안고 에돌며 쫑이 팬 억새밭과 군화가 버썩버썩 빠져들어가는 락엽 썩은 웅뎅이를 지났다. 가끔 삭정이가 군복자락을 끌어당기다간 튕기며 부러졌다.

목적지에 이른것은 멀리 작은 련봉들너머로 바다와 하늘의 계선이 뚜렷해지며 불을 머금은듯 은은히 붉어올 때였다.

《아, 바다가 뵈는구나. 동해가…》

창배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앞을 내다보았다. 그는 문득 고향생각이 났다. 신포바다가의 맑은 파도가 쏴아 눈앞으로 부서지며 지나간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인다. 그러나 그 그립던 얼굴이 피에 젖어 몰라볼만큼 이그러진 얼굴로 변해버린다. 집을 부시고 누이와 동생을 죽인 그 악마가 지금 또 함포를 싣고 연기를 뿜으며 저 바다로 나타날것 같이 생각되였다.

이가 갈리는 기억이였다. 집과 가족이 없어진 다음날은 산밑에 있는 벽돌집학교가 폭탄에 부서지고 불붙어버렸다. 너무나 놀랍고 지독스런 현실앞에서 온 세상이 노랗게 변해보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두서를 잡지 못하여 미칠듯이 바다가 모래불을 밤새 거닐던 일…

《개새끼들, 어디 보자. 원통 파기그릇같이 만들었지만 될줄 아니…》

그때로부터 놈들에 대한 원한은 가슴속에서 영영 풀리지 않았다.

태양이 떠오른다. 붉은 노을은 동편하늘을 찬란히 덮었고 바다는 금싸락같은 파도로 너울너울 약동한다. 전호 팔 위치를 살피던 전사들은 홀린듯 멀리 앞을 바라보았다. 골짜기마다 깃들었던 깊은 어둠이 밀려나가고 산줄기들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어데서 날아왔는지 흰두루미 한쌍이 바다가 푸른 산야로 너울너울 날아가고있다.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산천이냐! 어느 놈이 이런 산천에 불을 지르고 인민들을 못살게 구느냐!

전사들의 가슴속엔 모두 이런 생각이 저절로 찌르르 스며들었다. 그리고 이 강산을 지키는것은 우리라는 커다란 자부심과 기쁨으로 가슴이 저절로 넓어졌다.

박동구는 산밑으로 작은 개울과 작은 길이 바줄처럼 서로 얽히며 풀리며 빠져나간 깊은 협곡을 내려다보고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길은 개울과 길끝이 숨어버린 소잔등같이 부풀어오른 등성이들을 몇개 지나 안개가 자욱한 골짜기를 바라보았다. 박동구는 가슴이 울렁거림을 느꼈다.

《분대장동무, 뭘 그렇게 봅니까. 고향이 그쯤 어데 있습니까?》

《아니요.》

박동구는 머리를 흔들고 그 표나는 덧이를 보이며 벌씬 웃을뿐이였다.

《항공!》

저만치 서있던 키다리 신동무의 다급한 목소리다. 그들은 언제 전호를 굴설할새도 없었다. 아쉬운대로 바위틈새기나 언덕밑에 매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쌕쌔기 두대가 상어의 주둥아리같은 삐죽한 기수로 산코숭일 받아넘길듯 스쳐간다. 막 바스러지는 쇠소리에 박동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오늘은 놈들이 일찍부터 시작이구나.》

창배는 버릇처럼 총신을 시적시적 어루만졌다. 그것은 그대로 자기 신체의 일부분같이 소중한것이다.

비행기는 몇번 산정을 스치며 선회했다. 그리고 놈들은 이 일대의 고지들을 향하여 불아가리를 벌리였다. 기관총이며 기관포를 몇방 갈기다가 그담엔 본격적으로 발광이 났다. 릉선일대가 흔들흔들 진동했다. 놈들은 불달은 휘발유통과 폭탄과 류산탄까지 뒤섞어뿌리며 악착스럽게 덤벼든다.

형세는 다급해졌다. 전사들은 짙어가는 연기속에 들게 되였다. 후끈후끈한 불김이 점점 가까이 왔다.

《따앙ㅡ》

산이 무너지는듯 한 소리가 났다. 지척에서다. 창배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들었다. 십여메터앞 언덕아래의 나무가 휩쓰러진 곳으로 누가 굴러내리는것이 펀뜩 보인다. 그러나 금시 몽몽한 연기가 몰려와 그담은 보이지 않았다. 누가 또 희생됐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창배의 머리를 휙 스친다.

얼마후였다.

날카로운 기관소리가 머리우에서 사라지고 포연이 걷히며 광활한 대지가 드러났다. 전사들은 금방 땅에서 솟아나듯 불쑥불쑥 기여나왔다. 창배는 재빨리 언덕아래로 뛰여내려갔다. 흙이 뒤덮인 속에서 누가 비척비척 일어나고있었기때문이다. 의외에도 그는 박동구였다. 박동구는 그 커다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척비척 발걸음을 옮기더니 곁에 서있는 자작나무를 꽉 붙안고 선다. 군모가 벗겨져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엔 흙이 들씌워있었다.

《아니, 분대장동무. 어떻게 됐습니까?》

《괜찮소. 하ㅡ 그 개자식들…》

창배는 박동구의 군복을 털어주었다. 그동안 모여온 전사들은 흙속에서 박동구의 군모와 자동총을 파내왔다.

얼마후에야 박동구는 파편이 제 왼쪽다리를 뚫은것을 알았다. 그는 털끝이 뿌죽뿌죽 내민 커다란 코구멍으로 황소같이 씩 숨쉬며 창배가 다리에 붕대감는것을 물끄러미 보고있었다. 붕대를 다 감자 그는 아직 떨리는 손으로 동무들의 어깨를 껴잡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마치 다리의 힘을 시험해보듯이 땅을 죽신죽신 밟아본다.

창호리방면으로부터 공격하던 놈들의 주력이 저편고지를 우회하

여 이편으로 이동하였으므로 이쪽릉선의 첨단인 이 진지가 놈들의 제1목표로 된셈이였다. 놈들은 창호리쪽보다 이편으로 오는것이 지형조건으로 보아 훨씬 유리했다. 이번의 발광적공습은 놈들이 시도하는 본격적공격의 전초전인 모양이다.

과연 그랬다. 이날 놈들은 세번씩이나 공격해왔다. 그러나 놈들은 번번이 우리의 수류탄과 자동총의 세례를 받고 긴 몸뚱이들을 산비탈에 딩굴리며 피를 흘리고 패주했다. 놈들의 모양은 하잘것없이 추악한 동물의 떼무리그대로였다. 아무런 긍지도 없는 놈들은 오직 저만 살겠다는 욕심으로 서로 떠밀치며 짓밟으며 달아났다.

이날 고지를 지켜싸운 우리 용사들의 뛰는 가슴이 아직도 가라앉기전이다. 고지엔 중대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오늘 동무들의 전투성과를 높이 평가하오. 이 전투결과로 우리 부대의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할수 있게 되였소. 그런데 동무들은 이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좀더 어려운 전투를 해야 하겠소.》

묵중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중대장은 한층 더 근엄한 얼굴빛으로 전사들을 돌아보았다.

《지금 우리 부대앞에는 전략상요충인 매봉고지를 시급히 빼앗아야 할 임무가 제기되였소. 이 전투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고지후면 파운동쪽으로 진출해야 할 습격조가 필요하게 되였소.》

중대장의 말이 떨어지자 오늘 전투에서 더욱 날카로와진듯 한 박동구의 깊숙한 눈이 형형히 빛났다.

《중대장동무, 그 임무를 저에게 주십시오.》

《…》

중대장은 잠간 말이 없었다.

《제가 꼭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가만있소. 박동무는 당분간 상처를 치료해야 할것이요.》

《아니, 이 상처는 전투에 아무 지장이 안됩니다.》

《동무, 이건 어려운 전투요.》

《글쎄 어떠한 전투라도 자신있습니다.》

박동구는 자기의 주장을 강경히 세우며 한마디도 양보하지 않았다.

《동무가 가지는 용감성은 좋소. 그러나 전투는 용감성만으로는 보장되지 않소.》

《저 역시 그건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아니까 제가 가겠다는것입니

다.》
《그렇소?》
이윽히 박동구를 눈주어보던 중대장은 박동구의 요구를 꺾지 않았다. 드디여 박동구를 조장으로 한 여섯명의 습격조는 중대한 전투명령을 받았다.

×

파운동!
그 지명만으로도 박동구는 사뭇 가슴이 뛰였다. 높고낮은 고개길이며 작은 개울과 언덕들이 손금처럼 눈앞에 떠오른다. 그것은 한밤중에도 휑한 지형이였다.
파운동, 이곳은 박동구의 고향이다.
(어떻게 됐는가?)
일년만의 고향… 그동안 어려운 시기가 지나갔다. 어떤 기적이 있어 고향에 사람과 생활이 그대로 있으리라고 상상할수 없으니만큼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총자루를 단단히 틀어쥐고 들어가야 할 고향길이기도 했다.
대렬선두에서 오솔길을 걸어가는 박동구는 가끔 커다란 몸을 지축거리며 다리를 절었다. 상처가 몹시 아프기때문이였다.
《분대장동무, 아프오?》
《아니요, 괜찮소!》
몸에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이 전투만은 자기가 꼭 참가하지 않고는 안될것 같았다.
전사들은 은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길없는 협곡과 산림속을 걸어야 했다.
박동구는 다리를 절면서도 험한 바위틈과 깊은 웅뎅이를 날쌔게 뛰여넘으며 빠져나갔다.
《동무들, 이제부터는 적구요. 주의를 하시오.》
펑퍼짐한 산줄기가 좌우로 갈라진 지점에 이르자 박동구는 전사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리고는 잠간 앞을 살펴본 뒤에 이번엔 좀더 깊고 험준한 곬을 택해 걸었다. 전사들은 땀발이 섰다. 그들은 물소리가 들리는 골짜기경사지로 나갔다. 산딸기의 덩굴이 군복가랭이

를 으득으득 물어뜯는다. 힘든 길이다. 창배는 어둠속에서도 손더듬으로 툭툭 터지게 무르익은 산딸기를 입에 따넣어가며 전진했다.

《분대장동무, 목마른데 딸기 좀 따먹을가요?》

누구인가 작은 소리로 간청했다. 박동구는 잠간 생각하고는 《그러우, 허나 딱 5분동안만…》하고 허락했다. 박동구는 자기도 딸기를 따먹었다. 산딸기를 따먹는 전사들은 모두 고향생각과 어릴 때 생각을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고향 어느 산기슭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산딸기가 빨갛게 무르익고있다는 자랑을 하고싶었다.

이따금 들리던 놈들의 포성도 멎었다. 어느새 매봉앞의 고지인 월봉도 한키로메터가량 거리를 두고 지나쳤다. 전진하는 박동구의 눈앞에는 고향앞의 매봉이 가까이에 둥실 떠올랐다. 반가왔다. 그러나 그는 몇번인가 자기네 앞을 중얼대며 지나가는 양키놈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숨을 죽이고 놓아보내야 했다.

그들이 어느 락엽송밭에 이른것은 거의 동틀무렵이였다. 락엽송 새새엔 군데군데 쭝이 팬 억새와 싸리가 무더기를 이루었다. 그들은 이 속에 숨어서 앞을 내다볼수 있었다. 부득이 여기서 밤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여기서 바라보는 매봉은 매가 아니라 흡사 곰같이 둔하게 앉아있다. 올려다보이는 오갈피와 가둑나무들이 들어선 봉우리 이마전에서 놈들의 중얼대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어데다 대고 갈기는건지 다시 포문을 열고 쾅쾅 쏘아댄다.

매봉은 거의 2키로메터를 사이에 두고 우리 고지와 대치해있으며 두사이의 작은 고지 월봉에도 놈들의 방어화점이 있다. 이 두개의 봉우리는 창호리와 ×시로 뻗은 교통로를 장악하는데 유리한 방어선으로 되였다. 박동구의 습격조는 이 고지들의 뒤목에 깊숙이 들어온것이였다.

여기서 스무나무며 백양나무가 서있는 축동만 보이고 마을은 보이지 않았다. 백양나무에 까치둥지가 보이고 나무 웃초리에 까치 두마리가 앉아 꽁지를 들먹이며 짖는것까지 알아볼만큼 가까왔다. 박동구는 문득 그 축동에서 싱아를 꺾어먹었고 딱따구리구멍을 들추던 일이 동심그대로 떠올랐다. 어느해 여름이였다. 구렝이 한놈이 까치둥지로 기여들어가는것을 보고 꼬마들이 장대를 가지고 발돋움을 해서 어린까치 다섯마리를 구원해주었다. 이렇게 어릴적 지낸 일이 동화의 세

계처럼 머리속에 선히 떠올랐다.

사람들이 제초기를 메거나 소를 몰고나와야 할 동구길로 양키 다섯놈이 나오고있다. 미군장교놈이 분명하다. 놈들은 무척 호기있게 떠들며 고지로 올라가고있다. 박동구는 불시에 가슴속에서 무엇이 울뚝 치밀어올랐다.

더위는 오늘 더 지글지글 끓이듯이 심했다. 은폐해있는 전사들의 얼굴에는 저절로 땀이 흘러내렸다.

박동구는 가끔 쑤시는 다리를 들썩들썩 움직이였다. 번디디고온 여독인 모양으로 상처가 몹시 저리고 쑤셨다. 그는 이것이 어떤 지장을 주지 않을가 근심되기도 했다.

《아무래도 파편이 그냥 들어있는 모양인걸…》

박동구는 붕대를 풀고 상처를 들여다보았다. 장딴지가 시뻘겋게 퉁퉁 부었다.

《신동무, 나 칼 좀 주오.》

《칼은 왜요?》

《수술 좀 해야겠소.》

《아니, 수술하다니? 끔찍한 소릴 하는군.》

《허허, 괜찮소. 여기 알콜두 좀 있으니까!》

박동구는 신동무가 내주는 로획한 미국제단도를 커다란 손에 받아들었다. 뒤에 앉은 창배는 벌써부터 이마살을 찡그렸다. 박동구는 넓다란 등판에 웅크리고앉아 잠간 숨을 죽이더니 칼끝이 깊은 곳을 건드린 모양으로 우쭐 떨었다.

《관둬요, 글쎄…》

《…》

얼마후 박동구는 칼끝에 쇠쪼각이 맞힌다고 하면서 자세를 고쳐앉았다. 박동구는 이따금 상처에 댔던 칼끝을 멈추었다. 지독스런 아픔때문에 가끔 얼굴이 이그러졌다. 그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그가 어떤 무모한짓을 하고 앉아있는것 같아 전사들은 모두 미간을 찡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쌌다.

이윽고 박동구는 상처에서 피묻은 쇠쪼각 하나를 꺼내 풀밭에 내던졌다. 그리고 커다란 솜뭉치에다 알콜을 추겨 파편구멍에다 쑤셔넣고는 붕대를 감았다. 이제야 숨이 나오는듯 박동구는 담배 한대를 피워물었다. 담배를 끼여든 굵은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파운동에서 매봉쪽으로 온종일 놈들의 왕래가 빈번했다. 저녁때 파운동뒤 강 저편으로 자동차 십여대와 땅크 석대가 질주해오더니 그 승냥이울음소리같은 소리들이 다리를 건너 파운동까지 와서 멎었다. 어제 좌절된 공세를 만회하려고 창호리쪽에서 실어오는 보충병력임에 틀림없다. 하루동안 놈들의 동정으로 보아 적의 지휘처가 고지뒤 어느 골짜기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파운동근방에 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습격조의 첫 목표는 놈들의 지휘처였다.

×

매봉 웃하늘이 낮아지더니 그날 밤부터는 불시에 비가 내렸다. 박동구습격조원들은 비오는 어둠을 뚫고 행동을 개시해야 했다. 그들은 파운동을 바른편에 끼고 젖은 풀잎이 휘감기는 산등성이를 타고 걸었다. 미끄러워 가끔 풀포기를 그러쥐여야 했다.

박동구는 여전히 다리를 절었다. 그는 온몸에 열이 오르며 지긋지긋 뼈가 쑤시는것을 느끼였다. 그러나 그는 거인처럼 앞장을 서서 비발에 휘늘어진 풀과 나무를 헤치며 걸어나가고있다. 그는 가끔 아래를 내려다보고 섰다. 파운동은 륜곽만 어렴풋할뿐 불빛 하나 없고 어둠과 비소리에 푹 잠겨있다.

(웬일일가? 놈들이 들어있으면 불빛이 보일텐데…)

박동구는 여러곳 위치를 바꿔서서 살펴보았다. 얼마후 박동구는 애솔밭 변죽을 돌아나가는 오솔길에 나섰다. 걸음이 한결 가뿐가뿐해졌다. 길은 예대로 산을 에돌고 시내를 건넜다. 박동구는 이 길이 곧장 동네로 들어가는 길이며 그리고 지금 자기자신이 이 길을 걸어 고향으로 들어가고있다는것을 걸음마다 느끼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반가운 고향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쁘지 않았다. 동네가 놈들의 손에 이미 무서운 참화를 입었으리라는 생각에 고향모습을 그대로 볼수 없는것이다.

앞에서 걸어가던 박동구는 별안간 멈칫 서버렸다. 낯선 곳에 들어선것처럼 눈앞의 지형이 전혀 생소해진때문이였다. 집이 있어야 할 곳에 괴상한것이 우뚝우뚝 서있지 않는가!

그것이 파괴된 집터에 무성한 쑥과 댑싸리무더기란것은 좀해 생각나지 않았던것이다.

《분대장동무, 뭐가 있습니까?》
창배가 속삭였다.
《아니요.》
풀이 휘여져 길을 덮었다. 그것이 척근히 종아리에 휘감겼다. 박동구는 길을 잃어버리고 몇개의 집터를 넘었다. 벽토덩어리가 아직 속이 개풀리지 않고 구두코에 걸리여 덜그럭덜그럭 일어났다.
전사들은 가끔 물이 흥건한 웅뎅이에 빠지군 했다. 그것은 부엌이나 퇴비장자리였다.
《개놈들이 이 동네두 폐허로 만들었구나!》
한 전사가 이렇게 중얼댔다. 그들은 이것이 박동구의 고향이라는것을 알리 없었다.
얼마후 박동구는 엄나무 한그루 서있는 동마루에 올라섰다. 다섯사람이 한쪽에 모여앉아도 저쪽에서 알아보지 못할만큼 몇 아름드리고목이다. 이 나무밑에선 비발이 휘뿌리지 않고 바람소리만 요란히 들렸다.
박동구는 시적시적 나무밑으로 다가갔다. 젖은 나무밑둥을 만져보았다. 무성한 잎사귀가 큰 진동을 일으키는것 같이 우수수 떨렸다.
박동구의 뺨에는 굵은 물방울이 나무꽉뒤에서 떨어졌다.
그들은 부득이 비오는 밤을 또 밝혀야 했다. 군복이 푹 젖었다. 참으로 어려운 밤이였다.
그들은 마을에서 떨어져있는 상여도가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서로 부둥키고 몸을 녹였다. 박동구는 활활 피는 장작불이 그리울만큼 온몸이 덜덜 떨리였다.
새벽녘이 되자 그의 몸은 불덩이같이 열이 오르고 가끔 《어머니.》하고 헛소리를 하였다. 전사들은 그를 근심스러이 지켰다. 창배는 무르팍에 박동구의 머리를 놓고 손을 번갈아 식혀가며 이마를 짚었다. 이마전이 펄떡펄떡 뛰였다. 전사들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박동구를 위해서 훈훈한 방이 그리웠다.
《젠장, 따끈한 물이라도 있었으면 좀 마시게 하련만…》
신동무가 퍽 적적한 음성으로 말했다.
《뭣들 그러우? 동무들, 내 걱정이요?》
박동구는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눈은 충혈이 되여 이글이글 타는듯했다.

《분대장동무, 이거 야단 아니요. 괜히 상처에 칼질을 하더니 파상이 일었나보군요.》

《괜찮소. 그런데 날이 거의 밝을 때가 됐지?》

그는 한손으로 동무들의 무르팍을 짚으며 벌떡 일어나앉는다.

《분대장동무, 무리하면 안돼요.》

《글쎄 념려들 마우. 담배 한대 피웠으면 좋겠소.》

박동구는 가랑잎처럼 마른 입술에 빙긋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전우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머니들만 만져보았다.

박동구는 또 여전히 전사들을 지휘해가지고 날이 밝을무렵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둘씩 조를 지어 박동구가 지정해주는 위치로 가서 매복했다. 그것은 적을 손바닥같이 앞에 놓은 위치였다. 이제 그들의 눈은 탐조등같이 놈들의 동정을 살피게 되였다.

박동구와 창배가 매복한 곳은 어느 언덕우의 집터였다. 여기서는 놈들이 들어있는 일경이 지척에 내려다뵈였다. 그들은 타다남은 썩새낟가리속에 깊숙이 들어박혔다. 허전히 넓은 터전에는 댑싸리와 생당쑥이 자라고 마당끝에는 늙은 배나무가 한그루 서있다. 이따금 바람소리와 비소리가 휩쓸어 페허엔 황량한 기운이 히잉 돌았다.

《집이란 집은 모조리 쑥밭을 만들었군.》

창배가 썩새속에서 눈만 내놓고 앉아 중얼댔다. 여기가 박동구네 고향인줄 모르는 창배는 이게 바로 박동구네 집터인줄도 알리 없었다.

토지개혁 이듬해 박동구네 가솔이 기쁨으로 흙과 돌을 나르고 나무를 다듬어 지었던 열간짜리 큰 집이 지금은 간 곳이 없다. 새로 지은 외양간에는 큰 암소 두마리가 있었고 돼지우리에는 두부물자루같이 젖통이 늘어진 돼지가 새끼를 끼고 누웠었다. 무럭무럭 펴가고 행복하던 살림이 지금은 흔적도 남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분한 일이였다. 평화시기의 박동구는 농맹위원장으로 열렬한 일군이였다. 마을사람들의 억센 힘을 조직하여 10리밖에서 수로를 끌어 동네앞벌에 논을 풀었다. 파운동앞벌에 로력의 열매가 물결을 쳤다. 가을이면 농악소리가 울리고 현물세와 애국미달구지가 고개길을 넘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조국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자기 주권에 대한 고마움과 충실성으로 그득했다.

모두다 어데로 가고 없는가?

박동구는 맘이 어두웠다. 그러다가 곧 맘은 야멸차게 변해졌다. 어디에서든지 마을사람들은 싸우고있을것이다. 그들은 온몸에 상처를 입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불사신같이 살아 더욱 억센 투쟁을 하고있을것이다. 그렇다. 그들이 어려운 곤경에 빠졌을 때라도 잃어버린것과 사랑하는것을 위하여 승리하겠다는 참되고 굳은 마음은 그들을 소중히 붙들어줄것이다.

얼마후 박동구는 주위를 살피며 들로 기여나왔다. 구들골자리에 물이 층층 깊고 소눈깔같은 물방울이 뜸북뜸북 삐여져오른다. 가끔 그곳으로 개구리가 출러덩 뛰여들군 한다. 금방 담배대를 문 아버지가 배추밭을 뚜지는 돼지새끼들을 《이놈, 이놈.》소리쳐몰며 걸어올듯 한 작은 길이 터전밖으로 꼬부라져나갔다. 박동구는 그 길로 돌아가 박우물에 엎디여 찬물을 벌떡벌떡 마시였다. 귀밑이 이글이글 달은 박동구는 물이 당기는대로 마시고나서 돌을 짚은채 우물속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자기로서도 알아볼수 없도록 관자노리가 불깃불깃한 시뻘건 사나이를 발견했다.

《흥, 1년동안에 무척 변했구나. …》

박동구는 한손으로 수염이 뿌죽뿌죽 내민 턱을 쓸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

놈들의 지휘처가 어디 있고 파운동에 있는 놈들의 병력이 얼마나 된다는것에 대하여 세조의 정찰보고가 일치했다. 전사들은 몇개씩 남아있는 건빵으로 간신히 식사를 마쳤다. 박동구는 건빵대신에 랭수 한 물통만 마셨다.

《동무들, 어떻소? 오늘밤전투에 대한 자신이 있소?》

박동구는 세조에 전투임무를 분공해놓고나서 전사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분대장동무, 자신만만합니다.》

전사들은 여전히 사기가 높았다.

《조국과 인민앞에서 또 한번 굳은 맹세를 합시다. 중대부에서 받은 그것보다 전투범위가 훨씬 넓어졌소. 그만치 어렵다는걸 각오들 합시다.》

그들의 오늘밤목표는 적지휘처뿐만아니라 파운동에 들어있는 놈들을 모조리 소탕하려는것이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코를 떼가도 모를만큼 어두웠다. 분조의 인원배치가 바뀌여 박동구는 신동무와 함께 적지휘처로 육박했다.

《신동무, 저기 방아간머리에 뭐가 뵈지 않소?》

《뵈지 않는데요?》

《좀더 나갑시다.》

그들은 놈들의 천막을 10여메터옆에 두고 방아간머리에 왔다. 그들은 같은 길로 한놈이 저벅저벅 걸어오는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재빨리 방아간속으로 숨어버렸다. 놈이 그대로 지나가버릴줄 안것이 성큼 방아간안으로 들어선다. 후끈 술냄새가 풍겼다. 놈은 들어오는 길로 방아다리에 총대를 철컥 세우고 푹신한 짚자리에 쿵 앉는다. 박동구는 그제야 이게 보초라는걸 깨달았다.

놈은 벌떡 눕더니 흥얼흥얼 코노래를 불렀다. 그 찰나였다. 억대우같은 박동구의 억센 손아귀가 놈의 모가지를 틀어잡았다. 놈은 숨구멍이 막혀 헐떡거리며 무기를 찾느라고 손을 허우적였다. 놈의 기다란 팔죽지가 또 신동무의 손에 잡혔다. 박동구는 바싹 틀어잡아 놈의 대갈통을 땅바닥에 짓뭉갰다. 놈의 총대같은 종아리가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더니 배허벅을 틀며 겨우 뽑아낸 한손으로 땅바닥을 빡빡 할퀴였다.

방아간속은 또 여전히 조용해졌다.

《자아, 신동무. 심호흡을 하오. 그래야 침착해지오.》

박동구는 적지휘처의 불빛을 앞에 놓고 진정하지 못하는 신동무의 손을 꾹 잡아주었다. 불같이 더운 손이였다.

박동구는 뽕나무밭이 있는 곳으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얼른 지나가는것을 보았다. 전사들이 매복선에 모두 당도한것이라고 생각하며 박동구는 마지막준비를 갖추었다.

놈들의 지휘처는 파괴되다 남은 학교교실이였다. 교실속에서는 녀자의 음탕한 웃음소리와 사내놈들의 말소리가 뒤섞여 두서없이 들려왔다. 바로 박동구편으로 있는 문이 찌궁 열리더니 세놈이 나와서 어두운 마당에 대고 소변을 갈긴다. 그중의 한놈이 노래를 부르자 다른 두놈도 따라서 부른다.

그때였다.

적지휘처에는 급기야 벼락이 떨어졌다. 박동구의 전투개시를 신호하는 수류탄이 씽 날아들어가 커다란 번개를 일구며 작렬했다. 근방이 어마어마하게 울렸다. 교실속엔 불빛이 꺼지고 놈들의 아우성이 일어났다.

쾅쾅, 쾅쾅쾅…

옆과 앞뒤로 숨쉴 사이없이 수류탄이 날아들어갔다. 놈들은 앞을 다투어 문통이 터지게 내밀린다. 누가 던진 수류탄이 바로 그쪽을 명중했다. 푸른 불빛이 휘끈 튀자 문설주와 기둥이 부러지고 추녀가 와르르 내려앉았다. 돼지멱따는듯 한 비명이 어지럽게 일어났다. 위급한 속을 빠져나온 몇놈이 마당가운델 갈팡질팡하며 헛불질을 했다. 그러나 그런 놈들은 우리의 따발총세례를 받고 쓰러졌다. 우리 전사들은 진흙에 딩굴며 기여 빠지려는 놈들의 대갈통을 구두발과 총탁으로 짓조기며 내달았다.

이렇게 지휘처를 박멸하는 전투는 끝났으나 그들에겐 숨돌릴 사이없이 또 어려운 전투가 닥쳐왔다.

파운동에 들어있는 놈들의 병력이 삽시간에 이리로 집결해온것이다. 우리 전사들이 빠져서 다음전투태세를 갖추기 전에 놈들이 벌써 포위한것이였다.

《자, 동무들. 내가 바른편으로 나가며 놈들을 유인할테니 그동안 동무들은 저편으로 육박해서 포위망을 뚫고 저편뽕나무밭으로 나가시오.》

박동구의 지시였다.

그러나 《안됩니다. 제가 바른편으로 갈테니 분대장동무가 전투를 지휘해야 합니다.》창배가 이렇게 강경히 반대했다. 벌써 교정앞 웅뎅이에는 집결한 놈들의 숨소리가 들릴 지경이였다. 어느덧 창배는 저편으로 기여가고있었다. 놈들은 화력을 집중하며 연해 무어라고 고함을 지른다. 아마 손을 들고 투항해오라는 수작인것 같다. 이것을 본 박동구는 언덕으로 기여오르기 시작했다. 거센 바다바람이 비를 몰아 휘갈기는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질벅거리는 땅바닥으로 기여갔다.

놈들의 사격은 쏟아지는 비발그대로였다. 어둠가운데서 불꽃이 작렬하고 이따금 요란한 폭음소리가 나며 불기둥이 솟아오르군 한다. 그 일대의 나무며 언덕들이 괴상스런 형상으로 번뜩번뜩 나타나고 풀

포기가 떨었다.

창배가 기여간쪽에서 폭음이 련발했다. 박동구는 벌떡 몸을 일으키였다. 언덕우로 대여섯놈이 다가들고있다. 정면으로 내닫는 박동구의 총창은 연해 두놈의 배허벅을 내질렀다. 놈들은 상체를 거꾸로 박으며 논창으로 떨어져들어간다. 좌우에서 동무들의 함성이 일어난다.

비와 암흑과 함성, 총소리, 불빛, 그런것들이 안고 뒤치는 순간이다.

얼마뒤였다.

창배는 자기가 목적한 지점을 향해 달려가다가 길바닥에서 꿈지럭대는 검은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이 의외에도 박동구인데 놀랐다.

《분대장동무, 어찌된 일입니까?》

《가만있소. 맞바루 숨통엔 명중되지 않았소.》

커다란 손이 후들후들하며 창배의 군복자락을 걷잡아쥐며 일어서려고 했다. 이런 때 졸지에 놈들의 자동차가 여기저기서 발동했다. 이 소리에 박동구는 창배의 종아리를 당황히 떠밀었다.

《동무, 빨리 가오. 놈들이 퇴각준비를 하고있소. 우리 계획대루 뒤강 다리쪽에서 놈들의 최후병력을 소탕해야 되오. 자, 빨리…》

박동구의 말소리는 비와 바람소리속에서 날카롭게 울렸다.

기관소리는 살려달라는 울음소리같이 다급스럽고 청승궂었다. 이 소리를 들은 놈들은 전투고 뭐고 집어던지고 빽소니를 쳐서 몰려간다. 자동차가 있는데선 승냥이같이 싸워대는 소리가 들렸다. 박동구는 놈들이 어느 길목으로 도망하리라는것을 알고있었다. 자동차있는데서 폭음이 들렸다. 몇개의 기관소리가 끊어져버렸다. 그때 자동차 몇대가 황황히 전조등을 번뜩이며 진탕을 휘뿌리면서 미친것 같이 달려간다. 미처 차에 기여오르지 못한 놈들이 악에 받친 고함을 치면서 뭉개놓은 진탕속으로 뛰고있다.

선참 도망해가던 자동차가 다리목에서 요란한 폭음을 일으키였다. 뒤에 차가 제 속력을 멈추지 못하고 마사진 앞의 차량을 냅다 받아넘기며 미끄러졌다. 앞섰던 차는 걷잡을새없이 높은 언덕에서 전복되여버렸다. 그바람에 뒤좇아가던 자동차들과 땅크는 머뭇머뭇 섰다.

이때였다.

맨뒤 땅크가 굴러간 길바닥으로 인민군대전사 하나가 기여가고있었다. 전사는 진탕속을 뭉개며 머뭇거리는 땅크가까이로 육박했다. 물론 이게 박동구라는것을 아는 사람은 있을리 없고 놈들은 더욱 이

처럼 무서운 위험물이 땅크의 배창밑으로 육박하고있다는것을 알 까닭이 없었다. 박동구는 풀포기를 틀어쥐고 맘대로 놀지 않는 하반신을 끌어갔다. 아무리 애를 썼으나 그 괘씸한 놈의 배창밑 어느 부분이고 손아귀에 틀어쥘수가 없다. 땅크는 자꾸 저만치에서 움직여가고있다. 그예 힘이 빠진 박동구는 불김같은 숨을 후우 내뿜으며 폭발물을 틀어쥔 주먹을 우들우들 떨었다. 다음순간 박동구는 수류탄의 안전못을 연해 두개 이발로 물어뜯으며 필사의 힘을 다해 부들부들 상반신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앞에 있는 돼지같은 쇠덩어리를 노려보았다.

《콰앙…》

창배는 뒤꽁무니의 땅크가 집채같은 불길에 싸이는것을 보았다. 앞뒤로 공격을 받은 놈들은 자동차를 타고 허둥지둥했다. 놈들은 길이 없는데로 마구 차량을 내몰다가 깊은 구렁에 기관부를 처박고 다시 솟구치지 못했다. 급한 때 타고 달아나면 그만이라고 민활스런 기동성을 뽐내던 온갖 기계화된 장비도 이런 곤경에선 어쩌는 재주가 없다. 놈들은 이제 다리갱이 두개의 기능밖에는 남지 않았다. 논바닥이며 밭고랑이며 지향을 잃어버린 놈들은 암흑과 비속을 허덕이며 도망치고있다.

습격조원들은 쥐잡이하듯 앞뒤로 웨치면서 육박하고있다.

이 숨막히는 싸움의 마지막찰나였다. 리창배는 그만 앞에 와 폭발하는 커다란 불길에 휩쓸리였다. 그는 졸지에 모든것을 잃어버린채 강가 웅뎅이에 늘어져 비를 맞고있었다.

얼마후 창배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엔 총소린 들리지 않고 주위가 호젓했다. 발밑에서 물소리가 들리고 하늘엔 구름이 엷어지고 창이 난 구름새로 별이 꿈같이 반짝이였다. 창배는 일어서자고 몸을 움직여보았다. 팔과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간신히 힘을 다해서 사위를 돌아보았다. 그는 손을 뻗쳐서 풀포기를 걷잡아당겼다. 모래와 자갈이 우실우실 무너져내렸다. 그것을 몇번 반복하던 창배는 또 기진맥진해졌다. 그는 깊은 잠에 떨어졌다.

이튿날 다시 창배가 눈을 뜬것은 매봉고지와 파운동일경이 우리 용사들의 수중에 장악된 뒤였다. 어제 밤 지휘처를 잃어버린 놈들은 고지를 버리고 도주하였고 오늘 아침 월봉고지를 점령한 우리 부대는 매봉고지와 이 일대에 전투없이 진출한것이였다.

창배는 굵직한 막대기 하나를 짚고 허전허전 강언덕으로 바라올랐

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같이 희고 다리가 떨리였다. 비멎은 하늘은 아스라하니 높고 푸른 봉우리들은 새로 돋아난것 같이 정갈하고 아름다왔다. 창배는 어릿어릿 현기증을 느끼였다. 아직 격동한것 같은 붉은 탕수가 씨근씨근 흘러가고 푸른 강언덕으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창배는 거기서 어제 밤 자기들의 어마어마한 전과를 바라볼수 있었다. 놈들이 타고온 자동차며 땅크가 논바닥웅뎅이며 무너진 언덕아래 혹은 부스러지고 혹은 불타고 해골이 된것들이 딩굴어있다. 어떤것은 기막힌 운명을 호소나 하듯 커다란 배때기를 하늘로 쳐들고 누웠다. 떨어져나간 바퀴와 쇠쪼각과 각이 들린 놈들의 고기덩이가 피가 고인 길바닥에 굴렀다. 찢겨진 군복이 뱀의 허울처럼 쑥대에 감기거나 풀밭에 널리였고 여기저기 목을 틀어박고 쓰러진 놈들 등어리로 벌써 쉬파리가 웅웅 날고있다.

떨리는 다리로 걸어가던 창배는 문득 이상한것을 보았다. 바로 길옆 웅뎅이에서 무엇인가 움직이고있는것이였다. 창배는 그리로 내려가보았다. 누군지 알아낼수 없었다. 온몸이 진흙에 딩굴고 머리는 밤송이같이 되고 얼굴이 화상을 입었다.

《아, 분대장동무!》

그것은 분명 분대장 박동구였다.

《창배동무, 오오. 창배동무!》

박동구는 간신히 창배를 알아보았다. 두 동무는 서로 목을 얼싸안았다.

얼마후 이 파운동이 낳은 용감한 아들은 오늘 아침 부대와 협동전투를 하고 마을로 나타난 파운동사람들에게 부축되여 담가에 실려 동네로 들어가고있었다.

1951.

기 관 사

최 명 익

경찰대놈이 또 종이쪽지를 가지고 류치장으로 들어왔다.

방금 《사람을 죽이고싶어져서—》 제몫의 《배급》을 찾으러 왔노라고 지껄이던 장교놈들을 안내해왔던 놈이다.

그런 장교놈들이 풍기고간 술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끌어낼 사람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가져온것이였다.

창고를 간막아 오륙십명씩 처넣게 만든 류치장들안의 공기는 금시 또 깊이 언 얼음장밑의 못물같이 질식할 긴장으로 엉기는듯 했다.

《뭐, 또? 이제 〈배급〉으로 모자라서 이건 더가담(덤의 사투리)으루 가는건가?》

그 종이쪽지를 받아든 간수중의 한놈은 마치 곰비임비(일이 자꾸 되풀이되는 모양)로 귀찮다는듯이 투덜거리며 갇혀있는 사람들의 명부와 대조해가며 류치장안을 둘러본다.

《또 누가 끌려나가는가?》 하기보다도 《이번에는 내 차롈지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숨삼킨 긴장으로 이제 불리울 이름에 모두 귀를 기울이듯이 살창밖을 내다보는 눈들만이 빛났다.

둘러보던 간수놈이 이편간 류치장의 살창문을 절컥 따 열며 소리쳤다.

《현준, 현준이가 누구야? 어서 썩 나와.》

그러자 저편구석에서 한 젊은이가 일어섰다. 일어선 그는 길을 틔워줄 틈이 없이 빽빽이 끼여앉은 사람들의 어깨를 두손으로 헤글러가며 엉큼엉큼 발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살창밖의 간수놈을 내다보던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그 젊은이에게로 쏠렸다. 후리후리한 키에 우아래복의 도련, 호주머니 할것없이 모두가 모나게 곧은 솔인데다 굵은 삼천으로 담친 흰 실밥들이 뚜렷한 왜청빛로동복으로 그 버그러진 어깨와 퉁진 가슴이 더욱 립체감으로 틀져보이는 그는 척 보기만도 끌날같은 젊은이였다.

공기조차도 엉킨듯 했던 류치장안은 금시 또 여기저기서 들리는 무거운 한숨소리들로 한층 더 침통한 분위기속에 잠기게 되였다. 그런

중에도 발을 골라짚노라 허리를 수굿하고 나가는 그 젊은이앞에는 불쑥불쑥 내미는 손들이 있었다. 현준은 그 손들을 한번씩 다부지게 잡았다놓으며 나갔다. 그런 작별인사는 말없는 눈인사뿐이였다. 그리고 또 이곳 사람이 아닌 현준이로서는 작별 겸 초면인사이기도 한것이였다. 거의 일주일동안이나 한류치장에 갇혀있으면서도 잠시도 빈틈없는 놈들의 감시로 떳떳이 인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그들이였다. 그러나 지금 원쑤의 손에 걸려들어 고초를 같이해온 그들은 비록 생면부지의 사람끼리도 서로 아끼는 동무가 아닐수 없는 그들이였다.

지금 또 놈들에게 끌려나가는 이 동무! 이 끌날같은 젊은 동무가 나가는 류치장밖에는 우리 사람의 피에 목마른 원쑤놈들이 어지러운 고문의 형틀을 벌려놓고 또는 어떤 악독한 살륙을 설계하고 기다릴것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안할수 없는 그 젊은이의 손을 잡으며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최악의 경우라도 놈들과 싸워주기를 당부하는 동지애와 신뢰감과 말없는 격려가 서리여 서리발같이 빛났다. 그런 작별인사를 받으며 나가는 젊은이는 그 역시 모난 턱이 돌로 깎은듯 굳어질만치 입술은 꽉 다물었으나 그 푸르도록 빛나는 눈은 흔연한 웃음으로 대답하는듯 했다.

문득 몰방으로 터뜨리는 총소리가 요란했다. 지금까지 들려온 뒤산에서 나는 소리였다.

놈들이 좀전에 끌어내간 사람들을 총살하는 소리였다.

《어서 썩썩 나와.》

쇠를 따들고 기다리던 간수놈이 발을 구르며 재촉하는 문어구에는 놈들의 두세가락 총부리가 류치장안을 노리고있었다.

젊은이가 성큼 나서자 그 총부리들은 그의 뒤를 따랐다.

무서워하는것은 역시 놈들이였다.

×

현준의 등뒤에 총부리를 대고 따라온 한놈이 조심스럽게 문을 연 사찰계실에서는 왁자한 웃음소리가 연해 쏟아지는중이였다.

그 너렁청한 사무실에는 여러개 책상이 늘비하게 벌려놓여있었다. 그러나 제자리에 붙어앉은 놈은 없었다. 모두 의자대신에 책상 앞가사리에 반쯤 궁둥이를 걸치거나 기대서서 떠드는중이였다.

여기 제자리를 가진 사찰계놈들 말고도 식은 탕꾼으로 모여든 장교와 헌병놈들도 많았다.

씨름판같이 둘러선 놈들 한가운데서는 한 젊은 미국병정놈이 팔방허공에다 대고 빈주먹질을 해가며 뛰놀고있었다. 권투를 해보이는 모양이였다. 그 양키놈은 붉은 털이 번들거리는 두주먹으로 허공을 내지르기에 바빴다. 둘러선 어중이떠중이들은 팽이돌듯 하는 미국놈병정과 시선이 맞기를 별러서는 제각기 끄덕이는 감탄의 고개짓과 아울러 웃음과 박수를 보내는중이였다. 그럴수록 젊은 양키놈은 더욱 신바람이 나는듯 했다.

《이것이 놈들의 소위 경찰이라는데다. 이 란장판으로 무질서한 놈들의 쪽데기!》

현준은 문에 들어서자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학살, 략탈, 강간, 술, 파괴 그리고 미국놈에게 허잘것없는 아첨의 경쟁… 그밖에 놈들은 하는 일도 할일도 없다. 놈들은 우리 동무들을 많이 죽였다. 나 역시 죽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놈들을 경멸하고 코웃음칠수 있다. 뻔하다. 이놈들은 곧 망한다.)

《이건 뭐야?》

문득 한 장교놈이 버럭 골올린 소리를 질렀다. 현준이 얼굴에서 경멸적웃음을 느낀 모양인 그 장교놈은 금시 살기가 등등해진 눈방울을 데룩거리며 짖어대는 투로 지껄였다.

《이놈두 제 고향으루 쫓아보낼 빨갱이 아닌가?》

그러자 《그건 내 몫이다.》 하며 저편책상에 걸터앉았던 헌병 한놈이 허리에서 권총을 빼들기부터 하며 현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 둘이서 쟝껭을 허지.》 등뒤에서 또 어떤 한놈이 기지개라도 키는듯 하품섞인 소리로 이런 말을 지껄였다. 둘러선 놈들은 왁자하니 웃었다. 그중의 사찰계 한놈이 《아사 아직—》 하며 다치지 말라는듯이 손을 저었다.

(시재 한놈이라두…)

불끈 이런 생각이 든 현준은 제가 당장 어느 한놈의 모가지를 비틀어놓을것 같았다. 그러나 (좀 더 두구보자. 정 수틀리게 되면 그땐 고기값이라두 하자.) 이런 생각에 부르쥐였던 주먹을 바지주머니에 찌른 현준은 (내 아무리 맨손이라두 거저는 안 죽는다.) 속으로 부르짖으며 창밖을 향해 돌아섰다.

×

현준은 이곳으로 붙들려온지 한주일만에 처음으로 놈들의 취조를 받게 되였다. 사찰계주임놈의 책상에는 잡혀오자 몸수색으로 털어놓아야 했던 현준의 공민증과 신분증명서와 몇백 몇십 몇원의 돈과 굵다란 니켈줄이 달린 역시 니켈색이 번들거리는 커다란 회중시계와 그밖의 수지나부랭이들까지도 놓여있었다.

취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로동당원이냐 아니냐를 밝히기 위한 심문이였다. 현준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주임놈은 제 꽁무니에서 꺼먼 강철빛이 얼른거리는 권총을 뽑아 넓은 책상 한 기슭에 손바로 얹어놓았다. 그리고 말끝마다 총살, 총살로써 협박해가며 문초를 시작했다. 놈은 현준이가 집과 처자를 버리고까지 후퇴하던것만으로도 《빨갱이》가 아닐수 없다고 역습을 하기도 했다.

현준은 결코 후퇴하던 길이 아니라고 잡아떼였다. 집은 벌써 전에 폭파되였고 그래서 이미 녕원땅 어느 산골에 있는 처당으로 보내두었던 처자를 찾아 자기도 그리로 가던 길이라고 했다. 놈은 또 전쟁중에는 군용렬차를 몇번이나 운전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딴전같은 말이나 이 역시 당원이 아니냐? 떠보는 딴말이 아닐수 없었다. 현준은 전쟁중에도 저는 역시 평양과 남포간의 보통려객차만을 운전했을뿐이라고 했다.

주임놈은 다시금 현준의 공민증과 신분증명서를 뒤져보았다.

현준이가 이곳 사람이 아닌것은 물론 또 저희가 일부러 체포한것도 아니였다. 얼마전에 이곳을 지나간 《국방군》 수색대가 오던 도중에서 후퇴하는 《빨갱이》들을 붙들었다면서 자동차에 실어다가 맡기고간 수십명중의 한사람일뿐이였다. 그래서 놈들은 현준에 대한 어떤 증거나 밀고자도 여기서는 찾아낼수 없었다.

마침내 취조하던 놈은 사실로 《빨갱이》가 아니라면 어째서 《빨갱이》가 아니 되였느냐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한 현준의 대답은 첫번째로 제가 무식한탓이요, 그다음은 제가 까다로운 규률을 지키기가 싫었던탓이라고 했다.

이런 대답을 하는 현준의 그 가락가락이 산양의 뿔같이 과다지고 투박한 손을 이윽히 눈주어보던 주임놈은 두다리를 올려놓았던 책상에

놓인 전화통에서 송수화기를 들었다.
현준은 그날 저녁으로 이곳 S역구내에 있는 놈들의 철도경비대로 넘어갔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의 취조를 받고난 현준은 이튿날부터 S역구내로 나가 일하게 되였다.
현준에게 맡겨진 일은 구내를 정리하는 입환작업이였다.
처음 들어선 구내는 동서로 통하는 한가닥 간선외에는 하나도 완전히 트인것이 없을만치 각종차량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널려있었다.
사람이 없지는 않았다. 일군이 없었다. 한대의 기관차가 입환작업을 하는중이기는 했다. 그러나 낯모를 기관사는 생재기인 모양으로 그의 기관차는 얼키설키한 입환선에서 군걸음을 많이 할뿐 일을 치우지는 못했다.
현준은 땅딸보왜놈 탄수와 같이 한 기관차를 타게 되였다.
철도일군이 부족하여 이전에 나라에서 기관차에 불을 때본 경험이 있다는자로 군대내에서 뽑아왔다는것이였다.
그 땅딸보를 데려온 헌병중위라는 강가는 현준에게 일본말을 아느냐고 물었다. 한마디도 모른다고 대답한 현준은 해방전에 자기는 일본사람을 구경도 할수 없는 두메산골에서 농사를 해왔노라고 했다. 실은 해방전에 왜놈기관사밑에서 사오년이나 일해온 현준은 말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제 무식을 증명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그것은 학대천대로만 들어온 말이기때문에 지금 또 왜놈과 직접 그 말로 지껄이기가 싫어서만도 현준은 모른다고 했다.
헌병 강가와 왜놈군인은 좀 난처한 모양이였다. 그러나 피차 손짓만으로도 막히지 않고 같이 일할수 있다고 한 현준은 그 왜놈 탄수를 실은 기관차로 입환작업을 시작했다.
구내안에서만 천천히 기관차를 몰아 왔다갔다하는것이지만 레—바(속도조절기)를 잡고 덩그러니 운전대에 올라앉은 현준은 오래간만에 선들선들 얼굴을 스치는 맑은 바람을 단 랭수같이 가슴에 스미도록 들이키기도 했다. 그러나 눈으로는 그런 선드러운 바람결에서도 탄내내를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좁은 벌 이쪽 한 기슭에 자리잡은 작은 S장거리는 태반이 재더미였다. 그뿐아니라 좌우산협짬에 선로를 따라가며 산기슭마다 오붓이 들어앉았던 작은 마을들도 모두가 불에 끄슬린

터전뿐이였다. 인가만이 아니였다.
둘러보이는 산들도 전날의 모습 그대로 남은것은 별로 없었다.
놈들이 통채로 불달아던진 휘발유냄새가 아직도 풍기는듯 지금이 한창일 단풍은 오직 번져가는 산화의 불길같이 거멓게 탄 기슭도리에만 남았을뿐이였다.
몇해동안을 이 평원선으로 늘 렬차를 달려온 현준은 어느 산굽이를 돌면 급구배가 있고 또 몇키로만에 어떤 굴이나 철교가 있다는것을 잘 알듯이 연선의 산들의 모습과 그밑의 마을들까지도 낱낱이 기억한다.
바로 선로옆의 마을이면 비록 이름은 모르지만 늘 스쳐지나던 우물가에서 보아온 얼굴을 기억하는 아주머니도 처녀들도 있었다. 또 어느 마을뒤에는 밤밭이 있고 어느 집 뒤에는 큰 대추나무가 있고 그 마을치고 제일 큰 곡식낟가리가 들어앉은것은 어느 집이며 심지어는 작년 이맘때 그 초가지붕에 빨갛게 고추가 널렸던것이 어느어느 집이라는것까지도 짐작이 가는 현준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것 하나 가려볼수 없이 모두가 재더미였다. 그 마을, 그 집들에서 살던 사람들은 지금 어데로 갔는지?
현준은 저보다 며칠 앞서 작은 보따리를 꾸려이고 타달거리는 어린 복석이놈의 손목을 잡고 뒤에 두고가는 고향과 집을 뒤돌아보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을 떠나던 안해와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얼른거려 다시금 시선을 가다듬고 손의 레바를 바로잡아야 했다.
《야— 우마이, 우마이!》
옆에서 왜놈 탄수가 이렇게 저희 말로 연방 감탄했다.
그 앙바틈하게 짧은 정갱이가 안종대리로 휘여들기까지 한 땅딸보는 현준이가 몰아가는 기관차가 그 복잡한 입환선들을 아로새긴듯이 덜컹 소리 한번 안 내고 전철기에서 선로를 바꿔들 때에는 잘한다는 뜻으로 또 화구에 몇부삽 석탄을 떠넣고나서 제 바지주머니에서 뒤져낸 밤을 씹으면서는 맛있다는 뜻으로 《우마이.》를 련발했다.
현준은 그자가 지금 달게 먹는 그 밤맛만으로도 전날의 식민지맛을 잊지 못해 아직도 군입을 다시고있을 왜놈들중의 한놈으로 보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뿐아니라 그 땅딸보는 이 기관차의 탄수로만이 아니라 제 행동의 감시자로, 밀고자로 또 제가 어떤 기회를 붙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제 손을 물어 방해하도록 놈들이 붙여놓은 개라고 현준은 미리부터 경계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한편 어떤 경우에는 땅딸보가 그런 개니만치 조금도 아까울것이 없어 좋다고도 생각되였다. 그날의 입환작업이 끝났다.

어지럽게 널려있던 차량들이 정리되여 청소나 한듯이 그림자 칠것이 없이 환히 빛나게 된 레루들만으로도 금시 현준이가 일을 치웠다는 생각이 나는듯 했다. 그날 저녁에 놈들이 군용렬차가 한대 지나간 때였다.

《언제 우리는 차를 달리게 됩니까요? 기관찰 타는바에는 씨원씨원히 달릴세 말이지 좁은 구내에서만 앞으로 갓—, 뒤로 갓— 은 좀 따분한걸요.》

땅딸보가 헌병 강가에게 하는 말이였다.

현준은 우선 제가 묻고싶어도 물을수 없었던것을 땅딸보가 대신 물어주듯 하는 말에 자연 귀가 기울여졌다.

《좀더 지나봐서지.》 헌병 강가의 대답이였다.

《아참, 참 따는 따는이군요.》 하는 땅딸보는 《내 어째 요다지두 아둔했던가?》 하는 투로 손바닥으로 한번 제 이마를 철썩 붙이고나서 옆의 현준을 곁눈질해보며 말했다.

《하여튼 기술만은 믿을만 하던데요. … 에—또, 대관절 어떻습니까요? 아메리카 아니, 우리 유엔군이 아직도 저 어데라든가? 한데서 끊겨가지고는 동서 량군이 아직도 손을 못 잡았나요?》

《요리쿠(양덕) 말이지? 아직 아직이야.》

《호— 그렇게도 강합니까요? 빠루찌장인가가? 벌써 얼마헌데요. 좀더 다른 방도는 없습니까요?》

《방도라야 공격, 공격뿐이지.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집결중이니까… 에—또, 어떤가?》

지금까지 땅딸보와 일본말로만 지껄인 헌병 강가가 문득 말머리를 현준에게 돌려 조선말로 물었다.

《하는 일이—》 그때 드—링(기관차의 큰 바퀴)의 축을 조이고있던 현준은 잠시 헌병 강가를 쳐다볼뿐이지 역시 일을 계속해가며 반문하듯이 대답했다.

《뭘 어떻게 있습니까?》

《재미가 어떠냐 말야.》

헌병 강가의 말은 단박에 비꼬는 투였다.

《늘 해온 일인걸요.》 하는 현준의 대답은 여전히 장식이 없는 말

투였다.
《늘 해온 일이라? 누가 걸 몰라서 묻는거야?… 그런 말버르장머리가 어데 있어, 응?》
《…》
현준은 놈이 이렇게 멋없이 화를 내는 까닭을 리해할수 없었다.
《웃사람이 그래두 접어생각하고 먼저 하는 말인데 그따위루 건방진 수작이… 어데 또 한번 해봐.》
현준은 비로소 리해할수 있었다. 그러나 현준은 기름묻은 손에 커다란 마치를 든채 허리를 펴고 일어서 헌병 강가놈을 마주볼뿐 대답을 안했다.
《〈덕택에 고맙습니다. 재미 좋습니다.〉소리를 못하냐 말야? 어느 하늘아래서 사는가를 생각해봐.》
헌병 강가가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수작이였다.
《난 나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면 그만인줄 아는데요.》
비로소 현준이가 띄염띄염 한 말이였다. 이런 말을 하는 현준은 이 썩어진 놈들과 싸우는데는 빤드름한 말치레의 아첨도 한 전술이 되리라는것을 모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방후 5년간 그런 아첨이 통할리 없고 오히려 죄악이 되는 환경에서 살아왔고 일해온 현준은 지어먹고 해야 하는 그런 말이 그렇게 수월히 나오지는 않았다.
《뭣이? 〈난 나 맡은…〉? 이 건방진, 대체 〈나 나 난…〉이 뭐야?》
《…》
《전 모르긴 해두 이자 태도는 좀 건방진걸요. 아, 북한로동자들은 밸을 길러주어서 그런가부죠?》
옆에서 땅딸보놈이 이런 아첨조로 헌병 강가에게 키질을 했다.
《웃사람한테 하는 말버릇부터 고치란 말야. 이제 다시 말해봐.》 하는 강가는 새삼스럽게 체신을 갖춘다는 투로 제 허리에 두손을 짚으며 현준의 앞으로 한걸음 다가왔다.
《음흠, 미스터 강—》
옆에서 문득 이런 코메인 소리와 함께 술냄새가 확 풍기였다.
어느새 나타난 한 미국놈병정이였다. 그 병정놈은 저 역시 두손으로 허리를 짚고 서서 헌병중위 강가를 이르듯이 좌우로 고개짓을 해가며 지껄였다.

《음흠, 미스터 강, 술 술이 좋소.》
그런 미국병정놈앞에서 금시 비굴한 낯짝이 된 강가는 무슨 사정이나 하듯이 나직한 소리로 뭐라고 지껄였다.
《오노—노 노—끗, 술 술이 좋소.》하며 호되게 채머리를 흔들고난 미국병정놈은 한손가락을 뻗쳐 헌병중위 강가의 두줄단추로 여민 군복옷깃속에서 넥타이를 뚱기쳐냈다.
와락 창피해진 모양인 강가는 현준의 앞에서 돌아서며 바삐 넥타이를 옷깃속으로 꾸겨넣었다. 그러나 미국병정놈은 또 가만 안 있었다. 그사이에 놈은 강가의 허리에 달린 가죽집에서 권총을 빼내서 제 괴춤에 찔렀다. 헌병 강가는 그 손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미국병정놈은 부르쥔 주먹을 헌병중위의 코앞에 흔들어보이고는 미상불 《앞으로 갓—》의 구령을 내리는 모양으로 버럭 고함을 지르자 강가의 어깨를 비틀어 돌려세웠다.
그리고는 헌병의 궁둥이를 이쪽저쪽 번갈아 데겨차듯이 앞발길질을 해가며 앞세우고 나갔다.
《헹! 당장 뻐기던간해서는 문제없이 무장해젤 당하구. 아주 파장순대 그래.》
옆의 땅딸보가 혼자 중얼거리는 수작이였다. 놈은 그 술취한 미국병정놈이 나타나자 어느새 기관차 저편으로 가서 숨어있다가 비로소 나타났다.
《따는 따는, 하기야 아무리 졸자라두 상전 아메리카사람이라 할수 없을게라.》
또 이런 말을 혼자 중얼거리던 땅딸보는 금시 무료도 하고 허잘것도 없다는듯이 《술은 눈물인가 한숨이런가—》를 휘파람으로 시름없이 불기 시작했다.
그밤에 어데선가 술을 처먹은 땅딸보는 벌써부터 곯아떨어졌다.
그옆에 누워있는 현준은 잠이 오지 않았다. 생각을 하기 위해서다.
맞은편유리창으로 찬 달빛이 째지게 비껴들었다. 그러면서도 하늘에는 뭉게뭉게 꺼먼 구름장들이 달리는 모양으로 푸르던 달빛이 이따금씩 어두워지군 했다. 그런 창밖에서는 멀리서 또는 지척 가까이서 고래고래 지르는 취한 놈들의 고함소리와 추잡한 류행가코노래가 끊길 사이가 없이 들려왔다. 알아들을수 있는 조선말소리는 물론, 말은 모르나 그 곡조만으로도 이마살이 찌프러지게 음탕추악한 미국놈들의

소리가 랑자한중에 간간이 격한 가락을 넣듯이 놈들의 허황한 폭소와 총소리들이 뒤섞이기도 했다. 그것은 미국놈의 쟈즈가 아닐수 없었다. 그것은 단지 놈들의 타락한 소리라 삶의 보람을 모르고 앞날의 희망을 못 가지는 절망의 소리이기도 한것이였다.

《양덕으로 가자!》

현준은 귀듣끄러운 놈들의 그런 잡음을 떨어버리듯이 베개우의 머리를 흔들고나서 입밖으로 소리내여 중얼거렸다.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노려 양덕으로 가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동무들과 함께 싸우자! 하는 현준은 또 한편 지금 놈들이 자기에게 시키는 정도의 일만으로도 기회가 아닌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닌게아니라 어제까지만 해도 《고기값으로 단 한놈이라도!…》 별렀던 현준이였다. 그래서 놈들이 저를 현장으로 내보낸다고 할 때 그는 가슴이 울렁거릴만치 기뻤고 기관차에 올라앉게 되였을 때는 그 기관차 하나만을 부셔도! 하는 현준은 교차선의 전철기를— 그앞에 아직 흔들리는 정거신호를 무찌르고 내달려 뒤집어 부셔버릴가 하는 충동에 레—바를 잡은 손에 불끈 힘이 가기도 했다.

그러나 양덕에서 우리 사람들이 지금 유격전으로 놈들과 싸우고있다는 말을 듣자부터 더욱 가슴이 높이 뛰는 현준에게는 한대의 기관차, 몇대의 빈 차량만으로는 만족할수 없었다. 더우기 아까의 땅딸보와 헌병 강가놈의 수작으로는 좀해서는 더 큰 기회가 제게 쥐여질것 같지도 않았다.

양덕은 여기서 동쪽으로 불과 륙칠십리다. 탈출해가서 동무들과 같이 총을 잡고 수류탄을 던지며 놈들의 땅크를 부시고 놈들의 동가슴에 총창을 들이박으며 싸우는 우리의 함성은 그 얼마나 우렁찰가?

앞날의 승리를 동무들과 이야기하며 싸울 생각! 싸우다 죽더라도 선두를 달리다가 동무들의 앞에서, 동무들의 옆에서 죽어도 죽을것이 아니냐! 거듭 《양덕으로 가자!》 하는 현준은 우선 밝는 날 참참히 틈을 타가지고 놈들의 총 한자루, 수류탄 몇알이라도 빼앗아가지고 가리라고 했다. 한밤중이였다. 생각에 잠겨 천정만을 쳐다보고있던 현준의 눈에 문득 유리창이 뒤밝아지는 화광이 보였다.

또 지척인듯 가까이에서 두세방 총소리가 요란히 들리기도 했다.

그러자 엄마를 부르는 어린것의 울음소리가 났다.

현준은 덮었던 요를 걷어차고 일어나 창앞으로 갔다. 구내구외를 가

름한 곳의 이삼십메터밖에 안되는데서 한채의 초가집이 타기 시작했다. 마침 꺼먼 구름장이 달빛을 가리운 때라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의 화염이 더욱 충천해보였다. 분명히 거기서 또 한방 총소리가 났다. 그러자 젊은 녀인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어린것의 울음대신 들려오는 그 비명은 아닌 밤중에 충천한 불길보다도 더욱 몸서리치게 악에 받친 울부짖음이였다.

현준은 저도 모르게 문을 차 열고 현관밖으로 뛰여나갔다.

그러나 처마 그늘밑에서 버럭 《누구야!》 하는 고함소리와 함께 저편불빛에 어리여 더욱 날카롭게 번들거리는 총창이 현준의 가슴을 겨누고 불쑥 내밀었다.

《…》

현준은 미처 대답할 사이가 없었다.

《어데 가! 허가없이는 한발자국도 얼씬 못하는줄 몰라?》 하는 그놈 역시 헌병의 완장을 두른 놈이였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

또 이렇게 짖어대는듯 한 그놈은 총창끝으로 현준의 어깨를 밀어넣다십이 하고 현관문을 닫아붙였다. 다시 방안으로 들어갈수밖에 없는 현준은 창앞에 붙어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고삭은 초가이영으로부터 기둥에까지 당기기 시작한 그 집의 쓰러져가는 울바자안에서 화광에 얼른거리는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옆에 무슨 큰 보따리 같은것을 한팔로 끌어안은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것 역시 사람이였다.

울바자그늘을 벗어나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빛을 등지고 이편으로 엉큼엉큼 걸어오는것은 분명히 미국놈이였고 그놈의 한편옆구리에 껴안긴것은 연한 물색치마자락이 땅에 끌리게 옷매무시가 흐트러진 녀인이였다. 그 치마자락뿐아니라 팔, 다리 역시 땅에 끌릴만치 사지가 축 늘어진 녀인을 한팔로 껴안은 미국놈은 그 육중한 구두발로 한쪽이 쓰러져가는 목책을 지리밟으며 구내로 들어오고있었다. 그 머리칼빛 희붉은 대가리를 지리끼듯이 우악스럽게 폭넓은 어깨죽지가 추켜올라간 모양으로 보아 그놈은 이 철도경비대에 있는 엠·피 장교놈이 분명했다.

심장이 얼어붙는듯 한 공포에 기절했다가 다시 소스라쳐깨난 모양인 젊은 녀인의 《으악—》소리가 또 들리였다. 그러자 놈의 등뒤에 충천한 화광뿐아니라 꺼먼 구름장을 벗어난 달빛에 놈의 겨드랑이밑에서 빠져나오려고 항거하는 녀인의 몸부림이 바라보였다. 놈의 엉큼

엉큼한 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군모도 쓰지 않은 놈의 대가리의 그 희붉은 빛으로 번들거리는 털이 이마와 코등에까지도 내려덮이게 흐트러져 너불거렸다.
그러나 몇걸음 뛰지 못하고 비틀거린 놈의 이편팔이 걸핏 들리자 그 손끝에서 뿜어내는듯 한 불길이 번쩍이였다.
아직도 놈이 한팔로 그 잔허리를 끌어안은 녀인의 동가슴이나 얼굴에 대고 쏘아박은 모양인 총소리가 탕탕 련발로 들려왔다.
그러자 악에 받친 몸부림도 비명도 없이 된 그 녀인의 몸뚱이가 입환선레루 한가락에 허리를 걸치고 번뜻이 던져졌다.
눈앞의 이런 사실을 보고 현준은 여통 제가 가위에 눌려있는것 같기만 했다. 내가 보는것이 정말인가? 하는 현준의 눈앞에는 아닌게아니라 생시에는 한번도 본적이 없는 흉물스러운 짐승이 아직도 움직이고있었다. 째는듯 밝은 달빛아래 쓰러져있는 녀인의 시체를 아직도 단념 못한듯이 이윽히 굽어보던 그 두발짐승은 색은 날았으나 번들거리는 바늘털이 내려덮인 대가리를 한번 저으며 전 좌우를 휘둘러본다. 헝클어진 머리털사이로 붉은 화염과 차겁게 푸른 달빛을 겸해 반사하는 그것의 눈은 마실 피냄새를 맡아 두리번거리는 짐승의 눈으로 번쩍이였다. 또 엉큼엉큼 자루를 펴놓기 시작한 그것의 추켜들린 어깨죽지로부터 길게 늘어뜨린 앞발끝의 이편손에는 무드럭한 권총이 들려있고 저편의 먹물에 잠겼던듯 한 꺼먼 손에서는 떨어지는 피방울이 보이는듯 했다.
내다보는 현준의 눈앞으로 이번에는 그 야수를 호위하는 모양인 《국방군》 헌병놈의 총창끝이 유리창을 스쳐지나갔다.
이튿날 아침이였다. 땅딸보 탄수와 같이 기관차의 증기를 올리고있을 때였다. 헌병 강가가 와서 현준에게 빈 차량을 십여대 정비해가지고 곧 발차할 준비를 하라고 했다. 현준은 뜻밖이였다.
그러나 《빈 차량이니까…》 했다. 차량들은 이미 정비되여있었고 기관차의 증기도 다 오른 때라 곧 발차할수 있었다.
현준이가 레바를 잡고 운전대에 앉자 잠시 없어졌던 헌병 강가가 미국놈 엠·피를 데리고와서 같이 올라탔다. 바로 어제 밤의 그놈이였다. 금시 치가 떨리는 현준은 놈들을 등지고앉아 밖을 내다보고만 있었다.
《헤이—》
문득 그 미국놈이 웨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이어서 《이봐—》

하는 헌병 강가놈의 고함소리가 났다. 현준은 미처 돌아볼 사이가 없이 또 제 등허리가 서리대 긴 엠·피놈의 무르팍으로 걷어채인것을 느꼈다. 벌떡 일어나 돌아보는 현준의 눈앞에는 무드럭하게 큰 권총부리가 불쑥 내밀어져있었다. 엠·피놈이 뭐라고 지껄였다.

《이거 뭔지 알지?》

헌병 강가놈이 통역한 말이다. 구태여 뭐라고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현준은 그저 놈의 눈과 그 권총을 번갈아보았을뿐이다. 어제 밤에 본 그 짐승의 눈에는 피발선 붉은 실이 어리였고 권총이 올려놓인 놈의 손에는 흰 붕대가 칭칭 감겨있었다. 그 붕대밑에는 혹시 어제 밤에 놈의 손에 죽은 녀인의 원한에 사무친 이발자국이 박혀있을지도 모를것이였다.

《조금이라두 잘못해서 일을 저질러만 봐— 그땐 당장 골통에 구멍이 날테니, 알겠어? 자, 그럼 발차—》

그러나 앞으로 달리라는것이 아니라 뒤로 가라는 명령이였다.

역구내를 벗어나서도 현준은 역시 입환작업을 하는 때와 같이 열네 차량이나 되는 렬차 뒤꽁무니에서 흔들리는 푸른 안전신호기를 뒤돌아보면서 운전해가야 했다. 선로 좌우쪽에는 거의 전선주 한대사이에 하나폭이 될만치 총멘 병정놈들이 경비하고있었다.

필시 선로에 어떤 돌발사고다. 그래서 놈들은 이리로 미상불 양덕 방면으로 달리던 군용렬차를 어데선가 불시 정거를 해놓고 이 빈 차량들을 뒤로 불러다가 짐이나 군대를 옮겨실을 모양이다. 이런 추측으로 현준은 《혹시…》 하는 생각에 결심해가며 차를 몰았다. 몰아간다지만 뒤걸음질하는것이라 제 속력을 다 낼수 없으므로 속력계의 바늘은 25～30키로어간에서 느릿느릿 흔들리고있었다. 모두가 빈것들이라 한가히 손꼽아가며 헤일수 있게 넘어가는 레루며 짬마다에서도 쿵쿵 속궁근 소리를 내며 주행부의 눌리지 않은 용수철들이 민감하게 퉁겨졌다.

《이렇게 내내 뒤걸음만 해서 어데까지 갑니까요?》

《가는데까지 가지—》

그 역시 군사비밀이나 되는듯 강가는 한번 군입맛을 쩍 다시고나서 이런 대답을 할뿐이였다.

역시 귀를 기울였던 현준은 헌병 강가의 그런 대답에 다시 제 생각으로 돌아갔다.

(놈들이 미상불 무기나 군대를 옮겨싣고 되돌아와야 할 이 렬차를 내게 맡길가?)

현준의 생각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어떤 돌발사고나 아닐가. 혹시 저편에서 오던 렬차의 기관사가 상했거나 죽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역시 그 기관사가 이 운전대에 앉게 되기가 십상팔구였다. 그 기관사라는자는 놈들이 일부러 이남에서 데려다가 군용렬차를 도맡아 운전시킬만치 놈들의 신임을 받는자였다.

그러나 놈들은 이 비좁은 기관차에다 두놈씩이나 경비를 하게 하는 것은 역시 이런 빈 렬차만이 아니라 짐을 옮겨싣고 돌아올 때에도 역시 제게 이 렬차를 운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놈들이 신임하는 그자가 운전하는 기관차에는 헌병도 엠·피도 태우지 않았다.

사실 일이 그렇게만 된다면 그것은 현준이가 노리는 기회가 아닐수 없었다. 그때는 제아무리 무장한 놈이 둘씩이나 지키고있더라도 현준은 기어이 제 마음대로 하고야말리라고 했다. S역에서 열키로쯤 갔을 때였다. 내다보던 푸른 신호기가 차차 작아보이게 휘우듬한 산기슭을 감아돌아간 렬차끄리가 다시 곧게 펴졌을 때 또 이번에는 문득 나타난 사람굴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천정은 없을 망정 사람굴속이라고 할만치 두가닥 레루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놈들의 군대가 빽빽이 늘어서있었다. 현준은 쥐고있던 레바를 밀어닫았다. 마침내 렬차끝에서 붉은 정차신호기가 들리였다. 현준은 또 공기압축기를 당겨서 제동기들이 매개 바퀴들을 눌러주는 씨르륵소리를 내며 차를 세웠다.

정거하자 미군놈 엠·피와 헌병 강가가 내렸다. 현준이도 운전대에서 일어나 문설주를 잡고 밖을 내다보았다. 말바로 형형색색으로 그린 인물병풍이 기관차앞에서부터 저편 한끝까지 겹겹이 늘어서있었다. 미국놈들과 그옆에는 뛰여나게 검은 껌둥이들, 《국방군》놈들, 그중에는 저희 말로 지껄이는 왜놈들도 많았다. 눈짐작만으로도 한 이천명쯤은 되는것 같았다.

현준은 우선 놈들의 기관사가 어데 있는가 하여 두루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직 보이지 않았다. 아직이라는것은 《국방군》 그중에는 눈에 띄는 껌둥이들이 경기, 중기며 수구경박격포 같은것을 총신, 포신

따로, 포탄 따로 뜯어서 혹은 어깨에 둘러메고 혹은 끌기도 하며 아직도 꾸역꾸역 모여드는중이므로 그자도 이제 뒤따라올는지 모른다해서였다.

둘러보던 눈에 이제 기관차에서 내려 병정들속으로 사라졌던 미국놈 엠·피와 헌병 강가놈이 저편의 한 작은 언덕앞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 보였다. 그 언덕우에는 앞나레미가 번뜻 들린 군모, 이마빼기에 손바닥만치나 큰 모표의 금테두리가 번쩍거리는 미군장교놈 칠팔명이 모여서있었다.

현준은 대체 어떤 사고인가? 궁금하기도 했으나 앞의 선로는 삼사백메터나 보일뿐 그다음은 산기슭으로 휘여져 더 보이지 않았다.

현준은 운전대밑에서 마치를 집어들고 기관차밖으로 나왔다. 제가 몰아가던 차를 세운 때면 기관사가 의례히 하는 각 차량의 주행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드—링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음다음으로 매개 바퀴의 차축을 망치로 뚜들겨보고 축상뚜껑을 열어보고 각 차량과 차량에 련결한 압축공기 호—스를 훑듯이 점검하며 나갔다. 그렇게 주행부를 굽어보며 나가던 현준은 문득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산모퉁이 저편에서 분명히 렬차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온다. 긴장해 기울인 귀에 들리는 그 소리는 차차 커가면서도 한바퀴씩이라도 멀어가는 렬차소리가 분명했다. 그리고 또 무겁게 들리는 차소리이기도 하였다.

귀를 기울인 동안 현준의 그 진한 먹글씨의 한획같이 윤나는 눈섭밑의 기름한 눈은 더욱 가늘어졌다. 딴데가 아니라 제 머리속을 들여다보는듯 한 그 눈은 바늘끝같이 날카로와진 눈동자로 푸르게 빛났다.

명령이 내린 모양이였다. 저벅거리는 군화소리와 무기의 쇠와 쇠가 서로 부딪는 소리가 어수선해지며 놈들의 군대는 앞을 다투어 꾸역꾸역 차간으로 들이밀리기 시작했다. 그때 현준은 기름묻은 손을 문지르고난 수건을 허리에서 떼내여 탄수차 뒤초리에 달린 제동판 콕크에다 걸쳐놓고 다시 마치를 들었다. 놈들은 그 탄수차 다음간차량에다 탄약상자들을 들이챙기고있었다. 놈들의 무기는 땅크나 대포 같은 것은 없지만 경기, 중기, 박격포 같은것은 오륙명에 한대폭은 되는 모양으로 많았다.

놈들의 군대가 거의다 올라탔을 때 현준은 주행부점검을 끝냈다. 다시 돌아가는 기관차앞에는 벌써부터 와서 기다리는 모양인 미국놈 엠·피와 헌병 강가가 땅딸보 탄수와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무슨 말끝

인지 알수 없으나 귀결에 《아— 념려마십쇼.》 하는 땅딸보의 말소리가 들렸다.
《하기는 불과 S역까지니까.》
미국놈 엠·피와 땅딸보 탄수를 번갈아보며 하는 헌병 강가의 말이였다.
《네에, 절대루— 지금 오시며 보셨지만 그런 평탄한 선로에서는 일부러 사고를 낼려두 안됩니다요.》
또 이런 땅딸보의 말에 (역시 나를 두고 하는 말이였구나.) 하는 현준은 탄수차를 지나가는 길에 그 뒤초리에 걸쳐놓았던 제 수건과 꺼진 콕크를 접어놓았다. 극히 간단한 일이였다. 그러나 그 렬차를 자기 손으로 운전하는 기관사나 탄수로서는 차마 못하는 일이였다. 어느 차량에나 다 있는것이지만 그중의 어느 하나를 닫아버린다는것은 곧 그 다음 차량들의 제동기를 마비시키고마는것이였다. 그러니만치 탄수 땅딸보는 오히려 그런데 주의를 돌릴수 없었다. 모두다 차에 올랐다. 등뒤에서 《헤이.》 하는 미국 엠·피놈의 고함소리가 났다. 방금 레바를 잡고 앉았던 현준이가 이번에는 헌병 강가의 통역을 기다리지 않고 공손히 일어섰다.
《알지?》
그 징그러울만치 뚱뚱한 배때기우에 가죽으로 만든 말안장의 한쪽을 잘라 찬것만치나 큰 제 권총집을 툭툭 뚜들겨보이는 엠·피놈의 그 털투성이손가락소리를 헌병 강가는 이렇게 통역했다.
그리고는 또 《이제부터는 네가 어느 뉘 하늘아래서 먹구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는거야.》이런 엠·피놈의 말을 번역했다.
《예, 잘 압니다. 념려마십쇼.》
당장 집어삼키기라도 할듯이 붉은 실이 어린 눈을 흡뜨고 저를 노려보고있는 미국놈 엠·피와 마주선 현준은 흔연히 웃으며 이런 대답을 했다.
《자, 그럼 S역까지—》
헌병 강가가 통역하는 미국놈 엠·피의 명령이였다.
《발차.》
현준은 지그시 레바를 당겼다.
《쏴—》 증기를 내뿜는 소리와 함께 발동을 시작한 피스톤의 그 억

센 팔뚝이 길이되게 우람한 도―링의 차축을 떠밀어 기구를 띄워놓기 시작했다. 어느덧 선로바닥의 자갈돌들이 흐르고 맞은편산들이 주춤주춤 움직이기 시작했다. 속도계판의 바늘은 차차 치달아올라가서 마침내는 40키로어간에서 흔들린다. 내다보는 선로기슭에 200메터만에 세운 리정표말들이 해끗해끗한 점으로 눈을 스쳐지나간다. 이 속도면 S역까지는 불과 십분내외일게다.

운전대에서 창틀에 한팔굽을 기대고앉아 내다보는 밖의 풍경은 모두가 다 눈에 익은것들이다. 그중에는 놈들의 폭격방화로 전날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이 태반이 꺼먼 터전으로 남은 마을도 있다. 산들도 여기저기 타들어간 흠집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역시 전날의 그 산이였고 다음굽이의 산강도 여전하게 맑은 물이 흐르는 산강이였다. 그 강뚝숲에는 산딸기가 많은데다 빨갛게 농익은 그 딸기밭을 볼 때마다 아들 복석이놈을 생각하며 달려오고 갔던데다. 그러나 지금은 복석이놈이 어데 있는지도 알수 없다. 딸기도 철이 이울어 볼수 없다. 그대신 노란 들국화가 한벌 깔렸다. 지금 그 한복판을 지리밟고 서있는 총을 멘 철도경비대 한놈이 결핏 지나간다.

창밖을 내다보고있는 동안 어느새 헌병 강가놈과 수작이 어울려서 또 수다를 늘어놓은 땅딸보의 이야기중에 문득 《빠루찌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현준은 귀가 기울여졌다.

《선로사고를 〈빠루찌장〉이? 흐― 그자들의 손이 여기까지도 뻗쳤습니까요? 흐―》

《혹이 가다 그런 일두 있을번 한 일이지. 그러나 이제부터 결정적 〈토벌〉이 시작되니까 문제없지.》

이런 놈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현준은 또 뭐라고 지껄이려는 땅딸보 탄수의 팔소매를 당겨서 그만하고 부삽질이나 하라는 뜻으로 아궁이를 가리켜보였다. 탄수는 이제 곧 S역에 서고말 기관차라 석탄을 더 퍼넣을 생각을 않는 모양이였다. 그러나 현준은 강한 증기가 더 필요했다.

《하―이, 하이.》

땅딸보는 기관사의 그런 지시가 적지 않게 제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투정조로 대답을 하면서도 역시 부삽질을 시작했다. 현준은 그런 탄수가 이제 몇분 안되여 제게로 달려들게 될 때에 놈이 취할 동작과 그것을 막기 위한 제 동작을 미리 머리속에 그려가며 차를 달렸다.

어느덧 S역 초입구에 드높이 서있는 붉고 푸른 유리알이 번쩍이는 신호대가 바라보인다.
《다— 왔다!》
역시 밖을 내다보던 모양인 헌병 강가는 마치 지루한 려행이나 하듯이 기지개 켜는 손끝에서 담배꽁다리를 떨어뜨리며 하품을 씹어삼키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옆에 미국놈 엠·피는 어깨와 가슴우에 내려앉은 석탄가루와 재를 털고 담배연기를 뿜어 권총집의 먼지를 불어날리기도 했다.
바라보이던 그 신호대가 이제는 눈앞을 스쳐흐르듯 지나갔다. 앞에 역사가 보인다. 또 그앞에 차를 세운 역구내가 길게 드러난다.
현준은 레바를 지그시 당기다가 지끈 도로 붙였다. 그의 일자로 다문 입가장자리의 빰가죽이 한순간 푸들푸들 떨렸다. 40키로메터어간에서 흔들리던 속도계판의 바늘은 놀란듯이 떨렸다. 텅— 미국 엠·피놈의 꾸부정한 등허리가 뒤담 철판에 부딪는 소리다. 혁띠를 바투던 헌병 강가는 휘뚝하는 충격에 부지중 엠·피놈의 팔을 붙들었다. 다 왔다고 부삽자루까지 던지고 허리에 두손을 짚고섰던 땅딸보는 제 경험으로 참새같이 한번 뛰여올랐다가 그 앙바틈한 안짱다리를 벌려 짚고 서며 디룩거린다. 역구내 저끝에서 청, 홍신호기를 들고 차가 서기를 기다리던 헌병 한놈은 도—링에 걷어채운듯이 뒤로 쓰러지며 물러났다.
《정거, 정거해요.》
땅딸보가 먼저 저희 말로 웨쳤다.
《어째 그냥 가는거야?》
《헤이— 스톱! 스톱.》
헌병 강가와 미국 엠·피놈이 한꺼번에 소리를 질렀다. 현준은 당겨쥔 레바를 어느놈이 건드릴세라 잡은 팔굽을 들어 등뒤의 놈들을 박을뿐 대답도, 돌아보지도 않았다. 렬차는 바람을 냈다. 바람을 안고 내닫는다. 순식간에 이편 맞은쪽의 신호대가 또 걸핏 스쳐지났다. 역구내를 벗어났다.
《왜 그냥 모는거야. 이놈아, 차를 세워.》 또 부르짖는 강가는 현준의 어깨를 그러쥐고 흔들며 웨친다. 《안 세울테냐?》
현준은 한번 힐끗 뒤를 돌아볼뿐 제 어깨를 그러쥔 헌병놈의 손을 뿌리치려고도 않는 그의 눈에는 몸서리치는 랭소가 선뜩였을뿐이다.

《큰일났소. 겐뗴이상— 이러단 전복이 아니면 폭발이요.》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땅딸보는 속도계판의 거의 마지막수자를 가리키는 바늘과 현준이가 저편손으로 그러쥔 레바옆의 제동기를 번갈아보면서도 어쩌지 못했다. 초속도로 달리는 지금 먼저 레바를 닫아 속도를 죽이기 전에 제동기부터 당겨 급정거를 하면 렬차가 탈선전복한다는것을 잘 아는 탄수 땅딸보는 제동기를 노려보면서도 손을 못 댄다.
《쏠테다!》
《…스톱. …스톱, 스톱…스톱.》
미국 엠·피놈이 짖어대는 말에 단지 《스톱》만을 알아들을뿐인 현준은 문득 제 잔등이 뜨끔거리게 들이대는 무드럭한 놈의 총부리를 느꼈다. 그러나 놈들이 아직은 못 쏜다. 아직도 살려는 희망은 버리지 못하는 놈들이라 당장에 기관사를 죽일 용기는 없다. 그러나 다음순간에 땅딸보가 레바를 잡은 현준의 손을 물려고 개같이 달려들었다. 벌써부터 벼르고있었던 현준의 발길은 땅딸보의 그 앙발은 사타구니의 급소를 걷어찼다. 달려들며 《아, 이 급구배에… 이건 막 고의다. 일부러다! 살인이다!》 하며 악을 쓰던 땅딸보는 한마디 《헉—》 소리를 지르다 이글이글한 아궁이턱밑에 메치듯 대가리를 내던지고 두손으로 사타구니를 그러쥔채 동그라져 히뜩 눈을 뒤집었다.
내닫던 렬차는 드디여 급구배내림길에 들어섰다. S역구내에서 약 두키로메터앞이였다. 이백메터반의 흰 꼬마리정표말은 이제는 하나하나의 둥근점이 아니라 구슬꿰미로 흐른다.
미군 엠·피놈이 레바를 잡은 현준의 팔죽지를 잡아일으켜세웠다. 급구배를 제바람에 내닫는중이라 이제는 잡으나마나인 레바를 놓고 일어선 현준은 놈의 낯짝을 한번 흘겨돌아보았을뿐 남은 이편손으로 제동기를 쥐였다. 강가 헌병놈이 또 달려들어 그 팔을 잡았다. 그러나 현준은 아직 제동기를 당기려 안했다. 렬차는 달리는것이 아니라 별불같이 날기 시작했다.
미군 엠·피놈도 헌병 강가도 현준의 팔죽지를 까들어잡았으나 어쩔줄을 몰랐다. 창밖의 모든것은 무엇이 무엇인지 가려볼수 없게 뒤섞여 맴돌았다.
하늘도, 산도, 푸른 소나무도, 붉은 단풍도, 꺼먼 바위도, 전선주도, 놈들의 경비대놈도, 산개울물도 모두가 한데 얼버무려 욱여진 사

태로 소용돌이치며 흘러간다. 머리카락은 물론 귀뿌리가 빠져날듯 한 질풍이 숨막히게 얼굴을 때린다. 놈들의 군모가 날아간것은 벌써다.
미군 엠·피놈이 붙들었던 한팔을 놓았다. 순간 옆구리가 화끈했다. 총소리— 화약냄새—
현준은 금시 전신에 맥이 탁 풀리는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두다리가 나긋나긋 휠듯이 주저앉고싶어졌다. 그러나 현준은 틀어잡은 제동기를 아직 당기지 않고 여전히 밖을 내다보며 뻗치려 했다. 혹시 의식을 잃고 쓰러지더라도 제 몸의 무게로 끌어당길수 있도록 더욱 단단히 손가락을 감아쥘뿐이였다. 놈은 또 야수적인 소리로 울부짖으며 련발로 현준의 잔허리에 대고 발사했다. 놈은 두방씩이나 련발은 하면서도 기관사를 죽이는것은 자기네의 운명까지도 아주 단념하고마는 셈이 되므로 현준의 급소를 갈겨 당장 거꾸러뜨릴 용기조차 없었던것이다.
이 두번째 타격에 현준은 상반신이 비척 허리로부터 빈들어지는것을 느꼈다. 그러나 아직도 제 의식이 남아있는것을 의식하는 현준은 금시 먼지냄새가 나게 타는 입속말로 혼자 속삭이듯이 《단 몇초동안만을…》 하며 정신이 아득아득해오는 머리를 흔들고 다시금 밖을 내다보았다.
그안에서 이런 격투가 벌어진 기관차에 끌려가는 차량들에서도 야단이 일어났다. 그 화물차와 객차칸들의 창이란 창과 문이란 문은 모두 열렸다. 열린 문과 창으로는 이 어쩌자는 속력이냐는 위구로부터 경각앞에 박두해오는 전멸의 구렁텅이를 내다보는 공포로 튀여날듯한 눈방울들과 비명을 지르기에 벌려진 아가리들만으로 보이는 낯짝들이 창틀이 미여져라고 내밀렸고 그런 낯짝과 낯짝틈을 비집고내민 손들에 들린 보총, 자동총들은 위험신호로 불을 뿜어 발포를 했다. 마치 놀랜 고슴도치가 일궈세운 바늘털같이 내민 놈들의 손과 총들, 그것들의 총성과 초연! 그리고 절망적으로 비명을 지르는 놈들의 추악한 낯짝들이 빈틈없이 나붙은 차량의 긴긴 놈들의 군용렬차는 우리의 기관사 현준이가 몰아가는대로 전멸의 구렁텅이를 향하여 무서운 속력으로 맥진해 달리는것이였다.
마침내 우중충 드높은 철교란간의 한가닥이 현준의 아득아득 몽롱해가던 눈속으로 확 뛰여들듯이 나타났다.

《이젠 됐다!》 하는 현준! 이마에 솟은 진득한 악땀이 방울로 맺힌 눈섭밑에 이제는 정신을 가다듬어도 어쩔수없이 풀려서 어뜩하게 동자가 커진 현준의 눈은 그래도 웃었다. 그 철교는 현준이가 이 계획으로 콕크를 접어닫으면서부터 자기의 결전장으로 머리속에 그려왔던 곳이였다. 또 그의 등허리에서 그의 뜨거운 피가 솟구쳐흐르는 사오초동안을 으스러지게 이를 갈아가며 참고 기다려온 그 철교였다.

그제야 현준은 잡고있던 제동기를 당겼다. 당겼다기보다 제 몸무게로 끌어내려야 했다.

기관차의 바퀴들은 눌리였다. 그러자 기관차는 초속도로 내닫던 그 여세로 레루에 갈리는 바퀴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댑싸리같은 불찌를 뿜으며 한순간 미끄러져나갔다. 미끄러지던 기관차는 여전히 뒤에서 초속도로 달려온 차량에 뒤초리가 육박되여 마치 성낸 하마가 앞다리를 들고 갈개듯이 도—링을 끌어안은채 앞대가리를 쳐들고 뻣뻣일어섰다. 일어서는 순간 기관차는 또 다음다음으로 몰아치는 차량들의 타격으로 빈들어졌다.

《됐다! 놈들이 이제 제길로 들어선다.》 하는 현준은 한순간 뒤를 돌아보았다.

화약연기가 피는 권총을 든 미국 엠·피놈은 마치 랭동고속의 물고기같이 주검의 공포로 이미 뿌옇게 눈이 얼었다. 헌병 강가는 목젖이 들여다보이게 벌린 입에 비명조차 얼었다. 그리고 동그라진 땅딸보는 쏟아진 불덩이에 머리카락에 불이 당겼다.

빈들어지는 순간 기관차는 공중에 여러가닥 무지개모양으로 거창한 반원을 그리며 솟아있는 철교란간의 한가닥을 무찔러끊으며 허공을 날듯이 내닫기 시작했다. 그런 기관차를 따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역시 허공을 내닫게 된 열대의 차량들은 마치 전설의 동물 룡과 같이— 룡중에도 흑룡같이 시커먼 등어리를 굽이치며 날듯이 교각 200메터 높이의 철교아래로 전락해내려갔다.

기관차는 건너편의 물마른 왕자갈판에 코배기를 처박고 거꾸로 선채 폭발했다. 그다음 탄수차는 석탄에 불이 당겼다. 그 석탄불무지에 헤벌어진 《비곤》에서 무데기로 쏟아진 총탄, 포탄들이 벼락치듯하며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런 좌우에는 왕지네배때기같은 주행부를 드러내놓고 번듯 제쳐진 차량들의 바퀴바퀴들이 아직도 번개같이 공전을 계속하고있다. 튀여나온 놈들의 경기, 중기, 박격포들의 동강

이 난 총, 포신들이 흩어져 구을렀다. 어떤 차량들은 뒤의것이 앞의 차량속으로 처박혀들어간것도 있었다. 마치 성냥갑의 알집이 제 껍데기속으로 들어박힌듯 한 그 차량들에서는 미여진 벽과 창틈으로 놈들의 살점과 뼈쪼각들이 튀여나오고 피가 새여 흘렀다. 지붕만을 내놓고 강물속에 잠긴 차량들에서는 북질거리는 물거품과 함께 흘러나오는 피로 강물을 물들였다.

쳐다보는 철교는 그 란간이 끊어진 한토막이 날 거친 톱으로 켠듯이 부스러지고 처지고 먹어들어갔다.

거꾸로 선 기관차에서 튕겨나서 그옆의 자갈판에 번뜻이 쓰러졌던 현준은 눈이 띄였다. 제 눈앞의 이런 광경을 자기의 승리의 전과로 그는 볼수 있었다.

아득아득 감기려는 눈에 허공이 쳐다보였다. 그렇게 맑고 그렇게 높고도 또 그렇게 푸른 하늘을 현준은 지금 처음 보는것 같았다. 그런 창공에 희게 빛나는 햇솜뭉치같이 몽실몽실한 구름덩이들이 둥둥 떠돌았다.

《우리 하늘이다. 너희놈들이 암만 그래두 이건 우리 조국의 하늘이다.》

이렇게 기운껏 부르짖은 현준은 금시 탁 피곤해져서 눈을 감으려 했다. 그런데 무엇인가 버그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고개를 돌려 본즉 바로 옆에 엎어져 쓰러진 엠·피놈이 두팔로 기려는듯이 자갈밭을 헤적이고있었다. 그것을 본 현준은 손가까이의 둥근 돌을 쥐자 일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허리로부터 아래도리는 남의 몸뚱이같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도 두팔굽에 힘을 모아 땅에서 떼여 일으킨 현준은 상반신을 비끄아 엠·피놈의 골박에 제 주먹을 처박듯이 돌을 내려치며 그 놈우에 어푸러졌다.

그 철교에서 오리가량 떨어져있는 한 작은 마을 뒤산 깊은 골짜기의 큰 도토리나무밑에 한 새로운 무덤이 무어졌다. 그 무덤앞에는 정성들여 깎은 참나무묘표에 《로동당원 현준》이라는 글자가 생생한 먹글씨로 씌여있었다. 미국놈들은 자기들의 군용렬차가 전복된것을 알고 부근의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현장을 수습하려 했다.

그 하나뿐인 로동복차림의 복색으로만 아니라 마지막순간까지 미국놈을 쳐죽이며 쓰러진 현상의 광경으로써 그것이 놈들의 군용렬차를

전복하여 수천명의 원쑤를 저자신의 희생으로써 전멸시킨 우리의 기관사라는것을 알게 된 농민중의 몇몇이 밤에 놈들의 눈을 피하여 현준의 시신을 빼내서 그곳에 안장한것이였다. 안장할 때 현준의 로동복소매겨드랑이에서 작게 접어 감춰넣은 당원증을 발견한 그들은 그것을 양덕방면 빨찌산투쟁에 참가한 자기네 부락 세포위원장에게 전하고 이 묘표를 세웠던것이다.

1951. 5.

승 냥 이

한 설 야

1

수길이는 선교사네 젖소외양간 뒤켠웅뎅이에서 커다란 고무공 하나를 얻었다.

좀 낡기는 했으나 반반하게 닳아 고운 때 오른품이라든지 손에 닿는 찹찹한 맛이 본시는 조만한것이 아닌듯싶었다.

《이게 웬 떡이냐.》

수길이는 너무 기뻐서 한참동안 앙금질로 뛰여돌아갔다.

그러다가 공을 힘껏 공중에 올려뜨려보기도 하고 내려오는것을 껑충껑충 뛰여오르며 잡아보기도 하였다. 매번 그리 쉬이 잡혀지지는 않았으나 쫓아가는것이 그리고 다섯번에 한번이나마 덩쿵 뛰여오르며 냉큼 잡는것이 실없이 재미났다. 수길이는 학교마당에서 학생들이 공차는 광경을 련상했다.

수길이는 다음으로 공을 발길로 질러보았다. 공이 저만큼에 떨어져 뒹굴어가는것을 보며 그는 그편에 누가 있어 이편으로 도로 차보내주었으면 하였다. 수길이는 동네아이들이 와주었으면 하고 사면을 휘휘 둘러보았다.

(계득이랑 장수랑 무얼 하고있을가.)

그러나 실상 이리로는 아이들이 좀체 들어올수 없기마련이였다. 선교사네 너른 울타리에는 빙 돌아가면서 뽀뿌라 혹은 아카시아나무가 빼곡하게 둘러서있는데 더욱 그 나무 아래도리에 가시철을 배게 둘러쳐놓아서 외인은 감히 얼씬 못하였다.

젖소외양간뒤에 솟은 높은 언덕배기 웃당반의 안침진 수림속에 들어앉은 선교사의 주택은 두말할것 없고 외양간과 그앞의 가탈진 비탈에 들어선 과수나무까지 모두 선교사의 주택구내로 되여있어서 아무리 세찬 장난꾸러기아이들일지라도 감히 범접할 엄두를 못 냈다. 수길 어머니는 선교사네 잡역부다. 빨래도 하고 화독에 불도 때고 물

도 길고 혹시는 소젖 짜는 시중도 들고 또 가을이면 과일 따는 일도 하였다. 수길의 모자는 외양간결에 달린 조그만 막간에 살고있었다.
이 막간 한방에는 최령감이라는 늙은 잡역부가 살고있었다. 최령감은 본시 지주 강돼지네 머슴으로 있었는데 사람이 지나치게 어리무던해서 10년나마 하루같이 강돼지네 두엄을 주물러 심사비틀어진 사람들이 똥물에 빠진 최서방이라고 비웃었다. 그러나 나이들고 허리가 꼬불자 전공도 보람없이 따돌리게 생겨서 전에 선교사네 외양간거름을 쳐가던 반연을 밟아 이리로 드난온 후 가난한 이웃사람들은 최령감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수길 어머니는 이 늙은이의 연줄로 이리로 들어왔다. 최령감에게 비하면 수길 어머니는 수월찮게 영악한 녀인이나 두사람 다 맘씨 착한 탓으로 서로 의지하고 의좋게 지내는터이였다.
대체로 선교사네 과수원앞 비탈과 옆은 골짜기에는 구차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살고있었다.
이들은 대개 시가지바닥에서 밀려나서 관청의 눈을 속여가며 여기에 곤돌막과 달개집들을 꾸렸던것이나 근년에 이르러 이 부근 풍치좋은 언덕에는 별장 비슷한 양옥들이 더러 들어앉았다.
20년도전에 미국선교사가 조선에 오자바람으로 지금 사는 일대를 그때 돈 20원으로 사서 풍치좋은 별장지대로 만들었고 또 근년에는 이 부근에 리목사네와 새 부자 한두사람이 번듯하게 2층벽돌집을 세웠다. 그러나 예전부터 살아오던 구차한 곤돌막의 살림살이는 높기는커녕 갈수록 배틀리고 꼬이기만 하였다.
그런데 이 동네도 다른 모든 가난한 동네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많았다. 수길이는 이리로 온 뒤에 이내 이 아이들과 섭쓸렸으며 그들과 섞여 노는것이 가장 유쾌하였다.
오늘 뜻밖에 좋은 장난감을 얻은 수길이는 젖소외양간마당에서 뛰쳐나와 이웃아이들에게로 갔다. 아이들은 수길이가 가지고온 고무공을 보더니 기급할듯이 펄쩍 뛰며 《야, 거 매끈매끈하고나. 바람도 안 빠졌어.》하고 손가락으로 찔러보기도하고 뺨에다 대고 문질러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잘 놀가 하는것을 궁리하였다.
그리하여 공중에 높이 올려뜨리고 서로 먼저 받으려고 머리를 맞쪼으며 달려다녔다. 이편아이가 주먹으로 지르면 저편아이가 받아서 주

먹으로 되질러보내기도 하였다. 발길로 찰내기도 하였다. 어쨌든 재미났다.

수길이와는 잘 놀지 않던 아이들도 또 조그만 공을 가지고 늘 혼자만 놀던 과수원집 아들도 왔다. 그리고 비단조끼주머니에 손을 지르고 그속에서 뽈사탕과 고리사탕을 꺼내서 입속에 팔매질하듯 던져넣고 냠냠거리는 리목사 아들 요한이란 아이도 한몫 끼려고들었다. 그러나 수길은 이놈이 제일 싫었다.

《넌 안돼. 저리 가. 너 이 새끼 우릴 더럽다고 하지 않았니.》

사실 수길이는 요한이놈에게 단단한 앙치가 있었다. 요한이는 얼굴이 해쓱해서 밸밸하고 다니는 주제에 심사는 많아서 어떤 때는 일부러 수길이곁에 가서 《옛다, 이거 먹어라.》하고 고리사탕 싸는 빈 종이깍지를 던져주었다. 그리고 한번은 그놈과 과수원집 아들이 공을 가지고 노는데로 수길이가 쫓아가보았더니 《비켜, 네게선 소똥내가 나메스껍다.》하고 밀어던졌다.

그래서 수길이는 저희들 놀음에 그놈들이 끼지 못하게 하였다. 노는것이 부러운듯이 먼장에서 구경하고있었다. 그러다가 요한이놈은 심사가 나는지 침을 퉤퉤 뱉으며 제집으로 돌아가버렸다.

수길은 밤에 집에 돌아가서도 요한이란 놈의 일이 생각나서 어머니한테 푸념하였다.

《요한이새끼 오늘 얼굴이 지지벌개서 가구말았어.》 하고 수길은 언제 만져보아도 대견한 고무공을 만지며 뇌까렸다.

《요한이라니, 리목사 아들 말이냐?》

《그깐놈이 글쎄 내 공을 차려고들겠지.》

《그래 못 차게 했단 말이냐?》

《그럼.》

《얘, 큰일났구나. 리목사가 선교사와 아주 친하단다. 그리고 또 무슨 학교랬나, 네가 이 봄에 들어갈 교회학교 말이다. 그 학교에서는 리목사가 교장보다 더 높단다. 성세가 서양사람담에 간다는데 요한이가 제 아버지한테 일러바치문 너 학교 못 들어가.》

이 말에는 수길이도 명문이 뜨끔했다. 그도 그럴것이 수길이는 벌써부터 올봄에는 꼭 교회학교로 들어가려 맘먹고있었으며 그래서 그 학교를 바라보는 때마다 속으로 가만히 《우리 학교.》 하고 불러보는터이다. 참말 몸이 근지럽도록 유쾌한 부름이였다.

사실 수길이 학교 들고싶은 향념은 여느 아이들보다 수수백배나 가냘핀것이 있었다.

수길이는 작년이 소학 들어갈 나이여서 그해 봄에 원서를 내고오라는 날에 어머니와 함께 학교에 가보았으나 결국 까불리고말았다.

그래서 수길 어머니가 선생을 붙들고 비두발괄한즉 입학지원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들일만큼 나이차례로 뽑아서 그렇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길이가 딸리운 리유는 그것이 아니고 집이 구차한것과 선생들에게 미리 술병이나 닭마리를 고여올리지 못한데 있었다. 아닌게아니라 뢰물깨나 찌른 집 아이들은 수길이보다 뒤에 난 아이도 들어갔던것이다.

본시 이웃에서는 수길이를 교회학교에 넣으라고 말들 했으나 당시 감옥에 있던 수길 아버지가 교회학교로 보내지 말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 큰 학교에 넣어서 발천부터 많은 아이들속에서 달궈내라고 해서 그 말대로 하자니 그만 그렇게 되였던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궁으로 들어가서 굴뚝으로 나오듯이 고단한 반생의 어느 쓰라림보다 더 쓴맛을 보았고 따라서 이해에는 어찌하든지 교회학교에 넣으려고 생각하였고 수길이도 그것을 바라고있었다.

한것은 남들 말이 교회학교는 오히려 구차한 집 아이들을 잘 받아준다 하였고 또 하나는 선교사네 집에 있으니까 그 학교 선생이나 리목사에게 청을 드려볼수도 십상 있으리라 생각하였던것이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어디 다른 학교에서 받아준다니. 더구나 애비없는…》 하다가 어머니는 자발없이 나오는 말을 그만 중둥무이하였다. 남편없는 홀어미, 아비없는 외아들— 이것은 거멀못처럼 앙심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는 생각이나 차마 입밖에 내고싶지 않은 말이였다.

그의 남편은 정평농민조합재건사건으로 왜놈에게 붙들려 4년반동안 예심에서 썩어나다가 7년징역을 받고 1년나마 벽돌굽는 고역을 하던중 바로 지난 겨울 추위에 심장마비로 그 부르고싶던 수길의 이름도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졸지에 옥사하여버렸다.

수길이네는 본시 농촌에 살아서 수길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간 뒤 수길 어머니는 90리나 되는 농촌에서 수길이를 업고 남편면회하러 다녔다.

수길 어머니외에 아들을 감옥에 보낸 수길이네 동네 로파들도 그때마다 수길 어머니를 따라서군 하였다. 로파들은 기골 좋고 주눅 좋은

수길 어머니와 함께 가지 않고는 으리으리한 감옥문앞에서 오금이 저려 어찌할바를 몰랐다.

수길 어머니와 로파들은 한번 면회에 4～5일이 례상사로 걸렸다. 그래서 떠날 때는 그동안 먹을 량식이나 기장떡이나 좁쌀떡 같은것을 만들어서 허리에 차고나섰다. 잠은 늘 길가 산기슭 후미진 곳에서 머리를 한데 오붓이 모으고 새우등처럼 꼬부린채 앉아자군 하였다. 워낙 손이 텅 비인터이라 남의 집에 들어가 자잘 렴치가 없어 고박한 아낙네들은 아예 그런 엄두를 내지 않았다.

한번 그 녀인들은 바로 선교사네 뒤편 언덕밑에서 잔 일이 있었다. 그때 우연히 수길 어머니는 최령감을 만나 알게 되였고 그 반연으로 뒤에 선교사네 잡역부가 되였다.

그가 면회갈 때마다 수길 아버지는 수길이를 잘 기르라고 신신당부하였다. 한번 수길이가 백일해로 앓는것을 업고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수길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더니만 호되게 안해를 나무람하였다.

《수길이 나을 때까지 면회 절대로 오지 마오. 나는 아무 걱정 없으니 아이간수나 잘하오.》 하고 남편은 화를 내기까지 하였다. 언제나 강강한 남편은 이때에도 결코 못난 얼굴을 보이지 않았으나 그 철석같은 마음이 수길의 병을 얼마나 아파하고있는지 안해는 알수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전에 면회갔을 때 안해는 그의 몸이 심상치 않은것을 직감하였다. 남편은 첫째 백골같이 말랐고 목을 잘 가누지 못하였다. 몸이 성하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아무 병 없소. 요며칠전에 벽돌에 손가락을 다쳐서 조금 거북할뿐이요.》하고 바른 손가락을 내보였을뿐이고 이어 안해 등에 업힌 수길이를 유심히 바라보며 《래년 봄이문 수길이 학교 가겠군, 이제 반년이문.》 하고 매우 만족한 표정이였다. 간수놈이 수길이를 떼놓고 면회 들어가라고 을러대기때문에 수길 어머니는 머리 넘는 수길이를 늘 꾸동쳐업고 면회실로 들어가군 하였다. 수길이가 영양부족으로 자소해보이였고 또 앓는 아이같이도 보였다.

그로부터 얼마뒤에 얼굴이 해쓱하고 좀 부석부석해보이는 젊은이 하나가 수길이 어머니를 찾아왔다. 캡을 벗고 인사하는 그 젊은이의 까까중이머리를 볼 때 수길 어머니는 곧 자기 남편을 련상했고 감옥에서 갓 나온 사람이구나 생각하였다. 얼굴에 박힌 어루러기도 옥고의

자취인것이 분명하였다.
《수길 어머니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수길 어머니는 어느덧 뛰여멈출줄 모르는 가슴을 누르며 물었다.
《네, 저는 수길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언제 나오셨어요?》
자기 남편도 이렇게 나올 날이 있다는 희망이 이때 일월처럼 그의 앞을 비쳐주었다.
《네, 수일 됩니다. 곧 온다면서… 수길 아버지는 별고없습니다만 수길이때메 걱정하더군요.》
《야, 수길아!》
수길 어머니는 대답보다 수길이를 아버지친구에게 보일 생각이 더 급하였다. 그러나 마침 수길이는 어디로 놀러가고 없었다.
《수길이는 잘있어요. 좀 들어오시지요.》
《아니, 또 오겠습니다. 요 가까운데 있습니다.》
《아니, 어디?…》
《바로 저어 앞 벽돌굴뚝 선 집앞입니다.》
《네네, 그래 누구?…》
《네, 나는 리동건이라고 부릅니다.》하고 동건은 수길 아버지 소식을 대강 전하고 돌아갔는데 그뒤 얼마 아니하여 천만뜻밖에 남편이 옥사하였다는 기별이 나왔다.
그때 수길 어머니가 맨처음 찾아간것이 동건이였고 수길 어머니와 감옥에 가서 수길 아버지시체를 찾아온것도 또 최령감서껀 산에 가서 매장해준것도 동건이였다.
그리고 그뒤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수길 어머니는 그를 먼저 찾아갔다. 수길 어머니는 한때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해보았으나 수길이를 공부 잘 시킬 일념으로 쉬이 뜨지 못했다.
고향은 부근에 학교가 없고 토박한 산전고랑이나 긁어가지고는 도저히 수길이를 공부시켜낼 도리가 없어서 두루 궁리끝에 또 동건이를 찾아갔다. 동건이도 역시 수길 어머니의 뜻과 같은 의견이여서 그는 그대로 선교사네 잡역부로 눌러있었던것이다.
수길 어머니는 동건이와 래왕하는 사이에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것을 대강 알게 되였다. 동건이는 본시 도립병원 급사로 있다가 부지런

하고 령리한 보람이 있어 약제사 조수까지 되였는데 그뒤 한때 세상을 놀래우던 태평양로동조합사건에 관계하여 감옥에 갔었다. 그는 병원에 있으면서 자주 동지들간의 련락을 취해주었고 또 동지를 획득하는 사업을 하는 일방 병원약품을 빼돌려 동지들 병치료에 이바지하였다.

한번은 어느 동지 하나가 형사들의 습격을 받아 총을 맞고 부상당한채 도망한것을 산중에 있는 페광굴속에 두고 치료하여 그를 구원해낸 일도 있었다.

동건이는 감옥에서 나와 정양도 변변히 할 사이없이 직업을 구하러 돌아다녔다. 그러더니 얼마뒤부터 H화학공장 로동자로 취직하여 경편차로 통근하게 되였노라고 수길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왜 인끔이 그만한 사람이 로동자로 들어갔는지 수길 어머니에게는 의심되였으나 그것은 여하튼 그는 동건이를 선생이라고 불렀다. 얼마전에 수길이 입학때문에 찾아갔을 때에도 동건이는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었다. 동건이는 소학교선생중에 옛날동무들이 있기는 하나 별로 자신이 없고 차라리 교회학교가 들기 쉬우리라고 말하고 자기는 교회에는 전연 인연이 없는터이라고 걱정하던 끝에 《그러나 수길이는 령리하니까 들게 되겠지요. 학교에 가서 떼를 쓰십시오. 나도 가보겠습니다.》하고 안심시켜주었다.

사실 동건이도 수길이 학교드는 일이 못내 걱정되였다. 다만 한가지 믿는것은 그 애의 재주였다. 학교입학시험때 선생이 그 애와 문답해보기만 하면 당장 들이고싶으리라고 동건이는 생각하였다.

동건이가 수길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수길이는 장난치다말고 높은 나무를 빤히 쳐다보고있었다. 그래서 무얼 그렇게 보고있는가고 물었더니 수길이의 말이 《아저씨, 나 어서 저 나무만치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하고 대답하였다.

《키가 커선 무얼 하니, 전보대와 경쟁하겠니?》

《키 크면 좋지요. 감옥담장도 훌쩍훌쩍 넘을수 있지 않아요.》

《옳아.》

그제사 동건이도 그의 속을 알만 하였다. 아버지의 자유를 가로막고있는 감옥담장이 지금 수길에게 있어서는 가장 미운 존재였던것이다. 동건이는 수길이의 그 심정을 리해할만 하였다.

《알만 하다. 그리고 기운도 세고… 재주도 썩 많고… 그럼사 좋구말구. 옛날 우리 장수들에게는 다반칼이라는게 있었단다. 그 칼은 도

로로 말면 주머니에도 들어가는데 꺼내서 원쑤놈을 칠 때는 십리도 백리도 넘게 좌르르 퍼지면서 원쑤놈들의 모가지를 단칼에 다 잘라버렸단다.》

《아저씨, 그런 칼 지금도 있어요?》

《글쎄 있긴 있을건데 사람들이 아직 찾아내지 못하는가부다.》

《난 찾아낼테야, 아저씨.》

《그렇지. 수길이는 찾을거야.》

동건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뒤부터 동건이는 진짜 수길이가 장차 동뜬 인물로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수길의 집으로 찾아갈 때마다 수길이를 잘 기를것을 그 어머니에게 당부하고 저도 그 애를 잘 키우는 일에 무슨 도움이든지 해주려고 생각하였다.

수길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더욱 그랬다. 저나 수길 어머니나 힘은 없지만 종이도 맞들면 가볍다고 힘을 합해서 수길이를 잘 키우리라고 동건이는 생각하였다. 그러니 수길 어머니는 더 말할것이 없었다.

수길 어머니는 어찌하든지 아들을 잘 길러 죽은 남편의 뒤를 잇게 하리라고 마음 먹었다.

수길의 머리를 어루만지는 때 어머니는 자기도 장차 문을 활짝 열어붙이고 맑은 날을 우러러 살날이 있으리라는 희망이 솟았다. 수길 어머니는 수길이한테 하나에서부터 백까지 셈세는것도 또 생월생시도 가르쳐주고 또 선교사집주소를 알아다가 이것이 네 사는 주소라고 가르쳐주고 그밖에 입학때 선생들이 흔히 묻는다는 문제들을 알아다가는 수길에게 가르쳐주군 하였다.

그러는중에 수길이는 한번 《어머니! 미국과 일본이 어느기 더 세나?》 하고 엉뚱한것을 물었다.

그러나 어머니도 그런것은 잘 몰랐다. 하면서도 어머니는 그저 일본이 밉다는 생각에서 《일본이 약하지. …》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일본이 나쁘나?》

《그런건 묻지 않아. 선생이 순사한테 붙들려가자구 그러겠니.》 하고 어머니는 이내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자기도 골똘히 생각해가며 《일곱에 다섯을 넣으면 몇이냐?》, 《열셋에서 여섯을 빼면 몇이냐?》 하고 곰곰 물었다.

남들 말이 학교에서는 무엇보다 산수 잘하는 아이를 제일 많이 뽑

는다 하였고 부자집아이들은 돈회계를 잘해서 산수에 익은데 구차한 집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하여 어머니는 그것이 또 은근히 걱정되였다.

하긴 수길이뿐아니라 어머니자신도 그런데에는 아주 서툴렀다. 그래서 어머니는 조그만 감자알과 굵은 감자알을 내놓고 하나는 일전짜리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오전짜리라고 한 다음에 《이것이 열개면 얼마냐? 이것이 스물다섯개면 얼마냐?》 하고 물었다.

그러나 수길이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더듬더듬 대답해서 어머니는 암만해도 불안하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꼭 한번 죽을셈 큰맘먹고 《선교사님!》 하고 그에게 애원해보려고 마음먹고있었다. 그러던차에 수길이가 세도 좋은 리목사 아들을 까주었다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 수길 어머니는 실날같은 희망이 바람받이초불처럼 흔들리는것을 느끼였다.

《아무래도 선교사의 힘이라야…》 하며 수길 어머니는 때따라 속으로 닭알낟가리를 가리군 하였다.

2

아직 2월 초생이건만 날씨는 유난히 맑고 잔풍하였다. 수길은 아침에 일어나자바람으로 산등성이를 밟아올라갔다. 첫봄의 황금빛해별이 원근산천에 우렷이 서리운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보고싶도록 맘이 들뜨는 산뜻한 아침이였다.

이 거리 북쪽에 완연히 뻗은 느릿한 산세가 C강가에 다하는 곳, 거기서 산은 갑자기 잔주름을 잡으며 우로 지어내려가며 수많은 등성이와 구릉과 골짜기를 이루어놓고있다. 높은 봉만 나무없이 홀랑 벗겨져 고깔쓴것 같고 그아래는 일면으로 나무가 들어서있는 아래기슭에 교회당이며 교회병원이며 교회학교며 하는 희고 붉은 우중충한 건물들이 띠염띠염 들어앉아있었다.

그리고 고깔봉에서 C강을 향하여 두팔을 벌린것처럼 내려뻗은 좌우 두줄기산발에 안겨 후미진 그안은 마치 소라아가리처럼 넓고 우묵하게 되여있으며 소라뿌다귀같은 고깔봉의 아래기슭 수림속에 선교사의 흰 저택이 그윽히 들여다보이고 그 집 좌우등성이의 소나무숲을 구변도리로 하고 일단 낮게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들이 줄지어

들어서있었다.

잘 다스러진 사과나무는 겨울에도 줄기에 푸르무레한 자주빛이 보이고 더우기 선교사네 집 서편구석에 수둑이 들어선 살구나무들은 한무더기로 열려서 어느새 웃는 연분홍살구꽃빛을 련상케 하는 뽀얀 빛갈을 자아내고있다.

그것을 쳐다보며 땅에 어리는 황금빛봄볕을 밟을 때 수길이는 자귀자귀 견딜수없이 기쁘기만 하여 함부로 뛰놀고싶었다.

수길은 뒤봉우리에서 내려와 조반을 가래질하듯 퍼넣으며 대강 설때리고나서 고무공을 가지고 총총히 아래동네아이들을 찾아갔다. 그리하여 이날도 종일 아이들과 공차기를 하고 놀았다. 그동안에 아이들은 공을 차고 받고 지르는 솜씨들이 많이 늘었다. 중학생들이 뽈 차는것을 흉내내여 딴에는 아주 거들먹지게 차는 아이도 있었다.

공을 발끝으로 슬슬 몰아가는 아이도 있었고 옆에 섰다가 모로 뛰여들며 그것을 빼앗아 딴 방향으로 굴리며 달리는 아이도 있었다. 한아이는 요전에 중학교학생들이 하는걸 본 일이 있어서 날아오는 공을 머리로 받아넘기려다가 곁의 아이와 어깨를 맞부딪고 그만 둘이 다 그자리에 나동그라졌다. 그래 공이 그 아이들뒤에 떨어지는것을 쫓아 수길이는 너무 성급히 뛰다가 그만 발목이 비끄러져 앙금질하듯 그 다리를 안고 돌아갔다. 그래도 수길이는 《나도 구두만 신으문사…》 하고 꺼먼 딱지가 들어앉은 까마귀발을 설설 문지르며 흰소리였다. 정말 구두만 신으면 선교사네 2층이라도 넉넉히 차넘길것 같았다.

수길이가 간신히 일어나서 절름발로 다시 공을 차려던 순간에 누가 뛰여오며 공을 덥석 잡아쥐고 소리질렀다.

《누가 이 공을 훔쳤느냐?》 하고 그놈은 노라발간 족제비눈깔로 아이들을 하찮게 쏴보았다.

그것은 선교사의 아들 시몬이였다.

그러나 아무 아이도 말이 없고 다만 한두 아이가 무심결에 수길이를 바라보았을뿐이다.

그 순간에 시몬의 억센 손이 수길의 턱아래에 번쩍하며 딱소리와 함께 수길이는 공중제비로 땅바닥에 머리를 처박고 딩굴었다. 수길의 머리가 땅에 부딪는 반발로 조금 들먹하는것을 시몬의 구두발이 꽉 내려밟자 수길의 두 발길이 바들바들 떨렸다. 수길 어머니가 매일같이 짜올리는 우유에 기름살이 오른 시몬의 넘치는 혈기가 굶주린 수길이

를 단절에 까무라치게 하였다. 그러자 시몬은 서슬이 도도해서 다른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이들은 그만 간이 콩알만 해서 그러나 수길의 일이 걱정되여 뒤를 흘끔흘끔 돌아보며 뿔뿔이 달아뺐다.

조선땅에서 누가 그들에게 준 권리인지는 몰라도 조선아이들은 열다섯살에 난 시몬에게도 범접해서는 안된다는 선입견이 박혀서 산산이 도망치고만것이다.

시몬은 한손에 공을 들고 메뚜기다리같은 긴 다리를 휘청거리며 유유히 제집쪽으로 걸어가고있었다. 그러다가 《시몬!》 하고 부르는 소리에 그놈은 흠칫 놀래듯 그편을 바라보다가 《아버지!》 하고 달려갔다.

교회에 볼 일이 있어 내려갔던 선교사는 집으로 돌아오는 언덕길에서 이제까지의 광경을 바라보고있었다. 그는 앞으로 달리려는 부르독의 고삐를 당기여 잠시 멈춰섰다.

《그게 뭐냐?》

《공이예요. 내 공을 저 외양간집 도적놈이 훔쳐갔어요.》

《훔쳤어?》

《그래서 뺏아와요.》

《그래 조선애들이 차고 만지던걸… 에이, 더러워. 어서 저기 내버려. 전염병균이 묻었는지 누가 아느냐.》

선교사는 아들이 공을 팽개치는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시몬…》 하고 기도할 때처럼 엄숙한 목소리로 불렀다.

《도적은 하느님이 벌을 주어. 우리 미국사람은 더러운자에게 신성한 손을 대서는 안돼. 알았어?》

《그렇지만 아버지! 미국사람은 흑인을 때려죽일 권리가 있지 않아요. 하느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용서해주었거던요.》

《흑인은 하느님의 자식이 아니거던. 그러니까…》

《그럼 조선사람은 하느님의 자식인가요?》

《아들이 되겠다고 맹세했고 또 하느님이 용서했으니까. … 그리고 하느님은 워낙 자식이 썩 많으니까. …》

《그렇지만 도적놈은 하느님 아들이 될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흑인과 같지요.》

《도적은… 개가 있어. 개가 물어죽여. 여기 있지 않아. 검둥이는 흰 손으로 때리지 않고 몽둥이로 때려야 한다는걸 알지 않아.》 하고

선교사는 부르독의 고삐를 늦추며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선교사부자가 안침진 수림속 저택으로 들어가버릴 때까지 수길은 아무의 보살핌도 받음이 없이 까무라친대로 땅바닥에 코를 박고있었다. 그의 코앞에는 선지피가 엉키여있었다.

그러자 이내 계득 어머니가 달려나왔다. 계득 어머니 역시 과부로 수길 어머니와 속주고 통정하는 사이였다.

그는 코앞에 피가 엉킨 수길이를 보자 자기의 외아들 계득이를 생각하며 분명 제 육신 맨 깊은 곳이 화침에 찔리는것을 느꼈다.

(아! 무서운 놈들이구나. 이 화단이 계득에게로 미치는 날이 있지 않을가.)

이런 공포와 애처로움이 함께 왔다. 계득 어머니는 수길이를 꼭 껴안아들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랭수에 수건을 짜가지고 수길의 코를 닦고 이마를 식혀주었다. 수길의 몸은 불덩이같았다. 동가슴이 병아리 심장처럼 팔딱팔딱 뛰는것이 손끝에 알려졌다.

계득 어머니는 별안간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포대기에 수길이를 꼭 싸업고 대숨에 수길이네 집으로 달렸다. 요행 최령감이 과수를 가꾸고있어서 그는 곧바로 선교사네 구내안에 들어설수 있었다.

《왜놈들만 사람을 죽이는줄 알았더니 미국놈도…》

계득 어머니는 입속으로 이렇게 뇌까리면서도 입밖에는 차마 내지 못하고 그저 혼자 혀만 끌끌 차며 달렸다.

《이래저래 죽다가 남은 조선사람 씨댕이나 남을라구.》

계득 어머니는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의 외아들을 키워갈 일이 기나긴 그믐밤같이 까마득하게 생각되였다. 그러면서도 계득 어머니는 속으로 빌었다.

《죽지 말아. 죽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라. 그렇게 천지가 천년만년 무심하겠느냐.》

3

수길 어머니는 아무리 생각해도 분통이 터져 견딜수 없었다. 수길이 학교 들일 청탁만 아니면 벌써 뛰여올라가 멱살을 잡고 늘어졌을것이나 아직 마음 한편에 《그래도 혹시…》 하는 희망이 있어서 여직껏 바재이고있었다. 그러나 이젠즉 더 참을수가 없었다.

수길이가 살아야 학교도 있는것이다. 그런데 그 귀한 수길이를 눈 깜박할 사이에 이 지경을 만들어놓았으니 낸들 살아 무엇하랴. 죽던 살던 요정을 내리라고 수길 어머니는 그 으리으리한 선교사네 집으로 오늘 다리꾀임도 모르고 대숨에 올려달렸다. 바위돌이라도 콱 받아보고싶도록 가슴은 설설 끓어번졌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일변에는 (설마한들 죽기야.) 하는 생각도, 또는 (어찌 하든지 살려야지.) 하는 욕심도 있어서 그의 날치는 복수심이 얼마큼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선교사네 무거운 방문을 홱 열어제끼는 바람에 수길 어머니의 말문도 사납게 터져나갔다.

《내 아들은 죽소다.》

그러자 선교사는 새잎에 눈이 찔린 짐승처럼 우멍눈을 슴벅거리며 앞을 막듯 한손을 번쩍 쳐들고 위풍을 돋구려 하였다.

《어어.》

《당신 아들때메 내 아들은 죽게 됐소다. 당신 아들을 내놓소다.》

수길 어머니의 두팔은 부들부들 떨렸다.

《어어, 이게 무슨 소리요?》

《제 자식 귀하기는 마찬가지요. 똥물에 던진 고무공을 집었다기로 사람을 쳐죽이는 법 우리 조선엔 없소다.》

《어어— 당신 마귀 들었어. 저리 가시오.》

《마귀? 생사람 잡는것이 마귀지 누가 마귀요. 어서 썩 그놈을 내놓으란 말이요, 백정놈을. …》

악에 받친 수길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멱살을 찔린듯 선교사는 턱주가리를 뒤로 히끈 당기며 얼음에 자빠진 소눈깔같은 두눈을 슴벅거리고있었다.

그런판에 선교사 부인이 달려들어왔다. 본시 여우같이 간특한 계집인데 더욱 무섬결에 그 본성이 발에 밟힌 멱장구 눈깔처럼 불끈 얼굴에 내비치며 《형님… 조선형님! 이거 무슨 일이요.》 하고 상냥한 얼굴로 《형님》을 개여올리며 그 뚱뚱한 몸으로 선교사를 막아주며 수길 어머니앞에 나섰다.

《그래 여태 몰라서 묻소? 당신 아들과 물어보시오. 하느님자식들은 다 그런 법이요? 내 아들은 맞아 죽게 됐소, 당신 아들한테 맞아 죽게 됐단 말이요.》

《아, 그런 일 없소. 거짓말하는 사람 벌받소. 이 집은 하느님의 집

이요.》
《거짓말? 누가 거짓말하는거요? 동네공판에 붙여봅시다.》
《우리 그 사람들 상관 없소. 우리 시몬 하느님 아들이요.》
《하느님 아들은 사람잡는 법이요? 어서 내놓소. 사람잡는 놈을 내놓으란 말이요.》
《아, 형님! 당신 아들 벌받소.》 하고 선교사 부인은 구미여우같은 갸름한 눈을 사르르 내리깔며 《조선형님, 내려가보오. 하느님께 우리 당신 아들 기도 드리겠소. 떠들면 당신 아들 해롭소.》 하고 선교사 부인은 수길 어머니의 독오른 얼굴에 질린듯 떨리는 목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곳 마귀 내 주의 보혈을 더럽히려 하옵나이다. …》 하고 기도를 올리다가 수길 어머니가 안깐힘 주는 바람에 흠칫하며 말을 끊고 장끼에 놀란 새처럼 눈만 깜빡거리고있었다.
수길 어머니의 눈에는 문득 까무라쳐 늘어진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동침을 찔러도 피 한방울 없을 목석같은 이 년놈들과 맞서있는 사이에 수길이의 생명이 아삭바삭 깎이워들어가는것만 같았다.
그리고 또 그는 그 순간에 구차하나 서로 동정할수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였다. 더욱 동건이가 아닌 밤중의 불빛처럼 눈앞에 선히 떠왔다.
《어디 보자구. 내게도 사람이 있소. 조선사람 다 죽은줄 아오.》
수길 어머니는 그들을 향해 시선끝에 불찌를 담아붓고 돌아서나오다가 아무래도 분이 치밀어서 《내 아들만 잘못돼봐라. 네 아들 잘 살라구 가만 둘줄 아나.》 하고 불끈 쥔 두주먹을 뒤로 제치며 머리를 번쩍 들고 종종걸음으로 걸어나갔다.
수길 어머니는 집에 들려 수길이의 머리와 몸을 두루 만져보고 선발로 동건이를 찾아갔다. 동건이는 마침 주근을 마치고 돌아와있었고 그의 늙은 어머니와 어린 누이동생도 반색하며 맞았다.
그러나 수길 어머니는 인사말 할 경황도 없이 《아니, 우리 수길은 맞아서 죽게 됐소다.》 하고 하소부터 터쳤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글쎄 사람 살다가 이런 변도 있소?》
수길 어머니는 울음섞인 소리로 사정을 대강 말하고나서 《선생, 좀 가봅시다. 내사 어디 하늘에도 땅에도 말할 곳이 있소.》 하고 애원하였다.
《네, 가봅시다.》

그리하여 두사람은 총총히 그 집을 나서 부리나케 걸어갔다.
동건이는 과수원입구에 이르렀을 때 선교사네 집 로대에서 선교사 부인이 아래를 내려다보고있는것을 언뜻 보았다. 선교사 부인도 이편을 보았는지 기웃거리며 한동안 빤히 내려다보더니 다시 실내로 들어가버렸다.
동건이는 수길이네 집에 이르러 방에 들어서며 수길의 머리와 몸을 두루 어루만져보았다. 코앞에 피흔적이 조금 남아있을뿐으로 외상은 없으나 울기오르고 지쳐 나부라진 품이 필시 내출혈인것 같았다.
동건은 한참 잠자코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아무 말도 나가지지 않았다. 가슴 막히는 일이였다. 절대로 다시 보기를 원치 않는 광경이 여기 또 하나 뒹굴고있는것이다. 그것은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전연 생각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자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일이였다.
《조선사람이기때문에 그럴수 있단 말인가. 조선사람은 언제나 남에게 죽음을 강요받아야 한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결창이 터지는 일이였다. 조선사람 하나쯤 죽었대야 무슨 일이 있으랴 하는 이자들은 제 마음대로 조선사람앞에 칼도마를 들이대고있는것이다.
《죽일놈들!》
동건은 무중 입으로 튀여나오는 말을 입속으로 우무리고 수길 어머니에게 말을 돌렸다.
《집에 두기보다 병원에 입원시켜야겠는데요.》
《입원이요?》
《네, 그래 지금 생각중인데… 나 아는 의사가 한사람 있어요. 아마 또 그리로 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문사 여북 좋겠소.》
《그런데 그 선생에게 하도 여러번 페를 끼쳐서… 또 그뿐아니고 그 선생은 우리들때메 경찰에 붙들려도 다니고 죽을 졸경까지 쳐서…》
동건이가 생각하고있는 류의사는 본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이제없이 구차한 환자들 하정을 알아주고 아주 할길 없는 환자는 돈 안 받고 보아줄뿐아니라 지하에 숨어다니는 몇사람을 무료로 치료해준 일이 있어 경찰서에 끌려가 문초받은 일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동건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누가 밖에서 찾는 기척이 들리더

니 뒤이어 《조선형님!》 하는 귀 서툰 소리와 함께 문이 삐걱 열렸다. 선교사 부인이였다.

감기고뿔도 남 안 주던 선교사 부인이 한손에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유지에 싼 과자봉지를 보라는듯이 추켜들고 한손에는 하이얀 손수건을 펴서 코를 막 싸쥐고 퀴퀴한 냄새나는 방안으로 마지못해 들어섰다.

《형님, 나 기도 드리러 왔습네다.》

아까보다 한결 고분고분한 말씨다.

《기도요?》

수길 어머니에게는 부인의 말이 종잡을수 없었다.

《네, 하느님은… 모든 사람 다 구원해주십네다.》 하며 선교사 부인은 과자봉지를 수길 어머니에게 맡기려다가 그 서슬에 질린듯 살며시 수길의 머리맡에 내려놓았다.

선교사 부인은 아까 로대에서 수길의 집으로 웬 사나이가 들어가는것을 보고 어심에 미치는데가 있어서 남편에게 이것을 알렸다. 한즉 선교사도 어쩐지 그것이 께름해서 동정을 살필겸 안해를 내려보냈던것이다.

그들에게는 조선사람이란 맘놓을수 없는 존재였다. 일제학정아래에서 그놈들 란도질에 토막토막 잘리면서도 그 토막토막이 그래도 꿈틀거리고있는것이다.

기미년(1919년) 만세때만 해도 왜놈의 군인과 기마순사들이 거리를 피로 물들이고 소방대들까지 불끄는 쪼개로 사람대가리를 불집헤치듯 찍어 당기였건만 조선사람들의 성난 행렬은 멎을줄 몰랐다.

행렬의 앞장을 선 기수가 군도에 맞아 관자노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것을 그뒤에 사람이 제 두루마기를 찢어 싸매주고 군중은 손을 맞잡아 각지걸이를 지은 다음 그우에 기수를 올려앉히고 총창을 꾸지르며 나갔다. 기마순사의 말이 쇠꼬챙이에 뒤허벅다리를 찔려 남의 관장을 찌르고 도망갔고 순사놈들은 노한 물결에 떠박질려 개천에서 헤염치고 다녔다.

밖에 사람들뿐이 아니였다. 사전에 경찰서에 검거되였던 학생, 시민들도 민족적약속을 지켜 바깥과 같은 시간에 경찰서 유도장과 류치장안에서 만세를 불렀다. 그 선두에는 중학생들이 섰다. 교회중학교 학생들도 그중에 섞여있었다.

유도장에서 밤을 새워가며 경찰놈에게 혹독한 문초를 받던 학생들 중의 한사람이 나는듯 탁자에 뛰여올라 가슴에서 기발을 꺼내 흔들며 만세를 높이 웨치자 그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고함쳐 일어났고 동시에 여러 취조실과 류치장에 갇혔던 사람들마저 이에 호응하여 기와골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만세를 불러댔던것이다.

경찰서장놈과 헌병대장놈이 칼자루로 만세소리와 함께 밀림처럼 치솟는 손들을 후려갈기고 순사놈들이 총대를 휘두르고 유도쟁이놈들이 사람들을 존명태 치듯 멨다쳐 많은 사람들이 피가 터지고 팔다리가 부러졌으나 만세소리는 좀체 멎을줄 몰랐다. 놈들에게 덜미를 박질러 한 눈깔이 빠진 한 학생은 손으로 그것을 되밀어넣으며 만세를 불렀다.

경찰은 많은 사람을 감옥으로 넘기고 거리에서 닥치는대로 사람들을 비웃처럼 엽어다가 소방대 무자위 두는 고간속에서 볼기를 쳐서 내쫓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일은 끝나지 않았다. 조선사람은 결코 항복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 몇개월만이였다. 그때 이 사건으로 감옥에서 옥사한 교회중학교 학생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상여뒤에는 광목필이 두줄로 길게 달려있어 거기에 학생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시민들도 그뒤에 따라서 나갔다.

교통을 방해한다는 구실로 순사들이 그들을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사람들은 끊어졌다 잇기고 헤여졌다 또 줄달리군 하였다.

선교사는 이날도 로대에서 C강 긴 다리를 행렬지어 나가는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러며 선교사는 속으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조선사람 참 용감하오. 나는 기미년에 조선형제 위해 일본경찰서 가서 항의했소. 나는 이렇게 말했소. ―조선사람 머리 불붙지 않소. 그런데 소방대가 쪼개로 사람머리 불을 끄고있소. …》 하였다.

선교사는 이런 말로 조선사람의 호감을 사려 하였다. 조선사람이란 알수 없는 존재인데 또 지독히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였다. 자기에게 별로 무어라고 하는것은 아닌데 잘 구슬리지 않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것 같은 생각이 선교사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실 조선사회는 언제나 조용한 날이 없었다. 갈수록 풍세는 높아

지고 넓어지는것 같았다. 그리고 두만강을 넘나드는 바람이 더욱 거세여졌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불거질지 몰랐다.

사실 사나운 바람은 멎을 날이 없이 줄창 내리 계속되고있었다.

그런데 또 선교사부처는 수길 아버지가 감옥에 오래 있다가 옥사한 사람이라는것을 알고있는터이다. 그것이 선교사부처에게는 어쩐지 몹시 께름하였다.

선교사 부인은 수길 어머니와 동건이를 그들의 몸과 손을 한번 흘깃 곁눈질해보고 그들의 손에 쟁기 같은것이 쥐여있지 않는것을 확인한 다음 감은듯만듯 눈을 지그시 내리깔고 기도를 시작하였다.

《전지전능하옵시고 거룩하옵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도 정하옵니다. 어지러운 마귀 항상 질병과 재난을 뿌리고있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고 죄많은 어린 양 어두워 길 걷기 곤난하오니 불밝혀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

어머니는 무슨 소린지 알지 못했으나 《죄많은 어린 양》이란 말이 몹시 귀에 거슬렸다. 자기들은 결코 남에게 죄지은 일이 없고 있다면 그것은 곧 선교사의 아들일것이다.

그런데 지금 수길이가 누워있는것이 마치 수길의 죄값인것처럼 덤터기 씌우려는것이다. 그뿐아니라 떨어지는 벼락을 보는것처럼 바쁜 이 시간에 알지도 못할 허튼소리를 길게 늘어뱉아서 어머니는 고스란히 동건이더러 류선생병원으로 가보아달랄 생각만 간절하여 목에 걸린 가래를 톺으며 《선생!》하고 나지막하게 불렀다. 그 바람에 선교사 부인은 흠칫 놀라며 부지중 곁눈을 팔았다. 그 순간 수길 어머니와 동건이의 시선이 번쩍하며 마주치는것이 선교사 부인의 눈에 얼른 하였다. 그것은 비수같이 번쩍하며 마치 무슨 무언의 약속을 주고받는것 같았다.

선교사 부인은 별안간 왕청한 환상에 사로잡혔다.

쇠마치, 식칼 그리고 외양간에 있는 삽, 쇠스랑과 창고에 있는 곡괭이… 그리고 이것을 들고 덤벼드는 수길 어머니와 동건이… 이런것이 지꿎이 눈앞에 서물거려 어느덧 생각과 말이 혼선되려 하였다.

《하느님아버지시여! 오늘 밤부터 앞뒤문에…》하다가 선교사 부인은 제김에 놀라 말을 끊었다. 오늘 밤부터 자기 집 앞뒤문에 사나운 개를 지켜서게 하리라는 생각을 자칫하더면 그대로 기도에 올려버릴번 했던것이다.

선교사 부인은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가지고 기도를 계속하였다.
《만복의 구원 하느님아버지시여! 이 어린 양을 굽어살피사 하늘처럼 높으신 은혜로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옵기 간절히 간절히 비옵니다. …》
그러나 벌써 수길 어머니에게는 그 소리가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동건이를 향하여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선생! 이 애를 어서 입원시켜야겠는데… 이러다가는…》
수길 어머니는 말을 맺지 못하고 뛰는 가슴을 손으로 눌렀다.
《네, 이제 내려가보겠습니다. 입원실만 있으면 어떻게든 떼 써보겠는데.》
그러며 동건이가 나가자 선교사 부인은 또 흠칫하며 이내 《아—멘.》 하고 기도를 끊었다.
만일 수길이가 오늘 밤에라도 죽어서 조선의사가 와서 해부하게 된다든지 또는 곧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선사람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말썽이 시끄러워질는지 모른다고 선교사 부인은 생각하였다.
《조선형님, 안심하시오. 이제 곧 낫습네다. 좋은 약도 있고 의사도 있소.》
선교사 부인은 우선 이렇게 안심시켜놓고 이어서 말했다.
《이 방이 정결하지 못하오. 환자에게 좋지 못하오. 병원에 입원시키는것이 좋소.》
《그래서 지금…》
《아니, 우리 교회병원이 제일 좋소. 아주 비싼 약 많이 있소. 우리 미국에만 있는 약이요. 다 죽는 사람도 살아날수 있소.》
수길 어머니는 그 말에 맘이 깜빡 누그러질사 하였다.
《내가 병원에 말하겠소. 그럼 돈 안 받고 보아주오.》
《그럼사 얼마나…》
《우리모두 하느님 자식이요. 다같은 형제요. 서루 사랑해야 하오.》
구미여우같은 선교사 부인은 자기의 구슬림이 외착없이 수길 어머니의 마음을 붙들어논것을 보자 그 방을 나가 불에 쫓긴 거위처럼 군살이 처져 늘어진 궁둥이를 비뚜덩거리며 곧바로 교회병원으로 올라갔다.
그는 바로 원장실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원장 맥부인과 대강한 사

정을 이야기하고나서 《절대로 타박상으로 그런것이 아니고 다른 병으로 그렇다고 해야 하오. 그러니까 다른 의사에게 보이지 말고 당신이 직접 보아야 하오.》 하고 타일렀다.

《알았습니다.》

《그러니 먼저 응급주사를 놓아서 하루이틀 그렁그렁 지난 다음에 이것은 다른 무슨 열병이라고 하란 말이요. 그래야 죽더라도 문제될 건지가 없소.》

《념려마세요. 여기 들어만 오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서 환자운반차를 보내시오.》

그래서 수길은 그날 석양에 생래 처음으로 북석북석한 병원침대에 누워보게 되였으나 그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있었다. 그러나 졸지에 새까만 세상이 들이덮친 수길이모자와는 달리 이날 밤 선교사는 하느님 은혜에 감사를 올리며 늙은 부인을 마치 젊은 신부처럼 힘있게 껴안고 감탄하였다.

《하느님은 당신에게 지혜를 특히 많이 주셨소. 우리는 은혜받은 미국사람들이요.》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도 아닌보살하고 살수 있는 그들의 《밝은 세상》을 노래하며 이날 밤 식탁으로 나아갔다.

4

그날 밤 수길은 주사덕으로 의식을 회복하였다. 그는 몹시 배가 출출했던탓으로 병원에서 주는 흰죽 한사발을 거의다 먹었다. 그리고 또 달고 시원한것이 먹고싶다 하여 어머니는 계득 어머니에게 가서 돈을 꿔가지고 거리에 가서 파이내플 한통을 사다주었다.

《어서 나사만 나라. 먹구싶은거 다 사주게.》

《돈이 있나 뭐. 안 먹구싶어.》

《얘, 아무리 돈이 없기로 너 먹구픈걸 못 사주겠니.》

수길 어머니는 감옥에서 배곯아 죽은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수길이만은 어찌하든지 허리띠를 끌러놓고 살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지금 생각해도 남편같은 고집불통은 없었다. 처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면회를 가서 사식을 차입하겠다고 한즉 남편은 화를 버럭 내면서 그따위 걱정말고 수길이나 잘 기르라고 꾸지람이였다.

그때 사식 한끼에 50전이니까 아무리 치마두른 녀인일지라도 하루 한끼는 댈수 있었고 또 남의 집 안해들도 모두 그렇게 했는데 남편은 배가죽이 등에 가붙으면서도 종시 오근 귀를 펼줄 몰랐다. 그것이 모두 아들 수길이와 또는 자기를 위해서인것을 모른바 아니나 막상 남편이 죽고보니 영원히 맺혀 풀리지 않는 한이였다. 무어니 무어니 해도 세상에 귀한것은 역시 사람이였다. 그러니만큼 어머니는 이젠 오직 하나인 외아들 수길이를 잘 기름으로써 그 한을 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어머니, 몇밤 자문 학교 가니?》

수길이가 별안간 그런 소리를 물었다.

《아직 서른밤도 더 있어.》

《서른밤?》

수길은 손가락을 꼽아가며 서른을 세고 내처 백까지 세였다.

《너 학교 들어갈 걱정은 없어. 교회학교는 가난한 아이들을 더 잘 받는다더라.》

수길 어머니는 말만은 이렇게 외워보나 요새 세상이 그리스도교라고 딴 바람이 불리 없는것을 잘 알고있어서 속으로는 여전히 왼새끼를 꼬고있었다.

《학교 들어가문 꼭 일등 먹을테야.》

《일등먹고말구. 수길이만 한 아이가 어디 있나.》

이런 이야기에 밤드는줄도 몰랐다. 그러나 밤중부터 수길은 또다시 머리가 쑤신다고 하더니 괴로움에 못 견디여 이까지 빠득빠득 갈다가 그만 지치고 기진하여 또 혼수상태에 빠지고말았다. 얼마뒤에 간호부가 들어와서 기웃이 들여다보고 그저 《이제 잠이 들었으니 깨우지 마시오.》 하고 나가버렸다.

어머니는 눈 한번 붙이지 못하고 꼬바기 수길이를 지키고있었다. 수길이는 몹시 괴로와하는 몰골이 헨둥하였다. 얼굴이 잔뜩 질리고 이따금 안면근육과 입술이 발발 떨리는것이 아무려나 심상치 않았다.

수길 어머니는 별안간 저도 모르게 제 가슴에 손을 대였다. 명문이 찌륵찌륵하며 뼈와 살짬으로 화침을 찌르는듯 한 아픔이 주욱 흘러갔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아픔이라는것보다 바로 수길의 아픔이였다.

어머니는 수길의 머리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그러며 자기의 살속에 따끔한 쑤심을 느꼈다. 그는 자기의 살이 지금 수길의 아픔을 뽑

아내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어머니는 한손으로 수길의 이마를 짚고 한손으로 그의 뒤골을 감싸쥐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나는 얼마를 아파도 좋다. 너만 살아다구.》
그러다가 어머니는 다시 자기의 이마를 수길이 뺨에 대고 소곳이 엎드렸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으며 무엇에게 빌듯이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아픈것이야 무엇이오리까.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 수길이가 산다문 나는 지금이라도 기쁘게 가겠습니다.》
어느덧 어머니의 눈에는 방울방울 눈물이 맺혔다.
그 이튿날 아침회견시간에 녀의사는 수길에게 또 주사 한대를 놓았다.
그 보람인지 수길이는 얼마뒤에 다시 의식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몸은 지쳐 나부라지고 얼굴은 또릿또릿한 기색이 없이 흐리멍텅하였다.
그런 그것만으로도 어머니는 우선 기뻤다. 수길의 눈이 다시 띄여질 때 어머니는 캄캄한 덧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아침해발을 받아들이는것 같았다.
《수길아, 나 누구지?》
《알아.》
《사과 줄가.》
《안 먹구싶어.》
수길 어머니는 순간 영낙없이 그 애비에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였다.
작년에 수길이는 눈병으로 병원에 간 일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의 홀쭉한 주머니를 본 수길이는 그 다음날부터는 기어이 안 간다고 우기고 병원에서 시키던대로 불돌을 달구어가지고 제 손으로 눈찜질을 하고있었다. 수길이 아버지도 죽는 날까지 제 고집을 굽힌 일이 없었다.
《사람이사 억대우같지만 왜놈들은 그이를 죽이지 않았는가.》
수길 어머니는 이가 갈렸다. 그런데 또 그이의 뒤를 이을 수길이를 주먹이 물어떨어질 미국 노랑불개미새끼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것이다.
생각만 해도 수길 어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다.
총검도 대포소리도 꿈에 네뚜리였다. 제몸은 모진 탄알인것 같았다. 그것은 이제라도 불벼락이 되여 탁 터질수 있을것 같았다.
《어느놈이 내 아들을… 안된다. 내 아들은 죽이지 못한다.》

수길 어머니는 혼자 웨쳤으나 어디서 《그렇소.》 하고 그 소리에 대답하는 소리가 어슴푸레 들려오는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수길 아버지의 소린지도 모른다고 어머니는 생각하였다.

수길 어머니는 문득 지난날의 한가지 기억을 더듬었다. 그것은 남편이 아직 감옥에 있던 때였다. 하루는 수길 어머니가 선교사네 빨래를 하고있는데 수길이가 현관 저편 동나무아래에 앉아서 무엇인가 하고있었다.

수길 어머니는 그저 무슨 장난을 하고있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오래도록 한자리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있어서 수길 어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빨래 첫물을 빨아놓고 가만히 걸어서 그뒤에 가보았다. 한즉 수길이는 선교사네 구두를 닦고있었다. 분명 시몬의 구두도 거기 섞여있었다. 수길 어머니는 대뜸 눈에서 모닥불이 일었다. 제 일을 도와주려는 수길의 동심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수길아, 너 거기서 무얼 하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왔다.

《아니야.》 하고 수길은 닦던 구두를 뒤로 돌리며 시치미를 뗐다.

《이 새끼, 널더러 그런 일 하라던!》

《안야. … 일 안해.》

《난 남의 심부름한다만 넌 아버지 아들이야. 널더러 그런 일 하라더냐. 이 망할 놈의 새끼. 그렇게 종노릇하고싶으냐.》

《안야, 어머니…》

《이 새끼 더럽다. 썩 내던지지 못해.》 하고 수길 어머니는 수길이가 뒤에 돌려쥐고있는 시몬의 구두를 빼앗아 땅에 내동댕이쳤다.

《안야, 안할래.》

사실 수길은 어머니의 구두닦는 일만이라도 덜어주려고 한것이였다.

《이 새끼야, 내가 남의 일 해주는것만 해도 원통하다는데 너까지 종노릇할게 무어냐. 썩 가서 놀아라. 아버지가 보았으면 넌 맞아죽어.》

그렇게 욕하고 어머니는 구두를 걷어다가 현관안에 팽개치듯 던져버리고 다시 나왔다.

그런데 여느날 같으면 벌써 어디로 놀라 뛰여갔을 수길이가 여태 동나무아래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저리 가 놀아라.》
어머니는 아이들이 현관앞에서 노는것을 선교사네가 좋아하지 않는것을 알기때문에 그렇게 말했던것이다. 그러나 수길은 여전히 가지 않고 그대로 서있었다.
수길 어머니는 수길의 바지에 흙이 묻은것을 보며 그에게로 가서 그것을 털어주고 조끼단추 빠진것을 채워주었다.
《어머니, 아버지 언제 오니?》
《…》
《아버지 오문 우리 집으로 가자구.》
수길이가 무심히 하는 말에 수길 어머니는 그만 눈물이 콱 쏟아져서 수길을 껴안았다. 그런데 도리여 그바람에 그만 수길 어머니는 흐느껴울고야 배겼다.
《이내 온다. 오면 아버지랑 집으로 가자.》
《그런데 어째 어머니 우니?》
《안 운다, 안 울어.》
그러면서도 수길 어머니는 수길의 가슴에 얼굴을 박고 더욱 흐느꼈다.
수길 어머니는 이제금 다시 그때일을 생각하며 《어찌하든지 수길이를 살려놓아야 한다.》 하고 부르짖었다.
수길이는 그뒤에도 주사덕에 이따만큼 정신을 들렸다. 늙은 녀원장은 무슨 까닭인지 꼭꼭 자기가 와서 보아주고 다른 환자보다 주사도 자주 놓아주었다.
《제놈들 지은 죄가 있으니까.》
수길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쨌든 이리해서 수길이는 닷새가 넘도록 목숨이 붙어갔다. 병세는 덜리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나 크게 더치는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나 수길이는 그 며칠 뒤부터 이따금 잠꼬대를 하기 시작하였다.
주사를 놓고난 뒤면 잠시동안 잠꼬대를 하고 그리고나서 삐죽이 눈을 뜨고 의식을 회복하군 하였다.
수길 어머니는 잠꼬대라도 어쨌든 수길의 말소리를 듣는것이 짐짓 탐탁했고 그것은 정녕 주사덕이며 병이 덜리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였다.
수길 어머니는 어느날 밤 불이 꺼진 방열기곁에 기대여 잠시 곤한 눈을 붙였다. 비몽사몽간에 그는 품에 무엇이 안긴것을 느꼈다. 분명

수길이라고 생각하며 꼭 껴안았다. 그러나 껴안고보니 그것은 차디찬 돌이였다. 불현듯 《주검!》이라는 의식이 무서운 공포와 함께 어머니의 등골을 죽 흘러갔다. 그는 그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바둥바둥하면서도 종시 벗어날수 없었다.

그럴판에 어디서 애처로운 부르짖음이 그를 흔들었다.

《어머니… 아, 어머니…》

순간 어머니는 소스라쳐 눈을 떴다. 그러며 호— 숨을 토하려는 순간에 다시 무서운 부르짖음이 그의 나오려는 숨을 속으로 되몰아넣어주었다.

어머니는 더욱 숨이 막히는것을 느꼈다.

《어머니! 저놈을, 저놈이 나를…》

수길 어머니는 제 가슴을 두손으로 꽉 누르고 엎어지듯 수길이에게로 달려갔다. 목에서 모진 겨불내가 났다. 터칠듯 한 숨막힘이였다.

《시몬, 시몬… 저놈이…》

《얘, 수길아, 수길아. …》

어머니는 수길의 몸을 꼭 껴안으며 부르짖었다. 화끈하는 수길의 체온이 가슴에 안겨질 때에야 어머니의 막혔던 가슴은 조금 트이며 긴 한숨이 하하 나왔다.

그러나 그뒤 수길이는 더 잠끄대할 기맥도 없이 파김치처럼 나부라져갔다. 어머니는 때로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그 동네 아낙네의 말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그 병원에서야 교인 아닌 사람 잘 봐준답데.》 하는 말이든지 《돈 안 받고 보는기 그렇지. 잘 봄 얼마나 잘 보겠소.》 하는 말에 수길 어머니는 가슴이 쩔렁하고 머리칼이 하늘로 쭈빗이 일어섰다.

그런데 또 어떤 녀인은 말하기를 그 병원속내는 외인으로는 잘 알수 없으나 그 병원에 오래 있다가 개업해 나온 의사들을 보면 그 속판을 미루어 알수 있다고 하였다.

그 병원에 오래 있던 함의사고 로의사고 모두 약속이나 한것처럼 허름한 환자가 가면 돈이 있나, 얼마 있나 알아본 다음에 약을 주고 돈 없는 환자는 금시 죽을 환자일지라도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진단을 거부하고 밤에는 절대로 환자를 받지 않고 그리고 또 안속으로 딴 장사들을 한다 하였다. 그 딴 장사란 대개 고리대금업이였다. 그들은 교인을 상대로 빚놓이 하는데 만일 기한에 물지 못하게 되면《우리 하

느님 아들 거짓말 없소. 하느님 벌 주오.》 하고 차입이나 강제집행을 례상사로 하여 심지어는 차고있는 금시계까지 빼간 일이 있다 하였다.

《그러니 돈만 아는 사람들이 돈없는 사람 잘 보아줄택이 있소.》

이웃아낙네들의 결론이였다.

그리고 그 반면에 어느 병원이 잘하느니, 어느 선생이 다 죽었던 사람을 살렸느니 하는 말들을 하였다.

개중에서 류선생의 선성이 제일 높았다.

《그 선생은 좋은 약 많이 가지고있대요. 그러기 남이 주사 세대 놀걸 한대에 낫군다지 않소. 약값도 싸고…》

《저 아래마을 뉘집 아이가 갑자기 목이 배틀리고 눈이 가루선걸 그 선생이 동구슬뼈에서 물을 뽑고 주사놓아 살렸답데다.》

그래서 수길 어머니는 또 동건이한테로 달려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라도 류선생병원에 입원시킬수 없겠는가 물어보았다.

《글쎄 요전에 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교회병원에서 어쩔는지. 좌우간 내 류선생을 한번 더 만나보고 올라갈터이니 먼저 올라가시오.》

해서 수길 어머니는 조금 마음을 놓고 병원으로 올라갔다.

한창 이슥히 지나서 동건이도 올라왔다. 류의사병원에 입원시킬수 있으니 이 병원 퇴원수속을 하라는것이였다.

그래서 수길 어머니는 담당간호부를 찾아가서 그 뜻을 말하였다. 간단히 될줄 알았는데 간호부는 원장선생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의젓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그래서 수길 어머니는 《아니, 내 자식 내 가져가는게 어떻단 말이요.》 하고 말하고 동건이도 그러면 원장에게 곧 그 말을 전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간호부가 원장실에 갔다오더니 정색하며 《일단 병원에 입원시킨 담에는 아무리 부모라도 맘대로 드리지 못한답니다.》 하고 다시 더 묻지 말라는듯이 돌아서서 주사기를 소독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수길 어머니와 동건이는 바로 원장실로 찾아들어갔다. 그런즉 늙은 녀원장은 의외로 상냥한 얼굴을 지으며 《아니, 퇴원시키더래도 내가 한번 더 봐야겠소. 요전에도 말했지만 다른 증세가 발생한것 같은데… 내가 맡았으니까 내게 책임이 있소. 오늘은 늦었으니 래일 오전에 다시한번 자세히 보고 적당한 처치를 한담에… 그러니 오

늘 밤은 그대로 두시오.》 하여 수길 어머니도 맘이 적이 풀려 래일 아침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러니만큼 수길 어머니는 이날 밤이 수길의 운명을 재촉하는 저주의 밤으로 될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5

그날 밤 선교사부처는 맥부인의 사택을 방문하였다.

선교사는 어쩐지 이름없는 조그만 조선의 어린애때문에 마음이 몹시 껄작하였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화단이 벌어질지 알수 없는 불안이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던것이다.

사실 선교사는 조선 와서 이름있는 사람들과 돈과 지위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런 위협도 느껴보지 못했다. 그러나 어쩐지 조선사람이란 맘을 놓을수 없는 존재라는 인상이 깊이 박혀있었다.

조선사람은 선교사의 보는바에 의하면 자기들의 사회가 앞가림으로 쳐놓은 그물과 방패를, 즉 자기들의 법률이니 도덕이니 사회질서니 하는것을 그대로 곰곰 밟고다니는것이 아니고 경우에 의해서는 그것들을 단꺼번에 걷어차버리고 목적물에로 껑충 뛰여드는 사람들이였다.

선교사는 요사이의 불안이 조선의 어린이로 해서 오는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씻어버릴 한 방법에 대하여 원장과 상론하러 간것이였다.

그러나 맥원장에게 수길이는 머리의 내출혈로 도저히, 도저히 구할길이 없다는것을 들었을 때 선교사는 《우리는 언제나 미국인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하고 말을 딴데로 돌렸다. 자기가 짓는 죄가 아주 문제거리 안되는 조그만것이라는것을 말하기 위해서 선교사는 크나큰 죄악의 화신인 미국을 들고나설 필요를 느꼈던것이다.

《미국사람 무엇때문에 조선 와서 일합니까? 무엇때문에 조선사람에게 하느님 은혜 베풀어줍니까?》

그러자 암여우가 《미국때문입니다. 미국사람때문입니다.》 하고 맞장구를 쳤다.

《그렇습니다. 미국사람 명예 위해서는 조선사람 생명 고려할 필요없습니다. 하느님이 모르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질 아무런 리유도 없습니다.》

《하느님이 버린 존재는 벌거지와 같습니다.》
암여우가 쐐기나 치듯이 다시한번 더 조지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애를 퇴원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의사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작부터 타박상이 아니라 다른 병이 발생한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것들이란 용감합니다. 그 아이를 몰래 꺼내가면 어찌합니까.》
그러자 부인이 또 입을 쫑긋거리며 《그렇습니다. 도적해갈수 있습니다. 미국사람 지혜 부족합니다. 당신은 조선사람이 돼서는 안됩니다. 무지한 사람에게 당신이 전염돼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미국사람의 지혜와 용기와 도덕이 필요합니다.》 하고 종알종알 껴들었다.
《결단성이 있어야 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전염병이라고 딱 진단을 내리고 그 자리에서 격리시키란 말이요. 그리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란 말이요.》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좋습니다. 미국사람 그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도덕이 필요합니다. 미국도덕은 세계의 도덕으로 돼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은 세계를 지배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의사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덕을 남에게 강요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전염병이 아닌것을 세균주사를 놓아서 전염병으로 만드는것도 필요합니다.》
《미국인을 위하는것이라면…》 하고 암여우가 또 부언하였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장선생!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또 생각해야 합니다. 가령 말입니다. 전염병을 감염시키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전염병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시간만에 죽는것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더 주사할것이 없습니다. 우리 병원엔 그것이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좋습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미국도덕, 미국사람을 위해서는 교

회만 필요한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탄환을 주십니다. 비행기와 군함을 주십니다. 우리 선교사가 든 성경을 당신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의사가 잡은 주사기를 당신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

《그것은 미국과 미국인을 위한 무기입니다.》

맥부인에게서 인간 또는 의사의 량심이 들가보아 걱정인 선교사 부인이였다.

《총을 가지고도 총에 맞아죽는 사람은 어리석고 가련한자입니다.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 가진 무기는 소용없게 됩니다.》

선교사는 오금 박듯 내리먹였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 하느님을 대신해서 원장선생께 하나 묻겠습니다. 전염병환자의 시체가 다른 의사 아니, 조선의사의 손에 넘어가 엄밀한 감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어찌될가요?》

《누가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선사람 무지합니다. 용감합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일본사람의 총칼에 대해서 맨주먹으로 싸웁니다. 자기 아들의 시체를 빼앗아갈수 있습니다. 여게 있어서는 법률과 순사만을 믿는 사람보다 몇배나 용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없애버려야지요.》

녀원장도 결심한듯이 단정을 지어 말하였다.

《아! 옳습니다, 옳습니다. 미국사람 현명합니다. 미국사람 세계를 지배할 날 멀지 않습니다. 나는 원장선생에게 미국사람의 영예를 드립니다.》 하고 선교사는 손을 들며 기도하는 시늉을 하다가 다시 말하였다.

《그러나 땅속의 시체도 검진하면 사실이 판명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체를 그즉시로 화장하게 하란 말이요. 그것은 의사의 권리입니다. 일본경찰은 여기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교사는 생각하였다. 만일 수길이를 전염병으로 죽여 매장한다 하더라도 이내 파내서 조선의사들이 검진한다고 하면 두가지 사실이 함께 탄로될것이다.

즉 시몬에게 치명적타박상을 받은 사실과 동시에 병원에서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전염병을 감염시킨 사실을 알게 될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위불없이 조선사람의 분노를 더욱 크게 할것이다.

조선사람은 언제나 이런 일은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 보아 벌떼처럼 떠들고 일어나는것을 선교사는 여러번 보아왔다.

그 한가지 실례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한번 일제관청은 토질병(지스토마)이 있는 지방사람들에게 에메찐주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주사의 중독으로 조선사람 하나가 사망하였다. 일제관청은 위자료까지 보냈으나 그것이 곧 사회문제로 되여 한동안 벅적 고아댔다. 그리고 이런 공기속에서 죽은 사람의 안해는 주사를 놓은 공의를 죽인다고 해서 공의는 종시 그곳을 도망치고말았다.
선교사는 이내 그 생각을 몽때리듯이 《하느님아버지시여! 미국사람에게 영광을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올렸다. 그러자 부인은 또 그뒤를 받아 보충하듯이 《맥원장선생에게 복을 베풀어주십시오. 아—멘.》 하고 빌었다.

그 이튿날 아침이였다.

수길 어머니가 병원에서 집에 돌아가 아침을 지어먹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 때는 벌써 수길이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리고 코를 쏘시는 소독수냄새만이 악물스럽게 풍기고있었다.
수길이 곁침대에 누운 륵막염환자도 소독약냄새에 밀취한듯 이불을 뒤집어쓰고있다가 수길 어머니 들어오는 소리를 알아듣고 창백한 얼굴을 빠끔히 내밀었다.

《아니, 우리 수길이 어디 갔소?》

《전염병이래요. 나도 누웠다가 생벼락을 맞았소다. 온통 야단이 났답니다.》

그때 입에 꺼렝이같이 커다란 마스크를 한 간호부와 위생복 입은 사나이 하나가 쫓아들어왔다. 그들은 다짜고짜로 수길 어머니를 붙들어세우고 고약스런 소독수를 냅다뿜었다. 숨이 칵칵 막히고 코구멍이 얼얼하였다.

《여보, 우리 수길이 어디 갔소?》

수길 어머니는 느끼며 웨쳤다. 맵싸한 소독수가 혀바닥을 쏘셨다.

《우리 수길이 말이요.》

《당신 아들 전염병이요. 그래 당신도 소독하지 않소.》

《염병?》

《격리병실로 갔소.》

《그곳은 어디요.》

《거긴 가지 못하오.》

《글쎄 어디 있소?》

《못 간다니까. 어서 집으로 돌아가오.》 하고 그들은 뿔뿔이 나가버렸다.

수길 어머니는 아무리 해도 리해할수 없었다. 그는 간이 조여 두주먹을 불끈 쥐고 반달음질을 쳐 원장실로 쫓아올라갔으나 마침 원장은 어디 나가고 없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두드릴지 막연하게 된 수길 어머니는 한참 서성거리다가 하는수없이 다시 입원실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휘청거리며 복도로 정신없이 왔다갔다하다가 안면있는 간호부 하나를 만났다.

《여보시오, 우리 수길이 어디 있소?》

그는 애원하였다.

《수길이라니요?》 하고 간호부는 잠시 수길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난듯이 《아니, 저 병실에 있지 않소?》 하였다.

《아니, 저 무어라든가 격리실이라나…》

《네, 네… 그리로는 못 갑니다.》 하고 지나쳐버리려는것을 수길 어머니는 앞을 막아서며《아니, 좀 가르쳐주시오.》 하고 소매를 잡으며 다가들었다.

《집에 가있소. 환자는 병원에서 잘 치료해줍니다. 안심하고 나가시오.》

《나를 그 애 방에 함께 있게 해주시오. 내 부탁입니다.》

《그건 안돼요, 당신께 전염됩니다.》

《아니, 나는 염병이 아니 들어요. 둘이서 죽어도 좋아요. 네, 꼭 같이 있게 해주시오. 내 머리를 베여 신을 삼아드리리다, 네.》

《안됩니다. 경찰서에서 알문 잡아가요.》 하고 간호부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버렸다.

병원것들은 모두 한속이라고 수길 어머니는 생각하였다. 어디 가서 누구를 잡고 하소할지 명문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하였다.

수길 어머니는 하는수없이 입원실 뒤문밖에 나가 이 건물, 저 건물을 기웃기웃 엿보며 돌아다녔으나 어디가 어딘지 바이 알수 없었다.

그는 원장방에 들어가는 문밖에 가서 섬돌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원장이 얼씬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있었다.
간이 바질바질 말라붙는 몇시간이 지나간 뒤에야 수길 어머니는 원장이 어디 갔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는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미친듯 뛰여올라가 녀원장 앞길을 막아섰다.
《원장님! 우리 수길이 어데 있소?》 그 목소리보다 그 눈은 더한층 애절하였다.
녀원장은 첨은 조금 놀라는 상이였으나 이내 애걸하는 눈매를 얕잡아보고 위의를 돋구며 《당신 아들 전염병이요. 격리병실로 갔소.》 하고 옆으로 삐여져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수길 어머니가 지남철처럼 지꿎이 따라오는 바람에 다시 멈춰섰다.
《원장님! 나를 그리로 가게 해주시오, 네.》
《안됩니다. 거기는 다른 사람 못 갑네다.》
《그럼 우리 수길일 내주시오.》
《안됩네다. 전염병환자 아무데도 못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아닙니다, 원장님!》
《비키시오.》
《원장님! 수길을 내주시오. 가져가문 꼭 낫게 하겠사와요.》
《안된다니까. 경찰서에서 알문 당신 잡아가오. 비키시오.》
《아닙니다. 내 자식 내 가져가는데 무슨…》
《글쎄 안된다니까.》
《원장님, 죽든살든 내 손으로… 네.》
《안돼요. 경찰서에 전화할테요. 비키시오.》
《나는 죽어도 내 자식을 찾아가지고서야 가겠소다. 내 자식 주기전엔 죽어도 못 가겠소다.》
《비키라니까… 여보, 거기 누구 없소?.》
《안됩니다. 내가 어떻게 기른 아들이기 남의 손에 죽이겠소. 안됩니다, 안돼요.》
《비키라니까, 어서…》 하며 녀원장은 발길로 차줄듯이 몸을 솟구치며 삐여져나갔다.
《안됩니다.》
순간 수길 어머니는 녀원장의 소매자락을 덥석 거머쥐였다.
《어마나!》

늙은 녀원장은 덫에 든 쥐처럼 눈이 휘둥그래지며 도망치려고 바둥거렸다.

《우리 수길일 어서 내놔요, 내놔.》

《거기 사람없소?》

《안되오, 안돼. 우리 수길일 어디다 빼돌렸느냐 말이요. 내놔요.》

《여보, 미친 사람 왔소. 거 누구 없소?》 하고 평생 독신으로 늙은 녀원장은 트일 구멍이 종시 다 트이지 못한 염소목소리같은 비린청을 지르며 꾹두각시같은 머리를 홰홰 내저었다.

그의 안경이 코끝에 걸리고 한팔소매가 어깨를 미끌어 벗어지려 하였다.

《내 자식 내가 가져가는데… 내놔요, 내놔.》

그때 간호부들과 소제부 하나가 달려왔다. 그들은 수길 어머니에게 달라붙어 사나이는 수길 어머니의 손목을 비틀고 간호부는 손가락을 젖혔다.

그리하여 녀원장은 간신히 빠져 제 방으로 들어갈수 있었다.

수길 어머니가 소제부와 수위에게 붙잡힌채 등을 밀려 문밖으로 나가는것을 유리창밖으로 내다본 때에야 녀원장은 숨을 호— 쉬며 소독수로 손과 소매를 문질렀다.

《이 더럼과 냄새가 빠질수 있을가.》

녀원장은 수길 어머니가 잡았던 여기저기를 한껍질 홀랑 벗도록 연신 문지르며 속으로 (꼭 오늘 밤중으로… 그리고 래일 아침 일찌기 살라버려야겠다.)고 곰곰히 생각하였다.

6

수길 어머니는 병원수위 두사람에게 등을 밀려 집으로 돌아갔다. 물론 그는 돌따서서 다시 병원으로 가면 갈수도 있었다. 그러나 야차같은 그들과 맞서보았대야 끝내 수길이를 만날것 같지 않았다.

수길 어머니는 그 몰인정한것들을 상대해 말썽질하는 사이에 그들과는 정반대의 참된 인간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동건을 찾아갔다.

그러나 동건은 아직 공장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수길 어머니는 선발로 다시 병원에로 쫓아갔으나 수위에게 다시 밀려나고말았다.

수길 어머니는 병원뒤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망연히 붉은 벽돌집을 내려다보았다. 그속 어디에 수길이가 숨소리 가랑가랑 홀로 드러누워 있을것이다.

수길 어머니는 날아다니는 새들이 부러웠다. 자기를 병원소제부로 써주었으면 맘놓고 수길의 병실로 들어갈수 있으리라는 공상이 잠시 달았다.

봄하늘은 찌프린듯 음산하고 머리우에선 전선줄이 윙윙 울고있었다.

그때 웬 사람 하나가 비탈길로 올라오는것이 보였다. 병원약제사였다. 예전에 례배당에서 성경책을 끼고 나오는것을 보아하니 인품이 매우 점잖은것 같았는데 더욱 요사이 병원에서 몇번 본 일이 있었다.

수길 어머니는 바로 그를 쫓아갔다.

《선생님!》 하고 두어번 부른 때에야 약제사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였다.

약제사는 수길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둥만둥하다가 《미국의사들에게 맡겼으문 하느님께 맡긴것이나 일반입네다.》 하고 기도식으로 설교하였다.

《아니, 선생님! 하느님에게 맡기다니요!》

수길 어머니에게는 약제사의 말이 도리여 매우 불길하게 들렸다. 하느님이 아무리 좋다 한들 어찌 어미만 하랴싶었다.

《미국사람은 거짓말이 없습네다. 보십시오, 그분들은 조선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의사선생님이 오시고 선교사님이 오시고…》

《아니, 선생님!》

수길 어머니 귀에는 그런 소리가 통 들어가지 않았다. 수길이 누워있을 병원건물들을 바라보는것만도 못한 소리따위였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름만 조선사람이지 속은 모두 미국사람이나 다를바 없는—자기와는 아주 딴세상 사람같았다.

내려다보느니 건물들은 근감하게 많으나 어디 가서 누구와 말하랴. 수길 어머니는 그래도 교인이나 미국인은 왜놈들보다 나은줄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알고보니 가재는 게편이지 자기를 보아줄 사람은 거기 있지 않았다.

수길 어머니는 바라보는 눈이 지쳐 눈물이 고이는줄도 몰랐다. 그 유착스러운 벽돌집들이 주먹만큼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 손바닥에 올려놓고 샅샅이 들여다보았으면 거기서 반드시 수길이를 찾

아 만날것 같았다.

그래서《야, 수길아!》 하고 불렀으면 당장 가슴은 열릴것이였다. 수길 어머니의 지금심정에는 아무 다른것이 없었다. 다만 아들의 손을 잡고싶은것 그리고 《수길아!》 불러보고싶은것 그것뿐이였다.

그러나 말도 할길 없고 눈에는 모닥불이 달렸건만 수길에게 비쳐줄 길이 바이 없었다.

수길 어머니는 주위를 한번 휘둘러 살펴보았다. 훌랑 벗어진 고깔봉아래의 침침히 우거진 나무숲을 바라보니 마음은 한결 더 무거워졌다.

그러나 저 숲속에도 해발은 비치지 않는가. 속담에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고 했는데 내게는 언제 별이 들것인가.… 수길 어머니의 마음은 별을 그려 아글아글 타는것 같았다.

그럴판에 뒤켠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의 노래소리였다. 구차한 집 아이들이 땔나무하러 해동무렵부터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검불이나 락엽이나 삭정이 같은것을 걷어가는것을 수길 어머니는 알고있었다.

《아! 어쩌면 남의 집 아이들은 저렇게 즐거울가.》

수길 어머니는 답답한 가슴을 주먹으로 두세번 두드렸다. 그의 발은 어느덧 그쪽으로 옮겨졌다.

남의 아이들의 얼굴이라도 보고싶었다. 남의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수길이가 어디 그 모양으로 살아있는것을 느낄수 있을것 같았다.

《남 다 사는데 어째 내 아들인들 살아있지 않겠느냐.》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며 걸어가는데 점점 가까와지는 노래소리가 또 유심히 그의 마음을 그러쥐였다. 수길 어머니는 발소리를 죽이며 그 노래를 가만히 엿들었다. 언제 어디선가 들은 일이 있는 노래와 같았다.

앵무새라 말을 할가 태양이라 비칠건가
입도 귀도 다 있건만 벙어리만 같아여라
산천초목 들을지라 검은 시름 붉게 탄다
옭매듭 그 맘이야 하마나 풀릴소냐

수길 어머니는 자세한 의미는 몰랐으나 몹쓸 세상, 악한 놈들에 의하여 강요당하는 검고 무서운 암흑과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불처럼 붉

게붉게 타오르는 자기와 같은 마음들을 그 노래속에서 읽을수 있었다.
(동건이를 만나봐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삽시에 솟았다.
수길 어머니는 집에 돌아갔다가 그길로 바로 동건이를 찾아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동건은 어둑어둑해서 돌아왔다. 동건이는 오늘의 자초지종을 듣고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과연 무슨 속판인지는 역시 알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되나 안되나 래일 석양에 공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길 어머니와 함께 원장을 찾아가기로 약속하였다.
하루밤을 거의 뜬눈으로 새운 수길 어머니는 이튿날 새벽녘에야 겨우 자는듯마는듯 깜빡 눈을 붙였다. 그러자 이내 꿈이 왔다. 그는 무서운 도적에게 쫓기고있었다. 도망치려 하나 달릴수가 없었다. 한참 바둥거리는데 도적이 눈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런데 별안간 누가 시퍼런 비수로 그놈을 보기 좋게 콱 찔러번졌다. 그것은 분명 남편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동건이였다.
수길 어머니는 숨을 하아 쉬며 기지개를 주욱 켜다가 그만 잠이 깨였다. 잠이 깨니 까치소리가 들려왔다. 반가운 소리였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라나.》
수길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조였다.
그날 오후에 웬 사나이가 수길 어머니를 찾아왔다. 수길 어머니는 어쩐지 대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얼굴이 거무테테하고 조는듯 한 거적눈아래에 오뉴월 소불알처럼 축 늘어진 개발코가 달린 흉물스러운 사나이였다. 그는 분명 병원에서 본 수위인지 소제부인지 한 사나이였다.
《이게 리수길 집이요?》
그 사나이는 말도 전하기 전부터 돌아가려는듯이 뒤뚝거리며 물었다.
《네, 그렇소. 어째 그리오?》
수길 어머니는 가슴이 뿌쳐 손으로 지그시 누르고 한쪽고무신이 부엌문턱에 걸려 부엌문앞에 나딩구는것도 모르고 쫓아나갔다.
《병원으로 오래요. …》
《병원으로… 아니, 무슨?…》
《이 집에 입원한 사람 있지요?》
《네,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대요.》
《죽…》
수길 어머니는 그만 정신이 핑그르 돌며 다리가 꼬여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아랑곳없이 엉거주춤하고 암말없이 비슬비슬 돌아나가버렸다.
《수, 수길아!》
수길 어머니는 손벽을 한번 크게 치며 쫓아나갔다.
나오느라니 그만 목이 콱 메여 설음이 쏟아져 다시 그 자리에 풍덩 주저앉았다.
《수길아! 수길이 죽다니 웬말이냐.》
그는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숨이 꺼질듯 몹시 흐느껴졌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의 가슴에 곤장같은것이 불끈 치섰다. 그는 모든것을 깨달았다. 수길이를 죽인것은 선교사네 승냥이떼들이고 병원 원장년임이 틀림없었다.
《오냐, 알았다. 이년놈들, 내 자식을 잡느라고 그 작간을 꾸몄구나. 그러나 안된다, 안돼.》
수길 어머니는 뜰에 굴러다니는 작대기를 들어 땅을 힘껏 갈겼다.
《이년놈들, 안된다, 안돼. 생사람을 가지구 전염병이라구… 살려놔라, 살려놔. 그러지 않으면 당장 너희 년놈들을 씹어먹구야말겠다.》
수길 어머니는 다시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직 수길이가 죽지 않고 숨이 가랑가랑하게나마 붙어있는것 같은 환상이 머리속에서 죽음의 검은 그림자와 맞물고 매대기치며 맴을 돌았다.
그는 길이 어떤지, 발이 어디 가놓이는지 몰랐다. 그러나 수위보다 더 먼저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가 입원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누가 수부에서 불렀으나 그는 듣지 못하고 긴 복도를 허겁지겁 달려들어갔다.
《수길아, 아이고, 수길아!》
《여보— 여보—》
흰 위생복을 입은 사나이가 쫓아와서 수길 어머니의 팔을 꽉 잡았다.
《우리 수길이 어데 있소?》
《떠들지 마오. 환자들이 놀랍네다.》
《여보— 우리 수길이 어데 있소? 나 좀 어서 보게 해주오.》
《이리 오시오.》

그리하여 수길 어머니는 안침지고 으슥한 구석에 있는 한 방으로 안내되여 들어갔다. 그러나 거기에도 수길이는 없었다.

《수길이 살아있지요? 날 좀 어서…》 하며 수길 어머니가 도로 문밖으로 뛰여나가는것을 그 사나이는 다시 붙잡아당기며 《여기 앉으시오.》 하고 걸상에 잡아앉히려 하였다.

《아니… 난 가야…》

《글쎄 앉으시오. 이제 아들을 보게 해드립네다.》 하고 수길 어머니를 주저앉히며 정색하고 물었다.

《당신이 리수길의 어머니신가요?》

《네, 수길이 아직 살아있지요.》

《당신 아드님은 우리 병원의 따뜻한 기도를 받으며 하느님에게로 갔습네다.》

《가다니요?》

하늘이 왈칵 무너져내리며 골통을 때리듯 어머니눈에서는 푸른 불빛이 번쩍하였다. 자칫하면 그 자리에 푹 꼬꾸라질번 한것을 간신히 참고있었다.

《하느님품으로 돌아갔습네다.》

《하느님?》

수길 어머니는 소스라쳐일어나다가 또다시 푹 주저앉아버렸다.

《병이 워낙 고약한 병이 되여서 집에도 알릴수 없었습네다.》

《수길일 누가 하느님에게 주랬소? 내 자식은 내게 주시오. 산대로 도루 주시오.》

《본시 병원규칙이 그렇습네다. 그리고 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그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곧 화장하는 법입네다. 그래서…》

그러나 수길 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하였다.

《수길이 어데 있소?》

《네, 여게 있습네다. 이제 올리겠습네다.》 하고 위생복을 입은 사나이는 선반우에 가서 흰 보자기에 싼 조그만 상자를 내리워 두손으로 수길 어머니에게 내주며 《이게 바로 당신 아들입네다. 받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수길 어머니는 멀끔히 바라볼뿐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게 당신 아들입네다.》

《…》
《불사르고 남은 유골입네다. 받으십시오.》
《불에?》
《네, 법이 그렇습네다.》
《내 아들을 불에…》
《네, 바루 이겁네다.》
《이거?》
《…》
《이게 수길이란 말이요?》
수길 어머니의 눈길이 삽시에 사납게 치떴다.
《…》
《생사람 잡구 증거를 없애려구 덩지채 살라버렸구나. 이 날백정년놈들아, 너희는 내 손에 죽을줄 알아라.》
수길 어머니는 두주먹을 부르쥐고 소스라쳐일어났다.
《안된다, 안돼. 내 아들을 내놔라.》
설음도 잊고 수길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또 웨쳤다.
《누가 내 아들을 사르랬느냐?》
위생복 입은 사나이는 뒤뚝하며 한두걸음 뒤로 물러섰다.
《안된다, 안돼. 너희가 내 아들을 때려죽이고 흔적을 없앨려고…》
《진정하십시오. 사람이 죽고 사는건 하느님께 달렸습니다. 성경에 다 적혀있습네다.》
《내게는 하느님이 없다. 내 아들을 내놔라. 내 아들이 하느님보다 낫다.》
《하느님뜻을 거역해서는 당신께 해롭습네다. 그리고 당신 아드님께도…》
《내게 리를 줄려고 천금같은 내 아들을 불살랐느냐. 안된다, 썩 내 아들을 내놔라. 못 내놀테냐.》
《선교사님께서도 당신 아들의 영생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자아, 이렇게…》
그러며 위생복을 입은 사나이는 종이봉지 하나를 내놓았다. 그것은 선교사가 보낸 약간의 향전이였다.
《선교사…》
수길 어머니는 종이봉지를 내미는 그의 손을 탁 싸려버리며 《이놈,

하느님을 팔아 살인하는 백정놈을 선교사라구. 그놈의 아들새끼를 살라서 뼈다귀를 가져오너라.》

《진정하시오. 당신 아들은 천당으로 갔습네다.》

《천당? 천당은 백정놈들이나 가거라. 내게는 소용없다. 원쑤놈들을 내놔라, 내 아들을 죽인 원쑤놈을 내놓으란 말이다.》

《오, 하느님아버지시여! 이 녀인에게 복을…》

《복? 개소리 말아. …》

수길 어머니는 위생복 입은 사나이손에 들린 유골상자를 채가듯 빼앗아 한품에 끼였다. 그바람에 상자우에 놓였던 선교사가 보낸 돈뭉치가 나딩굴어떨어졌다.

수길 어머니는 마치 솔개미가 병아리를 채가듯 그 봉지를 한손에 와사삭 거머쥐고 문을 차고 부리나케 내달렸다.

7

고무신이 벗어진채 헌 양말만 걸고있는 수길 어머니의 한발이 돌부리를 걷어차서 피가 터졌으나 그는 알지 못하였다. 깨물어 팅팅 부어오른 아래입술에는 선지피가 엉키여있었다.

쑥대머리에 화등잔같은 눈, 그 눈앞에 나타난 광경—

수길 어머니가 선교사네 벽돌양옥 무거운 문 셋을 돌개바람치듯 순차로 열어제낀 때 식탁에 둘러앉은 세 원쑤의 얼굴이 가까운 과녁판처럼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움직이는 화면처럼 수길 어머니의 눈앞에서 커졌다작아졌다하였다.

후치날같은 매부리코끝이 흉물스럽게 웃입술을 덮은 늙은 승냥이와 금방 두꺼비를 삼킨 구렝이배때기처럼 배통이 불쑥 내밀린 암여우와 지금 바로 껍데기를 벗고 나오는 독사대가리처럼 독기에 반들거리는 매끈한 이리새끼 시몬… 그것들의 우묵한 여섯눈깔이 한결같이 송장을 기다리는 무덤구멍같이 수길 어머니에게는 보였다.

이 이리떼들은 염라대왕앞에 선 악령들처럼 수길 어머니의 헝클어진 머리, 살기등등한 눈, 피 벌건 발, 찢어진 옷자락앞에 몸소름을 쳤다.

《오! 하느님…》

암여우의 입이 먼저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무서움에 질려 가늘게 떨렸다.

그러나 그들이사 무어라고 짖든지 울든지 그런것은 아잘것없이 수길 어머니는 다리를 절구공이처럼 들었다놓으며 한걸음한걸음 저들에게로 육박해갔다.

저들은 불맞은 짐승처럼 식탁에서 우뚝 일어났다. 그바람에 식탁에서 접시 하나가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요란히 들렸다.

《항상 당신의 자식을 보살피고 사랑하시는 하느님…》

그럴 때 그 기도소리를 단칼에 두토막내듯 수길 어머니의 발이 한걸음 앞으로 콱 밟고나섰다. 그것은 바로 저들에게 육탄과 같이 보였다. 저들은 두어걸음 뒤로 물러섰다.

《여보시오, 조선형님! 여기 하느님이 계십네다. 우리 지금 당신과 당신 아들 기도 올렸습네다. 당신 도움 받을것입네다.》 하는 암여우의 말을 받아 늙은 승냥이가 뒤에서 부르짖었다.

《우리 당신에게 돈 보냈소. …》

그러자 수길 어머니는 손에 거머쥐고있던 선교사가 보낸 돈봉지를 늙은 승냥이면상에 냅다뿌리고 이리새끼를 향하여 손을 번쩍 내밀었다. 그 순간 수길 어머니의 팔이 한 두서너자 불쑥 늘어나는것같이 선교사의 눈에는 보였다. 마치 그 팔이 아들 시몬의 모가지를 칭칭 휘감아가는것 같았던것이다.

그때 암여우가 다급히 손을 내저으며 수길 어머니의 앞을 막아서서 《오! 안됩네다. 조선형님, 벌 받습네다.》 하고 바스라지는 소리로 웨쳤다.

수길 어머니의 거멓게 죽고 메마른 입술이 자개바람 들린것처럼 그는 입속에서 무엇을 지근지근 씹고있었다. 그리고 또 한걸음 작도나 디디듯이 콱 밟고나가며 손을 다시 번쩍 쳐들었다.

《아이고, 안되오. 하느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소.》

선교사 부인은 뚱뚱한 몸으로 선교사와 아들을 감싸주듯이 하며 수길 어머니의 손이 닿을가봐 그의 손은 허공에서 발발 떨고있었다.

《오! 하느님아버지시여! 이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때 수길 어머니의 한발이 자기앞을 가로막는 암여우와 늙은 승냥이를 단번에 깡충 뛰여넘어 이리새끼에게로 날아갈듯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의 두눈은 쌍초롱처럼 이리새끼를 노리고있었다. 그 눈에서 푸른 불, 붉은 불이 펄펄 날리는것처럼 암여우에게는 보였다.

그때 암여우는 제 아들을 감싸주며 얼른 피신하라고 눈짓하였다. 그

러자 시몬은 제 에미의 펑퍼짐한 뒤궁둥이밑으로 살살 기여 다른 방으로 빠져버렸다.

그것을 본 수길 어머니는 나래치듯 어깨를 솟구치며 시몬에게로 쫓아갔다. 그러나 선교사 부인의 손이 죽어라고 그의 가슴을 냅다 미는 바람에 그만 뒤뚝 멈춰섰다. 선교사는 안해뒤에서 한손으로 안해의 몸을 떠밀어주고있었다.

수길 어머니는 제 가슴에 닿은 암여우의 손을 잡아 마치 허리춤에서 뱀 집어던지듯 홱 냅다 뿌렸다.

선교사 부인은 질겁해서 뜨물에 빠진 바퀴눈처럼 해가지고 두손으로 제 골치를 싸쥐며 뒤로 뒤뚝거렸다.

그때 아들 시몬이란 놈이 들어간 방에서 전화신호 돌리는 소리가 찌렁찌렁 울려왔다. 한즉 그 소리에 구원받은듯이 선교사 부인은 소리높이 기도를 올렸다.

《아— 하느님! 이곳 마귀 당신의 자식들을 해하려 하옵나이다. 항상 자애로우신 당신의 이름으로…》

그러자 늙은 승냥이도 기운을 얻은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마귀 물러가라!》

그러나 그때 바로 수길 어머니는 또 한걸음 그들에게로 다가가며 피엉킨 입술을 지근지근 깨물다가 입에 물었던 침에 엉킨 피를 홱 내뿜었다. 그리고 이리새끼 들어간 방쪽으로 픽 돌아섰다.

《아야야.》

암여우는 무슨 불벼락이나 맞는듯이 바스라지는 소리를 지르며 수길 어머니가 돌아선쪽으로 따라돌며 그앞을 막아섰다.

《조선형님, 당신에게 마귀 들렸습네다.》

선교사 부인이 이렇게 말하자 선교사가 또 웨쳤다.

《하느님을 모르는 야만, 어서 물러가라.》

그러나 수길 어머니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랑곳 아니하고 별안간 머리를 푹 숙이더니 절구통같은 암여우의 동가슴을 냅다 받으며 꾸지르고 나가려 하였다.

《아갸갸… 하느님…》

암여우가 모진 비명을 지르자 뒤에 선 늙은 승냥이가 다급히 웨쳤다.

《시몬! 총, 총…》

이윽고 이리새끼가 기다란 사냥총을 들고 나와 암여우뒤에서 수길

어머니의 가슴팍을 겨누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수길 어머니가 탄환을 먹은 순간에 제 어미, 아비의 배통이 짝 갈라번지는 무서운 환상이 시몬의 뇌수를 때리며 총잡은 손이 사시나무 떨듯 하였다.

그러자 늙은 승냥이가 그 총을 받아들고 수길 어머니의 가슴에 내댔다.

《쏠테다!》

《오냐, 쏴봐라.》

수길 어머니는 가슴을 쩍 벌리고 다가갔다.

그런즉 늙은 승냥이는 총을 쏘지 못하고 그저 총부리로 수길 어머니의 가슴을 냅다 밀었다.

그바람에 수길 어머니는 한걸음 뒤로 뒤뚝거렸으나 이내 몸을 가누어가지고 두팔에 죽을 힘을 주어 총대를 거머쥈다. 그러자 늙은 승냥이는 앞으로 몸을 꾸뻑 수그리며 두어걸음 끌려오다가 그만 총을 놓고말았다.

수길 어머니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총을 거꾸로 잡고 젖먹은 힘까지 다 내서 총허리로 유착스러운 무쇠난로모서리를 죽어라고 내리쳤다. 총신이 우지끈하고 부러져버렸다.

그바람에 년놈은 무엇에 떠다박질린것처럼 제김에 뒤로 훌쩍 물러서고 새끼놈은 놀란 토깽이처럼 다시 곁방으로 달려들어가 전화통을 요란히 울렸다.

《아, 경찰서요?… 빨리빨리… 아, 떠났어요? 네, 네…지금 그 녀자가 총으로 사람을…》

그 소리가 어슴푸레 들려왔다.

수길 어머니는 이리새끼를 쫓아 그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그러나 두년놈이 앞을 막아서서 한동안 밀고밀리고 하였다.

《으응—》

별안간 수길 어머니의 배밑으로부터 먼 벼락치는 소리같은 소리가 끓어올랐다. 그것은 몸서리나는 소리였다. 그런데 또 뒤이어 빠드득하는 이갈리는 소리가 마치 입속에서 유리 바사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바람에 년놈은 함께 뒤로 물앉듯이 하며 물러섰다. 선교사 부인은 남편을 뒤에 두고 제 넙적한 궁둥이로 감싸주고있었다.

선교사는 벌써부터 시몬이 있는 방으로 빠져들어가버리려고 바시대며 그 방을 흘끔흘끔 눈짓하고있었다. 그러나 무서운 벼락아래에 안

해를 외톨로 두고 갈수 없어 자저하고있었다.

그때 수길 어머니의 두손이 또 번쩍 들리더니 연신 한데로 오그라붙으며 앞으로 내밀렸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앞에 선 선교사 부인의 목줄띠를 향하고있었다. 암여우는 궁둥이로 늙은 승냥이를 비비적거리며 연신 뒤로 물러섰다.

그바람에 식탁우의 커피잔이 넘어져 쏟아지며 차물이 방바닥으로 질질 흘러내렸다.

수길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마치 승냥이들의 가슴에서 쏟아지는 피인듯 잠시 장쾌한 환상이 미풍처럼 울기찬 가슴을 스쳐지나갔다. 그러며 그의 손에는 힘이 버쩍 올랐다.

그 순간 수길 어머니의 손은 무쇠갈구리처럼 선교사 부인의 목줄띠를 덥석 거머쥐였다.

《으악…》 하며 암여우는 히끈 자빠질듯이 뒤로 물러섰으나 이내 벽에 붙어선 늙은 승냥이에게 질려서 더 드틸수 없게 되자 악을 써 몸부림을 치며 년놈끼리 비비대기치고있었다.

수길 어머니의 모든 힘이 이빠디와 손아귀에 밀려있었다. 악마의 몸뚱아리를 갈가리 찢어발기고싶은 충동에 그의 전신만신이 발발 떨리고있었다.

선교사 부인은 마침내 멱살을 잡힌채 벽가에 놓인 쏘파에 가서 늘어졌다.

그러자 선교사는 불난 강변에 덴 소 뛰듯 날치며 식탁에서 그릇이며 칼을 집어들고 수길 어머니 머리와 잔등을 함부로 후려갈겼다.

그러나 그래도 안되니까 이번은 수길 어머니의 뒤에 가서 그의 두팔을 거머잡고 뒤로 비틀어당기였다.

수길 어머니는 두팔을 잡히자 또 하나의 무기인 머리를 홱 뒤로 제꼈다. 그바람에 선교사는 사근코를 지끈 맞고 손으로 막 싸쥐며 물러서버렸다.

선교사의 손가락사이에서 피가 흘러내리고있었다.

그럴판에 뒤에서 누가 벼락치는 소리를 지르며 수길 어머니의 덜미를 소리개 덮치듯 꽉 거머잡았다. 그리고 묵직한 무릎이 수길 어머니의 엉치를 연거퍼 들이질렀다. 수길 어머니는 허리가 시큰하도록 뒤로 몸이 휘여졌다.

《이년아, 놓지 못해.》

그담은 구두발이 정갱이로 연송 들이박혔다. 일본순사놈이였다.

그때 수길 어머니는 이건 또 웬 놈이냐 하듯이 픽 돌아서며 입에 물었던 피를 다시한번 내뿜었다. 그리고 《흥, 너희들이 모두 한당이로구나. 좋다, 죽으나 사나 해보자!》 하고 그놈에게로 다가갔다.

그바람에 순사놈도 뒤뚝거렸다. 그러나 다음순간 《이년…》 하는 소리와 함께 솥뚜껑같은 순사의 손이 수길 어머니의 뺨에 와서 철컥하며 수길 어머니의 눈에서 불씨가 날렸다.

《이년아, 이게 어디라고 와서 행패냐. 죽일년, 썩 나가지 못해.》 하고 순사놈이 다시 덜미를 잡아젖히는 바람에 수길 어머니의 목대가 시큰하였다.

《너희가 나가거라, 이것은 우리 땅이다.》

수길 어머니의 입에서 피가 툭툭 튀는 바람에 순사도 얼굴을 찡기고 손을 부채질하듯 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수길 어머니는 마침내 꽁꽁 얽히고야말았다. 그때 저편 방에서 이리새끼가 빠끔히 문을 열고 내다보다가 수길 어머니의 피엉킨 창날같은 눈초리에 맞아 문을 도로 콱 닫아버렸다.

그동안 선교사는 코앞을 막고 안해를 쏘파에서 부축해일구고있었다.

그때 일본순사는 선교사를 향하여 말하였다.

《선교사님! 미안합니다. 진작 알았으면 이런 일 없을것 그랬습니다.》

《아니, 수고합네다. 하느님이 아시고 지금 벌을 내리십네다.》

《네, 단단히 중치하겠습니다. 이 총은 증거품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때 선교사는 위신을 갖추며 점잖게 말하였다.

《나는 미국사람으로 한마디 부탁합네다. 저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주기 바랍네다. 착한 사람되게 해주시오. 모든 착한 사람 모두 우리 미국사람 형젭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뜻입네다.》

그렇게 말하는 선교사의 눈에는 죽었다가도 되살아나는 조선사람, 없다가도 툭 튀여나오는 무서운 사람들, 자기들이 생사람 잡기 위해 꾸며낸 도깨비숨박곡질보다 몇갑절 더 신출귀몰한 조선사람들— 그들의 사나운 싸움이 주마등같이 선교사의 눈앞에서 춤을 췄다.

《이년, 이 총 들어라.》

순사가 웨쳤다. 증거품으로 가지고 가자는것이였다.

그러나 수길 어머니는 어깨로 탁 밀쳐버리고 포승을 진채 몸을 수그려 수길의 유골이 든 상자를 두손에 들었다.

《두고보아라, 조선사람 다 죽지 않았다.》 하고 수길 어머니가 밖으로 끌려나갔을 때 마을사람들이 울타리밖에 모여서서 하회를 기다리고있었다. 계득 어머니는 수길이네 부엌문앞에서 주은 수길 어머니의 고무신 한짝을 그의 피엉킨 발에 신겨주었다.

《비켜, 웨들 모아섰어.》

일본순사가 호기를 부렸다.

그러나 이웃사람들은 헤여지지 않을뿐아니라 슬금슬금 뒤를 따라가고있었다.

어둠이 깃들은 황혼의 거리를 수길 어머니는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때 문득 수길 어머니의 머리에는 어저께 산에서 들은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옭매듭 그 맘이야 하마나 풀릴소냐

물론 이 구절들이 꼭 그대로 기억된것은 아니나 그 내용은 틀림없이 그의 머리에 박혀져있었다. 미국놈, 왜놈이 시시로 검은 시름을 조선사람에게 가져다주고있으나 그러나 조선사람의 마음은 마디마디 맺히여 꺼질줄 모르는 불길로 붉게붉게 타오르고있었다.

…

지금도 그 소리는 아름다운 리듬을 타고 수길 어머니의 귀에 쟁쟁울려왔다. 수길 어머니는 문득 하늘을 쳐다보았다. 깃을 찾는 새들이 낮은 하늘을 날아가고 날아오고 하였다.

1951.

불타는 섬

황　건

1950년 9월 12일, 깊은 밤이였다.

해군통신수 안정희는 같은 녀성통신수 두 어린 동무와 함께 월미도에 있는 리대훈해안포중대에 배속되여나갔다.

기지까지 차를 타고 나와 거기서부터 도보로 불붙는 인천시가지를 뚫는 사이 정희네는 좌우사방을 캥 캐캥… 쿵 쿠쿵… 하고 쉴 사이 없이 날아와 떨어지는 함포에, 폭격에 엎드렸다가는 일어나고 또 엎드리고 하며 내내 마음이 한줌만 해 달려야 하였다. 머리우를 낮게 감도는 비행기 으르렁대는 소리와 식식 포탄 나는 소리가 시시로 귀박을 서게 하고 거리의 물기운이 치마언저리며 빰에 확확 끼얹어오고 역한 내내가 끊임없이 코를 찔렀다.

월미도는 이미 건물도 초목도 죄 발가숭이재더미로 뒤집혀져 련이은 포탄, 폭탄구뎅이의 가생이에서 가생이로 기다싶이 하며 녀성통신수들은 길이 아니라 생판 험한 메둥을 더듬어갔다. 먼바다에서는 포들이 아가리를 벌리는 파란 불광이 그칠 사이 없게 보이고 머리우에는 조명탄이 둥둥 떠 섬언덕과 골짜기들을 낮과 같이 비치였다. 무엇을 쏘는지 뚜루룩뚜루룩 뇌수를 긁는 기총소리까지 계속되였다. 녀성통신수들은 홈채기를 찾을 사이도 없이 겨우 등밖에 못 넘는 흙더미를 의지하고도 긴 시간 머리를 땅에 박고있어야 하였다. 해병복의 턱받이 흰선들이 불빛과 그늘속을 애꿎게 물결을 지으며 나타났다사라졌다하였다.

가슴이 지지눌리울대로 눌리워 겨우 중대부에 닿은 통신수들은 그들과는 달리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수고들 하셨소, 함께 싸워봅시다.》하며 중대장이 인도하는대로 딴 전호속 무전기앞에 나란히 앉은 한동안까지도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다.

낮은 밤보다도 더하였다. 월미도는 줄곧 몸서리치는 지친 열병속에 허덕이는것이였다. 함포들은 새벽부터 일제히 아가리를 고쳐 쳐드는가싶은데 비행기는 하늘이 까맣게 덮여오고 포격, 폭격에 땅이 북

치듯 울리는가 하면 해가 연기와 흰 먼지에 가리워 하늘은 종일 닭알속처럼 흐리였다. 비행기가 던지는 휘발유통이 터지며 타다남은 나무그루에 또 불이 붙고 그 불이 다시 돌을 태웠다. 조국의 작은 섬은 악독한 짐승들의 발악앞에 할퀴우고 뒤집히우고 열번, 스무번 불에 지지웠다.

이속에서 포중대동무들은 부상을 당하고 죽고 하였다.

그러나 정희와 그의 동무들은 해안포중대원들과 싸움을 같이하는 가운데 환경에 익숙된것도 있겠지만 자기 두려움들은 어느 사이에 잊어버렸다.

정희는 그 무서운 포화속에서 두려움도 없이 지칠줄도 모르고 싸우는 포중대동무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이였다.

포중대 해병들은 웃도리는 거의 샤쯔바람으로 군복이 죄 폭풍에 찢기우고 너덜이 났는데 그 사이로 역시 폭풍에 모래가 박히고 피가 빨갛게 배여나온 살결이 드러났다. 해병들은 포결을 한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으며 졸음도 배고픈줄도 생각하는것 같지 않았다. 포를 쏘기에, 무너진 전호를 파올리고 위장하기에, 부상당한 동무들을 나르기에 해병들은 한시도 가만히 서있지 않았다. 물레방아처럼 중대장 리대훈을 축삼아 나머지 동무들은 나무랄데 없는 수채가 되고 물레가 되고 방아에 방아확이 되였다.

그중에도 중대장 리대훈은 눈에 갈수록 불길이 줄기차지며 성난 범이 몸둘 곳을 몰라하는 형상이였다. 굳게 다문 입술은 강직하게 일어선 이마와 함께 굳은 투지와 그 어떤 자랑을 말해주었다. 그 역시 군복은 폭풍에 찢기우고 너덜이 나 그 사이로 드러난 어깨며 팔이며 가슴은 모래알에 박히우고 찢기여 피가 빨갛게 배여나왔다. 중대원들의 한결같은 투지와 충직한 마음들은 더우기 이런 중대장과 함께 있음으로 하여 더한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함포가 그칠 사이없는 속에도 포가 있는 전호와 전호사이를 집안드나들듯 하며 전투지휘를 하였고 묘준경에 달라붙었다. 그는 무너진 전호를 자신이 파올리고 위장을 하였다. 죽은 동무의 시체를 자기 손으로 파묻고 부상당한 동무들의 후송을 일일이 보살폈다.

부상당한 동무는 동무의 등에 업히지 않으려 두번세번 팔을 뿌리쳤다.

《싫어요, 나는 안 가요. 나는 아직 싸울수 있어요. 같이 남아 끝

까지 싸우겠어요.》

무거운 눈길로 지키고 섰던 중대장은 《업히우오! 동무는 자기 생각만 했지 동무들에게 오히려 짐이 되리라는 생각은 못하고있소.》 하고 엄하게 꾸짖었다.

중대장은 부상당한 동무가 끝내 업히여 중대부에서 교통호에 나설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며 전호에 따라나와 초연에 싸인 어둠속을 더듬듯 사라지는 동무들의 뒤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키고싶었다. 그러던 중대장은 동무들쪽에는 눈길도 돌리지 않고 감정이 격한 사람모양 곧장 포진지로 나갔다.

저녁무렵이였다.

하늘의 날강도들이 자취를 감춘 다음 취사병동무는 동무들의 식사를 근심하다 물가로 내려갔다. 물거품이 바위에 얽힌 물가에는 놈들의 함포에 얼이 나간 보가지 서너마리가 밀려나와 푸들거리고있었다. 그런데 취사병동무가 물가에 닿았을가말았을가 했을 때 날아온 적포탄이 취사병동무를 꺼꾸러뜨리고말았다. 그것을 본 한 동무의 《앗!》 하는 소리가 들렸다.

깨여진 포를 수리하던 중대장은 《앗!》 하는 그 동무의 눈길을 쫓아 물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 동무를 돌아보던 중대장은 눈에 팍 열이 끼치는듯싶더니 아무말없이 전호를 나서 성큼성큼 물가로 내려갔다. 포탄에 허옇게 이지러진 바위옆에 다달은 중대장은 넘어진 동무의 상처를 살피고 가슴에 손까지 대여본 다음 안아일으키더니 팔을 이끌어 등에 업었다. 좀 떨어진 물속에 또 포탄이 떨어져 물기둥을 세웠으나 중대장은 돌아도 보지 않았다. 중대장은 넘어진 동무를 업은 그대로 일어나 도로 전호로 올라왔다. 취사병동무는 이미 숨이 넘어갔었다. 중대장은 동무의 시체를 묻은 다음 다시 포수리에 착수하였으나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다.

이 모두를 정희는 바로 곁에서 목격하였다. 동무들의 수가 적어지고 전투가 가렬해지면 질수록 해병들이 중대장의 주위에 더욱 뭉쳐도는 리유가 환해지는것 같아 정희도 따라 가슴이 더욱 긴장되고 끓어오르는것이였다.

포중대동무들은 이틀 낮과 밤을 꼬박 전투로 보냈다. 전투를 쉬는 참에는 무너진 전호를 파올리고 교통호를 파고 포를 수리했다.

10일이후 나흘동안 함포와 비행기폭격으로 장창 눈코뜰 사이없

게 하던 놈들은 13일 오전 11시를 넘어 함포사격을 멈추고 해안에 다가들기 시작하였다.

동무들은 전신이 땀과 먼지투성이가 되여 포탄을 나르고 쏘았다. 하얀 물기둥이 계속 일어섰다. 그러나 순양함, 구축함들을 뒤로 하고 경비정, 상륙정, 상륙뽀트… 크고작은 각색 함선의 움직임과 배전에 거슬리는 높은 물결과 일떠서는 물기둥이 통신수들에게는 너무나 아름차고도 분에 겨운 목메는 광경이였다. 저속에는 수많은 대소함선이 있다고 하였다. 신호는 두번, 세번 명중을 고했으나 배 기울어지는 것은 좀처럼 볼수 없었다. 원쑤들이 미운 생각은 박박 가슴을 찢는듯 하였다.

12시경이였다. 마침내 구축함 한척이 한쪽꼬리에 검은 연기를 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놈은 거의 전신이 연기에 가리우면서 함체를 기울이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동무들은 기쁨에 어린 얼굴을 서로 쳐다보며 어쩔줄을 몰랐다.

10분후에는 또 구축함 두척이 거의 동시에 선체에 불길을 올리고 검은 연기를 뿜으며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동무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하였다.

《자식들 꼴 봐라!…》 하고 자기를 잃고 중얼거리는 동무도 있었다.

중대장 리대훈은 흥분을 누를길 없어 높은 소리로 정희를 부르더니 무전으로 보고할것을 명령했다.

기세를 꺾인 놈들은 진격을 멈추더니 다시 함포질을 시작했다.

비행기가 까맣게 덮여와 섬을 아주 말아먹을 작정을 했다.

전투는 오후 4시가 가깝도록 계속되였다. 놈들은 거듭 검은 연기를 올리며 함체를 기울이고 바다속에 대가리를 거꾸로 박고 도망쳤다.

밤에 사단지휘부에서는 축하전문이 내려왔다. 동무들의 기쁨은 말할나위 없었다. 중대장 리대훈도 여전히 타는듯 한 열오른 눈을 정희에게 돌렸으나 자기 심정을 표현은 못하고 거북스레 껌벅일뿐이였다. 물흐르듯 하던 땀이 아직 채 잦아들지 못한 흙먼지에 얼룩이 진 얼굴들이며 너덜이 난 샤쯔에 군복바지들이며 그사이로 내여민 피흐르는 살들이며를 보며 정희는 대훈을 비롯한 중대의 모든 동무들이 귀중한 생각으로 가슴이 벌써 전부터 시시로 뻐개지는것 같았다.

이들과 함께라면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잊어버릴것 같았다.

그러나 이날의 전투에서 중대의 손실 또한 적지 않았다. 포가 두문

다 파괴되여 완전히 쓸수 없게 되고 전투원들이 많이 부상당하고 전사하였다.

새벽녘이 가까와 섬에는 포탄이 한자동차 운반되였다. 같이 떠난 한차는 폭격에 중도에서 타버렸다고 하였다. 그 한차마저 제대로 돌아가넬는지 알수 없었다.

14일은 7시부터 전투가 시작되였다. 오후 한시경이 되자 놈들은 다시 상륙을 기도했다. 중대는 전날 대소함정을 열세척이나 격침격파했지만 이날도 여섯척이나 물속에 매장했으며 놈들은 두번째 상륙기도도 포기하고말았다.

그러나 중대에는 드디여 포 한문에 포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중대인원 역시 그랬다.

그러나 리대훈중대장은 조금도 당황한 빛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대원들에게 전혀 대비도 되지 않는 힘으로 이틀이나 놈들을 막은 후에 엄청난 전과를 올린것을 력설하면서 오히려 더 투지만만해하였다. 동무들 또한 몇명 못되나 그를 따라 투지 완강한 가운데 싸움에서 살아남겠거니는 이미 생각지 않고있는것 같았다.

정희는 송신기의 전건을 부지런히 눌렀다.

《현재 중대원 8명, 포 한문 남았음. 포탄을 보내여달라, 포탄을. …》

밤이 깊도록 정희는 같은 내용의 무전을 세번 쳤다.

사단지휘부에서는 《임무 중함. 계속 중대의 용맹을 바람. 한시간 한초라도 더 놈들의 상륙을 막으라. 포탄은 수배중…》

그러더니 새벽이 가까운 조금전에는 《무전수들은 전부 들어오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같이 나온 두 동무에게 명령을 전달하기 앞서 정희는 어찌면 좋을지 모를 괴로운 생각에 잠겨버렸다. 싸움을 중간에 놓고 포중대동무들과 헤여지겠거니는 정희는 조금도 생각지 못했었다. 일종의 절망에 가까운 말 못할 쓰라림없이 당장에 정희는 이들과 헤여질 일을 생각할수는 없었다. 그중에도 싸움속에 마음도 몸도 불붙는가싶은 대훈의 모습은 지울길 없는 진한 영상으로 혈육과도 같이 가슴에 하나가득해왔다. 지휘부는 방선의 위급을 생각하고 몇생명이라도 더 아끼려 이들과 갈라놓는것이라고 생각되였다. 정희는 벌써 오래전부터 하여온 생각이면서 지금에야 하게 된 생각처럼 그들이 생명을 내여놓고 계속 싸우고있는 한 자기도 함께 남아야 하는것은 같이 싸우던 자기의

가장 귀중한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생에는 이보다 더 절박하고도 더 중대한 시간이 있지도 않았지만 있을것 같지도 않고 이 시간이야말로 자기의 가장 귀중한것이 결정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가슴허비듯 했다. 이 시간에 그렇지 못할제 자기에게는 영원히 돌이킬수 없는 후회가 남을것이며 이 시간에 그렇지 못할제 아무때에도 자기는 귀중하게 살수 없으며 귀중하지 못한 그 생애가 아까울수도 없을것이였다. 아직도 적정은 보고되여야 할것이고 중대는 상부와 수시로 련락되여야 할것이고 그들은 다 도움을 받아 외롭지 말아야 할것이고 또 포중대동무들의 싸움은 모든 부모형제들에게 전하여져야 할것이였다. 어려운 이 전국에 당하여 중대원자신들의 비상한 각오도 그러려니와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비장한 마음없이 지금 월미도에서 싸우는 이들을 생각할수는 없을것이였다.
정희는 동무들에게 명령을 전달하기 전에 전건을 두들겼다. 가슴이 와짝 저려오고 손끝이 떨렸다.
《1번수는 남을것을 허가하라. 1번수는 남아 계속 보고할것을 허가하라.》
회답이 없는 사이 정희는 동무들쪽에 당황한 얼굴을 겨누었다앗아왔다하며 또 전건을 눌렀다.
《1번수는 남아 적정과 포중대원들의 전투를 끝까지 보고할것을 허가하라. 꼭 허가하라.》
이윽고 사단지휘부에서는 1번수는 남아도 좋다는 회답이 왔다.
정희는 동무들의 손을 정답게 잡았다.
동무들은 돌아가기 싫어하고 갈라지기 애석해하였다. 동무들은 교통호를 나가 포중대동무들을 일일이 만나고 왔다. 무너진 전호를 나가 초연과 어둠너머 멀리 이밤도 불바다를 이루고있는 인천시가를 바라보다 돌아가는 동무들의 뒤모습에 눈을 옮긴 정희는 자기도 모르게 눈굽이 뜨거워오는 가운데도 알수 없는 가라앉은 마음으로 이름 못할 행복감이 가득 치받쳐왔다.
《동무, 몸을 주의해요.》
《난 념려말구 동무들 주의해 들어가요.》
《또 만나자요. …》
《그래요, 잘 싸워요. …》
전호에 돌아왔을 때 무전기가 놓인 책상옆에는 리대훈중대장이 우

두커니 서있었다.

정희를 보자 대훈은 저으기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동무는 왜 들어가지 않소?》

단 둘이래서 그런지 음성이 류달리 굵게 울려왔다.

정희는 잠간은 당황한 속에 대답을 못했다.

《남아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명령?…》 하던 대훈은 중얼거리듯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동무 할일이 없을지 모를것이요.》

《왜 없어요, 중대장동무두 모두 그냥 싸우구있지 않아요?…》

정희의 얼굴을 말없이 뚫어지게 바라보고있던 대훈은 한결 어성을 떨구며 혼자말처럼 《동무의 마음을 알수는 없소만… 하여튼 고맙소.》 하더니 눈길을 먼바다로 가져갔다. 무슨 말을 더 할것처럼 입술을 씨물씨물하던 대훈은 얽히는 생각과 감정에 쫓기는 사람처럼 말을 못하고 외면한채 더딘 걸음으로 전호를 나가버렸다.

대훈이마저 돌아간 다음 혼자 남은 정희는 이상하게도 갑자기 마음속이 회오리바람 일듯 허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정희는 자기 한 일을 끝내 후회하는 마음은 없었다.

벌써 날이 새는듯 바다 먼 섬봉우리들이 희끄무레 밝아왔다.

밤새 무전기를 대하고 앉았으나 송신기에서 손을 놓은지 이슥한 정희는 나무걸상에 걸터앉은채 전호출입구너머로 어둠속에 괴괴한 바다를 어느때까지고 지키고 앉았다.

왼켠뒤에는 중대장 대훈이가 그 역시 말없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섰다.

지난밤에 수리도 못하고만 포탄에 무너진 전호출입구 웃턱에는 허리 부러진 통나무가 드나드는 사람의 이마를 찌를듯 드리워있다. 통로에 가득 쏟아진 흙이며 돌은 포중대동무들이 포주위에서 떨어 못지는 사이 정희가 혼자서 간신히 쳐내여 통행할수는 있게 하였다.

바다 먼 어둠속에서는 함포들이 계속 아가리에서 불을 토했다. 지진에 치우듯 전호는 간단없이 울렸다. 이따금 가까이에서 떨어지는 포탄폭풍에 먼지가 전호속까지 확 풍겨들었다.

아직 채 가시지 않은 희읍스름한 별빛아래 거밋거밋 멀고 가까운 섬들을 뒤에 두르고 인천바다는 새벽대기속에 마치 혀바닥들을 다시는 피에 주린 악귀들의 소굴처럼 생각되였다. 크고작은 함정들은 바다 한가운데 한 해적도시를 이루고있지만 지금도 희뜩희뜩 눈에 띄는 돛

대며 굴뚝이며 포아가리며 선체는 피묻은 이발로, 발톱, 손톱으로, 살기 서린 눈깔들로 보였다.

《이젠 포탄 오기두 틀려버렸군. …》

혼자 말하듯 대훈의 굵은 음성이 느릿느릿 들려왔다.

《날이 다 밝는군요.》

정희 역시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대훈은 더 말이 없었다.

다시 둘은 묵묵한 속에 아직 어두운 바다 멀리 시퍼런 불이 번쩍이는 함포아가리들만 바라보았다.

정희는 자기도 모를 힘에 끌려 대훈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어쩐지 정희는 이 시간의 대훈의 얼굴표정이 마음에 걸리는것이였다. 어둠속에 희미하기는 하나 대훈은 여전히 투지만만한 긴장된 얼굴이여서 정희는 다시금 안도되는 마음이였다.

대훈에게서 도로 고개를 돌린 정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생각 못했으면서 어쩐지 바로 이 시각에는 이제껏 할 기회가 없었던 서로의 마음속의 온갖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할것 같은 간절한 충동을 어쩔수 없었다. 정희는 저으기 망설이던 가운데 다시 홱 고개를 돌렸다난 다음 몸을 일으켜 나무걸상 한귀를 내여주며 《여기 앉으세요, 중대장동무. …》 하고 대훈에게 권했다.

《좋소.》

대훈은 걸상을 굽어볼뿐 앉을념을 안했다.

정희는 몸을 일으킨 그대로 《앉으세요, 좁은대로 앉으세요.》 하고 재차 권했다.

대훈은 그러고도 얼마를 그냥 서있다가 걸상에 걸터앉자 오른팔을 책상우에 버리듯 눕혀놓았다.

거북스런 가운데 둘은 다시금 한동안 묵묵히 앉아만 있었다.

정희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와짝 저려왔다. 정희는 이제는 서로 마지막시각이 가까와왔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다. 그러며 정희는 지금 이 동무는 무슨 생각을 하고있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쩐지 정희는 자신에 대한 생각보다도 중대장에 대한 생각이 더 가슴에 가득했다. 그런데 불쑥 대훈은 《동무는…》 하고 느린 어조로 혼자소리처럼 입을 열었다.

《지금이라두 들어가는것이 좋지 않겠는지. …》

《왜요?》
정희는 얼굴을 들었다.
《포탄이 안 오는 한 월미도는 오전안으로 저놈들한테 주어야 할것이요.》
정희는 그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정희자신이 이미 그것을 생각하고있었다. 그보다도 정희는 딴 간절한 이야기를 나누고싶은것이였으나 생각도 말도 나가지 않고 가슴만 저렸다.
다시 얼마간의 막막한 시간이 지나간 다음 대훈은 문득 갖추매 없는 굵은 음성으로 《동무는 죽음이 무섭지 않소?》 하고 물었다.
말을 하는 사이도 대훈의 눈은 바다속 놈들의 함정들을 겨누고있었다.
정희도 한곳을 지키며 말을 못하다가 《아니요.》 하고 나직이 대답했다. 그러나 정희는 자기도 모를 흥분속에 저으기 창창한 목소리로 《그보다두 저는…》 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음성은 가끔 목에 걸리여 거북하게 울려나왔다.
《그보다두 저는 중대장동무며 중대동무들과 알게 된 시일이 짧은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있어요. … 그렇지만 저는 두렵거나 슬픈 생각은 없이… 어떻게 말루 표현할수는 없어두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예요. 참말 저는 중대장동무며 중대동무들때문에 지금은 제 일생의 그중 귀중한 시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철없다고 꾸짖지는 마세요.》
대훈은 입을 열지 못했다. 대훈은 정희의 일로 하여 벌써 전부터 마음이 자못 무거웠었다. 그의 심정이 무조건 고맙고 귀중하게 생각되면서도 그것에 무언가 잘못은 없었던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 얼마후 대훈이 역시 거북스레 입을 열었다.
《그러나 나는 동무의 일로 마음이 괴로와지오. 아니, 그보다두 무어라구 해야 할지… 저쪽 동무들두 같은 말을 했었소만 동무에게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요. … 모두 동무하고는 형제를 만난것처럼 생각하고있소.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 싸워오는, 마지막이 될는지 모를 이 전투를 앞에 놓고 동무는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더 뜨겁게 하여주고있는지 모르오. 말하자면 동무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마지막순간까지 싸울것을 맹세한 젊은 아들들인 우리 전사들의 자랑과 기쁨을 더욱 찬란하게 하여주고있는것이요. … 우리는 동무

와 같이 있을 시간이 목전에 한정된것이 얼마나 애석한지 모르오. 그만큼 또 우리에게는 동무가 아직 여기 남아있는것이 괴로와지는것이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저를 참된 길루 그냥 채찍질해주세요.》

정희는 자기 생각만 쫓으며 외우듯 말했다.

대훈은 말대신 책상우에 가지런히 놓인 정희의 두손을 꼭 잡았다.

서로 겨눈 방향은 달라도 눈들은 타는듯 했다.

바로 전호앞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포탄이 터졌다. 폭풍이 확 전호안에 밀려들고 모래, 돌파편과 먼지가 날아들었다. 그러나 대훈이도 정희도 그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한모양으로 앉아있었다.

정희 역시 지금은 앞에 놓인, 같이 싸울 한정된 시간을 생각하며 이름 못할 감정을 달랠길이 없었다.

대훈은 한결 어성을 바꾸어 정희에게 물었다. 이제사 이것을 묻는것이 새삼스런 생각이 들었다.

《동무는 고향이 어디시오?》

《청진이예요.》

《입대하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소?》

《방적공장에 있었어요. 47년도부터 방적공으로 있다가 작년에 군대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 이내 해군기술학교에 가게 되구 졸업한지 반년만에 이번전선에 나오게 되였어요.》

검은 속눈섭을 간간이 내리덮는 정희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 대훈은 회상하듯 입을 열었다. 자신이 무엇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것을 생각했는지는 모르고…

《나는 고향이 충청남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살다가 북반부에서 해방을 맞구… 고향에 돌아가자고 했지만 벌써 미제원쑤놈들이 기여들어왔댔소. 전쟁이 끝나면 고향에 돌아가 어릴적 그리운이들을 찾은 뒤 마을을 위해 무척 많은 일을 하려고 마음먹어왔었소.… 욕심꾸러기처럼 무슨 일이든 많이 하지 않으면 한것 같지 않은것이요.… 오늘 이렇게 싸우는것만도 한은 없지만… 또 내 아니라두 얼마든지 열렬한 동무들이 고향을 위해 일을 해주겠지만 진격하는 길에 잠간이라도 고향마을에 들려보고싶었었소.》

《친척들도 아직 계세요?》

《3촌, 4촌들이 있습니다. 동무는 방적공장에 만나구싶은 동무

들이 많으시지?》
《많아요, 그렇지만 거의 전선에 나왔을거예요. … 친하게 지낸 동무들이 많아요. 저는 그 동무들과 책읽은 이야기를 하는게 제일 기쁜 일이였어요. 읽던 책에 너무 감동돼서 밤중에 미치광이처럼 동무네 집에 달려가 동무한테 읽어준적도 있었어요. …》
대훈이도 정희도 눈들은 다 기쁨에 서려 번쩍이였다.
날은 더욱 밝아오고 함포는 더 세차게 주위를 울렸다. 둘은 싸움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지 못한 이야기가 더욱더 끝이 없는 사람들처럼 어렸을적 자라던 이야기며 군대에서, 공장에서 지내던 이야기를 하고 또 하였다. 문득 정희는 먼 포성이 울려오는 동트는 하늘가 끝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각에도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불타는 이 월미도를 지켜보고계시겠지요?》 하고 조용히 뇌였다.
대훈이 역시 숭엄한 생각에 잠기듯 정희가 바라보는 북쪽하늘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며 다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켜보고계실겁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지도앞에서 월미도를 꼭 보구계실겁니다. … 원쑤들이 더러운 발을 들여놓은 조국땅 어디에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그중에도 미더운 당원들이 총칼을 들고 서있는 모습을 모든 정을 기울여 지켜보고계실것입니다. …》
이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조국은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 얼마나 큰것인가. … 정희는 이런 생각을 하며 더 입을 열지 못했다.
적들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눈에 띄였다.
점점 밝아오는 바다를 묵묵히 지키고앉았던 대훈은 부스스 걸상에서 일어섰다.
《적정보고를 부탁하오. 놈들은 또 상륙할 작정이요.》
대훈은 이제껏 이야기하던것과는 판이하게 다시금 전신에 탄력을 모두며 눈에 불길이 성성해 교통호를 나갔다.
정희는 미진한 마음을 누를길 없어하며 무전기전건을 두들겼다.
어느덧 바다는 눈앞에 환하게 펼쳐졌다. 크고작은 가지가지 함선들은 가로세로 움직이며 가까와오고있고 함포들은 발악하듯 포탄을 퍼부었다. 전호안이 뒤집힐듯 울리고 출입구밖이 초연에 뽀얗게 되였다.
더 가까이에 기여들 때를 기다리는듯 단 한문 남은 우리 포는 아직

침묵을 지켰다.
이윽고 먼바다속 섬봉우리에 해살이 비치자 이번은 하늘을 가리울 듯 비행기들이 날아와 날쳤다.
앉은자리가 마구 구겨지고 숨이 콱 막히는것 같은 질둔한 시간이 계속되였다.
함포와 폭격이 좀 뜸해지는가싶자 또 놈들은 배머리에 흰 물결을 세우며 섬을 향하여 가까와오기 시작했다.
드디여 우리 포가 불을 토했다. 먼 해면에 시허연 물기둥이 일떠섰다. 그리고 또 일떠섰다. 그러나 포탄은 한발씩, 한발씩 너무나 외롭고 안타까왔다. 하지만 적의 함정들은 짐승의 무리처럼 얼마나 욱실득실한가! 함선마다, 돛대마다 날리는 붉고 푸른 기발들은 세상에도 악착스러운, 어떻게 저처럼 흉측하고 가증스러운 물건일수 있을가! 짐승들에게는 죄없는 조선사람의 간장이—간장의 피가 요구되는것이다. 선한 생명의 모든 피가 요구되는것이다.
마침내 한문의 우리 포탄은 적의 구축함에 명중되였다. 바로 기관복부에 맞은듯 시꺼먼 연기가 룽트림쳐 올라가더니 연기는 함체를 완전히 덮기 시작했다. 폭음속을 헤치고 포좌지 전호에서 동무들의 환호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단 한문의 포탄은 또 경비함을 갈겼다. 경비함은 이내 수중에 함체를 기울였다.
우리 포는 해상에 계속 그 외로운 물기둥을 올렸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우리 포소리는 그만 멈춘채 울릴줄을 몰랐다.
정희는 두손을 무릎에 놓은채 교통호쪽에만 귀를 기울였다. 포진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정희는 걸상에서 일어서자 초연에 눈을 뜰수 없는 교통호를 달음박질로 나갔다.
전호안에는 포를 쏘다 만 람루한 해병복차림의 땀투성이, 먼지투성이가 된 동무들이 손을 드리운채 늘어서고 그가운데 중대장 리대훈이가 왼팔을 동무들에게 맡기고 눈살을 찌프리며 서있다. 대훈의 팔을 잡은 동무는 그 팔에 붕대를 감고있었고 붕대는 피에 벌써 빨갛게 물이 들었다.
그러나 대훈은 정희를 보자 태연한 얼굴로 《구축함 한척이 격파되구 경비정 한척이 격파된걸 보고했소?》 하고 물었다.
《예, 보고했습니다. 이젠 포탄이 다 떨어졌습니까?》

정희는 부상당한것은 묻지 못했다.
《떨어졌소.》
무심하게 대답한 다음 대훈은 옆동무에게 《자, 그만해놓소.》 하고 나머지 붕대를 받아 오른손으로 아무렇게나 끝을 마물군 다음 팔을 그냥 드리워버렸다.
《이젠 모두 수류탄에 따바리들을 드오. 그리구 밖으로 나가야겠소.》
대훈은 자기부터 전호구석에서 수류탄을 집어 띠에 차고 호주머니에 넣기 시작했다.
정희는 먼저 중대부에 돌아왔다. 정희는 걸상에 앉을 생각도 못하고 무전대앞에 멍해 서있었다.
바다속에 해적의 무리는 흰 물살을 더욱 거칠게 올리며 가까이에 펴져 다가왔다.
이윽고 교통호로부터 리대훈중대장을 선두로 중대원들이 모두 따바리에 수류탄들을 차고 나타났다. 정희는 동무들의 얼굴이 류달리 일일이 살펴졌다. 중대장이하 전원 여섯명, 누구나가 여전한 한결같은 기개 드센 얼굴이였다.
정희는 눈물이 날것 같았다.
잠간동안 대훈이도 정희도 동무들도 한곳에 모여서 바다우 놈들의 함체의 움직임이며 흰 파도를 지켰다.
놈들은 훨씬 섬에 가까와지면서 함포를 멈추었다. 비행기도 뒤로 물러갔다.
중대장은 대원들에게 전호를 기여나가 물가에 진을 칠것을 명령했다. 동무들이 나가는 뒤모양을 일일이 살피던 대훈은 정희쪽에 돌아섰다.
《부상당하셨어요?》
기다렸던듯 정희는 이제사 그것을 물었다. 대훈을 생각하는 그리고 동무들을 생각하는 뜨거운 물결이 끓듯 가슴속에 소용돌이쳤다.
《파편에 좀 맞았소.》
《많이 다치셨나본데…》
중얼거리며 정희는 자기 손을 대훈의 피가 배여나 흐르는 팔가까이에 다치지 않을 정도로 엉거주춤 이끌리듯 가져갔으나 더는 아무러지도 못했다. 생각하면 지금 그런대야 필요한 일일수도 있을것 같지 않

았다.
그러나 대훈은 그것에는 생각도 가지 않는듯 다시 놈들이 밀려드는 바다쪽에 고개를 돌렸다난 다음 《자, 서루 마지막임무를 깨끗이 수행합시다.》 하며 성한 오른손을 내여밀었다.
뜨거운 눈길이 서로 맞부딪치며 말들이 나가지 않았다.
정희는 무엇을 들어라도 주듯 힘들여 자기 손을 대훈에게 주었다.
《전국이 어려워질것 같소.… 그렇지만 일시지 모두 이를 갈며 막아설것이요.》
정희는 가슴에 고패치는 마음 어찌할길 없어 대훈의 손을 두손으로 잡자 앞으로 쳐들었다.
그리고 그 손등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던 정희는 홱 고개를 들자 메여오는 목을 겨우 가누며 《중대장동무, 저두 함께 나가 싸울수 없어요? 저두 나가 싸우게 해주세요.》라고 간원하듯 말했다.
그러나 대훈은 엄하게 잘라맸다.
《안되오. 동무의 임무는 그것이 아니요.》
그래도 얼마간 대훈의 얼굴을 간절하게 바라보던 정희는 단념하듯 말했다.
《저한테 수류탄을 하나 주세요. 보고를 더 계속할수 없을적에 쓰겠어요.》
대훈은 그 불같은 눈으로 정희를 바라보다 말없이 바지주머니에서 수류탄을 한개 꺼내주었다.
대훈은 정희를 다시한번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홱 돌아서더니 전호밖으로 걸어나갔다.
정희는 무전대앞에 단정히 앉아 전건을 잡았다.
전건옆에는 수류탄이 이내 손이 닿을수 있게 놓여있다.
정희는 타는듯 한 마음으로 전건을 눌렀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통신이 될것이다. 통신이 그칠 때 그때에는 전건옆에 쪽철을 펴놓은 수류탄이 터질것이다. 마지막 나의 통신을 정성껏 받아다오. 너와 모든 동무들에게 굽힘을 모르는 싸움과 승리가 있을것을 바란다. 1번수.》
정희는 다시금 몸을 단정히 하며 눈을 바다로 가져갔다.

바다를 가르며 바다에 넘쳐날듯 놈들의 상륙뽀트들이 물가를 향하여 쏜살같이 다가왔다. 놈들은 물결을 헤치며 배에서 쏟아져내리자 물가에 개무리처럼 까맣게 밀려들었다.

사단지휘부 무전실 유리창아래 무전대앞에는 턱밑에 물결이 선명한 해병복의 3번무전수가 눈물고인 눈도 씻지 못한채 온 정신을 수신지우에 기울이고있었다. 자주빛연필이 수신지우를 넘어지듯 달렸다. 이윽고 무전수는 수신지들을 착착 겹친 다음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옆에 따로 밀어놓았던 자기에게 온 수신지를 잡고 망설이다가 그것까지 겹쳐들고 사단장실로 들어섰다.

나이 40이 넘은 듬직한 몸에 눈섭숱이 많은 항일투사인 사단장은 방안을 거닐던 그대로 걸음을 멈추고 근엄한 눈길로 전문을 읽기 시작했다.

먼저 3번수에게 온 첫 전문을 읽은 다음 분초의 사이를 못 두고 수신지로 시선을 옮겼다.

《8시 47분… 중대장이하 중대원 여섯명 수류탄과 따바리를 휴대하고 물가로. 배에서 내린 놈들은 개무리처럼 까맣게 물가에 오르기 시작. 해안포용사들은 바위틈에서, 포탄구뎅이에서 따바리를 휘두르며 수류탄을 던지며 일떠선다. 놈들은 물가 진흙탕에 쓰러져간다. 거품이 어지러운 조수는 물감 풀리듯 붉게 물들어간다. 우리 범들은 몸도 감추지 않고 물가까지 나가 감탕속에 버티고섰다. 용사들의 탄환, 수류탄은 겹쳐나오는 놈들의 배통, 골통을 그대로 가르고 마슨다. 놈들의 전진은 수라장을 이루고있다. …1번수.》

《8시 57분… 뒤따라나온 놈들의 상륙정은 물가에 땅크를 내려놓았다. 땅크는 중기, 경기를 미친듯이 휘두르며 흙탕속을 기여나온다. 우리 동무들은 저마다 엎드렸다 또 일어났다간 엎드린다. 그냥 보이지 않는 동무도 있다. 불쑥 오른손에 수류탄묶음을 든 리대훈중대장이 일어섰다. 땅크를 향하여 수류탄묶음을 던졌다. 수류탄이 터진 뒤 땅크는 무한궤도가 끊어진듯 감탕속 한자리에서 뭉갠다. 또 하나 땅크가 그옆을 기여나온다. 중대장은 더 보이지 않는다. 놈들의 세찬 불길속에 또 한 동무가 일어섰다. 수류탄을 던지지 못한채 넘어지고 말았다. 우리 동무는 더 볼수 없다. … 1번수.》

《9시 5분… 놈들의 선두땅크는 벌써 내 전호 우측을 뒤로 달리고 있다. 또 한대가 그뒤를 따라 올라온다. 그도 보이지 않고 또 딴 땅크와 땅크… 그리고 개무리들이… 미국놈 검둥이에 일본놈까지 또 까맣게 따라올라오고있다. 전호출입구에 미국놈 한놈이 막아섰다. 나는 이미 수류탄을 쥐였다. 어리석은 이놈은 총을 겨누며 나를 향하여 다가…》

밤잠 못 자 눈이 부석부석한 사단장은 다 읽은 뒤에도 수신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가 손을 떨궜다.

원쑤들의 시체에 덮인 감탕이 피에 물드는 거품, 흐린 조수가 어수선히 눈앞에 떠올랐다.

옆에 와선 눈이 부리부리한 젊은 참모장이 수신지에 손을 내여밀었다.

사단장은 참모장에게 수신지를 주며 혼자생각에 얽혀 중얼거리듯 그러나 천근무게로 띠염띠염 말했다.

《이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하겠소. 최고사령관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불덩이같은 이런 사람들을 놈들은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것이요. …》

1952.

구대원과 신대원

윤 세 중

1

구대원들이 전선에서 신대원들을 맞는다는것은 커다란 즐거움으로 되고있었다. 경기사수이자 부분대장인 장수철은 바로 이런 즐거움을 요즈음 가지게 되였다.

1차진공때부터 적후투쟁을 거치여 재진공과 진지방어전투에 이르기까지 40여차의 큰 전투를 실지로 치른 로련한 전투원인 장수철의 가슴에는 네개의 전사영예훈장이 빛나고있었다. 그 훈장 하나하나에는 그의 영웅적공훈과 수많은 미제국주의원쑤들을 살상한 복수의 기록이 날날이 새겨져있었다.

그러나 수철은 자기 공훈을 한번도 자랑하고싶은 생각은 없었다. 다만 자기가 이렇게 싸울수 있었다는것은 자기앞에서, 자기옆에서 또는 자기뒤에서 자기보다 더 용감하고 씩씩한 수백수천의 참다운 젊은 동무들이 같이 싸워준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수철은 조용한 때면 자기와 같이 싸우던 전우들을 머리속에 그려보는 버릇을 가지고있었다. 많은 동무들, 전우들이 늘 머리속에 떠올랐다가는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떠올랐다.

전쟁터에서의 세월은 수철이로 하여금 수없는 동무들을 만나게 하고 헤여지게 하였다. 그러나 수철은 그 얼굴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 얼굴들은 마치 구면의 친구같이 똑똑한 모습으로 가슴깊이 남아있었다.

(이번에는 어떤 동무들이 오려나.)

며칠전이였다. 소대장은 별안간 보충대원이 후방에서 오게 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에 신대원들이 오면 좀 잘 환영을 해야 할터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가?》

대원들은 소대장의 말에 모두 귀를 쳐들었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소대전부가 모여서 오락회를 굉장하게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인가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오락회? 그것도 좋겠지.》
소대장이 받는 말에 이어 3분대장이 말하였다.
《후방에서 특별공급으로 나온 고기까지 모아서 그 동무들에게 본때있게 대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좋을거야.》
소대장이 빙긋이 웃으며 받았다.
《소대장동무, 신대원들 환영준비는 제게 일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큼직하게 도맡아나서는것은 소대초급선동원동무였다.
《오참, 그게 좋겠소. 동무가 맡소. 그대신 잘못되면 동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것. …》 하고 소대장은 웃었다.
이런 공론으로 한참 떠들썩하는 동안 수철은 그저 뒤에 잠잠히 앉아있기만 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은 사뭇 설레였다.
수철은 어떤 대원들이 올가? 그 상상부터 먼저 하였다. 똑똑하고 령리하고 날파람있는 그런 대원들을 상상하였다. 혹은 나이가 들어 무딘듯은 하나 어딘지 모르게 믿음직스러운 동무도 상상하였다. 또는 키가 껑충하며 싱거이 우스개소리를 곧잘하는 그런 동무도 상상하여보았다.
(어떻게 생긴 동무들이 올가?)
그러나 수철에게는 어떤 대원이 오건 무방하였다. 어떤 동무이건 만나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앞섰다.
그후 사흘이 지나서였다.
수철이가 고대하던 신입대원 세 동무가 소대로 배속되여왔다. 수철은 벅찬 가슴으로 세 동무를 맞이하였다.
세 동무 다 농촌출신인듯 순하고 부드러워보였으나 어깨가 벌어지고 튼튼한 체구를 가진 두 전사에 비하여 작고 어려보이는 동무 하나가 또렷또렷한 눈알을 굴리며 두 젊은이사이에 끼여있었다.
수철은 어쩐 일인지 그 어린 동무에게로만 시선이 자꾸 쏠리였다. 야무지게 다문 입, 둥근 얼굴, 짤막한 키, 날씬한 허리— 어디 한군데 빠진데가 없는 어린 동무는 수철이가 제일 많이 상상해보던 바로

그런 동무였다.

처음 모였던 자리에서 일단 흩어지자 수철은 어린 전사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서 손을 꽉 잡았다.

《수고했소.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스러웠지요?》

《아니요.》

어린 전사는 하얀 이를 내보이며 대답하였다. 수철은 더욱 마음이 유쾌해졌다.

《이름은 무어라구 하슈?》

《박성구라고 해요.》

수철은 피뜩 1차진공때 같은 분대에서 용감하게 싸우던 박천구를 생각하였다.

《형님에 혹 박천구라는 사람 있수?》

《저는 형님이 없어요. 어린 동생들만 집에 있어요.》

《그래?》

수철은 자꾸 성구를 들여다보았다. 들여다볼수록 그 얼굴은 지난날의 치렬한 전투에서 용감하게 같이 싸우던 어떤 전우가 련상되였다. 그러나 누구였던가는 생각이 종시 떠오르지 않았다.

《고향은 어데지?》

《성천이예요.》

《아버지는 농사를 하시우?》

《아버지는 안계셔요.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농사를 지으셔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소?》

《미제놈들이 들어왔을 때 로동당원이라고 학살당하셨어요.》

《그래?… 에잇, 개새끼들.》

수철은 버릇처럼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럼 동무는 사회에서부터 민청원이였겠군－》

《네. …》

선동원동무의 환영인사가 있은 다음 오락회가 벌어졌다.

참나무와 자작나무숲사이로 단풍나무가 유난히 붉게 끼여섰다. 그래서 그 그늘밑으로 해빛이 새여들어와 단풍은 더욱 빛나보였다. 그래서 그밑을 지나가는 전우들의 얼굴까지 붉어보이였다. 이 그늘에서 릉선을 타고 30리를 가면 놈들이 화력을 배치하고있는 화선이지만 대

낮불질이 서로 없을 때에는 심산유곡 그대로의 정적이 한동안씩 흐르고있었다.

오락회는 흥이 한창 고조로 올라갔다. 성구는 두 동무와 함께 좌석중앙에 어색하게 앉은채 흥에 끌려들어가고있었다. 불그스름하게 홍조가 올라 어딘지 모르게 애티가 나는 얼굴에는 수집어하면서도 상냥한 웃음이 자주 지나갔다. 수철은 오락회보다도 그 귀여운 웃음을 보는게 더 즐거웠다.

(우리뒤에는 얼마든지 저렇게 똑똑한 용사들이 있다. 미제침략자놈들이 아무리 간악해도 우리를 이겨낼수는 없을것이다.)

수철은 전우들의 노래와 춤을 보면서 이런 흐뭇한 감정에 혼자 취해있었다.

오락회가 끝이 난 후 전우들은 흥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얼굴로 산비탈에 깊이 파서 만든 병실로 끼리끼리 모여 들어갔다. 수철은 다시 성구앞으로 다가갔다.

《어때?》

《아주 재미있어요.》

성구는 얼른 대답하였다.

《후방에서 오락회하던것보다 더 잘하지? 씩씩하고 활발하고…》

수철이 마치 자기가 오락회를 지휘나 한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네, 참 잘들 해요.》

저녁늦게 선동원동무는 민청분조장동무와 소대장앞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이야기하고있었다. 그 이야기들중에서 수철이가 얼핏 들으니까 오늘은 세 동무에게 전투경험을 주기 위하여 개별지도를 할데 대한 이야기였다. 수철은 그 말에 귀가 번쩍 띄였다.

《선동원동무! 박성구동무는 제게 맡겨주십시오.》 하고 당장 청원해보고싶었으나 그럴수도 없는 자리라 꾹 참았다.

밤 이슥히 전우들이 다 깊은 잠에 든 후에야 선동원과 민청분조장은 자기 병실로들 돌아가려고 소대장앞에서 물러섰다. 수철은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라 병실에서 나왔다.

《선동원동무!》

수철은 민청분조장뒤를 따라나오는 선동원을 문옆 어둠속에서 가만히 불렀다.

《누구요? 수철동무요?》
《네!》
《웨?》
《저 박성구동무 지도를 제가 맡을수 없을가요?》
의외의 질문에 잠시 덤덤했던 선동원은 《그래도 좋지요. 그럼 전적으로 그 동무를 맡아보겠소?》 하고 뒤를 따지였다. 언제나 신중히 생각한 후에야 대답을 하는 수철이 무춤해서 서있는데 선동원이 다시 말을 꺼냈다.
《좋소, 래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선동원은 자기 전호를 향하여 사라졌다.
놈들의 탐조등빛이 맞은편봉우리를 핥듯이 지나가자 꾸릉꾸릉하는 포성과 함께 포탄이 작렬하는 섬광이 여기저기서 살기를 띠고 번쩍거린다.

2

이튿날 수철이는 성구를 만나서 대뜸 이렇게 말하였다.
《성구동무! 무슨 얘기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어, 응? 어떤 얘기가 먼저 듣고싶어?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말야!》
혼자 신명이 나서 주어섬기는 수철이를 성구는 그저 멍하니 바라다만 보고있었다.
《동무! 나는 동무에게 전투얘기를 해줄 책임이 있어. 그래서 그러는거야.》
성구는 겨우 수철의 말귀를 알아들었다.
《네, 좋아요. 아무것이나 먼저 말해주세요.》
성구는 어린애같이 반기였다.
《응, 그럼 해주지. 제일 처음 내가 경기로 미국놈 열넷을 잡던 얘기부터 하지. …》
수철은 성구앞에서 자기의 전투경험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수철의 이야기는 무진장하였다. 수철이는 하루에도 몇차례나 틈만 있으면 성구와 마주앉았다. 수철이의 입은 퍽 컸다. 거기다가 입술은 두텁고 아래이몸이 웃이몸보다 밖으로 더 나왔다. 거세고도 검은 눈섭이 덮인 아래로 가로 찢긴 눈은 어떤 때는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어

떤 때는 실같이 가늘어져서 매섭게 보였다. 그것은 이야기내용에 따라 변하였다. 수철이는 화술이 능하고 구수하였다. 성구는 무슨 동화나 듣는것처럼 그의 이야기에 쏠리였다.

수철은 용감하게 싸운 이야기만이 아니라 가끔 실수하던 이야기도 하였다.

《내가 생각해도 그때는 참 우둔했거던.》

수철은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는 말야, 미제놈들과 꼭 두번째 붙던 싸움이였어. 놈들이 중화기를 잔뜩 배치하고 검질기게 방어하던 고지였어. 돌격조들은 올라갔다가는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는 내려오고. 그런데다가 더러는 돌아오지 않는 동무들도 있잖아? 그걸 보니 정말 속이 타더군. 이놈의 새끼들 올라만 가면 씨도 없이 죽여버릴테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있었지. 나는 경기사수니까 돌격조에는 참가를 안시키였지. 그러다가 저녁때 우리는 끝내 놈들의 고지앞에 있는 등성이에 올라서게 되였어. 나는 거기다가 경기를 버티여놓고 막 갈겨대지 않았겠어. 그러자 돌격조동무들이 소대장의 구령으로 와 하고 올라가니 놈들이 당황망조해서 고지 저쪽으로 뛰는게 달빛속으로 완연히 보이더군. 나는 신명나는김에 경기를 메고 쫓아갔거던. 그때 나는 지형이 좀 나빠 우측으로 돌았지. 얼마쯤 쫓아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 전호속에서 미제놈 10놈이 그냥 내뛰는게 아니야. 미처 경기는 버틸새도 없고 하여 그냥 놈들의 뒤를 쫓았지. …

동무, 실제 싸움할 때 기분이란 그런거요. 적과 맞붙어놓으면 보이는 놈은 모조리 다 잡고싶은 생각밖에 아무런 생각도 없다니까. 놈들이 뛰지, 그러면 어디까지나 쫓아가고싶거던. 가뜩이나 이가 북북 갈리던판인데 놈들이 뛰는걸 보니 안 쫓아가고 견디겠느냐 말야.

그때 나도 무슨 정신에 쫓아갔는지 모르지. 마냥 릉선을 타고 골짜기아래로 쫓아갔지. 손을 들고 서면 쏘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갔으나 경기를 메였으니 따라갈수가 있어야지. 얼마를 쫓아가다가 생각이 나서 문뜩 서니 사방에서 따꿍총소리가 들리지 않아. 가만히 보니 적진속이야. 놈들은 벌써 없어지고… 생각하니 참 우습더군.》

《그래 어떻게 돌아왔어요?》

성구가 눈이 둥그래서 물었다.

《거기서 혼자 적정도 모르겠구 또 뒤에 따르는 아군부대도 없고 경

기를 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어야지. 그런데 돌아다보니 우리가 점령한 고지는 달밤이 되여 그런지 아주 까마득하게 보인단 말야. 할수없이 그냥 돌아왔지.》

《그놈들한테 들키진 않았어요?》

《들키긴, 미제놈들은 그런 점에서는 괴뢰군놈들보다 더 어수룩하다니까. 아무튼 부대까지 돌아오는데 한시간은 더 헤매였을게야. 겨우 찾아오니까 소대장동무가 그런 적개심과 용감성은 좋은데 전투정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혼자 행동한데 대해서는 눈물이 날만큼 막 꾸중을 하겠지. …》

이 이야기를 하면서 수철은 다른 이야기를 할 때와는 아주 딴판으로 여러번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것만 아니라 여러차례 말을 끊고 깊은 회상에 잠기군 하였다.

다음 락동강을 건너서 원쑤들과 싸울 때 놈들의 반돌격을 최후로 세 동무가 남아서 중대부와의 련락이 끊어진채 이틀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총탄 한알도 없이 돌로 고지를 사수하던 치렬한 전투이야기를 하였다.

성구도 이야기를 들을 때는 손에 땀이 흥건히 고임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성구는 조바심이 나서 질문하였다.

《이틀씩이나 굶고 배고파서 어떻게 싸웠어요?》

《배? 물론 고프지. 그러나 원쑤들이 눈앞에 있을 때는 배가 고파도 고픈줄을 모르는 법이라오. 다만 한놈이라도 더 원쑤를 잡고싶은 생각밖에는 없으니까. 원쑤가 미우면 미울수록 먹지 않아도 기운이 나는 법이요. 그때 만일 우리에게 그런 증오심이 없었다면 우리 셋은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였을거요. 증오심, 이것이 약하면 약할수록 전투에서 용맹하지 못한 법이거던.》

이때 성구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외의 질문에 수철은 잠시 어리둥절하였다. 한참뒤 생각을 가다듬은 수철은 말했다.

《첫째—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로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무조건 수행할것, 둘째— 아버지 학살된것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선에 들어와 저지른 만행이 무엇인가를 알것, 셋째— 전쟁은 누가 하려고 하며 또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가를 알것, 그리고 넷째는 우

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행복, 우리의 부모형제, 우리의 고향, 우리 조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것을 똑똑히 알것, 이런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첫째도 학습, 둘째도 학습, 셋째도 학습— 우리가 지금 하고있는 학습만 잘하면 되는게야, 알겠어?》

성구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수철이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았다.

수철은 성구의 그 열성이 늘 기뻤다. 또 한편 미더웠다. 이야기는 언제나 수철이가 먼저 입담이 풀리여 그만두었다. 그날 할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듣고싶어 턱을 치켜들고 앞에서 일어설줄을 모르는 성구를 보며 수철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됐다. 그저 용감하고 대담하고 적앞에서 물러설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만 되여다구. 지금까지 애써온 내 소원은 그것 하나뿐이다.)

3

며칠이 지나갔다. 수일째 이상할만큼 조용하던 적들은 한낮이 지나서부터 별안간 집중포격을 개시하였다. 놈들이 가끔 늘 하는짓이라 별로 새삼스러울것은 없었으나 한가지 새로운 점은 포탄 떨어지는 구역이 달라진것이였다. 수철이의 소대가 주둔하고있는 골안지점이 목표인듯싶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터져보기는 여직껏 처음이였다.

골안은 갑자기 뿌연 먼지와 연기로 덮어버렸다. 허공으로 뿌려진 돌가루와 중둥이 부러져 날으는 나무가지들은 쉴새없이 우드득우드득 떨어졌다. 포탄 터지는 소리는 온통 산을 흔드는듯 울리였다. 놈들의 포격은 지꿎게도 오래 계속되였다.

수철은 옆에서 포탄이 터지는것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흥분되였다.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제일 화선은 아니라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이런 환경속에서는 어느 사이인지도 모르게 마음은 벌써 전투준비가 다 되여졌다. 수철은 경기를 자주 만진다. 장탄도 했다가 또 빼보기도 한다. 포격이 끝나면 당장 놈들이 고지로 기여오르는것만 같은 착각이 일어나 무의식중에 전호밖으로 뛰여나갔다. 전우들은 벽에 등을 대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연하게 앉아있었다. 전호가 울리는대로 뽀얀 먼지가 전호안에 안개처럼 서렸다가는 사라지고 하지만 전사들은 눈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다만 수철이만이 서성댔다.

수철은 일어나는 심사를 걷잡을수 없어 드나드는편이 더 많았다.
《개새끼들, 네놈들의 포탄을 모조리 갖다가 쏟아부어보아라. 네놈들이 되나, 힝—》
얼마뒤 수철은 문득 성구 생각이 났다. 전호안을 둘러보니 성구가 보이지 않는다. 수철은 금시에 눈이 휘둥그래졌다.
—응? 웬일일가?
수철은 밖으로 나왔다. 혹시나 하고 다음전호로 뛰여들어갔다. 다른 동무들은 다 있는데 성구만이 보이지 않는다. 동무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조금전까지 있었더라면서 시원찮은 대답뿐이다.
《이 사람이 대체 어디로 갔담!》
수철은 잠시 생각해보았다. 이런 집중포격을 처음 당해보는 동무들에게는 간혹 있을수 있는 일이기는 하나 혹 대렬을 떠나 혼자 산우로 멀찌감치 피신하지나 않았을가? 그러나 성구가 변이라도 당했으면… 이렇게 상상하는것조차 불쾌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수 없는 일이였다.
잠시 망설이던 수철은 찾아보기로 하였다.
한참동안 수철은 포탄을 피하면서 비탈을 타고 전호주변 아래우를 더듬으며 찾아다니였다. 그러나 성구는 보이지 않았다.
이미 골짜기에는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했다. 포탄 날아오는 수효는 좀 뜸해졌으나 포연은 골안에 의연 안개처럼 자욱하다.
수철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다시 고지쪽으로 더듬어올라갔다. 도중에서 옆에 떨어지는 포탄때문에 세번이나 엎디였다가 일어났다. 수철은 성구가 불현듯 야속스러웠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셈인가?)
그러자 수철은 눈앞에서 얼마 안되는 큰 바위밑에 바싹 엎드린 전사의 등어리를 발견하였다.
《거 누구요?》
수철은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포탄 한알이 10메터 우측지점에서 작렬하였다. 폭음이 귀청 떨어질듯 울렸다. 전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누구야!》
수철은 소리를 지르며 다가갔다. 그제서야 전사는 머리를 들고 돌아본다. 바로 성구였다. 수철은 욕이 왈칵 치밀었다. 그러나 꾹 참고

《성구동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부드럽게 말하였다. 성구는 놀란 눈으로 벌떡 일어났다.

《아니, 파편이 위험한데 전호로 들어오지 않고 여기서 무엇을 하오. 개새끼들이 여기다만 대구 쏘는데.》

《포탄 터지는것을 좀 구경하려구요.》

성구는 마치 철없는 아이들처럼 이렇게 대답했다.

《구경?》

성구의 말에 수철은 잠시 말문이 막히였다. 그러나 그의 명랑한 얼굴을 보자 도리여 반가웁다. 생각했던바와는 전혀 달랐기때문이였다.

《구경이라니 원, 동무도 정신이 없군! 빨리 전호로 갑시다. 전쟁을 구경한다는 사람은 내 처음 봤소. …》

수철은 도무지 어이가 없었다.

그날 밤이였다.

놈들은 온종일 수백발의 포탄을 퍼부었으나 오직 참나무뿌리를 뽑아내고 바위를 부셨을뿐 아군부대에게는 아무런 손실도 줄수 없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불행한 일이 바로 수철의 소속부대에서 발생되였다. 그것은 수철의 옆전호에서 외부근무를 나갔던 전우 한 동무가 희생된 사실이였다.

이것은 외부에서 당한 일이였기때문에 저녁까지 부대에서는 통 모르고있었던터이다. 이 비보가 전해지자 전우들은 격분을 참지 못하였다.

희생된 동무는 밤사이에 전우들의 손으로 고지우 양지바른 비탈에 묻혔다. 달이 산봉우리우로 올라오자 주위는 갑자기 환하여지고 달빛은 새 무덤을 잠재우듯 푹 싸주었다. 성구도 수철의 뒤를 따라 끝까지 함께 행동하였다.

달빛을 이마에 받으며 동무를 묻고 뒤떨어져 내려오는 수철은 생각할수록 남의 일같지 않아 옆에 따라오는 성구를 몇번이고 돌아다보았다. 사실은 낮에 바위밑에 엎드렸던 일을 틈을 타서 성구와 말해보려던터이다.

《동무, 보았지?》

수철은 걸으면서 밑도끝도 없이 성구에게 불쑥 말을 걸었다.

《네?》

성구는 채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다.

《지금 저우에 묻힌 동무 말이요. 아침까지 펄펄 뛰던 그 동무가…》

《…》

성구는 아무말없이 수철을 쳐다만 보았다.

《동무는 아까 포탄 터지는것을 좀 구경한다고 그랬지?… 전쟁이라는것은 장난이 아니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할라구. … 저 동무는 근무중에나 그랬지. … 그렇게 장난이나 하다가 놈들의 파편에 맞으면 무엇이 되겠소. … 나는 아까 참말 안타까왔소, 동무찾기에. …》

수철이가 이렇게 나무라듯 성구에게 말해보기는 이것이 처음이였다. 성구는 자기 혼자 해보려던 일인데 뜻밖에 걱정을 시켰구나—하고 생각하니 미안한 생각이 와락 들었다.

《부분대장동무!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구는 정식으로 사과의 뜻을 표하였다.

《나는 아무래도 동무가 그런짓을 하고싶은 마음이 생긴 원인을 모르겠어! 동무는 무서운 생각이 없어? 그러다가 맞으면 어쩔번 했어?》

성구는 대답이 얼른 나오지 않았다.

수철이가 다시 말을 이었다.

《동무는 생애에 대하여 생각해본 일이 없어? 우리 청년들의 생애에 대해서 말야. …》

《네,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다.》

성구가 서슴지 않고 대답하였다. 수철은 그 말에 흥미가 났다.

《좋소, 그걸 한번 이야기해보오.》

《오직 어버이수령님만을 위한 생애가 가장 영예롭고 아름다운 생애라고 여기지요. 후방에 있을 때 민청학습에서도 배웠구요. 제가 생각해본 보람있는 일생이란 그것입니다.》

《옳소, 바로 그것이요.》

수철은 신이 나서 말을 받았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치는것, 그것은 아무데서나 아무렇게 죽는 죽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요. 우리의 원쑤를 단 한놈이라도 잡고 죽는 그런 죽음이여야…》

말을 뚝 끊은 수철은 달을 한번 쳐다보고는 길옆 돌에 걸터앉았다.

《성구동무! 좀 쉬였다 가지. 나 오늘 동무에게서 참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 가슴이 막 시원한데.》

수철은 담배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성구는 앉지 않고 그앞에서 머

뭇거리였다.
《부분대장동무, 한가지 이야기할게 있습니다.》
《뭐요?》
《사실 제가 한 일은 장난이 아니였습니다.》
성구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였다.
《그래? 그럼 이야기를 좀 하오.》
수철은 모자를 벗어 가리우고 담배불을 붙이였다.
《그럼 제가 다 말하겠습니다. 저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때 폭격에 되게 혼난 일이 있습니다. 그뒤로는 기총소리만 들어도 놀라군 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비겁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다가 입대했습니다. 저는 입대할 때에 두가지 결심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혁명의 전취물을 목숨으로 지키는것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것이였습니다. 이전 지주놈의 아들이 들어와 동네에서 5년동안 소작료 한톨 안 내고 잘해먹은것 다 내놓지 않으면 가족들을 전멸시킨다고 위협하여 우리 집 재산과 동네 재산을 빼앗아간 그놈을 단단히 복수하리라 별렀던것입니다. 이 복수의 대상자가 바로 미제놈들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그놈들이 우리 조국땅에 기여들지 않았다면 제가 당한 그런 불행을 우리 조선인민은 누구도 당하지 않았을게 아닙니까.》
성구는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저는 여기 와서 부분대장동무의 말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만 싸울수 있다면 저는 미제원쑤놈들에 대한 복수를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끔 고민하는것은 총탄,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화선에서 얼마나 제가 대담해지고 침착해져서 적과 싸울수 있을가? 그 점이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참말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창피해서 부분대장동무에게까지도 속이고 가만히 나갔었습니다. …》
수철은 벌떡 일어났다.
《동무! 그게 정말이요?》
《네, 정말입니다. 저도 부분대장동무만큼 복수를 하고싶습니다. 참말 그렇게 싸우고싶습니다. …》
성구는 차렷을 하였다.

《야— 나는 몰랐소. 동무가 그런줄은 참말 몰랐소. 고맙소, 나의 전우.》

수철은 와락 달려들어 성구의 어깨를 껴안았다.

《동무! 좋소, 같이 싸웁시다. 나도 동무와 같은 사람이요. 내 고향은 바로 금화땅이요. 여기서 백리요. 우리 가족은 놈들에게 몽땅 학살당하였소. 나는 죽어도 다시는 내 고향을 놈들에게 내주지 않을테요, 천만번 죽더래도.》

4

부대는 돌연 출동명령을 받았다. 일화선에서 놈들과 싸우는 전초부대와 교대를 하기 위한 출동이였다.

출동명령을 받은지 4시간후 부대는 이미 직선거리 백메터 건너편 고지에 있는 적들앞에서 어둠을 리용하여 교대하고 전투준비를 끝마치고있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미군은 아군고지 방어선전면에 대부대로 공격해왔다. 며칠전부터 보충을 받은 미제놈들은 사흘동안 매일같이 결사적으로 공격해왔다. 놈들은 아군의 교대를 전혀 모르는것 같았다. 그래 오늘 되게 공격하면 아군방어선은 돌파될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였다.

전투는 새벽부터 저녁때까지 하루 진종일 계속되였다. 이 전투에서 아군부대는 놈들의 공격을 좌절시키는데 적지 않은 힘을 들였다. 그것은 린접부대와의 접촉점인 좌측릉선우에 몽드라지게 올라붙은 봉우의 적 한개 소대가량이 발악적인 측면사격을 해옴으로써 애를 먹였던것이였다.

적들이 많은 시체를 남기고 퇴각하자 대대장은 그쪽 중대장에게 접촉지점에 강력한 잠복조를 배치할것을 명령하였다. 중대장은 소대장을 불러 잠복조를 파견할데 대한 토의를 한 다음 물었다.

《몇동무나 파견할수 있소?》

《두 동무 내지 세 동무를 보낼수 있습니다.》

소대장은 자기 소대의 력량을 생각한 후 대답하였다.

《좋소. 그럼 두 동무만 단단한 동무로 내게 보내오. 책임지울만 한 동무가 있겠소?》

《제1분대 부분대장 장수철동무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대장은 서슴지 않고 대답하였다.
《그 동무는 경기사수가 아니요?》
《경기는 맡을 동무가 있습니다.》
《그럼 좋소.》
조금뒤 중대장앞에는 수철부분대장이 전사 한 동무를 데리고 나타났다.
《중대장동무! 2소대 1분대 부분대장 장수철은 당신의 명령대로 전사 한 동무를 인솔하고 방금 도착하였습니다.》
《수고했소.》
중대장은 손을 꼭 잡아주었다.
《저 동무는?》
중대장은 수철이옆에 오똑 서있는 전사를 가리키였다.
《같은 1분대에 있는 전사 박성구라고 하는 동무입니다. 이번 휴식기에 새로 편입된 신대원입니다.》
《신대원?》
중대장은 이렇게 반문한 다음 다시 물었다.
《대체 무슨 임무를 받으리라는것을 알고 왔겠지?》
《넷, 소대장동무한테서 들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중대장은 성구를 아래우로 훑어본다.
《담당해낼만 하겠소?》
역시 수철이에게 묻는 말이다.
《넷, 본인이 강력하게 자원했기때문에 저를 믿고 소대장동무가 허락하였습니다.》
《그럼 좋소.》
중대장은 그제야 직접 임무를 주기 시작하였다. 끝으로 중대장은 다시한번 다짐하여 말하였다.
《만일 두 동무가 임무를 완수 못할 때는 전부대의 방어에 큰 혼란이 온다는것을 명심하시오.》
《넷, 들었습니다.》
두 동무는 각각 따발총탄 세 탄창과 세배낭의 수류탄을 둘러메고 시간을 다투어 주봉과는 훨씬 낮은 몽드라지로 내려갔다. 5백메터는 실히 되는 거리였다.

중대장이 지적해준 지점에 도착하자 지형을 살펴본 수철은 놈들이 제일 쉽게 올라올수 있는 목에 공병삽을 박았다. 성구도 말없이 수철이를 따라 땅을 팠다. 돌과 모래에 부딪치는 삽소리가 주위의 고요한 공기를 성급하게 흔들었다. 건너편 적들의 진지에서도 휴식하는지 이따금 따꿍총소리가 산을 울릴뿐 주위는 깊은 적막에 잠겼다.
새벽으로 잡아드는지 갑자기 바람이 차겁다. 잠복호가 다될 때까지 두사람사이에 단 한마디도 오고가는 말이 없었다. 그저 전력을 기울여 전호를 팔뿐이였다.
잠복호는 5메터가량 간격을 두고 두개를 팠다. 사이에는 홈타기를 리용하여 엎디여길수 있는 교통호를 만들었다.
작업이 끝나자 두사람은 약속이나 한듯 한쪽잠복호에 서로 무릎을 대고 마주앉았다. 수철은 부시럭부시럭하더니 담배쌈지를 뒤지였다.
《담배 한대 피우지.》
오래간만에 수철이가 성구에게 거는 말이였다.
수철은 종시 성구 일이 마음에 걸리였다. 수철은 아직도 성구를 잠복조로 데리고나오고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좀더 경험을 쌓고 훈련되기까지는—
그러나 이렇게 된바에는 할수 없는 일이였다.
용감하고 유쾌하게 잘 싸울수 있게 해주는 수밖에 없었다.
수철은 지금까지의 성구에 대한 생각은 말끔히 털어버리였다. 그리고는 자기부터 유쾌해졌다. 수철은 벌떡 일어서며 《에이, 오늘은 오래간만에 미제놈들을 좀 잡아보자.》 혼자말같이 하고는 두팔을 죽 펴서 기지개를 한 다음 성구에게 말했다.
《자, 동무! 배고프지? 우리 밥이나 먹고 기다리지, 날도 다 밝아오는데.》
수류탄이 든 다섯배낭중 한배낭에는 두사람이 하루동안 먹을 주먹밥이 들어있었다. 날이 밝으면 놈들의 포탄과 저격탄때문에 또는 아군전호가 발견될 념려도 있어 식사운반은 일체 중지되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그 다음날 밤까지의 밥을 하루분 미리 가지고온것이다.
두사람은 밥배낭을 벌려놓고 기분좋게 소곤거리며 밥을 먹었다.
동쪽하늘이 벌겋게 물들기 시작하였다.
조금뒤 담배 한대씩을 말아붙이였을 때다. 별안간 와르릉하더니

쏴—쏴— 소리가 나며 아군방어고지우에서 쿵쿵하는 폭음이 난다.
바로 잠복호우에서까지도 가까이 들린다.
《또 시작이군.》
수철은 긴장한 얼굴로 잠복호에서 머리를 내밀고 주위를 살폈다.
하늘과 땅은 우르릉거리는 진동속에 빠지고 고지는 삽시간에 포연에 묻혀버렸다.
《자 동무, 위치로 가오. 전투준비를 합시다. 그런데 아무리 적이 가까이 와도 내가 행동하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마오. 동무는 꼭 내가 하는대로만 하오. 동무는 적보다 나를 더 많이 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수철이의 얼굴에서는 서리발같은 위엄이 뿜기였다.
《넷.》
성구는 별안간 전신이 얼어붙은것 같은 기분을 느끼였다.

5

수철이와 성구는 수십개씩의 수류탄을 던지였다. 단 5분동안 휴식할 사이도 없었다. 그만큼 놈들은 계속해서 올라왔다. 이 산봉우리로 한개 중대의 병력을 들이밀었다.
놈들은 선두에 몇놈을 전초로 세우고 다음에는 한개 분대, 그다음에는 한개 소대, 그밑에는 두개 소대, 건너편 화점에서 중기와 로케트포 기타 포의 엄호밑에 피라미드형으로 기여올라왔다.
이렇게 올라오는 적들은 잠복호턱밑에서 수철이와 성구의 수류탄에 쓰러져 분쇄되였다. 놈들은 마치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 올라왔다. 고지방어선전면을 중심으로 배치된 아군 중포들이 앞에 달려붙는 적들을 갈기느라 미처 숨돌릴 틈을 못 가지는 기회를 리용하여 놈들은 아래골짜기에서 공공연하게 올라붙군 한다.
그들은 30개, 40개, 50개… 이렇게 수류탄을 던지였다. 수철은 수류탄고리를 잡아채기에 손가락에서는 피가 흘렀고 오른쪽팔은 장작개비같이 뻣뻣해졌다. 수철은 손가락으로 고리를 뺄수가 없어 입으로 빼다가 이가 아파나자 나중에는 신을 벗고 발가락에 걸어서 빼였다.
수철이의 두눈은 충혈이 되였고 얼굴과 몸뚱이는 흙과 먼지를 뒤집어써서 범벅이 되였다. 잠시도 쉴새가 없는 그는 숨을 헐떡이였다. 성구도 똑같았다.

성구는 수철이와 적을 번갈아보느라 그의 둥근 눈은 더욱 두리번거렸다. 그의 팔은 수철이를 따라 기계처럼 움직이였다. 수철이가 몸을 숙이면 자기도 숙이고 수철이가 따발총을 들면 자기도 따발총을 들었다. 성구는 마치 수철이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만하면 되였다.)

수철이는 그 경황중에서도 성구를 생각하였다.

문짝 나딩굴어지듯 하는 놈들의 시체는 늘어갔고 중상을 당한 놈들은 왜가리소리같은 신음소리만 귀아프게 질렀다. 두 잠복호는 놈들의 포탄에 반이나 묻혀버렸다.

배낭의 수류탄이 점점 줄어들었다.

《수류탄을 아끼오. 두세놈쯤은 따바리로 갈기오.》

수철은 몇번이나 성구에게 소리를 질렀다.

《수류탄이 떨어지면 우리는 맨주먹으로 싸우게 되오.》

그러나 아무리 아끼자 해도 사태는 꼭 수류탄을 쓰게끔만 되였다. 수철은 점점 안타까왔다. 이렇게까지 지꿎게 련속적으로 대들줄은 수철이로서도 예측을 못했던것이였다.

아군방어선 중심고지쪽에서는 많은 미제놈들이 의연히 고지밀릉선에 거마리처럼 달라붙어 떠나지 않는다. 아군진지에서 쏟아져나가는 중기, 경기, 박격포 기타 포와 수류탄은 이것들을 쓸어내듯 갈겨댔으나 놈들도 그에 지지 않는 중화기의 엄호밑에 오히려 올려붙는 병력은 늘어갔다. 전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치렬해졌다.

잠복호옆에서 두어개 소대가 분쇄되자 올려밀던 적의 파도는 잠시 중단되였다. 수철은 땅에 쓰러져 잠시 의식을 가다듬었다.

수철은 솔포기밑으로 기여나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당장 올라오는 놈들은 없다. 그러나 아직도 두개 소대쯤 되여보이는 병력이 그대로 웅성거리고있었다. 해는 아직도 정오를 벗어진채 그대로 높다랗다. 전반적 전투태세로 보아 아래놈들이 또 올라올것은 뻔한 일이다.

여섯개 남은 수류탄과 반탄창씩 남은 따바리를 앞에 놓고 수철이와 성구는 서로 마주쳐다보았다.

얼마뒤에 수철이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수류탄을 가져와야겠소.》

《넷.》

성구는 냉큼 이렇게 쉽게 대답하였다. 수철은 성구의 얼굴을 한번

더듬은 다음 그 대답에는 상관없이 말을 이었다.

《중대부까지 가려면 풀포기 하나 제대로 남지 않은 릉선을 적어도 백메터는 적에게 등어리를 보이며 가야 하오.》

여기서 잠시 말을 끊은 수철은 불현듯 호밖으로 기여나가 아래적정을 살피고 들어왔다.

《적정은 아직도 별일 없소, 단단히 얻어맞았으니까. 동무, 여기서 혼자 20분만 지켜주오. 내가 중대부까지 갔다오겠소.》

성구는 대번 눈이 둥그래졌다.

《아닙니다, 제가 갔다오겠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잠시동안 적정만 살피고있소. 왕복 1키로쯤 15분이면 올수 있소. 별일 없을거요.》

성구는 부득부득 나섰다.

《부분대장동무, 제가 단거리에 일등먹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갔다오겠습니다.》

《아무리 단거리선수라도 적의 총탄보다 빠를수는 없소. 시간이 없소. 그럼 부탁하오.》

수철은 자기 따바리를 둘러메고 성큼 호우로 나섰다. 중대부로 뛰여가려던 수철은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다시 솔포기쪽으로 갔다.

한동안 솔포기를 의지하여 열심히 아래를 노려보던 수철은 다시 기여오르기 시작하는 약 한개 소대의 적을 발견하였다. 그는 성구를 이곳에 두고 가는것은 위험한 일이라 생각하고 몸을 홱 돌려 도로 호안으로 뛰여들었다. 웬일인가싶어 쳐다보는 성구에게 수철은 한번 히쭉 웃어보이고는 다급하게 말하였다.

《단거리선수! 동무가 중대부에 갔다오오.》

《네? 참말입니까?》

《그렇소, 빨리 가오.》

《그럼 제가 갔다오겠습니다.》

흥이 나서 후닥닥 일어서며 따바리를 메고 인사를 하려고 수철이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의 표정에서 이상한것을 느꼈다.

(응? 적들이 또 올라오나?)

성구의 머리속에는 이런 생각이 번개같이 스치였다. 그러나 성구는 랭정하였다.

《부분대장동무! 그럼 갔다오겠습니다. 5분안에 다녀오겠습니다.》

경례를 척 붙이고 호를 솟구치는 성구를 무슨 오랜 작별이나 하는것처럼 굳게 손잡아쥐며 수철은 정답게 성구의 얼굴을 쳐다본다.

《단거리선수! 될수 있으면 3분간에 돌아와주오.》 하고는 좀 딴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중대장에게 가면 이 잠복호에 20분이내로 증원부대를 보내달라 하시오. 그리고 이 장수철은 끝까지 싸웠다고 중대장동무에게 전해주오.》

《네, 들었습니다.》

《그럼 동무의 전투공훈을 바라오.》

《넷.》

《부디 포탄에 조심하시오.》

《넷.》

이 대답과 함께 성구는 이미 중대부를 향해 달리고있었다.

수철은 성구가 뛰여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있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을 리해하지 못하고 그저 네, 네 대답만하고 뛰여가는것은 아직도 어린탓이겠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귀엽고 령리하고 씩씩한 전우였다. 그런 전우와 더 오래오래 같이 원쑤와 싸울수 없게 되는, 눈앞에 박두하는 사태가 천만 한스럽기도 했다.

장수철은 얼른 성구를 뒤로 보낼수 있은것이 무엇보다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어쩌면 인제는 모든것과 마지막인지도 몰랐다. 수철은 각오하였다. 그러나 한가지 가슴아픈것은 전투임무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것이였다.

그러는 동안에 적들은 벌써 50메터앞까지 접근하여 하나, 둘 대가리를 내밀기 시작하였다.

《오냐, 오너라. 내 목숨이 있는 한 네놈들은 천명이 와도 한놈도 이 고지에 발을 붙이지 못할것이다.》

수철은 무기를 있는대로 다 옆에 모아놓고 기여드는 원쑤들의 대가리를 성난 사자와 같이 노리고있었다.

6

잠복호에서 뛰여나온 성구는 단거리경주를 하는것처럼 중대부를 향하여 달렸다. 적들이 빤히 건너다보이는 로출지점도 똑같은 속도로 뛰

였다. 포탄이 앞에서 터져 먼지가 얼굴을 가리거나말거나 저격탄이 귀전을 스치거나말거나 그는 결승선을 향하여 내닫는 달리기선수처럼 있는 힘을 다하여 뛰였다. 성구는 탄알에 맞으리라는것은 생각지 않았다. 포탄파편에 맞아 쓰러지리라는것도 생각지 않았다. 도대체 죽음이라는것을 생각지 않았다. 그는 한치의 땅도 원쑤에게 내주어서는 안되는 잠복호를 생각할뿐이였다. 조금후에는 단 여섯개의 수류탄으로 몇놈이 올라오는지도 모르는 그 독사같이 징그러운 미제놈들과 혼자서 싸울 부분대장을 생각하였다. 그는 달리였다. 달리고 또 달리였다.

성구의 얼굴을 본 중대장은 성구를 격려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모든것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또 뒤일도 약속하였다.

수류탄과 탄창이 든 두개의 배낭을 걸머멘 성구는 다시 달리였다. 잠복호까지 달리였다.

《부분대장동무!》

잠복호로 뛰여든 성구는 수철이가 있고 없는것을 알아내기 전에 호밑으로 붙었다가 자기가 부르는 소리에 주춤하는 5～6놈의 미제놈을 발견하였다.

성구는 수류탄 한개를 던졌다. 세놈이 쓰러져버리자 두놈은 내뛰였다. 성구는 두놈마저 기관단총으로 쓸어눕혀버렸다. 그리고는 흙에 턱을 대고 호밑을 노려보았다. 시체들만이 너저분히 널려있을뿐 살아있는 놈이라고는 한놈도 보이지 않았다. 성구는 그제야 다시 부분대장을 찾을 생각이 났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부분대장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했다.

《웬일이야?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

성구는 중얼거리며 무심히 호밑으로 시선을 돌렸다. 순간 성구의 시선은 한 시체에 가서 딱 멎어버리였다.

《응?》

상체를 아래쪽으로 향하고 모로 쓰러져 누운 시체는 우는 보이지 않았으나 분명히 미제놈은 아니였다. 틀림없이 부분대장 같았다. 거리는 30메터나 되여보였다.

성구는 수류탄을 찰대로 차고 기관단총을 든 다음 잠복호를 기여나왔다. 놈들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하여 시체처럼 가장하며 극히 느린 속도로 기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며 다가갔다. 그러나 마음은 급했다.

시체까지 기여간 성구는 그게 분명 부분대장인것을 확인하자 자기

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
　성구는 눈에서 불이 확 일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거기서 일직선으로 내려다보이는 골짜기에 아직도 다시 올라오려고 웅성거리고있는 원쑤들이 마치 항아리속에 들어있는 벌레떼같이 눈에 어른거렸다. 성구는 잠시 그 원쑤들을 노려보았다. 그저 단숨에 내려가 한꺼번에 짓이기고싶은 생각밖에는 없었다.
　성구는 시체사이를 기기도 하고 나무포기와 돌덩이를 의지하기도 하며 내려갔다. 바로 놈들의 정수리가 내려다보이는 높직한 바위우에 성구는 성큼 올라섰다.
　《이 개새끼들, 우리 부분대장 복수 받아라!》
　수류탄 네개를 한꺼번에 내려던지며 성구는 힘있는대로 소리를 지르고 기관단총을 휘둘렀다.
　기습에 놀란 놈들은 와락 흩어졌다. 무더기 무더기 모여있던 놈들은 참말 벌레떼처럼 짓이겨졌다. 20～30놈이 단꺼번에 뻐드러져보이였다. 나머지 안전지대로 뿔뿔이 흩어진 놈들은 성구를 향하여 반사격을 시작하였다. 성구는 바위뒤로 납작 엎드리며 그쪽으로 몇개의 수류탄을 던졌다.
　미제졸병놈들은 실패와 죽음만이 있는 고지돌격전을 강요당하고 있던판인데 지휘관이 죽어넘어진것을 알자 이 기회라고 분산하여 뛰였다. 성구는 총알에 여유가 있는 한 한놈이라도 더 잡으려고 바위에 붙어 사격을 계속하였다.
　어느덧 주위는 허전해졌다. 성구는 문득 잠복호를 떠나서는 안된다는 중대장의 말이 떠올랐다. 동시에 고요해진 주위에서 한시도 머뭇거리고싶지 않았다. 성구는 나무포기와 바위를 의지하여 잠복호로 올라왔다. 올라오다가 수철부분대장이 누워있는 옆에 와서 그 몸을 안고 자기도 쓰러졌다.
　《응?》
　성구는 순간 이상한 촉감을 느끼였다. 그것은 시체의 촉감이라기보다도 산 사람의 촉감이였다. 성구는 정신이 펄쩍 들었다. 손을 가슴으로 가져갔다. 심장이 움직이고있었다.
　《부분대장동무!》
　성구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소리를 질렀다. 역시 대답은 없다. 성구는 약간 몸을 흔들며 계속 불렀다.

《푸—》

입이 움직이며 긴 한숨이 막혔던 공기처럼 뿜겨나왔다.

《부분대장동무! 접니다, 성굽니다. 5분만에 돌아왔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개새끼들까지 다 쫓아버렸습니다. 정신차리십시오. …》

주방선에서도 적들은 점차 퇴각하는 모양이였다. 총소리가 이따금씩 났다.

수철부분대장은 어두워서야 잠복호옆 바위밑에까지 옮겨졌다. 허벅다리와 배와 어깨에 여러발의 탄알을 맞았으나 다행히 급소를 면하여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여러 상처와 출혈로 의연 중태를 면치 못하였다.

수철부분대장은 오래도록 성구의 손을 쥐고 놓지 않았다.

《동무는 훌륭하게 전호를 지키였소.》

《아닙니다. 부분대장동무가 그렇게 뛰여나가서 싸우지 않았다면 제가 도착하기 전에 놈들은 올라섰을것입니다.》

정치부중대장을 비롯하여 소대장, 세포위원장, 민청위원장 등이 내려왔다. 위생지도원이 주사를 놓자 수철은 아주 기운이 돌았다.

정치부중대장이 위로의 말을 하자 수철은 미소를 띠웠다.

《정치부중대장동무, 저를 아무래도 후송하겠지요? 네, 좋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후송되겠습니다. 저대신 나의 친우 성구동무가 있으니까요.》

수철은 담가에 실리여 지휘부일행과 함께 릉선을 타고 사라졌다.

《…저대신 나의 친우 성구동무가 있으니까요. …》

일행을 배웅하고 다시 고요해진 잠복호에 우두커니 서있는 성구의 귀에는 언제까지나 수철부분대장의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별들은 쏟아질듯 머리우에서 반짝이였다.

1952.

벼랑에서

박 대 민

훤히 먼동이 터온다.

늦가을 새벽대기는 몹시 쌀쌀하다.

새하얗게 서리발이 돋친 비탈에 붉게 타번진 단풍잎들이 우수수 무너져내린다.

떨어진 락엽들은 골짜기를 거슬러오르는 회리바람에 공중 날아올랐다가는 재롱을 부리는 새처럼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 패뜩거리며 먼 밭으로 내린다.

어디선가 졸졸 흘러내리는 고즈넉한 개울물소리에 때로는 살얼음이 꺼져내리는상싶어 살가닥거리는 차디찬 음향이 뒤섞여 들려온다.

원주는 위장하던 화물자동차에서 일손을 놓고 수면부족과 피로에 지친 눈을 들어 주위를 돌아보면서 작업복어깨우에 얹힌 락엽을 턴다.

멀리 바라보이는 대수산밑에는 그가 꿈에도 잊을수 없는 고향의 공장지구가 흩어지는 새벽안개속에 희미하게 나타나고있다. 공장과 잇닿은 사택지구도 륜곽만이 어렴풋이 드러나보인다.

안해와 어린것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서 살고있을지… 안해는 마지막편지에서 매일같이 폭격이 있지만 자기는 사택지구를 떠나고싶지 않아 반토굴집에서 그냥 살고있노라고 했었다.

십리 가까운 거리를 두고 그냥 가버릴수는 없는 일이다. 그는 낮에 가보리라고 결심했다. 해안을 끼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을 달려오면서 얼마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던 일인가. 그는 갈피를 잡을수 없는 생각에 잠겨들었다. 그의 넙죽하고 유쾌하게 생긴 얼굴이 때로 심란한 생각에 잠기는듯 이그러지군 한다.

《여보게, 위장은 다 됐나?》

웃골짝 굽인돌이에서 화물자동차를 위장하고있던 덕삼과 현구는 어느새 내려왔는지 원주의 화물자동차뒤를 돌아오면서 늘어지게 말을 거는것이였다. 그들도 무척 지친 모양이다.

《응, 다 됐네.》

원주는 맥풀린 어조로 대답하면서 새삼스레 허리를 굽혀 발밑에 수북이 쌓인 락엽을 한아름 안아서 차우에 뿌렸다.
《그만하면 됐네. 동무가 더 덮지 않아두 해돋이까지에는 절루 락엽이 내려 푸근하게 덮어줄거네. 자, 내려가세.》
현구가 원주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셋은 피곤에 지치고 잠에 취해가는듯 묵묵히 골짜기를 내려간다.
골짜기를 다 내려서자 덕삼은 불쑥 생각난듯 《참, 이 부근에 원주동무 고향이 있다지?》하고 물었다.
《응, 한 십리가량 가면 있네.》
《그래, 들리잖을 생각인가?》
《들려볼가. …》
《이 사람, 들려볼가가 뭔가? 얼마나 기다릴텐가.》
원주는 무심한듯 말끝을 흐리는것이였으나 진작부터 안해와 이제는 제법 아장아장 걸음마를 뗄 딸 옥이의 모습을 안타까이 눈앞에 그려보는것이였다.
원주는 동무들과 함께 산기슭 외딴 집에 자리를 잡았다. 그가 아침을 부탁하는 사이에 벌써 덕삼과 현구는 코를 골기 시작하는것이였다.
원주도 피곤하고 하도 눈까풀이 드리워져 자리에 누웠으나 막상 눕고보니 잠은 오지 않았다. 안해와 어린것의 모습이 불현듯 안겨들었고 혹시나 후퇴하는 길에 들리지나 않을가 하는 애타는 심정에서 옥이를 안고 문밖에서 서성댈 안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찡하게 울려오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것이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주인아주머님, 숨복골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동무들이 깨나거들랑 곧 다녀온다고 하더라고 여쭈어주십시오.》
《게 누가 있소?》
《네ㅡ》
원주는 구태여 밝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나섰다.
논벌을 벗어나 개천을 하나 건느면 숨복골로 잡아들게 되는것이다.
들판은 한산하였다. 벼단무지가 여기저기 흩어져있는가 하면 벼를 베여 깔아놓은 논판도 있고 아직 낫을 걸지 않은채 내버려둔 논판도 있다.
그는 개천다리목에 잡아들었다.

여울턱을 흘러내리는 물소리는 사뭇 세차고 요란스럽고 무슨 숱한 구슬을 구을리는듯 맑고 쟁쟁하다.

그는 여울물소리에 귀를 팔면서 다리우에서 걸음을 멈췄다. 어찌도 물이 맑은지 아침해살이 비낀 물속에서 헤염치는 송사리떼들이 말갛게 드러나보인다. 마치 투명체같은 느낌을 준다. 그놈들이 꼬리를 젓고 떠노는 그림자가 물바닥에 어른거린다. 원주는 문득 소년시절이 회상되였다. 반두를 들고 송사리떼를 따라 이 강바닥을 얼마나 오르내렸던것인가. 강낭대로 물레방아를 만들어놓고 놀던 여울턱은 어데쯤 있었던지 지금은 짐작조차 할수 없도록 물줄기는 옮겨졌고 개천바닥은 변했다. 그 소년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자신은 또 얼마나 변한것인가. 일찌기 아버지를 여읜 그는 어머니의 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자라났다. 어머니는 일본놈이 경영하는 세멘트회사에서 포장공으로 일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살림이 어려워 일본사원들의 빨래도 맡아하군 했다. 그래서 그는 소학교를 가까스로 마치는 길로 공장에 들어가 급사를 했고 나중에는 자동차운전사를 따라다니며 운송부로서 일했다. 해방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운수직장에서 운전사로 일하면서 야간전문을 다녔고 전쟁이 일어나자 선참으로 전시수송대에 동원되였다.

…그의 시선은 다리목에 듬직하게 박혀있는 너럭바위에 미쳤다. 바로 저 바위우에서 어머니는 일요일이면 일본놈의 삯빨래를 하느라고 종일토록 물방망이질을 하군 하였다. 그때만 해도 자기는 아직 철부지여서 물속에서 자맥질을 하고 물장구를 치면서 어머니에게 얼마나 성가시게 굴었던가.

그는 다리를 건너 고향마을어구에 잡아들었다.

그러자 길가 고압선이 걸린 철주며 붉은 언덕이며 공장으로 뻗쳐들어간 철도인입선이며 발에 채이는 돌부리마저 눈에 익고 추억이 어린듯 다정스럽게 느껴지는것이였다. 얼마나 정들고 살기 좋은 고향이던가.

그런데 막상 공장지구에 들어서자 그는 숨이 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과연 이게 9년간이나 일해오던 자기의 공장인가싶었다.

벽체는 모두 무너져나갔고 그나마 서있는 벽체는 벌집처럼 숭숭 패여있다.

다만 좀 성해보이는 원료직장의 건물도 절반이 무너져내렸고 파편에 콩크리트가 떨어져나간데는 철근만이 륵골처럼 드러나있다.
그렇건만 굴뚝들만은 거인처럼 끄떡않고 거연히 서있다.
원주는 혹여 직장의 옛친구들을 만날수 있을지 하여 공장구내로 들어섰다. 공장안은 기분이 언짢도록 교교하였다. 공장입구에 서있던 예순살남짓한 늙은이가 원주를 맞아 나왔다.
《이거 원주동무가 아니야!》
그 늙은이는 원주를 대바람에 알아보고 사뭇 반겼다. 수위인 덕수령감이였다.
《아버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원주는 그에게로 다가갔다. 반가우면서도 허전한 기분이였다.
《왜 잠잠한가요. 죄 후퇴를 했는가요?》
《어제 밤에 마지막으로 떠났지. 지배인서껀 당위원장서껀 직장장들서껀…》
덕수령감은 말끝을 흐렸다.
《왜 아버님은 안 떠났어요?》
《허, 임자두 같은 말이군. …》
덕수령감은 잠시 눈을 슴벅대였다. 그의 눈이 순간 흐리여졌다.
《죄 떠나면 공장은 몽땅 비운단 말인가? 꼬박 5년나마 지켜온 공장인데… 마지막으루 떠나면서 지배인어른과 당위원장어른도 함께 떠나자구 재삼 조르데만 난 발이 떨어지질 않네. 왜놈때 이 공장에서 개천대를 받고 살아온 일을 생각하면 정말 지금은 아쉬워 견딜수가 없단 말이야. 글쎄 이걸 내주다니. 차라리 예서 죽고말지. 이제 살면 얼말 살겠다구. 그래 난 안 떠나기루 작정했네.》
해방후 쭉 이 공장 수위로 늙어오면서 하루도 결근, 지각도 없었다는 고지식하고 강직한 덕수령감이고보면 무리도 아니라고 생각되였다.
《오늘안으루 당기관에 남아있던 간부어른들두 마지막으로 떠난다네. 모두가 죄 떠난다니까 마음이 절로 뒤설렁해지네. …》
덕수령감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언저리에는 눈물이 핑 돌고있다. 원주도 따라 가슴이 뭉클해졌다. 원주가 작별인사를 하자 덕수령감은 《곧 밀고나와야 하네. 알겠나. 숨을 돌리는 길로 내밀어야 한단 말이야. 공장이 놈들의 손에 아주 녹아나기 전에 말일세!》하고 간곡히 말하는것이였다. 원주는 소박하고도 자기의 굳은 신념으로 사는

이 늙은이의 말을 귀담아듣는 순간 가슴 한복판이 찡 울려오는것 같았다.

《돌아오구말구요. 아저씨, 꼭 기다리세요.》

원주는 진정으로 웨치듯 말했다.

그는 사택지구로 들어섰다. 무너진 벽돌, 박살된 기와장, 타다남은 앙상한 서까래와 기둥들이 이리저리 얹혀져있고 그우에는 마치 철조망을 늘여놓은듯 전선들이 뒤엉키여져있다. 어제 낮에 폭격이 있은듯 훅훅 불내와 매캐한 초연냄새가 풍기는상싶다.

그는 흩어진 기와장과 벽돌무지며 전선줄을 타고넘으며 사택지구를 가로 끼고 한쌍의 잣나무가 서있는 언덕을 향해 올라갔다. 그의 반토굴집은 이왕에 그의 집이 자리잡고있던 바로 언덕밑에 있을것이였다. 안해는 편지에서 언덕밑에 뚫은 공동방공호가 탐탁하고 가깝기에 불탄 예전 집자리에 반토굴을 지었노라고 했었다.

집자리가 바로 눈앞에 가까와오자 그는 초조해지는 심정을 억제할수가 없어 전선줄에 걸려 넘어지며 벽돌무지를 뛰여넘으며 한쌍의 잣나무가 서있는 언덕으로 달려갔다. 어수선한 골목길에서 안해가 옥이를 업고 맞받아 뛰쳐나올것만 같은 설레이는 감정이다.

그는 골목길을 단숨에 돌아갔다. 그러자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지금에는 반토굴이 서있을 그의 집언저리가 휑뎅그렁하게 비여있지 않는가. 이리저리 패이고 흙무지가 쌓인 공터에는 개 한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흩어진 흙더미와 나딩군 소이탄깍지만이 시야에 어른거릴뿐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종다리의 맥이 일시에 탁 풀린다. 눈시울이 시큰해진다. 시야가 흐려갔다. 일시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저자에 나갔다가 폭격에 돌아가셨다는 어머니 그리고 안해와 어린것의 모습이 한시에 떠올랐다.

(안해와 어린것도 잘못된것인가?)

가슴이 터질듯 두근거린다.

그가 생각에 잠겨 맥을 놓고있으려니 인기척이 들려왔다. 원주는 펄쩍 정신이 들어 인기척이 들리는 곳을 돌아보았다. 웬 아낙네가 힐끔힐끔 보며 지나가다가 갑자기 반색을 하며 말을 건넨다.

《아니, 옥이 아버지가 아니요?!》

그제야 원주는 사택을 이웃하고있던 순돌이 어머니를 알아보았다.

《아이구, 돌아오셨구만. … 쯧쯧!…》
반색을 하던 순돌이 어머니의 낯빛이 금시 달라진다.
《안녕하셨소. 순돌 아버지는 좀 웬간한가요?》
《어디 그 병이 쉬이 나을 병인가요. 그저 그렇지요.》
관절염으로 한쪽다리를 잘 못쓰는 남편을 섬기면서 공장을 다니기에 고생스러운 모양이여서 순돌이 어머니의 기색은 피지 못하고 쪼들려있었다.
원주는 순돌 어머니가 안해와 옥이에 대하여 선뜻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양을 보아 일이 잘못되였구나 하는 불안이 더욱 깊어갔다. 그 눈치를 챈 모양인지 순돌 어머니는 혀를 차면서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원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람!》
순돌 어머니는 자기 일처럼 가슴이 답답해져 말이 나오지 않는 눈치다.
《그제 밤에 글쎄 여길 싹 밀었다우. 그날 벼락맞을 원쑤놈들이… 그러찮아 옥이 엄마는 늘 옥이 아버지 타령이였는데… 편지가 자주 안와두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았는지 하구 걱정두 이만저만하구 돌아갔다구… 원, 며칠만 넘길게지. 이런 통분한 일이 어디 있담!》
순돌 어머니는 어느덧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혀를 거듭 찼다.
원주는 와락 차오르는 설음을 걷잡을수 없어 돌아서고말았다. 그는 무거운 걸음으로 언덕을 향해 올라갔다.
뒤에서 순돌 어머니가 큰소리로 무슨 말을 더 하는것이였으나 이미 원주의 귀에는 그 말소리가 그저 윙윙거릴뿐이였다. 가슴이 미여질듯 아프고 귀속이 멍멍하였다.
넘쳐나는 슬픔만이 그의 가슴을 채우고있을뿐이였다.
그의 앞에 문득 한쌍의 잣나무가 나타났다. 언덕을 다 올랐던것이다. 바람결에 싱싱한 송진냄새가 흐뭇이 풍겨왔다. 그는 별로 생각함이 없이 잣나무에 가 몸을 기대였다. 맥이 탁 풀렸던것이다. 그는 손으로 잣나무를 어루만지며 터실터실한 껍질을 잡아뜯었다.
《잣나무, 너만은 그래두 싱싱히 서있구나!》
그러자 불현듯 옛추억이 가슴이 찡하게 떠올랐다.
《…원주동무, 난 동무의 성미를 알다가두 모르겠어. 참 이상스러운 성미야. …》
《허, 그럴수도 있지, 원래 고집불통이니깐.》

(그래, 참 난 이만저만한 고집불통이 아니였어.)
…원주는 지난날 첫사랑을 속삭이던 그때를 회상하는것이였다.
바로 4년전 여름 어느날 저녁무렵이였다.
겸양하고 소박한 그는 직장총회에서 연거퍼 세번이나 모범일군으로 추천되고 도직맹대표자회의 대표로 제의되자 자기보다 못지 않게 성실하게 일하는 동료들에 대하여 미안스레 여겨져서 이번 대표자회의에는 딴 동무를 추천하자고 고집을 부렸던것이다. 그러나 동무들은 끝내 그를 자기들의 대표로 선출하고말았지만!
그날 저녁 좀 어둑어둑해 돌아오는 길에 원주는 남의 눈을 피해 자기를 넌지시 따라오던 순이와 이 잣나무밑에서 만났던것이다. 그들은 민청생활과 기술전습회를 통하여 서로 친밀하게 사귀게 되였고 그러는 사이에 그들의 가슴속에 첫사랑이 움터갔던것이다.
《그럼 순이동문 날 정말 사랑한다구 말할순 없잖어?》
원주는 자기의 성미를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순이의 말을 되잡아 생각하니 어쩐지 고깝게 여겨져 떠보는 어조로 말했다.
《아이참, 누가 언젠 사랑했길래!》
순이는 입을 가리며 웃어대였다.
《정말이야?… 괜스리, 사람을…》
원주는 달려들어 순이의 손을 덥석 두손으로 움켜잡았다. 가슴이 놀란 때처럼 후드득거렸다.
순이는 눈을 내려깔며 새근거렸다. 그러나 다음순간 날쌔게 손을 뽑으며 주위를 돌아보았다.
《…난 원주동무가 모범로동자로 만족하는게 싫어. …》
순이는 생각에 잠겨 잣나무껍질을 만지작거리며 진작부터 마음속에 품어온듯 진정으로 말하는것이였다.
그런데 원주는 그 말이 언짢게 들렸다. 그는 공장에서의 자기의 지위에 순이가 불만을 품고있는것으로 속단하였다.
(흥, 너두 눈이 높았구나!)
원주는 정말 속으로 고깝게 생각했다.
《불만이라면 할수 없지. … 누가 억지루 사랑해달라군 하잖았어.》
원주는 순이가 참말 눈이 높아서 자기를 탐탁치 않게 여겨온것 같은 야속한 생각이 들어 툭 내쏘고는 제김에 달아 순이를 까박하였다. …
지금 생각해도 그때 자신이 너무나도 옹졸했던것이 부끄럽게 여겨

졌다. 그때 순이는 자기보다도 높이 서서 장래발전을 생각하고있지 않았던가. 어쨌든 그때 순이가 한 말은 자극이 되였고 그의 권고대로 그는 야간전문에 들어가 기수자격을 받았다.

그는 기수자격증을 받고 돌아온 날 밤 갓 결혼한 안해에게 그것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당신의 덕택이요. … 그리구 사랑의 힘이지. … 정말이지 낮에 로동을 하구 밤에 학교갈 욕심을 낸다는건 조만한 일이 아니거던. 그런걸 보면 당신이 밤에 중학교교재를 떼려구 달라붙은건 참 놀라운 일이야.》

그는 진심으로 안해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심정으로 가득찼었다.

《당신은 내 희망대루 됐어요. 이제 저는 만족해요. … 당신이 스스로 불만하게 생각하면 또 앞으로 나갈게 아니야요. …》

안해의 그때 기뻐 어쩔줄 몰라하던 그 정겹고 빛나는 눈매가 눈앞에 어리는듯 눈뿌리가 찡해졌다. 생글거리던 그 유순한 얼굴— 긴 속눈섭이며 오목이 패이던 볼우물이며 도톰한 입술이며… 이 모든 아름다움과 절절한 애정으로 자기를 얼마나 애무해주며 고무해주었던것인가.

함께 일터에 나가건만 저녁이면 안해는 늘 남편이 과로하지나 않았는가 걱정해주었고 세세한데까지 관심을 돌리기를 잊지 않았다.

그들의 가정은 명랑했고 생활은 해마다 더욱 유족해갔다. 새 가구를 살 때마다 안해는 무등 기뻐했고 알뜰한것을 장만하려고 애를 썼다.

내외가 성실하게 일한 보람이 있어 그해 5.1절에는 두사람 다 표창장과 함께 상금까지 수여받았다. 그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무엇보다 그때까지 나온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로작들을 빠짐없이 갖추기로 하였다.

이날 새로 책장과 책상도 마련하였다.

저녁이였다. 아직 칠냄새가 싱그럽게 풍기는 책상에 마주앉아 20개조정강을 펼쳐들고 읽는데 안해가 조용히 뒤에 와 서더니 은근한 목소리로 속삭이는것이였다.

《당신생각에 당원은 어떤 사람이 되는것 같애요?》

지금껏 마음속에 품어오면서도 내비치지 못하고있던 안타까운 가슴속을 안해가 또 찌른것이였다.

《거야 이를테면 정치사상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여야 하지 않겠

소. 무엇보다도 영명하신 수령님의 령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수령님과 조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참다운 애국자 말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당신과 한가지 약속을 하고 싶어요.》

《뭔데?》

《우리가 이렇게 영명하신 장군님의 덕분으로 행복하게 살고있는데 우리가 장군님을 더잘 받들어나가자면 로동당원이 꼭 되여야 할게야요. 그래야 모든 일에서 앞장에 설수 있지 않겠나요.》

《그렇구말구.》

《그래서 전 당신과 학습경쟁을 뭇자는거야요. 장군님의 뜻을 따라 배워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더잘 받들어나갈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해안으로 우리가 마련해놓은 장군님의 이 로작들을 몽땅 학습하자는거야요. 시간표와 학습진도표는 제가 짜겠어요.》

안해의 생각과 소행이 하도 기특해서 그는 정겨운 눈으로 오래도록 안해를 바라보다가 그의 손을 지그시 잡고 말했다.

《내가 당신의 오빠를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겠소.》

《아이참, 오빠는 무엇때문에요?!》

《신문사에 다니는 오빠가 당신에게 귀중한 영향을 주는것 같기에 말이요.》

《당신은 내가 그저 어리다고만 생각하지요?》

《그렇다면 더욱 기쁘오. 그래 언제까지 그것을 다 만들수 있겠소?》

《래일 저녁에 드리겠어요.》

원주는 그후 포화의 나날에도 장군님의 로작들을 간수하고 다니면서 꾸준히 학습했고 안해는 안해대로 후방사업에 전심하면서도 편지마다 얼마를 학습했노라고 알려주군 했다. 그리하여 서로 고무하면서 어려운 전쟁환경속에서도 장군님의 로작학습을 중단함이 없이 꾸준히 해왔던것이다.

그처럼 진실하고 기특한 길동무를 잃은 애절하고 통분한 감정이 가슴을 파고든다.

지금 그의 앞에는 안해가 그처럼 마음을 써 사들인 가구들이며 둘이서 일요일이면 땀을 흘려 가꾼 정원이며… 그보다도 그의 가장 미더운 사람인 사랑하는 안해와 귀여운 어린것도 페허우에 간곳이 없다.

페허로 된 뜰우에는 돌 하나 예전대로 놓인것이 없이 온통 뒤엎어져 있다.

소이탄껍질만이 흉물스럽게 나딩굴고있다.

《모든걸 싹 쓸어갔군. …》

그는 기력이 진한 사람처럼 가까스로 잣나무에서 몸을 일으켜 자기 집 빈터우에 내려섰다. 로동화가 몹시 무겁게 느껴졌다. 그가 생각없이 재무지를 밟고 나가는데 무엇인가 이상한것이 밟히였다. 그는 그대로 지나치려다가 재무지를 툭 걷어찼다. 쇠소리와 함께 사발시계가 나타났다. 사발시계는 유리도 시계판도 불에 타 없어지고 앙상한 치차들과 뒤뚜껑만 남아있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그것을 쳐들었다.

그러자 그 시계의 사연이 한줄기로 떠오르는것이였다. 그 시계는 그가 야간전문학교에 입학한 다음해 공장으로부터 년말상품으로 받은것이였다.

그때 안해는 사뭇 기뻐하면서 시계를 받아 책상우에 놓고는 《이제는 꼭 시간을 맞춰 공부해야 해요. 무리해서는 안돼요. 제가 시간표를 짜드릴가요, 호호…》 하며 웃어대였다.

그런데 하루는 직장에서 돌아오니 시계유리가 깨여지고 고장난듯 시계초침은 멎어있었다.

《여보, 시계를 떨어뜨렸댔소?》

그는 정주간문을 열고 저녁을 짓고있는 안해에게 물었다. 그 순간 안해는 미안스럽고 죄스러운 감정이 앞서 얼굴빛이 변하며《글쎄 돌아와보니까 시계가 땅바닥에 떨어져있군요, 유리가 죄 깨지구. … 그 망할 놈의 고양이새끼가 그짓을 해놓은가봐요.》하고 조용히 말하였다.

고양이가 그짓을 하였다는 사실을 듣자 원주는 성이 벌컥 났다.

《흥, 고양이, 고양이 하구 돌아가더니 좋은 일이 생겼군! 당장 흉물을 없애지 않았다간 보우!》

원주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안해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았다. 안해는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이 없었다.

그후 물론 고양이는 가정에서 사라졌지만 쥐들은 전보다 더욱 극성스럽게 부엌에 싸대며 주인행세를 했다. 그래서 안해는 쥐창을 사다놓는다, 쥐약을 사다놓는다 애를 썼지만 쥐는 좀체로 근절되지 않았

다. 그러나 안해는 쥐때문에 성화를 받으면서도 다시는 고양이타령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때 원주는 고양이때문에 안해에게 지나치게 화를 낸데 대하여 사과할 생각까지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때 일을 회상하니 마음이 언짢아졌다.

(그까짓 사발시계때문에 그처럼 안해에게 화를 내다니…)

죽은 안해에 대하여 불현듯 미안한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때 그처럼 귀여워하던 고양이를 헌 자루에 넣어 어두어둑해진 마당앞을 나가던 안해의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 얼마나 언짢아했을것인가. 그만 일에 참지 못하고 안해를 모욕하다니…

부부생활에서 자신이 저지른 단 한가지 회한이였으나 돌이킬수 없는 일이므로 그리고 안해가 자기곁을 영영 떠나간 지금 아무리 뉘우쳐도 어쩔수 없는 일이므로 가슴 더욱 미여질듯 괴로와지는것이였다. 그는 손맥이 빠진듯 시계를 떨어뜨리고 후― 한숨을 지었다.

…멀리서 포성이 들려온다. 포성과 아울러 적기의 폭음이 섞여 들려온다.

얼마후 하늘에는 《B-29》가 나타났다. 그놈의 둔탁한 금속음은 울분과 슬픔에 잠긴 원주의 가슴속을 뒤흔들어놓았다. 그는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서 북쪽을 향하여 날아가는 적기를 그냥 노려보고있었다. 그의 관자노리와 아래턱은 이기죽거렸고 눈에서는 불꽃이 이는듯 하였다.

《그저 돌아오지는 않을테다. 이제 다시 진격하는 날에는 내게서 안해와 어린것을 빼앗아간 네놈들에게 백배, 천배의 앙갚음을 할테다! 두고봐라!》

그는 더는 미련을 남기지 않고 빈터우에서 성큼성큼 걸어나오다가 그래도 자기 집 터전이며 언덕우의 잣나무를 다시한번 돌아보고나서는 곧바로 아까 오던 길을 돌아나가는것이였다.

이제 다시는 영영 이곳에 발길을 돌리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속을 그 무엇이 훑어내리는듯 뻐근해지며 눈시울이 후더분해지는것이였다.

그날 저녁녘에 원주는 동무들과 함께 서둘러 차를 몰아대였다. 맨 선두에는 현구가 달리고 덕삼은 맨 끄리에 달렸다.

출발할 때《포소리가 심상찮아!》하며 저으기 얼굴에 긴장한 빛을 보이던 현구는 차를 쏜살같이 다우쳐모는것이였다.

어둠이 깊은 산골짝마다에 음침하게 내려덮이자 적의 야간폭격기들이 헤살지르기 시작했다.

북쪽을 향하여 날으는 적기들이 조명하는 푸른 불빛은 먼 산마루너머에서 마치 마른 번개불처럼 번쩍대고있다.

원주는 산마루에 접어들자 련속 가속기를 밟았다. 이 깊은 산중에서 헤살짓는 적기들의 장난은 원주에게는 달보고 짖어대는 삽살개처럼 부질없는짓으로 느껴졌다.

포성은 먼곳에서 계속 울려왔다.

(혹시 바다로 해서 놈들이 기여오른게 아닐가. …)

그들의 자동차대렬이 험한 고개턱을 다 올라서 굽인돌이를 잡아들었을 때이다. 한가운데서 달리던 원주의 차가 푸르릉푸르릉거리다가 멎어버렸다.

《제길, 재수없이 어디가 고장이 났담!》

원주는 두덜대면서 운전대에서 내렸다.

뒤를 바싹 따라오던 덕삼의 차도 자연 뒤에 와서 멎어섰다.

《덕삼동무, 저리로 해서 빠져나가지 못할가?》

원주는 뚜껑을 열어제끼며 덕삼을 돌아보고 말했다.

《기관이 달아서 그러나?》

덕삼은 운전대우에서 그냥 앉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묻는다.

《아니, 접촉이 잘되지 않는가부네.》

《그래, 그럼 같이 가지 뭐.》

《아니야, 정황이 좀 급한 예감을 주네. 한시라도 지체할수 없네. 동무 차는 기관이 다소 나쁘니까 먼저 가게, 곧 뒤따를테니까. …》

《뭐 그다지두… 겁낼거 없어.》

《아니래두… 동무 차가 또 고장이나 생기는 날이면 야단이야. 어서 앞서게.》

원주는 점검하던것을 그만두고 덕삼에게 갔다.

《래일 아침까지는 지정된 지점에 닿아야 하네, 우리 수송대동무들이 기다릴테니까. …》

그는 뒤걸음을 쳐가며 손짓하여 덕삼의 차를 빼내였다.

푸르릉거리는 운전대우에서 덕삼이 다시 말을 던진다.

《곧 손질하고 따라오게. 고개밑에서 기다리겠네.》

《낡은 기관을 가지구 남까지 애먹이지 말구 곧장 가게. 급한 경우

를 생각해야 하네. 내 차야 기관이 비교적 새거가 아닌가. 념려말구 목적지까지 달리게.》
원주는 덕삼의 낡은 차를 생각할 때 안심이 되지 않아 몇번이나 알아듣도록 당부했다.
《그러게! 그럼 부지런히 따라오게!》
덕삼은 머리를 내밀며 알아들었다는듯이 소리쳤다.
덕삼을 보내고나서 원주는 싸늘하게 식어드는 등을 으쓱거리며 축전지와 접촉선, 휘발유유송관 등을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고장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는 운전대에 올라가 발동을 걸어보았으나 반응이 없다.
적기의 폭음소리가 아주 가까이 들려온다. 가르랑대는 쌍발기의 얄미운 폭음소리는 그의 초조한 신경을 몹시 건드렸다.
그는 전조등의 스위치를 끄고 갑갑증이 나서 후유 한숨을 내쉬며 운전대에서 내려선다. 그 순간 쿵쿵쿵, 쿵쿵 하고 포소리가 땅을 흔든다.
(아군이 방어전을 하는것일가?)
포소리가 분명치 않다.
그는 다시한번 전선들을 훑어보았다.
그러자 마침내 전기련결선의 한 대목이 끊어져있음을 발견했다.
(망할 놈의거…)
그는 저으기 시간의 아쉬움을 느껴 게두덜대면서 스위치를 넣고 시동을 걸었다. 푸르릉 푸르릉… 하고 기관은 몇번 시동을 하려다가 멎고만다. 그 순간 축전지에 생각이 미치자 가슴이 흠칫해졌다.
《제기랄게…》
그는 왈칵 화가 치밀어 스위치를 뽑자 운전대를 탁 차고 뛰여내렸다.
하도 참을성이 많은 그라 어찌어찌해서 그가 화를 내게 되면 《허, 부화단지가 터질 때두 있군.》하고 동무들이 되려 웃어버리기마련이건만 이 순간만은 여간만 초조하지 않았다. 포소리가 아까부터 계속되고있는것이다.
그는 불안스러운 마음으로 발판옆에 붙어있는 철판을 열고 축전지를 살펴보았다. 어제 저녁 출발에 앞서 점검할 때만 해도 그럭저럭 견디여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전선지구에서 림시조치로 수리하였던 축전지밑창의 한쪽귀가 또다시 쩍 벌어져있지 않는가. 아까 좁은 개

울물을 건늘 때 차체가 몹시 충격을 받더니 그때 잘못된 모양이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다급한 시각에 어디서 딴 부속품을 구한단 말인가. 그는 온몸이 일시에 맥이 탁 풀려 길가에 주저앉고말았다. 그러나 멍하니 앉아있을 계제가 못되였다. 그는 화닥 자리를 일어서자 령밑에 있는 마을로 내려달렸다. 그러나 그곳에서 허탕을 친 원주는 또다시 시오리가량 되는 읍소재지까지 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포소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울렸다. 신경의탓인가, 발밑이 움실거리는상싶었다.
먼동이 훤히 터왔다. 포소리는 더욱 요란스레 울렸다.
읍소재지까지 채 미치지 않은 산밑에서 다행히 그는 자동차축전지를 구할수 있었다. 파괴된 자동차 한대가 나딩굴어있었던것이다.
령밑 마을에 다달았을 때에는 이미 먼산에 해발이 퍼졌고 적 그라망들은 산발을 타고 헤살대고있었다. 그는 차에 위장을 대강 했던것이 문득 생각키워 가슴이 조마조마해졌다. 적 그라망들은 령마루를 중심으로 계속 선회하고있다. 그는 오솔길로 잡아들었다. 얼마후 그는 령마루에 올라섰다. 차에 위장을 다시 하자 그는 곧 축전지교체에 달라붙었다. 적기는 계속 상공에서 떠돌고있다.
나사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는다.
수송대에서 대담하고 침착하기로 이름난 그였건만 대렬을 떠나고보니 시각을 다투는 이런 다급한 정황속에서 도무지 침착할수가 없다. 그는 축전지를 교체하고나서 차체를 다시한번 정확히 점검할양으로 차체밑으로 기여들었다.
적기는 계속 상공에서 맴돌면서 마구대고 기총소사와 로케트포를 갈기고있다.
(여기 어디에 우리 군대가 잠복해있는거나 아닐가.)
그러나 한방의 대응사격도 하지 않는것을 보아 아군방어진은 더 뒤에 있는상싶기도 하다.
땀이 철철 흘러내린다. 얄밉고 짜증나게도 적기는 계속 상공에서 와릉대고있다. 귀속은 그냥 웅웅거릴뿐이다.
그러나 분명 비행기폭음소리가 아니라 자동차기관소리가 돌연 들려왔다.
《아니, 어찌된 일일가? 아군의 자동찰가?》
그는 돌연히 들려온 자동차기관소리에 놀라 차체밑에서 기여나왔

다. 그는 굽인돌이를 돌아오는 자동차가 숨박곡질을 하듯 다시 나타나기를 불안속에 주시했다. 포소리로 미루어보아 적군자동차대렬이 벌써 나타날상싶지 않았다. 분명 아군자동차대렬이리라. 그는 심장을 조이며 굽인돌이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선두차가 굽인돌이를 돌았다. 한순간에 심장이 멎는가싶다. 눈앞에 확 안겨오는것은 적군선발대가 아닌가. …

그 순간 그는 자동차와 함께 자기 운명을 마칠 결심이 솟구쳤다. 그는 운전대우에서 걸레를 뒤졌다. 라이타를 켰다. 뿌지직 하고 꺼진다. 다시 켠다. 손이 흔들려서인지 탄력이 가해지지 않는다.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만에야 불이 일었다. 걸레를 내댄다. 잘 당기지 않는다. 다른 모서리로 돌려댄다. 겨우 당겼다. 차체뒤를 돌아 휘발유탕크에 접근하는데 이미 그쪽에 와있던 적들이 왁 달려든다.

(왜 진작 수류탄이라도 준비해두지 못했던가! 아―)

가슴이 터지고 미여질 지경이다.

《자, 쏠테면 쏘라!》

그는 자동차에 바싹 붙어 모재비걸음으로 휘발유탕크에 접근한다.

그러자 한놈이 달려들어 그의 손을 나꿔챘다. 그러나 그의 팔이 굽혀들지 않게 되자 다른 한놈이 다가들며 총가목으로 후려치려 했다. 더는 할수 없었다. 그는 그놈의 면상에 불붙는 기름걸레를 쥐여뿌렸다.

땅이 핑그르 돈다. 순간 눈앞이 아찔해진다. 악에 받친 그놈이 후려갈긴것이다.

《이놈아, 무기를 내놓아!》

《없다.》

《없다구?》

그중 상관놈인듯 한 괴뢰군장교놈이 다가서더니 다짜고짜 후려갈긴다. 밤새 지친데다가 아직 공복이고보니 종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며 비칠거렸다.

(개죽음을 해서는 안된다!)

원주는 입을 악물었다.

그날 놈들은 원주의 차를 끌고 그곳에서 약 50리가량 되는 군소재지에 이르자 그곳에 주둔하였다.

그날 밤 군소재지는 밤새 소, 돼지, 닭 잡는 소동과 놈들이 경계망을 펴는 총소리로 발칵 뒤집혔다.

밤들어 원주는 례의 그 괴뢰군장교놈한테 끌리여갔다. 얼굴이 갸름하고 눈이 뱁새눈처럼 작은 그 장교놈은 온 상통에 돋은 여드름을 짜다말고 원주를 힐끔 보고나서 미국제크림을 덕지덕지 바르며 묻는것이였다.

《혼자 남았단 말이지? 운전경험은 몇해나 돼?》

원주는 이자의 배속을 즉시에는 알아차릴수가 없어 적당히 대답하였다. 이미 술잔이나 건사한 모양이여서 그자는 취기를 몰려는듯 대가리를 련속 내저으며 이것저것 캐묻는것이였다. 그리고나서 하는 말이 《유엔》군에 충실할 각오만 있다면 살려줄 용의가 있노라고 하면서 일장의 《훈시》를 늘어놓는것이였는데 사실은 딴 리속을 그자는 생각하고있었다.

진군하는 과정에 물욕을 돋구는 략탈품들이 적지 않았는데 선발대이라 자동차는 한대밖에 배당되지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마침 자동차와 운전사를 한꺼번에 얻은것이다. 리용할 때까지 리용하고 볼노릇이라고 그자는 마음먹었다. 그자는 원주를 엠·피(미군헌병)본부로 끌고갔다.

괴뢰군장교놈은 제법 영어깨나 씨벌이는 놈인상싶어 무슨 명단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있는 엠·피에게 원주의 경위를 보고하는것이였으나 투박한 색안경을 코허리에 건 그자는 괴뢰군장교놈의 말은 귀등으로 넘기고 껌만 짓씹고있다. 그래서 제김에 무색해진 그 괴뢰군장교놈은 싱겁게 웃으며 명단우에 대가리를 디밀고 한참 그것을 훑어보더니 짜장 만족스러운듯이 핫핫 하고 환성을 올린다.

얼마후 원주는 이 싸구려판처럼 떠들썩대는 명단감정자들의 협의회에 의하여 무고한 애국자들이 교수대의 사형수로 끌려오는것을 보았다. 놈들은 악질분자들을 추겨 로동당원들과 그의 가족들 지어 어린애까지 화물자동차에 실어오는것이였다.

마당에서 화토불이 여기저기서 활활 타올랐고 사형할 당원들과 그의 가족들을 결박할 말뚝들을 박는 소리가 요란스럽다.

례의 괴뢰군장교놈은 원주에게 정신적위압을 주려는듯 경비병들을 붙이여 그를 마당에 끌고 나간다.

차에서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을 끌어내리자 어린것들은 발버둥을 치며 울어댄다. 놈들은 발길질을 하고 질질 끌면서 어머니들을 말뚝에 동여맨다. 교수대에는 벌써 당원들이 끌리워가 서있다.

광장은 어린것들의 애절한 울음소리와 어머니들의 통곡으로 벌컥 뒤덮인다. 그러자 미군 엠·피가 안경을 벗어들며 손을 든다. 그에 호응하듯 일제히 기관총들이 어린것들을 겨누어 불을 뿜는다. 어린것들은 울음을 머금은채 련달아 광장우에 쓰러진다. 어머니들의 불을 토하는듯 한 울부짖음과 어린것들의 비명이 처절하게 광장우에 울린다.

원주는 더는 바라볼수가 없어 얼굴을 돌렸다. 그 순간 유난히도 쨍쨍한 아낙네의 웨침소리가 그의 귀전을 때렸다.

《이 백정놈들아, 네놈들의 세상이 오래 갈줄 아느냐? 네놈들을 죄 바다에 처넣는것을 못 보고 죽는것이 원통하다. 네놈들의 자식들이 애비없는 후레자식으로 남의 집 문간에 설 그날을 기억해라! 이 인간백정놈들아! 네놈들을 뼈가 성한채룬 돌려보내지 않을게다. 조선인민은 네놈들을 영원히 저주할게다!…》

말뚝을 등지고 가슴을 내밀고있는, 기력을 다하여 웨치는 아낙네를 향하여 여러방의 총성이 울렸으나 명중시키지 못하자 엠·피장교놈은 발을 구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마침내 집중사격을 받자 그 아낙네는 머리를 드리우고만다.

끌려나온 군중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웨침소리, 증오에 찬 저주가 울렸다. 그러자 황급한 놈들은 그들을 향하여 총질을 마구했다.

그날 밤 원주는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잠을 잔것 같지 않았다. 어린것들의 불을 토하는듯 한 뭇울음소리가 꿈속에서도 쟁쟁 울렸던것이다. 원주는 일생을 두고 이 처절한 광경을 잊지 못하리라고 생각되였다. 아니, 어찌 그가 잊을수 있으랴.

이튿날 아침 원주가 괴뢰군장교를 따라 밖에 나갔을 때 놈들의 선발대가 타고온 자동차에는 인민들로부터 략탈한 물건이 가득 실려있었다.

《아니, 누가 저 차에 실으랬어?!》

괴뢰군장교는 뜨락에서 서성거리는 한 하사관을 향하여 소리쳤다.

《짐을 아직두 부리우는중이라고 하니까 장교님이 그럼 아무 차에라두 물건을 빨리 실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한담! 대체 무엇을 하구있는거야?!》

하사관은 그 말에는 대답이 없었다.

괴뢰군장교는 무엇인가 한참 생각하더니 《가!》하고 이번에는 원주에게 꽥 소리를 지른다.

원주가 어제 차를 세워두었던 마을어구 느티나무밑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짐은 거의다 부리운 모양이여서 서로 차우의 앞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매달려오르는 놈들, 우에서 떠미는 놈, 포탄을 계속 내려던지는 놈들… 모두가 왁작 고아대고있었다.

원주는 권총을 빼든 괴뢰군장교놈의 등쌀을 받으며 운전대를 잡았다.

《정신차려 몰아! 허투루 몰다간 깜장콩알이야, 알아?》

그 장교놈은 권총을 내휘두르며 또다시 위협을 한다.

뒤이어 엠·피들도 5～6명 달려든다. 그놈들은 으르렁대며 앞자리를 차지한다.

《허, 빨갱이운전사가 모나. 자식, 정신차려. 없다, 없어?》

《어디 한번 솜씨를 볼가.》

괴뢰군놈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씨부렁대며 벅적 고아친다.

푸르릉… 푸르릉… 차소리는 늦가을 맑은 하늘을 유난히도 경쾌하게 울려간다.

원주는 그제 밤 일을 생각할 때 이 모욕스러운 아침의 차소리가 한없이 역정스러웠다.

인간의 운명이란 이처럼 악착스러운것인가? 내 어머니와 내 안해와 어린것을 잔인하게 학살한 이 치떨리는 원쑤들을 백배, 천배로 복수를 해야 할 바로 내가 꺼리낌없이 놈들을 싣고 가다니…

어찌 꿈엔들 생각할수 있는 일인가. 내가 환장을 했단 말인가. 아니다, 환장을 하다니… 이대로 개죽음을 하지는 않을테다.

빨리 몰라고 괴뢰군장교놈이 권총으로 쿡쿡 찌르며 위협을 한다.

차창으로 붉게 물든 단풍으로 단장한 조국의 산악들이 정답게 안겨든다. 듬듬히 서있는 싱싱한 푸른 소나무가운데 활짝 타오른 붉은 단풍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의 조국땅이냐!

그런데 지금 이 금수강산이 야수들의 총칼과 구두발밑에 신음하고 있지 않는가! 인민들이 신음하고있으며 피로 이 땅을 물들이고있다! 어찌 이를 참고 견딜수 있단 말인가!)

삼천리조국땅을 주름잡아 달려나가고 달려돌아오기를 거듭하던 나날에 있은 잊을수 없는 사연들이 삼삼히 떠오른다. 그 나날에는 적기의 습격을 받아 포탄을 실은 자동차와 함께 운명을 같이할번 한 위기일발의 고비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러자 문득 달포전에 있은 잊을수 없는 사연이 눈가에 밟혀왔다.
그것은 그가 열두번째로 조장인 명수와 함께 남진하는 길에서 있은 일이였다.

금천강을 앞두고 저녁을 함께 먹던 조장은 은근한 목소리로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원주동무는 로동당원이 되고싶다는 소원을 비쳐보았소?》

《아직…》

《난 동무가 장군님의 로작을 짬짬이 학습하는걸 보고 동무도 소원을 제기하고 준비하는줄 알았는데… 앞으로 꼭 당조직에 의사를 반영하는것이 좋겠소.》

《조장동무는 청원을 했는가요?》

《그렇소. 이번에 돌아가면 입당청원을 심의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솟고 사기가 충천하게 되는지 모르겠소.》

원주는 조장의 권고를 들으며 꼭 위훈을 세우고 입당청원을 하리라 마음먹었다.

그처럼 슬기롭고 아름다운 꿈을 품고 전선으로 달리던 조장은 금천계선에서 뜻하지 않은 긴박한 정황에 부닥치게 되였다. 금천강가에 이르니 앞서 온 십여대의 포탄차가 도하할 순번을 기다리며 장사진을 치고있었다. 그런데 그만 조장은 적비행기소리를 듣지 못했던 모양 전조등을 켠채 강가에 거의 이르러서야 항공감시병의 신호총소리를 듣고 황급히 불을 껐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었다. 하기는 밤마다 의례히 놈들이 도하장마다에 조명등을 공중 걸어놓는것이 상투적인 수단이기도 했다.

적기들은 조명등을 곳곳에 걸어놓자 저공으로 선회하면서 기총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적들이 아직 자동차대렬을 발견하지 못했을수도 있는 이 긴박한 시각에 그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했다. 적기가 두번째 선회로에 들어서는 그때였다. 원주의 앞에 서있던 조장의 차가 방향을 돌려 강기슭에 난 달구지길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장의 자동차에 전조등이 환히 켜지는것이 아닌가. 그러자 적기는 조장이 몰고가는 차를 목표로 내려꽂으며 련속 기관총을 갈기는가 하면 폭탄을 떨구며 악착스레 달라붙는다. 드디여 3～4백메터는 실히 나가서 자동차에 불이 달렸다. 하건만 자동차는 계속 달려나간다. 그때로부터 얼마를 더 나가던 자동차는 강가에서 멎어섰다. …

적기들도 폭탄과 포탄을 다 탕진한듯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강가의 포탄차들은 안전하게 도하를 끝마칠수 있었다.
원주가 물가에 굴러간 자동차에 다가가서 그를 운전대에서 끌어냈을 때는 어깨며 동가슴에 참상을 입어 이미 숨진 때였다.
지금 조국의 푸른 하늘과 단풍든 아름다운 풍경이 운전대유리창에 비껴드는 가운데 영웅적인 자기희생으로 전선으로 달리는 포차들을 구원해내던 전우를 생각하는 원주의 가슴은 높뛰였고 숭고한 감정으로 부풀어올랐다.
젊음과 목숨을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바친 그 삶은 얼마나 보람차고 값있는것인가.
(과연 나는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할수 없단 말인가? 아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에서 우적우적 힘줄이 튕겨나는것 같다.
그 순간 안해와 어린것의 최후의 비명이 귀전을 울린다.… 반토굴방…   적폭격기편대의 으릉으릉거리는 폭음에 놀라 잠을 깬 안해가 어린 옥이를 붙안고 방을 나선다. 이미 때는 늦어 폭탄이 쏟아진다.
안해는 어린것을 가슴에 안고 앞으로 웅크린다. 반토굴이 무너져내리며 그들을 덮친다. 비명을 지르는 안해와 어린것이 숨이 막혀… 마지막숨을 넘기는… 원주는 그만 운전대에 가슴을 콱 부딪친다. 가슴이 빠개지는듯 그도 숨이 막힌다.
그러자 옆에 앉았던 괴뢰군장교놈이 권총끝으로 옆구리를 악착스럽게 팍 찌른다.
《사자밥을 걸머지고도 정신을 못 차려?!》
(흥, 사자밥이 문제냐. 이 원쑤놈들에게 백배, 천배의 복수를 하지 못하고 내가 간대루 개죽음을 할줄 아느냐, 어림없다!)
그는 운전대를 더욱 다부지게 틀어잡는다. 이가 갈린다. 무심히 죽을수도 없거니와 무심히 단 한시간도 살수는 없다.
붉은 단풍이 어리여드는 차창너머로 지난날의 정경이 련달아 떠오른다.
《집의 일일랑 념려마세요. 저와 옥이를 생각하시고 용감히 싸우세요. …》
수송대로 떠나던 날 이십리길이 넘는 정거장까지 끝내 따라나와 눈물이 글썽글썽하여 속삭이던 안해의 말이며 그때 안해의 창백한 얼굴이며 옥이가 꼬마손을 내젓다가 어머니가 눈물을 닦는 바람에 그만 으

악 하고 울음보를 터뜨리던 모습이 기억에 새롭다. 어머니의 자애로운 모습이 잇달아 떠오른다. 얼마나 고생과 수모를 겪으면서 기른 이 몸인가. 언젠가 한번 어머니는 일본놈의 세탁을 맡아하다가 와이샤쯔를 망친 일이 있었다. 사실 그것은 어머니의 불찰이 아니라 엷은 천에 땀이 배여 삭아서 등이 나갔던것인데 그 일본사원의 녀편네는 와이샤쯔를 함부로 두드려서 판을 내였다고 하면서 악착스럽게 까박을 붙이였던것이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빨래감을 구걸하다싶이 하고 돌아가던 때여서 할수없이 사과를 하고 변상을 하겠노라고 하고는 밤새 억울함을 못이겨 한탄을 하고 저주를 하던 일이 눈가에 선하다. 그처럼 고생을 하고 수모를 겪은 어머니는 여생을 즐길 겨를도 없이 미국놈들의 기총소사에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어머니의 원쑤들을 무심히 태워가지고 가다니… 아니다, 그럴수 없다!
어느결엔가 차는 산비탈에 잡아들었다. 추억은 꼬리를 물고 잇달린다. 누구보다 선참 민청대렬에 들어가던 일이며 밤도와 공장을 복구하던 일이며 자기가 발기자로 되여 공장내 첫 청년돌격대를 조직하던 일들이 삼삼히 떠오른다. 공장이 다시금 움직이게 되고… 년말총화때이면 매번 모범로동자로 표창되던 그 영예로운 나날이 어제일같건만… 그 보람차고 자랑스럽던 공장의 일터도 지금은 페허로 변하였다. 문득 덕수령감의 모습이 떠올랐다. 5년나마 지켜온 공장을 그대로 비여둘수는 없다고 하면서 《곧… 밀고나와야 하네. 알겠나, 숨을 돌리는 길로 내밀어야 한단 말이야. 공장이 놈들의 손에 아주 녹아나기전에 말일세!》하고 간절히 부탁하던 그 말이 귀가에 새롭다.
(아무렴, 밀고나가야 하구말구!)
그의 눈뿌리에는 불이 펄쩍 인다.
구배는 점점 높아간다. 밑을 내려다보니 아득한 절벽이다. 몸이 으쓱해진다.
굽인돌이를 돌 때마다 맞은편 산허리의 아름다운 풍경이 차창에 어리고 푸른 하늘이 비껴온다.
얼마나 아름다운 조국인가! 그는 이때껏 조국의 이처럼 아름다움을 무심히 보고 살아온것이 죄스러웠다.
길이 점점 험악스럽자 괴뢰군장교놈은 더럭 겁이 나는듯 련속 권총끝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주의를 시킨다. 그러나 이미 원주는 그 총부리가 무섭지 않았다. 방향을 꺾기만 하면 모든것이 그만이다. 놈들도

끝장이 나고 나도 끝장이 날게다. 백배, 천배의 복수가 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 그러나 이놈들이 바로 우리 인민을 앞으로 또 얼마나 학살할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대로 몰고갈수는 없다고 생각되였다. 오늘 밤도 래일 밤도 이놈들이 가닿는 곳마다에서 인민학살이 계속될게다. 그는 어제 밤 어린것들이 불을 뿜듯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던 장면이며 한 아낙네가 울부짖던 그 증오에 찬 목소리가 문득 회상되였다. 배속에 군힘이 주어진다. 처절하게 어제 밤 최후를 마친 어머니와 어린것들, 당원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도 이 살인귀들을 그대로 살려둘수는 없다! 정녕 그럴수는 없다. 굽인돌이를 돌 때마다 자기의 일생도 오늘로 마지막이라는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후더워진다. 이렇게 일생이 끝나는것을… 왜 좀더 보람차게 살지 못했던가. 왜 진작 로동당원이 될 결심을 못했을가. 영명하신 수령님을 모시고 세상에 부럼없이 살면서 이 고마운 제도를 마련해주시고 참된 삶의 길을 열어주신 장군님을 위해 더 값있고 보람찬 일을 하지 못했던가.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았기에 창조의 기쁨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고 참된 삶의 기쁨을 안고 영명하신 수령님과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의 길에 나서지 않았던가. 이 길우에서 내 한몸을 깨끗이 바쳐 떳떳한 최후를 마친다면 이제 한스러운것이 무엇이겠는가.

내 한몸을 바쳐 이 원쑤놈들을 모조리 죽여버린다면 현구며 덕삼이며 모든 전우들이 나를 탓하지 않으리라. 만약 내가 이 원쑤들을 그냥 살려준다면 또다시 얼마나 무고한 우리 인민들이 피를 흘리게 되겠는가.

결코 그렇게는 안될것이다.

영명하신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자라난 내가 원쑤들에게 롱락될수 있겠는가. …

굽인돌이가 나타났다. …

운전대를 잡은 손에서 피줄이 후덕후덕 뛴다.

한초 또 한초…

그때 곁에 앉은 놈이 벼랑을 보고 질겁한듯 권총끝으로 꾹꾹 찌른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무섭게 군힘이 간다.

순간 급히 방향을 돌렸다.

자동차바퀴가 허공에 떴다.

옆의 놈이 얼결에 운전대를 잡으려다가 쓰러진다. 무엇엔가 탁 부

딪치며 차체가 뒹굴고 아우성과 비명이 귀전에 윙윙거릴뿐이다. 원주는 운전대를 틀어쥔채 의식을 잃었다. …

얼마나 지나서였을가. 원주는 악몽에서 깨여났다. 온몸이 지긋지긋 쑤셔들고 머리가 무겁다. 그는 차안을 살폈다. 그제야 방금전에 벼랑으로 차를 급히 돌린 순간이 상기되였다. 괴뢰군장교놈이 자기밑에 깔려 게거품을 물고 시근거리고있다. 원주는 그놈의 흉물스러운 상판을 내려다보다가 치솟는 분격에 손을 떨면서 그놈이 떨어뜨린 권총을 거꾸로 잡자 상판을 힘껏 내려쳤다.

《네놈이 나를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길로 돌려세우려고 선심을 쓰는체 했지. 자, 이게 네놈의 선심에 대한 갚음이다!》

그는 다시한번 힘껏 내려치며 격분에 몸을 떨었다.

오그라진 문을 가까스로 열고 그는 밖으로 나왔다. 자동차는 벼랑중턱에서 두그루의 참나무에 걸치여있었다. 주위를 돌아보니 여기저기에 괴뢰군놈들과 엠·피놈들이 나딩굴어있다. 훑어보매 30명은 실히 될상싶다. 원주는 타박상을 입은 왼편다리를 절룩거리며 혹시나 살아남아있는 놈이 있지나 않는가 하여 두루 살폈다. 목이 떨어져나간 놈, 팔다리가 부러진 놈 가지각색이다.

순간 원주는 말할수 없는 통쾌감과 거뜬한 심정에 싸였다. 떳떳한 길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의 기쁨은 형용할수 없었다.

머리우 도로로 적군차들이 계속 지나가고있다. 더는 어물거릴수 없는 환경이다. 그는 조심스레 몸을 숨기며 벼랑밑으로 내려갔다.

목이 견딜수없이 컬컬하다. 그는 돌돌 흐르는 시내물에 첨벙 얼굴을 박았다. 그 순간 펀뜻 정신이 든다. 그는 머리를 들었다. 흐르는 시내물우에 푸른 하늘이 비끼고 산그늘이 떨며 흐른다. 그는 황홀한 눈매로 이윽히 그것을 바라보다가 《이 강산을 원쑤에게 내주다니…》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맞은편 산비탈을 기여오르기 시작했다. 조국의 푸른 하늘이 그의 가슴속에서 점점 폭넓게 자리잡혀가고있었다.

1952.

보 비

리 정 숙

아침에 기차에서 내려서 요행 지나가는 자동차를 잡아타거나 해야 겨우 그날 해와 맞대면해서 이 고을에 다달으게 된다.

머루, 다래넝쿨이 창문을 스치다싶이 하는 산협이다. 봄이면 진달래 피는 산기슭에서 밭을 갈고 가을 청명한 달밤이면 뒤산에서 송이를 따고 밤을 줏기도 하면서 사람들은 소박하고 오붓하게 살아왔었다.

그러나 1950년 10월에 들어서부터 평온한 마을의 생활은 모두가 갈기갈기 찢기여졌다.

크지 않은 이 산읍의 이 구석, 저 마을에서는 매일처럼 반드시 끔찍한 광경이 벌어졌다. 찢어진 고함소리와 비명 그리고 총소리들이 메마른 먼지와 함께 휩쓸어다니며 아궁이앞에 쭈크린 어머니, 할머니들의 눈에서 가슴아픈 눈물을 자아내였다.

그런 어느 날, 밤일을 끝마친 경애는 골목을 휘몰아 쓸어드는 세찬 바람에 찢어질듯 풍기는 치마폭을 가까스로 감싸쥐면서 맥없이 걷고 있었다. 그러나 놈들의 경찰서가 들어앉아 전에없이 우중충하게 느껴지는 벽돌담을 돌아섰을 때부터는 황급히 걸음을 재촉하였다. 담을 돌아서면 마주보이는 언덕비탈에서 며칠전에 본 광경이 눈앞에 어른거리여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던것이다.

그날도 늦은 밤길이였다. 어깨를 옹송그리고 이 우중충한 경찰서의 벽돌담을 돌아서던 때였다. 난데없이 들려오는 어린애의 자지러진 울음소리에 발을 멈추었었다.

울음소리는 마주보이는 언덕비탈에서 들려왔었다. 비탈앞에는 잠바에 발목을 잘라맨 바지가랭이가 틀림없이 경관인 사내녀석들이 어른거리고있었다. 그것들중에서 어린애울음소리가 난다는것은 수상쩍은 일이였다. 경애는 겁을 삼키며 무엇에 끌리듯 한걸음, 두걸음 가까이 갔다.

때마침 구름장을 헤치고 차거운 달이 비치였다.

경관놈들은 모두 네놈인데 놈들이 삽으로 흙을 메꾸고있는 구뎅이

속에는 한 녀인이 까무러치게 우는 어린것을 껴안고있었다. 녀인의 갈래갈래 찢겨진 흰옷은 구뎅이로 쏠려드는 바람에 펄럭이는데 그 하반신은 이미 흙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았다.

《네 사내 간 곳을 그래두 몰라! 이년!》

때때로 한놈이 곤봉으로 녀인의 머리를 으스러지게 쳤다. 녀인은 아픔을 감각하지 못하는지 움쭉도 않고 어린애우에 들씌워지는 흙과 돌을 털고있을뿐이였다.

놈들이 퍼던지는 흙이 가슴에 닿았을 때 녀인은 신음소리처럼 《아가.》 하고는 어린것을 머리우에 추켜들었다. 갓난애는 더욱 숨이 끊어질듯이 울어댔다. 사정없이 뒤덮이는 흙이 어깨우에 찼을 때 녀인의 두팔은 꺾이운듯이 툭 떨어졌다. 어린것도 땅우에 굴러떨어졌다.

엄마를 찾는듯 안타깝게 헤매는 어린것을 다시 껴안으려고 녀인의 두팔이 잠시 움직거리였으나 그대로 도중에서 굳어져버렸다. 이 광경을 보고있는 경애 역시 선자리에 굳어버린듯이 움직일수가 없었다. 녀인의 굳어버린 두손은 주먹을 불끈 쥔것 같이 보였고 뜬채로 있는 두눈은 자기를 쏘아보는것처럼 생각되였다. 공포때문에 아래웃이가 으드득 마주쳤다.

지금도 그 녀인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그앞을 지나는 자기의 가슴을 찌르는듯 하여 그 언덕비탈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경애는 줄곧 달음박질치였다.

이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내달린 경애는 어떤 골목에서 숨을 돌리려고 발을 멈추었다. 그런데 그때 돌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비상호각소리가 들렸다. 호각소리는 점점 가까와왔다. 드디여 한 사내가 외투자락을 펄럭이며 골목어귀에 나타났다. 경애는 반사적으로 굴뚝옆에 몸을 숨겼다. 사내는 달빛이 안 비치는 처마밑에 붙어서서 두세집 건너왔다.

뒤이어 또 한사람의 그림자가 길모퉁이를 휙 돌아 들어섰다. 단발머리우에 네모진 상자를 인 처녀이다.

《여기…》

사내의 낮은 목소리를 따라 처마밑에 들어선 처녀는 사내에게 상자를 내맡겼다. 상자를 받아든 사내는 먼저 달아났고 숨을 좀 돌린듯 한 처녀도 곧 그뒤를 따랐다.

경애는 앞을 스치고 지나간 처녀의 뒤모양을 보자 왜 그런지 흠칠

놀래였다. 긴 단발이 흔들리는 어깨며 피뜩 지나버린 갸름한 얼굴이 이상하게도 낯익었던것이다.

호각소리, 발자국소리, 어둠을 흔들고 소란해지더니 경관 서너놈이 달려왔다. 경애는 굴뚝옆에 몸을 감추고있는것이 도리여 수상해보일듯 하여 길가운데로 나섰다. 아니나다를가 놈들이 와르르 몰려왔다.

《누구야!》

벌써 총대를 겨눠대는 놈도 있었다. 경애는 품속에서 전화교환수의 증명서와 야간근무증을 꺼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영문이야, 재수없이.》

이렇게 말하는 놈은 우편국에 자주 드나드는 헌병 강창국이였다. 신분을 밝혀줄 사람이 있는데 저으기 안심은 되나 총대를 들고 늘어선 놈들의 살기찬 기세에 겁은 사라지지 않는다.

《방금 여기서 사내놈과 계집년을 보았지?》

이 헌병놈은 언제나 그러하지만 뺨을 갈길듯이 소리를 지른다.

《…》

《되지 않은 년 같으니라구. 왜 대답이 없어?》

강창국은 곤봉을 쳐들고 욱박지르듯이 다가섰다.

《뭘 우물쭈물해! 두 년놈이 상자를 들고 말야.》

보았다고 해야 할지 못 보았다고 해야 할지 머리가 뒤집혀져서 대답이 채 나오지 않았다.

《흥, 이년두 빨갱이물을 먹은 년이겠다?》

뭐든간에 얼른 대답을 해야 한다.

《무슨 상자요?》

경애는 겁에 질린 가슴을 진정하려고 반문을 해보았다.

《탄알상자지 무어야! 이년이?…》

헌병의 곤봉이 경애의 코끝을 치켜올렸다. 겁을 먹은 그의 가슴속에서도 이런 하대를 받아야 하는 억울함이 울컥 치밀어올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하고 말했다.

《오는 길에서도 못 보았단 말이지?》

경애는 용기보다는 무서움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였다.

《어느 길로 왔어?》

《저…기.》

경애는 금방 두사람이 달음박질한 골목을 가리키였다.

《저 길에서는 못 보았단 말이지? 틀림없지?》

숨이 턱턱 가슴에 막혀 주저앉고만싶었다.

《빨리 추격해!》

놈들이 반대길로 달려가자 경애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걸었다.

《이년, 죽일년!》

강창국의 고함소리와 경관들의 총대가 뒤따르는것 같아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어디선가 도망뺀 두사람의 발자국소리도 들리는듯싶다. 모든것은 뒤엉켜져서 건잡을수 없었다.

그러나 경애는 어째선지 그런 경황에도 방금 본 처녀의 그림자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갸름한 얼굴, 낯익은 어깨, 기억에 박혀진 그 모습은 가느다란 실머리처럼 잡힐듯잡힐듯 하면서도 누구인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혹시?…》

거진 집에 다달았을 때 불쑥 튀여나온 생각은 《보비가 아닐가?》하는것이였다. 보비는 얼마전에 채용되여 경애와 함께 일하는 교환수였다. 갸름한 얼굴이라든가 펑퍼짐한 어깨라든가 어딘가 보비와 그 처녀는 비슷하기도 하였다.

《아니, 머리칼이 달라.》

보비는 단발을 하고있지 않았다. 언제나 량쪽으로 머리를 갈라 묶고 다닌다. 국장실에서 그를 처음 보았을 때에도 제일먼저 눈에 들어온것이 량귀밑으로 머리를 묶은 커다란 검은 리봉이였다.

《하기야 보비가 설마?…》

×

《옛친구가 온듯 한데 만나봐야지?》

헌병 강창국은 경애가 상을 찌프리도록 모지락스럽게 팔죽지를 잡아일으켜 그를 국장실로 데리고 갔다. 며칠전 보비가 교환수로 채용되던 날 일이다.

국장앞에는 검은 무명저고리에 곤색모직치마를 입은 처녀가 앉아있었다.

《인사하지.》

국장의 말에 비로소 돌아선 처녀는 량귀밑으로 늘이운 검은 리봉때

문에 애티가 있어보이나 눈이 예리하였고 가는 입술에는 낙낙치 않은 의지가 엿보였다. 처녀는 헌병과 경애를 보자 순간 머뭇거리였으나 경애가 첫인사를 하기 전에 그를 덥석 껴안을듯이 달려왔다.

《경애가 아니요?》

그의 이름을 똑똑히 부르는것이였다.

경애는 처녀가 자기의 두손을 잡는 그 순간에 옛친구를 만나봐야 한다면서 이 불의의 대면을 시킨 헌병의 의도를 알았다. 틀림없이 처녀의 신분을 확증하려나 보았다.

그런데 그 처녀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반가와하는 표정을 더욱 간절하게 한다. 하지만 경애는 처녀를 알아볼수가 없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망설인다면 이 처녀는 당장 헌병의 발톱에 걸릴것은 뻔하다. 아마도 어떤 딱한 사정이—식구가 굶고있을수도 있고 아버지나 오빠가 실직했을수도 있는 그런 사정이 이 처녀에게 위험을 무릅쓴 연극을 시키게 했는지도 모른다. 애원하는듯 한 처녀의 두눈은 인사로 쳐도 모르겠다고 할수가 없었다. 강창국의 번들거리는 낯바닥에도 반감이 갔다. 그래서 경애는 이렇게 말했다.

《오래간만이로구나.》

그때 경애의 창백한 낯빛도 한층 해쓱하여졌으려니와 처녀의 동그스름한 이마에도 땀방울이 솟았다.

강창국은 상을 찌프리며 게두덜거리며 나갔고 국장은 사무적인 차디찬 말로 채용여부를 알렸다.

경애는 안도의 표정으로 처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생각하면 혼자 있는 교환실에 누구든지 온다는것도 반가운 일이였지만 그보다도 이 처녀가 어째선지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는 교환실에 들어서자 다정스러운 어조로 《자, 어느 자리건 마음대로 골라요.》 하며 두 교환석을 가리키였다.

《글쎄요… 아무 자리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두 교환석의 번호를 눈여겨 비교해본 후 하나를 골라앉았다.

《재수좋은 번호가 있는 자리를 고르오?》

악의없는 롱담을 건네며 경애도 자리에 앉았다.

《이름이 뭐라지?》

경애는 나직이 물었다.
《보비입니다.》
《어디서?…》
《네?》
《난 영 생각이 안 나는데…》
경애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런데 보비는 오히려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요?》 하고 반문하는것이다.
《경애언니가 우편국에 있을 때 전 견습생이였어요.》
경애는 반신반의 보비를 한참동안 쳐다보다가 《그렇소?…》 하고는 마지못해 입가를 움직여 우울한 미소를 그리고는 잠자코말았다. 보비가 몇번이나 그의 기색을 살피는것이였으나 그는 모른체 하였다. 보비는 이렇게 고을 우편국에 들어왔었다.

보비의 교환술은 능숙한지 서툰지 알수가 없었다. 코드를 꽂는 손짓이라든가 번호를 고르는 눈이라든가 용어의 명확성이라든가에는 능란한 교환수들만이 가지는 세련된 맛이 있는건 사실이다. 더구나 교환대에 앉은 대바른 자세는 국장실에서 경애가 받았던 첫인상과 어긋나지 않았다. 그러나 보비의 교환대에서는 자주 고장이 생겼다. 워낙 교환기계란 그리 쉽게 고장이 나는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다루어서 그렇게 되는지 알수가 없었다. 수리공 판석은 늘쌍 쾌히 고쳐주면서도 간혹 가다가는 짜증을 내기도 한다. 왜 그런지 요즘에 와서는 기계실에서도 자주 고장이 났다. 그 태반은 통화의 중요한 부분을 맡은 리레의 고장이 심했는데 이 선, 저 선의 리레의 접선하는 요점 갈피에 먼지가 끼우거나 나사못이 물러나 불통선 아니면 단선을 일으켰다.
《제길, 어떻게 된 셈판이야. 교환수는 많아졌는데 기계는 더 말썽을 부리다니 모를 일인데…》
기술공은 혀를 차며 웅얼거리군 하였다. 그럴 때마다 보비는 어색해서 서있군 한다. 아마도 모든 고장이 자기때문이 아닌가싶어 미안해하는 모양이다.
《보비가 부러 그렇게 한것도 아닌데… 조금도 미안해할건 없어. …》
경애는 보비의 마음을 누그려주려고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한가지 보비에게는 좋지 못한 버릇이 있었다. 교환대의 키

를 세우는 버릇이다. 키를 세우면 수신자와 발신자간의 통화를 중간에서 교환수가 모조리 들을수 있는것이여서 그렇게 하지 않는것이 교환수의 도덕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게 좋지 않아?》

어느날 경애는 되도록 모가 나지 않게 타일러보았다. 그랬더니 보비는 약간 얼굴을 붉히면서도 이렇게 대답했다.

《재미있어요.》

보비는 어느 경관은 전화의 태반이 술집 계집과의 희롱이라느니 또 입술을 한일자로 꽉 다물기를 즐기는 위엄스러운 군수도 《엠·피》에게는 고양이처럼 간사한 목소리로 물품매매에 관해서 입맛을 다시듯이 상담을 한다는등 하고는 쓰거운듯이 웃는다. 경애는 우울한 얼굴로 보비를 쳐다보았다.

《웃을 일이 아니야. …》

경애는 보비의 머리를 묶은 검은 리봉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건지 종잡을수가 없어, 난 모든게 무서워. …》

그러자 보비는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경애언니, 고마와요.》

《고맙긴?》

《제가 들어오던 날 헌병앞에서…》

《거짓말?》

《…네, 공연한 근심이였을진 몰라두 혹시 채용되지 않으면 어찌나 해서 겁결에 그만… 언니는 좋은 사람이예요. 정말이지 고마와요.》

《그래? 하지만 난 어쩐지 무서워.》

《그래도 언니는 저를 구해주지 않았어요? 무서울게 없어요. 전 무섭지 않아요. 그때도 무섭다기보다는 채용되지 않을가싶어 그것만이 걱정스러웠어요.》

보비에게는 어딘가 경애 자기에게는 없는 오돌찬것이 있었다. 무시무시한 어제오늘의 경황속에서 보비의 그런 인상은 어떤 신선한 느낌을 경애에게 주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애자신은 역시 폭력의 공포앞에서 날개를 펼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날 키를 세우는 보비의 버릇과 관계되는 일견 대수롭지 않아보이는 조그마한 사건은 경애에게 지울수 없는 기억을 남기였다. 35번선에서 발신신호가 왔을 때였다.

《몇번입니까. 경찰이요?》

이렇게 말한 보비는 곧 수신자의 구멍에 접선코드를 꽂았다. 그러나 접선이 잘 안되는지 여러번 빼냈다 꽂았다 해본다.

《네, 네, 잠간 기다려주십시오.》

그는 엉거주춤 의자에서 일어나 교환대의 내부기계를 이곳저곳 살펴본다. 교환기계의 고장이라도 고칠듯이 두리번거리는것을 본 경애는 웃었다.

《경찰이면 어때, 통화가 안된다고 하지.》

35번은 《ㄱ》면 지서였던것이다. 그러나 보비는 경애의 말을 듣지 못했는지 기계실로 뛰여간다. 그래서 경애는 그의 등뒤를 향해 약간 어성을 높였다.

《지금 기술공이 없다오.》

그 말을 듣자 주춤하고 멎은 보비는 난처한 얼굴로 경애를 눈여겨보았다. 어쩔바를 몰라하는 그러면서도 어떤 결단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잠시 서있더니 경애에게서 획 얼굴을 돌리고 기계실로 들어갔다. 기계를 고칠줄 아는게 아닐가? 경애는 의아해서 보비의 뒤를 따라갔다.

기계실에서 보비는 오래 있지 않았다. 기계들을 한눈으로 쭉 살펴본 후 맨 구석에 붙은 어떤 기계앞에서 얼마동안 만지작거리다가 나왔다. 나오다가 문간에 서있는 경애와 마주쳤으나 《미안해요.》하고 말했을뿐 여러 말, 여러 표정을 그리지 않고 교환석에 앉아 35번선의 접점을 이었다.

통화가 되는 모양이다. 그러나 보비는 키를 눕히지 않고 송화기만 손으로 막았다. 경애는 서있는 35번 키에서 눈을 들어 보비의 움직이지 않는 얼굴표정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결코 장난으로 듣고있는 그런 표정이 아니다. 남의것을 엿듣는 비굴한 표정도 아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확신있는 그리고 더 엄숙한 표정이였다. 경애는 어느덧 보비가 끼고있는 레시바에서 울리는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였다. 소리를 듣고싶다기보다 뜻하지 않은 보비의 거동에 끌리는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느 방문인가를 구두발로 걷어차는 텅 소리가 들려왔다. 경애는 펄썩 주저앉을듯이 놀랐다. 틀림없는 강창국의 버릇인것이다. 아니나다를가 발뒤꿈치를 질질 끄는 놈의 발소리가 가까와

왔다. 경애는 헌병이 들어올수도 있는 문쪽과 아직도 35번의 키를 눕히지 않고있는 보비를 번갈아보았다.
드디여 강창국은 두터운 입술을 옆으로 째치고 눈부터 흘기며 들어왔다.
《판석이녀석 어디 갔어!》
우악스러운 턱을 우로 치키며 소리를 지른다.
《단선때문에 나갔나 봅니다.》
경애는 가까스로 대답은 하였으나 보비가 세운 키에 자꾸만 눈이 갔다. 키란 워낙 조그마한 스위치에 불과한것이여서 세워놓았다 해야 얼른 눈에 띄는 물건은 아니나 그래도 경애는 그것을 감춰주려고 보비의 교환대를 감싸듯이 섰다. 교환대를 옆으로 막아서는 그 조그만 동작에도 공포에 굳어버린 경애로서는 있는 용기를 다 내여야 하였다.
《밤낮 고친다면서 밤낮 불통이야… 밤낮 죽여도 빨갱이는 늘어만 간다니까, 제길.》
두덜거리던 그는 말끄러미 서있는 경애가 눈에 띄자 《뭘 멍청하게 서있어!》 하고 공연한 트집을 하며 경애의 귀박죽을 뒤로 잡아제꼈다. 잡히운 귀박죽뿐아니라 얼굴까지 빨개진 경애의 가슴은 점점 더 두근거리였고 눈섭을 치킨 헌병의 얼굴이 앞으로 다가오는것 같아 그는 조금씩 몸을 뒤로 가누었다. 그러던 헌병의 굵은 목이 중도에서 난데없이 움츠러들었다.
《빨갱이들이 무섭지 않아! 가까이 있어! 가까이!》
들뜬 목소리로 중얼대면서 경애의 귀박죽을 잡고있는 손에 잔악한 힘을 쓴다.
빨갱이가 가까이 있다는 놈의 말에 경애의 불안한 눈은 어째선지 보비에게로 갔다. 그런데 떨고있는 두다리가 허리의 힘을 받쳐주지 못하였고 잡히운 귀박죽때문에 몸을 마음대로 가눌수 없어 고개를 돌리려다가 그만 휘끈하고 맥없이 뒤로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교환대모서리에 등어리를 힘껏 찔리웠는데 찔리운 등어리의 아픔보다는 헌병의 잔인한 표정에 소름이 끼쳤다.
넘어진 경애의 허리에 보비의 손이 부드럽게 감기였다. 경애는 그의 손에 안겨서 의자에 앉았다. 너그러운 정이 가득한 보비의 눈과 마주쳤을 때 까닭없는 눈물이 쭈르르 흘렀다.
《요 쥐같은 년!》

헌병은 경애를 감싸주는 보비에게 구부린 손가락을 빼들고 다가섰다. 그 헌병에게 대들기라도 할것처럼 보비는 경애에게로 굽혔던 허리를 쑥 폈다. 강창국의 좁은 이마가 푸드득 움직이였고 충혈된 두눈에 독기가 올랐다. 그 눈을 마주 바라보며 서있는 보비의 뻗친 앞가슴이 호흡에 따라 가만히 오르내리고있었다. 그런데 그때의 강창국을 쏘아보는 보비의 두눈은 전날 밤 흙속에 묻힌 녀인의 번뜩이던 눈을 련상시켰다.

35번선의 키는 아직도 서있고 보비는 일어서서도 레시바를 벗어놓지 않았다.

노리고 서있는 두사람중에서 종내 헌병의 어깨가 먼저 축 늘어졌다. 놈은 움직이는것이 갑자기 괴로와지기라도 한것처럼 상을 찌프리며 《에이, 모두 비위에 안 맞아!》라고 여느때와는 달리 살기가 없는 텅비인 소리를 치고는 이상스럽게 몸을 허우적거리며 나갔다. 뿐아니라 문턱에 발이 걸려 비틀거리기까지 하며 나갔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때의 헌병의 초조한 낯빛이 경애에게는 어딘가 참담해보였다.

경애가 볼우에 남아있는 눈물을 닦으며 물끄러미 앉아있노라니까 그를 껴안아준 보비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허리에 후듯후듯 느껴졌다. 그 감촉! 그것은 얼마전까지 주위사람들에게서 매일처럼 느껴오던것이다.

경애는 조그만 행상을 하던 남편과 이럭저럭 살다가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몸둘 곳을 찾아 처녀시절에 약간의 경험을 얻은 교환수로 우편국에 들어왔었다. 그러나 반년이 못되여 동리는 놈들에게 강점되였고 그 우편국은 주인이 갈렸다. 인민군대가 돌아올 때까지 참아가며 살아보려던 막연한 생각은 강점되던 첫날에 벌써 부서져버렸고 지금은 《이년!》이 그의 이름처럼 불리워지고있다.

그러나 지난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그의 적적한 처지를 동정하여주었으며 그의 약하고 작은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었다. 보비가 그의 허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준것처럼…

그리고 경애는 지금 그들의 다정한것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처럼 선량한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자 하루아침에 강하고 장한 사람들로 변하였다는것을 회상하였다. 헌병과 마주섰을 때의 보비의 툭 버틴 앞가슴과도 같이…

《경애언니!》
《응?》
경애는 아직도 흥분이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하였다. 보비는 무엇인가 말할듯 하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웃었다.
《그저 불러보고싶었어요.》 하는 보비의 표정은 다정스럽고 친근한것이였다. 경애 역시 친밀한 마음으로 보비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을 알수 있을것만 같다.
얼마후 밖에서 돌아온 판석은 기계실로 들어가지 않고 말없이 경애 옆에 앉았다.
《강돼지가 찾습디다.》
《또 어디 줄이 끊어졌단 말이겠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판석의 초점없는 눈에는 어떤 류다른 흥분이 담겨있다.
《놈들이 미워서 사람들이 한사코 끊어놓는걸 나 혼자서 어쩌는수 있나… 뭐든지 끝장이 나야 해. …》 하고는 문뜩 보비를 보며 말했다.
《보비는 뭣하러 이런델 찾아들어왔소?》
수신자의 구멍을 고르던 보비의 눈이 순간 판석의 얼굴우에서 배회하였으나 대답은 없이 《말씀하십시오.》 하고 교환을 계속하는것이였다.
《하기야 이런 때 누군들 믿을수가 있어야지!》
판석은 이 말을 뱉아버리듯 던지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외투주머니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며 경애앞에 놓고서 기계실로 갔다.
경애는 그 종이를 무심히 내려다보았다. 또박또박 네모진 등사글씨로 인민군대가 남진하고있다는 사실이 찍혀진 종이다. 경애는 고개를 들어 기계실쪽을 보았다. 기계실문은 벌써 닫혀져있었다.
경애는 무엇인가 북받치는 마음으로 종이를 보비앞에 가만히 놓았다.

이튿날 아침.
한번도 늦어본 일 없던 보비가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판석은 35번선을 어둡기 전에 고쳐놓으라는 국장의 욕설을 얻어먹고 아침부터 계선작업에 나가고 없었다. 나가기 전에 교환실에 들린 그는 한참동안 코를 훌쩍이며 멍멍하여 서있다가 손잔등으로 코밑을 뻑문지르고나서 《욕 얻어먹는것두 며칠 없지.》 하면서 예비선뭉치

는 어깨에 메고 전화통은 옆구리에 끼고 느린 걸음으로 나갔다.
우편국뿐아니라 고을전체가 요 며칠째 뒤숭숭하여졌다. 인민군대가 벌써 평양에 들어왔다느니, 원산에 들어왔다느니 하는 소문이 어느덧 전고을에 퍼졌다. 사실인지 아닌지 딱히 알 도리가 없었다. 당황히 뒤덤벼치는 미군과 괴뢰군의 꼴이 이를 시인하는듯싶었고 도처에서 빈번히 생기는 유격대들의 경찰지서습격과 은근히 퍼지는 삐라들은 인민들속에 확증적인 희망을 불어넣어주었다. 마을사람들은 두세명만 모이면 가까운데 있는듯 한 유격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보비는 반시간이 늦어서 나왔는데 들어오는 모양이 늦잠이라도 잔것처럼 부시시해보였다. 그는 무겁게 의자에 앉더니 등부터 기대였다.
《퍽그나 늦었지?》 하는 보비의 눈에는 피로의 붉은빛이 떠있었고 치마기슭이며 버선이 뻘건 흙물에 젖어있었다.
《발 시리겠구려.》
경애는 자기 양말 한켤레를 벗어주면서 난로옆에 의자를 갖다놓아주었다.
《뛰여왔더니 발 시린줄도 모르겠어. 고모네 집에 갔었거던.…》
《어딘데?》
《한 사십리…》
《밤새 갔다 왔수?》
《응.》
그리고는 응석을 피우듯 경애의 어깨에 머리를 비비며 《교환 좀 부탁해요, 응?》 하자마자 무거운 눈을 감는다. 마침 교환이 한가하였으므로 경애도 보비곁에 서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늘쌍 두갈래로 단정히 갈라 빗고 다니던 보비의 뒤가리마가 오늘은 되는대로 갈려있었고 리봉도 구김살이 잡힌대로 아무렇게나 묶여있다. 무던히 바삐 서둘러 빗은 머리다. 경애는 고쳐 빗겨주려고 보비가 깨나지 않도록 가만히 머리를 끌렀다.
끄른 머리는 어깨에 남실남실하였다. 문득 경애는 한걸음 뒤로 물러나 그 머리와 어깨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뜻밖의것에 생각이 미친다. 탄약상자를 가지고 달음박질치던 처녀의 어깨우에서 흔들리던 머리카락도 이 기장이였다. 그 순간 경애는 경악하여 떨리는 가슴으로 생각하는것이였다. 어제 밤 보비는 또 머리를 풀었던것이 아닐가? 하긴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쨌선지 경애는 자기가 모든것을 짐

작하고있었던것도 같다.

춥고 눈보라가 치는 그 야밤에, 보다는 경관들의 구두발소리와 총검이 번뜩이는 그 스산한 속에서…

하지만 보비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것이다. 문뜩 경애는 그런 보비에게 부러움을 느끼였다. 그렇지 못한 자기자신을 괴롭게도 생각하였다.

이윽고 경애는 귀한것이나 만지듯 보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정성스럽게 고쳐 빗겨주었다. 커다란 리봉을 귀밑으로 해서 앞으로 가져갔다. 그리고는 두 교환대를 혼자 맡아보면서 때때로 보비를 바라본다.

《35번선 말이지요? 글쎄 고장이라니까요.》

발신자가 치근치근하게 통화를 요구하는 바람에 경애는 짜증을 내며 약간 어성을 높였다. 그 소리에 보비가 눈을 번쩍 뜬다.

《35번선이 불통이요?》

《응, 왜?》

《…뭘 아니야…》

졸음을 깨우려는듯이 허리를 펴며 자리에서 일어난 보비는 경애를 보고 벌씬 웃어보인다.

《피곤하거든 좀더 쉬우.》

경애도 그저 마주 웃어보이며 말했다.

《네, 네, 됩니다. 판석이요?… 치운데 고생해요.》

단선을 이으러 나간 판석에게서 중간전화가 온것이다.

《어느 선이요?》

치마깃에 묻은 흙을 비벼 털고있던 보비는 판석과의 코드를 뽑는 경애에게 그렇게 물었다.

《계선하구있는 선?》

《응.》

《〈ㄱ〉면 선이야.》

그 말을 듣자 보비는 흙을 비비고있던 치마를 풀썩 놓고 교환대로 오더니 35번선을 이어본다.

《아직은 안되우, 판석이가 고치구있는중이니까.》

《여러군데 끊어진게지?》

《그런가봐, 그렇지만 오늘중에야 어쨌든 고치겠지. 국장이 한바탕 야단했으니까.》

《ㄱ》면 선의 통화가 되지 않아 애타하던 어제의 보비를 생각하면서 경애는 그렇게 말했다. 하나 별로 반가와하는 기색이 없는 보비는 자리에 앉아 레시바를 끼우더니 시계를 쳐다본다. 열한시다.
판석에게서 또 중간전화가 온 모양이다.
《거기가 어디쯤이예요?… 고개턱앞이요? 험한 곳이지요… 주의하세요.》
보비는 중간전화의 코드를 뽑아들고도 한참동안 만지작거리다가야 구멍에 꽂았다. 그리고는 교환을 받는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때때로 35번선의 스위치를 이어보군 하였다.
몇시간후 《예? 이었어요?》 하는 보비의 말은 교환용어의 가늘고 작은 소리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여운이 옆의 사람의 가슴을 찌르도록 날카로왔다. 확실히 심상치 않은 그 소리에 경애는 레시바를 벗고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경애의 눈과 마주 띄운 보비는 다음말부터 례사롭게 하려고 되도록 소리를 낮추는것이였다.
《설마 누가 끊기야 했겠어요… 은물 올린 종이요?… 하기야 그런 걸루 다 감쪽같이 씌웠으면 찾기 힘들었겠어요… 네? 6백메터나 끊어진데두 있어요?… 그것두 죄다 이었어요?… 인젠… 얼마 안 남았겠군요?… 오리쯤… 네… 네… 그래요? 글쎄… 〈ㄱ〉면 선이 중한지 안 중한지 우리야 알수 있어요?… 설마… 뭘 반드시 그렇다구야… 전화선이 끊어졌다구 유격대가 꼭 나올리야… 정히 그렇다면 여북 절실해서야 그렇게 지독스레 했을라구요?》
그는 선웃음을 웃으며 판석과의 통화를 끊고 또 시계를 쳐다보았다. 두시!
《여덟시까지는 인제 여섯시간…》 하는 보비의 혼자말을 듣지 못한 경애는 다만 어떤 깊은 생각에 박힌듯이 움직이지 않는 보비의 량미간만 물끄러미 바라보고있었다.
판석에게서는 얼마 안있어 곧 다시 중간전화가 왔다.
《네… 네…》
말없이 대답만 하고 전화를 끊으려던 보비는 무슨 생각엔지 다급한 어조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판석을 부르는것이다. 그러나 《저… 이것 봐요…》했을뿐 더 말을 못하고 피가 나도록 입술만 깨물고있다가 《끊어요.》 하고 말았다. 터질듯 한 감정이 그 소리에 엉켜있었다.

짧은 겨울해는 어느덧 기울어 판석에게서 마지막절단선을 이었다는 전화가 온지도 얼마가 지났다.

보비의 코언저리에 날카로운 음영이 비끼였다. 그는 불쑥 일어섰다. 그는 귀밑에 늘이운 량쪽리봉을 뒤로 제끼며 기계실을 향해 서서히 걸어갔다. 두 리봉이 량어깨우에서 가볍게 흔들릴 때, 경애는 달밤의 처녀를 또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기계실에 들어간 보비는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나 퍼그나 있어서야 나왔다.

그때 머리며 눈섭우에 서리발을 이고서 들어온 판석은 예비선뭉치를 담벽에 아무렇게나 세우고 수화기는 교환대우에 던지듯이 내려놓고서 《아무래두 35번선은 어제 밤에 누가 끊은것 같아… 틀림없어.》 하며 35번을 시험해본다.

《어랍쇼, 안되네. … 계선은 틀림없었는데…》

그는 수화기를 교환대에 놓아둔채 기계실로 들어갔다. 그 판석의 등뒤를 보비의 눈이 날카롭게 쏘아보는것이다.

《아 이런, 속 썩이네…》

판석의 커다란 소리가 기계실에서 들려왔다.

《어떻게 됐어요?》

경애도 레시바를 벗어놓으면서 큰소리로 물었다. 보비의 얼굴빛은 꺼멨다.

《리레의 나사못두 물러났구 줄이 어째 이렇게 엉클어졌어? 어랍쇼! 나사못이 물러난게 한두곳이 아니야. 쳇, 기계까지두 낡아빠졌단 말이지.》

판석은 투덜거리면서도 나사못을 죄고있다. 퍼그나 후 《인젠 이어보우.》 아직두 투덜거리는투로 판석은 보비에게 말했다.

보비는 가만히 35번선의 스위치를 넣어본다. 통선이 되여 노랗게 켜진 신호불을 들여다보다가 또 시계를 본다.

《〈ㄱ〉면 선은 다 고쳤나!》

밖에서부터 뭐라고 꽥꽥 소리를 치며 들어온 강창국은 판석의 대답도 듣지 않고 《흥, 제놈들은 최지주와 진탕 처먹을테니 날더러는 만약의 경우를 위해 경찰 전화통앞에 앉아있으라구? 유격대가 무섭긴 한게지? 겁쟁이들이!》

마루바닥에 탁 침을 뱉고 그 마루를 울리며 나갔다. 판석도 기계실

의 쇠를 잠그고 집으로 돌아갔다.

《여섯시 반!》

보비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두손으로 그 둥근 이마를 문지르는 것이다.

날은 아주 어두워졌다. 보비는 아까부터 창가에 우두커니 서있다. 왜 그런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일어선 경애는 판석이가 교환대우에 잊고 가버린 수화기를 책상우에 옮겨놓았다. 수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절그럭소리를 내였으나 보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창문밖은 달빛이 낮처럼 밝았다. 창문을 통해 바라보이는 길 건너편 넓은 마당은 폭탄자국의 물없는 늪과 깨여진 벽돌장으로 어수선했다. 그 한 모서리 벽돌과 흙무더기짬에 밑둥을 밟히운 이름모를 관목이 잎없는 가지만 하늘을 향해 오똑 서있다. 봄이 오면 다시 소생하려고 무거운 벽돌장밑에서 생명의 갖은 힘을 기울여 고난과 싸우고있는것이다.

그뒤 넓은 벌을 지나 병풍처럼 서있는 산줄기밑에는 가뭇가뭇 불빛이 보였다. 그 역시 멀지 않은 봄을 기다려 억울함을 참고있는 인가에서 새여나오는 불빛이다. 달빛은 그 모든 우를 도도히 흐르고있었다.

《경애언니, 오늘 달은 유난히 밝지요?》

뜻밖에 아늑한 보비의 말소리다.

《응.》

경애도 달을 쳐다보며 말했다.

《저런 청명한 달빛이 비치는 순간이면 누구나 모두 무슨 생각이든 할거야… 그렇지 않아?》

투명한 달이다. 그런데 유리창을 짚고있는 보비의 손가락이 왜 그런지 안타깝게 헤매고있었다. 보비는 무엇인가 근심하고있는것이다. 혹시 35번선의 계선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른다.

《보비, 무슨 걱정이 있어?》

보비는 대답대신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더니 잠시후 이렇게 말했다.

《언니,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고통을 생각해봤어요? 더구나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못다한 책임을 가슴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말이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게야… 아마도 많을지 몰라. 하지만 내게는 왜

그런 힘이 없을가.》
경애는 늘쌍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더구나 자기가 보잘것 없는 녀자로 생각되는것이였다. 아마도 보비에 대한 점점 커가는 흠모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것 같다.
《언니, 믿어요. 정의로운것이 반드시 이긴다는것을 믿어요.》
곧 여덟시가 된다. 보비는 35번선에서 무엇을 기다리는듯이 자주 키를 세워보군 하였다.
돌연 35번 신호불이 자지러지게 켜졌다꺼졌다 하였다. 급해하는 발신신호이다. 보비는 천천히 35번선의 코드를 이었다.
《네, 교환입니다.》
발신자에게서 어떤 대답이 있었는지 그의 명민하던 눈이 사납도록 치째지고 격한 결의가 관자노리에서 턱까지의 얼굴전면에 비발치였다.
《경찰서는 전화불통입니다.》
보비는 코드를 꽂아보지도 않고 대답하는것이다.
35번신호불은 계속하여 번쩍거렸으나 보비는 응답하지도 않았고 35번과 교환간을 이은 코드를 빼려 하지도 않았다. 발신자는 발광적인 고함을 지르고있는듯 레시바가 찌렁찌렁 울리였다.
《빨갱이… 빨갱이…》
그 소리는 옆에 서있는 경애에게도 분간되여 들리였다.
《응원대… 경찰서…》
신호불은 더욱 자지러지게 번쩍이고 발신자의 말소리는 레시바를 찢을듯 한 금속성으로 울렸다.
유격대의 습격! 경애는 전신이 부르르 떨렸다. 《ㄱ》면 《경찰지서》가 응원대를 청하는 전화가 분명했다. 그러나 보비는 입을 꾹 다물고 코드를 빼든채 꼼짝않고 앉아있었다.
숙직실쪽에서는 아까부터 왁자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밤도 투전이 벌어진 모양이다.
경애는 차츰 태연할수가 없어졌다. 오늘 밤 경찰서에서 전화를 지킨다던 강창국이 금방이라도 뛰여올지 모른다. 그는 몹시 두려웠다. 교환실에서 도망빼고싶은 생각이 불쑥 들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경애는 못에 박힌듯이 자리에서 일어설수가 없었다. 완강하게 계선을 거절하고있는 보비의 날카로운 얼굴이 경애를 어쩔수 없게 하는것이다. 불현듯 그런 경애의 머리에 달밤에 본 참상이 떠올

랐다. 갓난애의 헤매고있던 손목과 발목이 공포에 떨고있는 경애의 가슴을 찌르는것 같다. 녀인의 안광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가싶었다. 경애는 갈팡거리는 눈으로 35번선의 신호불을 보고있었다.

그러나 현관문의 여닫는 소리가 들렸을 때 경겁한 경애는 그대로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벌떡 일어서면서 보비가 잡고있는 35번코드를 나꿔채였다. 하지만 경애는 코드를 빼앗지 못했다. 앗 소리를 치면서 손을 움츠리고말았다. 보비가 무서운 눈초리로 위압하는것이다.

《누가 오나봐.》

경애는 목소리를 떨면서 간신히 말했다.

《바람소리라오.》

보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태연하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계속하였다.

《누가 온대면 어떠우. 경애언니, 무서워말아요. 나 하나의 위험은 아무것도 아니야요.》

새파랗게 질렸던 경애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무서워말라, 승리를 믿으라! 경애는 처음으로 자기자신에게 이렇게 부르짖었다.

신호불도 인제는 기진한듯이 한참씩 죽었다 켜지군 하였다. 얼마나 지났을가? 한시간? 두시간? 아니 삼십분?

《넷! 보비입니다!》

보비가 갑자기 송화기를 부둥켜안을듯이 끌어쥐며 이렇게 웨쳤다.

《김동무요? 동무들을 구했어요? 무사합디까?》

보비는 덤비지도 않았고 큰소리도 아닌 숨소리로 그러나 똑똑히 말하는것이였다.

날카로운것 같은, 부드러운것 같은 두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맺히였다.

《기뻐요. … 기뻐요. 수고들 하셨어요.》

그는 걷잡을수 없는 흥분에 차서 저를 잃고 몸부림하듯 떨었다. 경애는 그런 보비를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을 여닫는 구두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는 심상치 않았고 험상궂었다. 그러면서도 질질 끄는 소리다.

《경찰서가 정말 불통이야!》 하는 고함소리에 와작하던 숙직실이 조용해졌다. 부글부글 끓고있는것 같은 헌병의 얼굴이 문간에 나타났다. 들어오자바람으로 경애의 레시바를 닥채여 낀 헌병은 경찰서의 키

를 세운 후 접속두를 꽂았다. 통전이 되였다는 노란 신호불이 켜진다.
보비는 일어섰다. 레시바와 송화기를 든채 백지장처럼 해쓱해지며 강창국의 동작을 쏘아본다.
《전화만 끊어놓으면 경찰이 아무것두 모르구있을줄 알았지? 자동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어! 이년들아!》 하는 헌병의 소리에 뒤를 잇듯 쏜살같이 지나가는 자동차의 기관소리가 들렸다. 전조등이 환히 비치는 밖을 흘깃 본 보비는 책상앞에서 휙 나는것처럼 움직였다. 다음에는 책상우에 놓였던 시험송화기가 공중에서 번개처럼 움직였다. 경애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헤아릴수 없었다. 강창국의 큰 몸뚱이가 네발을 벌린 짐승처럼 팔다리를 구부리고 책상우에 넘어졌을 때야 그는 보비가 송화기로 강창국의 머리를 때린것을 알았다. 책상이 와지끈 모로 꺼꾸러졌다. 헌병의 몸뚱아리도 그우에 덮쳐졌다. 그리고 동시에 전기스위치에 가닿은 보비의 흰 손이 보이더니 불이 꺼졌다.
《놈들의 응원대가 갑니다.》
35번선은 아직도 이어있었다. 지나가는 자동차에는 무장경관이 실려있었던것이다. 동지들에게 위험을 예고하는것까지 잊지 않는 보비였다. 다음순간 보비의 갸름한 얼굴과 가는 몸집은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요년!》
고함소리와 함께 번개같은 불빛이 어둠을 가로 질렀고 귀전을 때리는 총소리가 들렸다. 경애는 저도 모르게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가벼운 물건, 무거운 물건들이 부닥치는 소리와 문소리가 뒤섞여 들리더니 강창국의 우악진 구두발소리에 앞선 보비의 가벼운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이상하게 모든것이 조용하다. 적막은 오히려 숨가쁜 순간이여서 경애는 숨을 돌리려고 창가로 달려갔다.
《도망질쳤구나…》
어디선가 씨근거리는 강창국의 목소리는 경애의 가슴속에 맺혔던 숨을 꺼주기는 하였으나 보비의 안부가 근심스러워졌다. 무사히 도망갔을가? 아직도 이 근처에 숨어있을가? 어디 다치지나 않았을가?… 밖은 아무 일도 없는듯이 찬연한 달빛에 싸여있었다. 그 밖을 내다보고있던 경애는 갑자기 유리창에 바싹 붙어섰다. 벽돌장무더기를 끼고 휙 돌아서는 보비의 그림자를 분명히 보았던것이다. 그러나 그 그림

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비!》

그는 입속에서 조용히 불러보았다. 홀연히 사위가 허전하여지는것 같다.

총소리도 강창국의 발소리도 사라지자 흥분과 공포에 서린 국원들이 하나둘 복도로 나와 제마끔 지껄이기 시작하였다.

경애는 불을 켰다. 보비가 내동댕이치고 나간 레시바가 교환대에 매달려 아직도 줄이 흔들리고있다. 넘어져있는 책상, 의자, 깨여진 수화기들이 랑자하게 벌려져있는 가운데서 그는 보비의 손이 가닿았던 스위치와 수화기를 만져보았다. 그리고 열려진 방문을 닫았다.

문을 닫으며 그는 별다른 생각없이 내려다보다 마루바닥에서 한방울의 피흔적을 발견하였다.

《어디를 다쳤을가…》

경애의 가슴속은 뭉클하여졌다.

피방울은 벌써 응결되여가는 금이 보였다. 보비가 남긴 피흔적! 그 피흔적은 마루바닥우에뿐아니라 자기 마음속에도 있음을 경애는 느끼였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ㄱ》면사건에 대해 수군거리였다. 소문은 아침녘에 벌써 읍내에 알려졌고 해떨어지기 전에 전군내에 퍼졌다.

산에서 밤을 타고 내려온 유격대가 형집행을 래일로 앞둔 사형수 열두명을 탈취하였을뿐아니라 다섯해의 소작료를 받으러 갔던 지주 두놈과 치안대놈들을 술좌석에서 몽땅 잡아 처단한 후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전원 무사히 산으로 돌아갔다는것이다.

며칠이 지나도 보비의 소식은 없었다. 보비뿐만아니라 헌병들도 종적을 감추기 시작했다.

그런 어느날 오후 난데없는 벌건 불광이 교환실창문을 끼고 회색담에 반사되였다. 반사광은 벽을 기여 천정에까지 퍼졌다. 밖은 벌의 집을 쑤셔놓은것처럼 소란스러웠다. 자동차들이 행길을 박차듯이 꼬리를 물고 달아난다.

《경애! 좀 나오오!》

판석의 들뜬 소리가 창밖에서 들렸다.

《군청이야, 군청!》

내닫는 찌프와 화물차에서 끼얹어지는 먼지가 한겹 씌워진것도 모르고 판석은 손을 휘저으며 고함을 치고있었다.

불은 지금 막 화약고가 타듯이 확확 일어나 혀끝을 늠실거리며 군청의 2층건물을 삼켜버리고있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아무도 불을 끌 생각을 않고있는것이다. 도망빼는데만 망조하여 끄지 않는것이 아닌듯싶다.

《미국놈들이 불을 놓았소! 도망가려고 불을 놓았소!》

사람들속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웨쳤다. 경애는 뭉클한 가슴으로 교환실을 생각하였다. 우편국도 불지를지 모른다! 그는 우편국안으로 달려들어갔다. 판석이도 얼떨떨하여 뒤쫓아왔다.

국안에 들어서자 그들은 코를 벌름거리였다. 휘발유냄새가 안겨왔던것이다. 탁 가슴을 치는 예감이 경애의 온 신경을 날카롭게 했다.

《같이 가봐요!》

경애는 판석의 팔을 이끌고 휘발유냄새를 따라갔다. 도랑을 낀 한편 청사 담벽에 어떤 놈인가 휘발유를 끼얹고있는것을 발견하였다. 휘발유는 담에 가 부딪치고 쭈르르 흘러서는 밑에 쌓아놓은 나무부스레기들우에 흘러 엉키였다. 그러면서도 놈은 자동차들이 도망빼는 큰길쪽을 초조해서 연신 돌이켜보고있었다. 그리고 국원들 역시 어디로 갔는지 그림자조차 없었다.

《가만 보고만 있을터예요?》

경애는 판석을 떠밀었다. 얼뻥뻥하여 서있던 판석은 허겁지겁 두어발자국 앞으로 나갔다.

놈이 판석을 날이 선 눈으로 쏘아보았다.

《비켜!》

그놈은 휘발유 한바가지를 판석에게 끼얹었다. 두어걸음 물러났던 판석의 어깨가 들썩 움직이더니 다음순간에는 벌써 그 사내놈을 깔고 주먹을 들어 후려갈기고있었다. 그놈은 불의의 일이라 뒤로 꺼꾸러졌으나 판석의 멱살미를 쥐고 다시 일어났다. 판석은 발버둥을 치면서 타고 누른 놈의 대가리를 틀어쥐려 하였으나 힘이 부쳤다. 놈은 한손으로 판석을 꽉 눌러놓고 한손으로 허리에 찬 권총을 빼들려고 하였다.

경애는 눈앞이 캄캄해지는것 같았다. 무서워 말라! 승리를 믿으라! 불현듯 경애는 온몸에 솟구쳐오르는것 같은 힘을 느끼면서 발밑에 굴

러있는 벽돌장을 집어들었다. 벽돌장을 한손에 들고 놈을 향해 달려가는 경애의 눈에는 지금 놈의 대가리만이 보였다. 그 대가리우로 벽돌을 든 팔을 힘껏 내리쳤다. 놈은 피끅 옆으로 꺼꾸러지더니 손발을 푸덕거리였다. 경애는 또 한번 두손으로 벽돌을 치켜 놈의 가슴우로 힘껏 던지였다. 놈의 대가리에서 솟은 검붉은 피가 휘발유에 엉켜 땅우에 퍼졌다.

일어선 판석과 마주선 경애는 한참을 멍청하여 서있었다. 경애는 입술이 떨리여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판석을 보고 웃으려 하였으나 가슴에 벅찬 격동때문에 굳어져버리고마는것이였다.

제법 길어진 해발이 쌓인 눈우에 반사되여 빛은 하늘에서뿐아니라 눈덮인 벌에서도 반짝이는 어느날…

군복을 입은 보비가 전화국에서 경애와 판석을 찾아본 후 남으로 떠났다.

눈석이로 질벅한 길우를 개선가를 높이 부르며 멀어지는 행렬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경애는 언덕우에 서있었다.

이미 리봉이 묶이지 않았고 짧게 자른 보비의 머리칼은 전처럼 어깨우에서 나붓기지 않고 군모밑으로 방싯하게 보일뿐이였다. 무엇보다도 총탄이 팔목을 가볍게 스친 흔적외에 별로 다친 곳이 없는것에 경애는 마음이 놓였다.

《수고합니다. 또 만납시다, 경애동무!》

보비의 작별인사는 간단하였다. 그러나 경애에게는 동무라고 부른 그 한마디때문에 그 말이 소중하였다.

맑은 바람이 언덕에 서있는 경애의 붉은 볼을 가볍게 씻어주었다.

1952. 11.

강

리 갑 기

1

적의 중포사격이 시작되였다. 오산전역에서 미군과 맞선 이래 처음이다.

권수도의 대대가 속한 ○○부대가 금강계선에 이른지 사흘이 되던 날이다.

돌연 적의 진지에서 포탄이 날아들었다. 무서운 포격이였다. 포탄은 숨쉴 사이없이 앞뒤로 쏟아져 그때마다 포연이 들고일어났다. 진지는 순식간에 사방 몇키로의 사이가 연기바다로 변하였다.

(전멸?)

포격이 채 멎어지지 않는 사이다. 대대장 권수도는 갑자기 전호에서 뛰여나왔다. 정치부대대장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그이상 견딜수가 없었다. 여태 놈들과의 싸움에서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포격이다. 내려쏟는 탄도, 작렬하는 폭음, 다시 진동이 땅을 흔들어 천지가 그냥 뒤집혀질것 같다. 전호가 무너져 흙이 쏟아진다. 만일 그 기세대로 간다면 진지는 하나도 남지 않을것이다.

어느새 공중에 적의 지휘기가 떠돌고있었다.

《이 전호는 어떤가?》

대대장은 전호사이를 여기저기 헐레벌떡이면서 뛰여다녔다. 그의 이마에도 흙이 튄 자국과 함께 피가 흐르고있다.

전장은 초연이 덮여 지척을 분별할수 없었으며 화약냄새에 코를 쳐들기가 어려웠다. 시체가 이따금 발에 걸린다.

포탄자국은 이것저것 구별없이 땅을 뒤집어엎어 지형이 아주 바뀌여졌다. 7월 한낮의 해가 불덩이처럼 벌겋게 떠있었다.

그뿐아니라 적포탄은 이따금 여기저기 떨어지고있었다.

《대대장동무.》

전사들은 어느 전호에서나 대대장의 얼굴을 보자 이렇게 부르고는

그대로 머리를 수그린다. 그들도 머리와 어깨에 대개가 흙을 뒤집어썼다. 불시에 겪은 공격이다.

《대대장동무.》

바로 제3전호에 닿았을 때다.

눈앞에 전사 한사람이 뛰여나오자 대대장의 허리를 덥석 잡았다. 그리고 목을 놓아 우는것이다.

순간 대대장도 눈시울이 뜨끈한 생각이 들었다.

전호는 형편이 없었다. 사람의 행방도 행방이려니와 우선 은폐호의 형용조차 찾아볼수 없었다.

전사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제2중대 《꼬마》란 별명을 가진 전사였다. 그는 그들의 대대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고 키가 작은 축이였다. 그러나 중대에서는 모범전투원의 한사람이며 소대의 민청책임자였다. 그는 오산전투에서 처음으로 미국놈과 맞다들리자 수류탄 한개로 저보다 갑절이나 큰 놈들을 반타스나 죽였다.

토실토실한 량볼에 동글한 두눈이 반짝였다. 동무들사이에서는 꼬마로 통하였으며 간부들에게도 류달리 귀염을 받았다. 그는 언제나 전장에서 바람이 잔뜩 찬 공과 같이 재빠르고 명랑하였다.

《에－라이, 얘! 울기는 왜.》

대대장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꼬마전사의 심정을 추측할수 있었으며 그와 같이 로골적이 아니나 다른 전사들의 얼굴에도 그런 빛을 볼수 있었다.

그만큼 전사들은 분함이 북받쳐올랐던것이다.

《동무! 조선인민군 전사가 눈에 눈물을 흘리다니! 응?》

정치부대대장이 다시 힘을 주었다. 그리고 그는 꼬마의 등을 툭툭 두드리는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가늘고 깔깔하나 어디인가 친근미가 있었다.

그 순간이였다.

《넷－》

꼬마는 놀란듯이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제3전호 전사 리형욱 보고. 적폭격에 3명 전사－》

그리고 손등으로 눈을 한번 훔친 다음 꿋꿋이 서서 경례를 붙이는것이다.

《그렇지. 공화국의 전사가 아닌가. 그래야만 해.》
정치부대대장은 그리고 대대장을 돌아다본다.
대대장은 여전히 묵묵한 얼굴이였다.
《넷— 들었습니다.》
그의 두볼에는 눈물흔적이 그대로이며 채 멎지 않은 울음으로 입술이 약간 씰룩거렸다.
금강정면에서 적과 대치한지 10여일, 그동안 전투는 일찌기 보지 못한만큼 가렬하였다. 전선은 국부적이나마 일시 고착상태에 들어갔다.
미군의 등장은 전국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였을뿐아니라 전선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새로운 사태를 가져왔다. 놈들은 끝내 전쟁을 도말고나섰다. 적은 수많은 기술기재와 함께 직접 그들의 군대를 동원하였다. 그중 현저한것은 항공기의 조량이였다. 놈들은 오산에 이르러 이곳에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였으며 이것으로 금강계선에서 능히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하리라고 자처하였다.
그날의 포격은 적이 이편주력의 도착을 기다려 마주선 첫 시험이였다.
《이 새끼들—》
전사들은 누구나 이를 깨물었다.
처음 전선에서 미국놈과 맞다들게 되였을 때 그들은 다소 당황하였다. 그러나 도리여 적에 대하여 한결 불타는 증오와 적개심의 불씨가 되기도 하였다.
전사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전국의 전환은 그들을 여러가지 곤난과 맞서게 하였다.
첫째 낮에 적과 맞불질을 못하게 된것은 물론 그보다 더 엄숙한 문제는 보급이 여의치 못한 사실이였다. 끼니가 제때에 돌아가지 않는것은 얼마든지 참을수가 있었으나 적과 맞서 때로는 탄약마저 손에서 떨어지는 일도 없지 않았다. 적의 항공기의 증강과 아군의 진격에 의한 해방지구의 확대는 그만큼 우리들의 부담을 크게 한것이다. 전투는 확실히 새로운 형태를 갖게 되였다. 그러나 전사들에게 있어서 더욱 견디기 어려운것은 공격명령이 지체되는 사실이였다.
그들은 어떠한 곤난에도 굴하지 않았다.
《이상 없지.》

이튿날 낮에 대대장은 여느때와 다름없이 다시 진지를 돌았다. 낮에 한번, 저녁에 한번 그동안 별 사고가 없는가를 살펴보는것이 요즘의 일과로 되여있었다.

이날도 아침부터 불볕이 내려쬐였다. 하늘은 화염처럼 이글거리고 그나마 남은 나무잎과 풀들이 검푸르게 늘어졌다. 포격자리의 뒤집어진 흙이 한결 스산하였다.

전사들은 모두가 더위에 지쳤다. 낮동안은 그들에게 제일 갑갑한 시간이 되였다. 은폐호는 마치 가마속같이 후끈거리고 굴속의 습한 흙기운에 숨이 막혔다. 그들은 벽을 등지고 언제나 총을 껴안고있다. 얼굴은 열에 질려 벌겋게 익고 땀이 밴 군복밑에 가슴만이 들썩거리고 있다.

《대대장동무! 공격명령은 언제나 내립니까?》

제7호전호였다.

꼬마가 대대장을 보자 전호를 헤치고 나오며 경례를 붙였다. 그는 지난 밤에 제7전호로 돌려졌다.

눈이 여전히 빛나고있다.

《공격명령?》

《예!》

《그건 왜?》

대대장의 얼굴은 다소 정색이 되였다.

《따분해서 그럽니다.》

꼬마는 그리고 뒤통수를 긁는다. 얼굴이 다소 붉어지며 머리가 수그러졌다.

《이래서야 어데— 낮에 낮잠만 자구 놈들의 포탄까지 뒤집어쓰고…》

《진짜 따분해서 어데 견디겠어요. 까짓거 한번 와지끈 뚝딱 하는 맛이 있어야지.》

꼬마의 뒤를 이어 다시 전호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그중 한사람은 《병돌》이였다. 아마 전호속에서 저희들끼리 공격명령에 대하여 이야기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때때로 전호속에서는 민청회의가 열리였다.

《병돌》이는 대대에서 그중 나이가 많은편이다. 눈이 뎅글하고 아래턱이 주걱처럼 쳐들려 첫인상이 어디인가 제 규격에 맞지 않는것 같은 얼굴을 가졌으며 키는 후리후리한게 걸음을 걸으면 허리에서부터

아래우가 따로 노는것처럼 허우적거리는 모양이 전체로 보아 남다른 형용이였다.

이따금 고향이야기들이 나오면 그는 밭갈이걱정과 아들자랑으로 동무들을 곧잘 웃기군 한다.

《병돌》이란 꼬마가 그를 부르는 별명이다. 꼬마의 고향에서는 들보를 병돌이라고 부른다. 어떠한 연유인지 그는 꼬마와 잘 어울려 다녔으며 그중에서도 꼬마와 가장 의가 맞는것 같다.

《그러면 동무들은 공격명령이 속히 내리기를 희망하는가?》

대대장의 이마 한편에는 가제를 대고 반창고를 붙였다. 전날 포탄파편에 다친 자리다. 아직 부증이 채 빠지지 않아 한쪽눈알이 여태 보이지 않는다.

《그러문요.》

여러 전사들이 한꺼번에 기를 쓴다.

사실 전사들에게 대대장과 정치부대대장의 이러한 방문은 적지 않은 고무와 위안이 되였다. 대대에서도 전호가 다르면 하루를 두고도 피차 소식을 모르고 지내는 사이들이다. 그들은 그만큼 기운을 얻었다.

《그래, 곧 내릴테니 걱정마시오.》

그러나 대대장 역시 그이상의 대답을 할 도리가 없었다.

대대장은 그대로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 역시 공격명령을 기다리는데서는 전사들이나 다름이 없는터이다.

그러나 이제는 적도 적이다. 진격과 함께 후방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그뿐아니라 공격이란 원래 계제가 있는것이다. 전투기재의 정비나 전투력의 축적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만큼 대대장은 전후의 사정을 짐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전사들앞에는 미국놈이고 괴뢰군이고 구별이 없었다. 적의 공격을 물리쳐 38도선의 가설진지를 돌파하고 림진강, 한강을 무찔렀으며 서울해방에 있어서도 몇배의 적을 섬멸하여 영웅적인 전투력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오산에 이르러 그들은 다시 미국놈의 코날을 본때있게 후려갈겼다.

《동무들! 동무들의 마음을 알수 있소. 그렇지만 동무들은 좀더 침착하고 인내성이 있어야겠소. 우리 전투원들은 어떠한 곤난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투지가 있어야 하오. 알겠소, 동무들!》

정치부대대장의 언제나 다름없는 화선강의다.

전사들은 아무 말이 없다.
《알겠는가? 지금 정치부대대장이 하는 말의 의미를—》
대대장은 뒤짐을 지고 소리를 높여 전사들을 한번 돌아다본다.
《알겠습니다.》
전사들은 일제히 고개를 쳐든다. 그리고 큰소리로 대답을 한다.
《전쟁이란 누워서 떡먹기와는 다르단 말이야. 밀고만 내려가는게 재간이 아니거던. 인제는 적도 리승만의 졸병만이 아니야. 그래도 제깐에는 세계에서 내노라는 미국놈이 아닌가. 그만큼 우리편에서도 신중해야 한단 말이야.》
그의 한편눈은 바쁘게 껌벅거린다. 그리고 침을 한번 꿀꺽 삼킨다. 그는 언제나 흉허물이 없이 전사들을 대하였다. 그만큼 그는 언제나 전사들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었다.
(어떨가?)
대대장과 정치부대대장은 어제오늘중 전사들의 동태에 여러가지 관심을 돌리고있었다. 사람이란 경우에 따라서 제가 제힘에 지치는 수도 없지 않는것이다.
《지금이래도 그까짓거—》
그러나 전투에 대한 그들의 지향은 한결같이 식지 않았다. 그들은 어떠한 곤난에도 여전한 기세였으며 승리에 대한 신심에 조그마한 동요도 없었다. 대대장은 자신을 얻었다.
《대대장동무! 미국놈들이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고 한다지요?》
병돌이가 뒤에 앉았다가 갑자기 이런 소리를 친다.
그는 전호속에 엎드려 혼자 삽을 갈고있다. 어데서 난 삽인지 요즈음은 틈만 있으면 땅굴속에서 삽을 가는것이 한 일거리가 되였다.
《누가 그래?》
정치부대대장이 옆에서 받는다.
《글쎄말입니다.》
병돌이는 삽날을 손가락으로 스쳐보면서 어물어물한다. 아래턱이 밀고나온 길죽한 얼굴에 입이 옆으로 벌어지며 빙긋이 웃는 모습이다.
《왜, 미국놈의 군대가 무서운가? 병돌이.》
꼬마가 쐐기를 치며 이렇게 핀잔을 준다.
《에라이! 흰소리 말아!》

병돌이는 코구멍을 벌름거리며 머리를 쳐든다.
《미국놈이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면 우리가 미국놈을 쳐부시고있으니 인젠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이 아니냐 말이여.》
병돌이는 제김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사들은 그 순간 자갈더미가 무너지듯 소리를 치며 웃었다.
《따꿍―》
신호발사다. 적의 저녁정기편이 시작되는것이다.
그와 함께 강 저편 적의 화기가 일제히 들고일어난다.

2

《도하공격의 명령이요.》
그로부터 4～5일이 지난 후였다.
대대지휘처에서 마침 저녁밥을 먹을 때이다. 련대본부에서 갑자기 이런 전화가 왔다.
《예.》
대대장은 그 소리에 전화기에 바짝 다가앉았다. 밥이래야 건빵 몇쪽에 물 한모금이다. 그는 입에 넣은 건빵을 채 씹지 못한채 삼키고 물을 꿀꺽 마신다. 다른 간부들도 빵을 쥔채 귀를 기울인다.
공격명령은 드디여 내렸다.
래일 새벽을 기하여 주력의 도하가 일제히 결행될 예정이다, 대대는 그때까지 주력의 행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안 적 정면화점을 분쇄할것, 그중 저편 ○○고지 적 중포진지는 도하작전에 큰 위협의 하나이다, 적의 력량으로 보아 대대의 병력으로는 무리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대대가 가진 오늘까지의 전투력이나 그 실력으로 보아 상부에서는 승산을 가진다, 그만큼 대대는 이 영예를 위하여 하달된 전투임무를 완수함에 유감이 없도록 할것이다.
지시의 내용은 대략 이러한것이다.
《전투임무에 대하여서는 어저께 구두로 전달한 내용과 다른것이 없소.》
지난밤 련대지휘처에서 도하작전의 기본조건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와 약간의 내시가 있었다. 그만큼 조만간에 무슨 지시가 있을것은 미리 짐작이 되였던것이다.

《도하시간은 스물세시까지, 전투는 적어도 새벽 두시까지 완료해야 하겠소. 도하는 보행으로 할것. 도하지점은 동무들의 부대가 주둔하고있는 ○○북방 ○○키로의 장소가 적당하다고 믿소.》
《스물세시?》
대대장은 그사이에 얼굴빛이 한결 긴장해지면서 시계를 들여다본다. 스물세시라면 불과 뒤로 두시간의 여유가 있을뿐이다.
《그렇소.》
《전투완료는 새벽 두시까지?》
그는 같은 소리를 다시한번 묻는다. 그리고 머리를 들어 정치부대대장을 바라다본다.
《그렇소.》
역시 같은 대답이였다.
《들었습니다.》
대대장은 머리를 한번 크게 끄덕이고 그대로 송수화기를 놓는다.
《전투준비-》
그와 동시에 각 전호에서 중대장들이 소집되였다.
그러나 과연 한개 대대의 병력으로 이러한 임무를 능히 감당할수 있을가, 그나마 제약된 지극히 짧은 시간이다.
대대의 공격목표는 적의 전위진지다. 그것은 거의 영구적인 요새에 가까왔다. 문제의 ○○고지중포화점을 중심으로 적은 그밖에 무수한 증강화력을 배치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다시 진지전면 강기슭과의 사이에 가로막힌 아카시아소림에 지뢰원을 부설하고 그우에 다시 몇개의 보병호를 외곽으로 하고있다. 적이 이 지점에 풀어놓은 병력만 하여도 1개 련대는 충분하였다.
물론 적의 주력과 중포집단은 다시 그뒤로 긴 종심을 가지고있다.
《응.》
상급부관은 한참동안 허공을 노리고 입을 우물거린다. 그리고 머리를 약간 기울였다.
어렵다는 눈치가 분명하다.
《전투명령입니다.》
정치부대대장은 여전한 말투다. 그리고 자리를 일어서면서 혁띠를 죄여맨다.
《예.》

상급부관은 약간 당황하였다.
전투준비는 이어서 끝났다.
교교한 달밤이다. 강물에는 달빛이 어른거리고 언덕기슭에는 벌써 이슬이 맺혀 한결 서늘하다. 어둠은 모든것을 간직하였다. 강물만이 그중 낮이나 밤이나 다름없이 천연하다.
《도하준비 완료했습니다.》
각 중대장에게서 보고가 왔다.
제방아래에는 벌써 병사들이 모였다. 대렬이 갖추어졌다. 이따금 도구들을 덜걱거리는 소리와 발자국소리가 들릴뿐 그외에 아무러한 기척도 없다. 달빛아래 몇더미의 사람들의 그림자가 꺼멓게 어른거릴뿐이다.
적의 포소리가 간격을 두고 쿵쿵거린다.
《동무들.》
대대장은 전사들의 앞에 나섰다.
《동무들이 기다리던 도하명령이 내렸소.》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낮았다. 그러나 아래배에서 우러나오는 묵직한 어음이였다. 두리두리한 두눈, 일자로 그어진 두터운 입술— 전사들은 어둠속에서나마 그의 목소리로써 긴장된 그의 인상을 느낄수 있었다.
전사들은 그를 사자라고 불렀다. 어떠한 일에든 앞길밖에 볼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는 누구에게나 흉허물이 없었다. 그러나 한번 전투마당에 다달으거나 밸머리가 뒤집혀지면 여느때의 그와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된다. 전사들은 그를 따르고 그를 좋아하였으나 그러면서 또한 그를 가장 무서워하였다.
《대대는 지금부터 도하작전을 결행한다. 도하는 소대별 그리고 방법은 보행, 각 제대는 도중에서 민첩히 행동하되 무엇보담도 강상의 정체와 대렬의 절단을 절대로 피할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약간의 주의를 주었다. 오늘까지 여러차례를 두고 겪는 일이나 전투란 그때그때 새로운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임무는 크다. 우리의 전투성과여하는 주력의 전면적도하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대장은 말을 맺었다. 전투상의 지시와 주의는 이것으로 끝났다.
전사들은 아무 말이 없다. 침묵은 무쇠와 같이 무거웠다. 기침소리

하나 없다. 전투환경이 달라지면 전사들은 언제나 말이 없었다.
《따르르.》
마침 그때다. 적진에서 불길이 일어났다.
중기, 경기, 박격포 등 순간 대안의 강언덕은 불집이 되고 그와 함께 탄도가 불을 그으면서 포탄이 사정없이 몰아친다.
어느 사이엔지 조명탄이 내려졌다.
전사들은 그 순간 강기슭에 엎드렸다.
《쾅, 쾅.》
적은 벌써 무슨 기맥을 알아차린게 틀림없다. 중포의 공격이다. 그 순간 우리편 진지로 되였던 장소에서 무서운 불기둥이 련해 치솟고 조명등아래 폭연이 몽몽하게 뭉게쳐오른다. 무서운 진동이 천지를 흔든다.
며칠전 그것과 다름없는 포격이였다.
그러나 전투원은 도하지점으로 진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다음이다.
《동무, 어떻게 되였소?》
련대지휘처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지금 곧 결행합니다.》
《시간이 어떻소?》
다소 초조한 소리다.
《예?》
대대장은 힘써 침착하려 하였다.
《적의 반격여부를 막론하고 예정된 시간으로 임무를 완료해야겠소.》
《들었습니다.》
적의 공격은 쉬지 않았다. 강우로는 중강무기의 화력이 쏟아진다. 물에서 소낙비소리가 난다. 림진강, 한강 그동안 몇차례나 경험한 일이나 벌써 이렇게 되면 적과 맞다드는수밖에 도리가 없다. 적은 탄환의 수량을 한정으로 끝까지 쏟아붓는다.
이제는 미국놈이 직접 나선 솜씨다.
《앞으로.》
지극히 낮고 장엄한 소리다. 전사들은 적의 총화속에서 일어났다. 조명탄이 낮과 같이 밝다.
그들은 모두가 빤쯔바람이다. 은밀도하란 보행으로밖에 도리가 없다. 아홉개 도하제대의 전사들은 앞뒤로 서로 껴안았다. 그리고 무기는 어깨우에, 피복은 뭉쳐서 머리우에 동여매였다. 대렬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간다. 대대장은 시계를 본다.
(야, 이거야…)
강기슭 언덕배기에 이르자 대렬은 갑자기 주춤하였다.
적의 총포는 모두가 강면에 쏟아지고있다. 적도 이제는 이편 전술에 다소의 경험을 가졌다. 사격은 그중에도 보행도하가 가능한 수심부에 집중되였다. 화망은 그물을 이루어 빈틈이 없다.
《앞으로.》
이어서 강기슭에서 들리는 소리다.
적탄은 쉴 사이가 없다. 엎친데덮치기로 적의 항공기가 덤벼들었다.
《동무, 어떻게 되였소?》
다시 련대에서 전화다.
그러나 도하대렬은 아직 강가 언덕배기에서 머물고있다.
강우에 적탄의 콩을 볶는 소리가 들릴뿐이였다.
《동무, 동무, 오대산.》
전화는 련달아 부른다.
《동무, 31번! 어떻게 되였소?》
대대장은 속이 달았다.
그는 전화기를 쥔채 입술을 깨물며 강을 바라다보았다. 그리고 가슴이 풀무처럼 들썩거린다. 그러나 대렬은 여전히 움직이는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상급부관은 강으로 뛰여간다.
《동무, 동무.》
그동안 전화기는 그의 무릎에서 저 혼자 초조한 소리로 떠든다.
대대장은 눈살을 찌프리고 다시 아래입술을 깨문다.
《예, 지금 곧 건너갑니다.》
정치부대대장이 보다못해 전화기를 그에게서 받아들었다.
《앞으로—》
바로 그 순간이였다.
누구의 소리인지 목이 찢어지는듯 한 구령소리가 들린다. 그러자 그중 한개의 제대가 물가운데 철썩 뛰여든다. 이어서 다른 한개의 대오가 따라선다. 그리고 다음 나머지 대오들이 제각기 물속에 들어섰다.
《앞으로.》
그것은 음색으로 보아 분명 꼬마의 목소리다. 결연한 음이였으나 아

직 어데인가 야들야들한 음향이였다.
《응.》
순간 대대장은 무릎을 탁 쳤다. 그리고 그 기세대로 제방우에 뛰여 올랐다.
《오—》
정치부대대장이 대대장과 함께 그의 손을 꽉 잡는다.
적의 십자포화는 한결같은 기세이다. 강은 기름이 끓는 가마와 같이 들끓는다.
《대대장동무! 위험하오.》
정치부대대장은 그제야 생각이 든 모양이다.
《좋소—》
그는 어떠한 곳에서나 앞장을 서는 성미이다. 그는 전술지휘관이란 언제든지 화선의 선두에 서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이면 적어도 전사들과 위험을 같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병사들에 대한 높은 도덕적수준과 애국적인 사상을 위한 교육 그리고 지휘관의 사심없는 헌신성과 친근한 시범—》
전투원의 사기를 보장하는데 그는 이와 같은 정치적선동사업 이외에 다시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번 전선이 고착된 다음 전사들과의 사이에서 그는 이런것을 더 뼈저리게 느꼈다. 적의 포탄은 귀청을 흔들며 지나간다. 박격포탄이 얄밉게 터진다.
도하중대는 한걸음한걸음 강심으로 향하여 들어가고있다. 어슴푸레한 대렬이 말없이 나아간다. 다리에서 허리, 허리에서 배 그리고 다시 가슴으로 물이 차차 기여오르고있다. 물길에 따라 대오가 약간 아래로 기울어지고있을뿐 그때까지 아무러한 이상이 없다.
조명탄과 달빛이 어울려 한낮같이 밝다.
《후루루 탕.》
적의 항공기가 다시 그우에 폭탄을 내려쏟는다. 그때마다 여기저기서 물기둥이 서며 요란스럽게 철썩거린다.
《아!》
강심에 다달았다. 수심은 역시 한길이 넘는 모양이다.
수심정찰이 있은 다음에도 무수한 폭탄이 쏟아졌다. 강바닥에 이상이 생긴것이 분명하다. 머리만이 보이는 아홉개의 대렬이 그대로 물우에 뜬다. 그리고 S자형으로 꿈틀거리며 강류를 따라 흐르기 시

작하였다.
발이 물바닥에서 뜬것에 틀림없다.
《음.》
대대장은 대뜸 얼굴빛이 해쓱해졌다.
《아이구.》
《어푸어푸.》
강가운데서 비명이 오른다. 물을 들이키는것 같은 소리다. 소리는 다시 뒤를 련한다. 그와 동시에 대렬은 몇토막으로 끊어진다.
《에이.》
대대장은 순간 제방에서 뛰여내렸다. 강심에는 상당히 물결이 급한것 같다. 대오의 토막은 강물을 따라 떴다가라앉았다 하는 동안에 어느 사이엔지 하나, 둘 자취가 사라진다.
《대대장동무!》
정치부대대장이 대대장의 어깨를 틀어잡는다.
《아니, 가만두시오.》
《그렇지 않소.》
정치부대대장의 말소리는 어데인가 엄연한 어조였다. 그러나 대대장은 말이 없이 웃통을 벗어젖혔다.
그의 눈에서는 불이 흐르고있다.
누가 생각해도 기가 찰노릇이다. 대대장은 종시 강물에 뛰여들었다.
《대대장동무.》
어찌할수 없었다. 정치부대대장 역시 그를 틀어잡은채 물속으로 끌려들어갔다.
대안의 불집은 여전하다.

3

대대장이 강 이편에 닿았을 때는 이미 대대의 일부가 강을 건는 다음이였다. 강가에는 웅성웅성 사람의 기척이 났다.
《푸푸.》
대대장은 물우에 엎어지락자빠지락 뛰였다. 여전한 기세였다. 약간 뒤떨어진 곳에 정치부대대장이 따르고있다. 언덕기슭에는 벌써 적의 총포에 완전히 사각이 지워졌다. 그곳에는 강 저편에서 보기보담

비교적으로 넓은 모래판이 가로놓여있다.

탄도만이 머리우로 시끄럽게 지날뿐 적의 총탄에는 거의 안전한 곳이였다. 저편진지가 있었던 곳에는 여전히 불기둥이 오르고있다.

《대대장동지!》

누구인가 강가에서 소리를 지른다.

《오—》

제2중대장이였다.

대대장은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뛰여가 그를 덥석 껴안았다. 두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다. 대대장은 가슴이 벅차 혼자 헐떡거리기만 하였다. 그의 이마의 반창고가 어데 있는지 간곳이 없다.

《대대장동지다.》

전사들이 그사이에 몰려들었다. 아직 모두들 알몸뚱이다. 옷을 입다가 그대로 뛰여온 전사도 있었다. 어두운 가운데서나마 그들은 대대장의 소리에 귀가 번쩍한것이다.

《수고들 했소.》

대대장은 전사들을 보자 누구나 할것없이 손을 잡아흔들었다. 모두다 무사한 얼굴이다. 대대장은 그냥 가슴이 벅차기만 하였다.

그들은 한순간 그들이 현재 전투환경에 있다는것조차 잊은것 같다.

《전사자 셋—》

놈들의 불길이나 대대장의 헐레벌떡거리고 뛰여온것과는 아주 딴판이였다.

《만일 곧게만 왔더라면 한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을는지도 모를것입니다.》

제2중대장이 가슴을 쓰다듬으며 하는 말이다.

도하제대가 강심에서 물결을 따라 하류로 기울어진것은 선두제대의 계획적인 유도에 의한것이였다. 그것은 상당히 침착한 정황의 판단에서 온것이다. 적의 포탄, 폭탄은 일정한 구역에만 집중되였다. 그만큼 제대는 수심으로서는 깊은 곳을 찾아들었으나 그 대신 적의 착탄지점에서는 완전히 벗어졌다. 강심은 지형상 왼편으로 기울어져있었다. 마침내 유도는 성공하였다. 제대의 토막들이 물가운데 사라졌을 때는 그 머리들이 다행히 모두가 강기슭에 닿게 된것이다.

강에 오르자 전사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정신들을 돌렸다.

《오늘도하에 있어서 리형욱전사의 공훈은 그중에 제일 큽니다.》

《리형욱이라니, 꼬마동무 말이지.》
《예ㅡ》
대대장은 그제야 생각이 났다.
꼬마가 속하는 도하제대는 그가 앞장이 되였으며 그의 구령으로 적탄의 우박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먼저 강에 뛰여들었다. 그는 적탄을 피하여 대대의 전체 성원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였으며 그의 대담한 행동은 종시 도하제대의 용기를 고무하는데 큰 도움이 되였다.
《그래 형욱전사는 어떻게 되였소?》
《전사한것 같습니다.》
《전사?》
대대장의 얼굴에는 순간 어두운 기색이 지나갔다. 그러면서 가슴에 무엇인가 덜컥 떨어지는것 같은 충동을 느꼈다.
밤은 역시 서늘하였다. 조명탄소동에 달빛은 분명치 않으나 언덕기슭에는 역시 벌레소리가 처량하였다.
《제1중대 이곳, 제2중대 저기.》
그사이 전사들은 대오를 정비하기 시작한것이다.
그들은 먼저 옷을 차리고 무장을 갖추었다. 그들의 행동은 한층 민활하였다.
나직나직하나마 말소리가 바빴고 모래판에 오고가는 발자국소리나 몸가짐이 어데인가 가볍다.
강을 건느기 전과는 아주 딴판이였다.
적은 그때까지도 기맥을 차리지 못한것 같다. 머리우로 의연히 지나는 무수한 탄도와 함께 강바닥에는 아직도 콩을 볶고있다. 적의 항공기가 대포의 사각을 찾아가 우를 기면서 기총을 퍼붓는다.
조명탄이 여전하다.
그러나 전사들은 누구나 그것을 알은체 하지도 않았다.
《동무, 뭘하오?》
상급부관의 소리다. 퉁명스런 목청이 누구인가 탓하는 어투다.
그 소리에 대대장이 그곳으로 돌아다보았다. 마침 전투배치에 대한 새로운 의논을 하려던것이다.
《옛!》
바로 언덕기슭아래였다. 상급부관의 앞에 전사 한사람이 경례를 붙이고 섰다. 그의 한편손에는 조그마한 자루가 달린 삽이 하나 쥐여져

있다.
《전사 김영복 땅을 팠습니다.》
병돌이의 소리다.
《땅? 땅은 왜?》
《리형욱전사를 안장하려 합니다.》
김영복은 여전히 경례를 붙인채다. 그는 언제나 상관에게 말을 할때는 그런 버릇이 있었다. 그러다가 지적을 받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여전히 고치기가 어려운 모양이다.
《리형욱?》
대대장은 그 소리에 발을 돌렸다.
《예－》
김영복전사는 여전히 표정이 없는 대답이였다.
역시 꼬마는 전사한것이다. 땅구뎅이곁에 누운 시체가 바로 꼬마인듯 하다. 적탄이 가슴을 뚫은것이다. 동체에 뚜렷한 구멍이 나고 발가벗은 알몸뚱이가 그냥 피투성이가 되였다.
대대장은 한참동안이나 묵묵한 얼굴로 내려다보았다. 눈을 감고 입이 약간 열린채 토실토실하던 그의 모습은 여전하나 피가 빠져 그런지 얼굴빛이 유난히 희게 보였다. 그의 열의와 천품은 누구에게나 귀염을 받았다. 그는 모범민청원의 한사람으로서 전장에서는 언제나 명랑하였으며 소대안에서는 꼬마로서 전투력의 핵심을 이루었다.
《동무! 지금 전투야.》
상급부관은 끝내 퉁명스러워졌다. 그는 전쟁마당에서는 송곳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이다.
《예－》
《어서 가오.》
《옛, 전사 김영복 들었습니다.》
병돌이는 그제야 경례를 붙인 손을 떼자 다시한번 또 절컥 갖다붙인다. 그리고 삽채를 걷어쥐더니 꽁무니에다 차는것이다.
《상급부관동지! 나는 리형욱의 원쑤를 갚아야 하겠습니다.》
병돌이는 무엇을 생각했던지 그리고 다시 돌아선다. 역시 미진한 표정이다.
《이 원쑤를 안 갚고는 못살겠습니다.》
그는 머리를 떨어뜨리더니 주먹으로 눈을 쓱 닦는다.

《동무—》
정치부대대장이 옆에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동무, 알만 하오. 원쑤를 갚아야 하지. 리형욱전사는 우리 조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용감한 아들의 한사람이였소. 누구보담도 훌륭한 전사였소. 동무가 리형욱전사의 원쑤를 갚는다는것은 곧 동무가 리형욱전사에 지지 않게 용감하게 싸우는것이요. 그렇소. 그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훌륭한 전공을 세우는데 있소.》
그리고 그는 타일렀다. 그의 말씨는 여전히 깔끔하나 어덴가 부드럽게 어깨를 쳐주는것이다.
《옛, 전사 김영복 들었습니다.》
병돌이는 머리를 푹 숙였다.
《좋소—》
그리고 정치부대대장은 다시 상급부관을 돌아다보았다.
《상급부관동무, 김영복전사에게 래일 다시 와서 리형욱전사를 안장하게 하시오.》
그러나 대대장은 뒤짐을 진채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동안 대대의 대렬정비는 대략 끝났다.
그때까지 부스럭거리던 기척과 덜거덕대던 소리가 한번에 멎어지고 주위는 쥐죽은듯 고요해졌다.
《돌아가겠습니다.》
병돌이는 그제야 경례를 붙이고 돌아서자 대오로 뛰여간다. 그의 엉뎅이에서는 삽이 여전히 흔들렸다.
병돌이와 삽, 이것은 대대안에서도 이야기거리가 되였다. 미국놈의 공병삽이다. 앞뒤를 꺼떡거리는 이상한 걸음걸이에 삽이 따라 덜거덕거리는 모양이 누구의 눈에나 가관이였다. 대원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웃었다. 그러나 엄페호나 전호를 파야 할 때는 동무들은 서로 병돌이의 삽을 빌리기에 바빴다.
꼬마의 말에 의하면 삽은 병돌이와는 뗄래야 뗄수 없는것이라 하였다.
돌격전이면 언제나 그는 삽을 들고나섰다. 그리고 틈만 있으면 앉아서 삽날을 갈고있는것도 그때문이였다.
《전투는 끝까지 비밀이 보장되여야 하겠소. 제1중대는 먼저 아카시아숲일대에 침투하여 지뢰와 보병을 소탕하여 적의 종심을 혼란케

할것. 제2중대와 제3중대는 좌우익측을 돌파하고 적의 중화점에 접근할것. 그런 다음 제3중대는 적의 증강화점분쇄를 임무로 할것이며 제2중대는 그 틈을 타서 적의 영구화점을 제압할것. 이상.》

대대장은 대렬에 돌아오자 중대장과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전투계획에 대하여 다시한번 주의를 주었다.

《적과 가까운 거리에 맞서기 전에는 절대로 불질을 해서는 안되오. 단단히들 기억하시오.》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을 노리는것이다. 기습 이외에는 다른 전법이 없다. 우선 적의 심장에 깊이 뛰여드는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조건이였다.

적은 그때까지 맹격을 그치지 않는다.

《정치부대대장은 제3중대, 상급부관은 제1중대, 나는 제2중대…》

전투구령은 내렸다.

《동무들, 적은 미군의 주력이요. 조선인민군의 영예를 위하여 성과있게 싸웁시다.》

대렬은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전사들이 생침을 삼키는 소리가 옆에서 들리는것 같으며 벼랑을 향하여 날창들이 제각기 번쩍인다.

병돌이의 삽소리가 귀에 스친다.

《엇츄.》

대대장은 몸을 한번 으쓱 떨었다. 그와 정치부대대장은 옷이 물집이 된대로였다.

대대장의 손에는 꼬마의 따바리가 쥐여져있었다.

4

세개로 나눠진 전투대렬은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였다.

벼랑을 오르자 강 저편과 달라 지형에 상당한 기복이 있었다. 강변에서 ○○고지까지는 불과 한키로— 그사이는 느릿한 경사를 가진 잔등이 늘어서고 량편으로 다시 동일한 잔등과의 사이에 평범한 들판이 들어앉았다. 잔등은 다복솔조차 없는 민산이며 다만 산허리와 벼랑으로 아카시아숲이 보일뿐이다.

적의 총화가 검은 산 저편에서 반디불처럼 번쩍거리고있다.

《포복, 포복.》
대대장은 자기의 돌격조를 이끌고 밭고랑으로 찾아들었다.
강가와 들판은 무연한 밭들이다. 이따금 조그마한 열매들이 부닥쳐지며 팔다리에 덩굴이 성가스럽게 얽힌다. 빤빤한 밭이 엄페로서는 지극히 조건이 나쁘다.
참외밭이 분명하였다.
적의 총탄이 머리를 스친다.
대대장은 두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노려보고있다. 련달아 침을 뱉으며 코를 좌우로 문지른다. 그는 언제나 적과 맞다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적진에 뛰여들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대대장이다. 더우기 이 일격은 아군의 대전공략에 대한 총격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서뿌른 만용은 금물이다. 그는 다시 시계를 들여다보며 힘써 침착하려 한다.
야광수자가 열두시를 가리키고있다.
《목표!》
제2중대가 적의 중포진지의 전면에 도달한것은 그로부터 약 한시간뒤였다. 그동안 그들은 총 한방 쏘지 않았다. 그러나 적의 맹탄은 쉴 사이가 없었다. 적은 화기의 종류와 기능을 다하였다. 기총탄이 한번씩 지나가면 큰 나무들이 허리에서 동강이가 나 달아나고 가지들이 그 언저리에 우수수 하고 부러져내렸다. 박격포탄이 내려꽂히면 파편이 마치 진흙처럼 사방으로 튀였다.
땅바닥에는 무수한 홂이 패이였다. 때로는 《악!》 하는 소리가 귀를 스친다.
조명탄은 꺼지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뒤를 이어 솟아올랐다.
《총을 쏘지 말라!》
그때마다 대대장은 제지하였다. 그는 역시 그만큼 침착하였다.
《쾅쾅.》
대대장은 귀를 기울였다.
그사이 제1중대가 아카시아숲사이에서 적과 마주친 모양이다. 따발총과 《따꿍이》가 맞다들었다.
함성이 여기저기서 오르면 기총소리가 중간에 짖어댄다. 지뢰가 큰 불길을 올리며 터진다.

그와 함께 적의 후방의 화력은 일제히 아카시아숲으로 집중되였다.
《적의 진지다.》
대대장은 그 소리에 앞을 쳐다보았다. 과연 정면골짜기에 이따금 불빛이 번쩍이면 그때마다 위장한 적의 포좌 한모퉁이가 뚜렷이 드러난다.
나무를 뒤집어썼다. 그가운데서 포신이 피스톤처럼 드나들고있다.
적의 포는 아직까지 대안과 강에다 포탄을 퍼붓고있다. 무슨 기미를 보고 쏘는것인지 아무튼 화력의 수량이나 근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쉿ㅡ》
적의 보병호다.
대대장과 돌격조원이 한결 숨을 죽인다. 그사이에 어느덧 량편잔등이 높아지며 골짜기는 상당한 경사를 이루었다. 진지의 정면에는 《옘원》따꿍이가 여기저기서 줄을 지어 앞을 막는다. 적의 방비는 엄중하였다.
《청색신호!》
대대장은 전진을 멈추고 구령을 주었다. 나지막하나 배심있게 울리는 소리다. 청색신호 한발은 제3중대와의 약속이였다.
(제2중대는 공격계선에 이르렀다. 제3중대는 익측을 보장하라.)
이어서 신호탄이 올랐다.
《음.》
대대장은 어둠속에서 주위를 살폈다. 그러나 중대는 조금도 기척이 없다. 매복조가 돌격에 들어갈 때 언제나 가지는 버릇이다.
그와 전후하여 적탄이 다시 미친듯 쏟아진다.
《돌격!》
대대장은 구령을 웨쳤다.
어둠속에서 세찬 함성과 함께 전사들이 풀밭을 차고 일어섰다. 적 보병호의 바로 턱앞이였다.
《야ㅡ》
적의 보병과 마주쳤다. 전투는 그냥 백병전이 되였다.
적보병은 벌써 호에서 뛰여나왔다. 대대장은 이발을 깨물었다. 그리고 한참동안 정형을 주시하였다. 그의 손에도 따발총이 사격순간의 자세로 쥐여져있다.
《이놈아.》
눈앞에서 마침 병돌이가 황소처럼 날뛰고있다. 그의 손에는 삽이 쥐

여져있다. 삽은 불빛에 번쩍거리고 그의 숨길은 사납게 쉑쉑거린다. 그것은 평소의 그에게서는 상상할수 없는 동작이였다.

그때마다 그의 앞에 적병이 보기 좋게 나가자빠진다.

《앗!》

그 순간이였다. 적보병 한놈이 바로 그의 뒤에 덤벼든다.

대대장은 바빴다.

《뚜룩 뚜루룩.》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뛰여가 따발총을 추켜 놈에게 겨누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옆으로 다시 한놈이 함성을 지르며 덤벼든다. 산더미같이 큰 몸집을 가진 놈이다.

대대장은 얼핏 몸을 돌렸다. 그러나 벌써 총을 겨눌 거리가 아니다. 대대장은 놈의 총창을 피하여 따발총을 돌려쥐였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는 놈을 맞받아 총탁으로 그 이마를 내려조겼다. 대대장은 버릇처럼 침을 찍 뱉았다. 놈은 그 순간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대갈통이 약간 뒤로 뒤집어진다.

대대장은 다시한번 내려갈겼다. 퍽 하는 반응이 손에 온다. 그와 함께 어데서인가 피가 쏟아지며 그의 얼굴을 홱 덮는다. 놈의 대갈통은 그대로 석류알이 되였다.

탄광로동자로서의 그의 옛 모습이 생기있게 살아나는것 같았다.

《개놈의 새끼.》

대대장은 분노를 참을수가 없었다. 건빵 몇쪽으로 하루끼니를 에우고 총알이 모자라는 때조차 없지 않던 우리 전사의 부자유에 비하여 놈들은 강 하나를 가운데 두고 먹고싶은대로 처먹고 쏘고싶은대로 쏘았다.

《아! 대대장동지!》

병돌이가 힐끔 돌아다보았다. 이마에 땀이 번질한것이 얼른 보인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뛰여든다. 그는 대대장의 얼굴을 보자 한층 더 기운이 나는것 같다. 육박전은 계속되였다. 불빛이 한번씩 번쩍이면 그때마다 넘어지는 적들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난다. 강냉이털 같은 놈도 섞였다. 전위병력은 역시 《국군》을 세운 모양이다.

우리 전사들이 총탁과 총창으로 앞뒤를 받아치는 날랜 모양이 한결 뚜렷하다.

그동안 제3중대는 이미 적의 익측에서 공격을 시작하였다. 전사들

은 용감하였다.
그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기가 가진 도덕적자각과 과감한 용맹을 잃지 않았다. 전투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의미하고있었다. 그들은 지난 10여일동안 처음으로 공격의 정제를 경험하였다. 그곳에서 비로소 여러가지 전쟁의 다른 면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벌써 시련에 굳세고 전투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무서운 군대가 되였으며 전투와 공격만이 이러한 경우를 물리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사기의 앞에는 어떠한 곤난이나 지장도 장벽이 될수 없었다.
대대장은 적의 보병호를 돌파하였다. 돌격조가 그의 뒤를 따른다.
《앗!》
바로 그 순간이다. 적의 총탄이 대대장의 허벅다리를 뚫었다. 그는 다리가 주춤해지면서 그 자리에 어푸러졌다. 등줄이 선뜩하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곧 정신이 돌았다.
그는 머리를 옆으로 흔들며 정신을 차려보았다. 피가 벌써 다리에 후줄근하였다.
《돌격!》
대대장은 상처에 채 손질을 하기 전에 다시 구령을 웨쳤다. 돌격의 도중이다. 그가 다친것을 전사들이 알아서는 안된다.
그는 이발을 깨물었다. 그리고 손을 짚고 자리를 일어서면서 힘껏 소리를 질렀다.
《미제침략병의 씨를 말리자!》
《미국놈들을 격멸소탕하자!》
여기저기 구호소리가 련달린다.
《와－》
전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적의 진지에 돌입하였다. 거센 파도와 같은 형용이다. 함성은 뒤에서 밀려든다.
벌써 적보병호는 요정이 났다.
《따따따따.》
적진지에서 기총이 들고일어난다. 중포화점은 순전히 미국놈들로 이루어진것 같다. 이따금 보이는 놈들의 철투구를 쓴 모양이나 해골처럼 푹 꺼진 눈언덕이 미국놈임에 틀림없었다. 기총과 함께 박격포가 들고일어난다. 미국놈의 화력배치는 그만큼 주도하였으며 수량

에 있어서도 종래보다 월등하였다.
그러나 전사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돌격!》
대대장은 두번째의 적탄을 입었다. 그가 다리상처의 처치를 마치고 자리를 일어나려고 할 때다. 다시 적의 류탄이 그의 왼편어깨를 뚫은것이다.
그는 그이상 일어나지 못하였다.

5

(틀림없이 두시전이였지.)
대대장 권수도가 다시 정신을 차린것은 그 이튿날 새벽이였다. 그는 역시 살아있었다. 그는 눈을 뜨면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상처가 그제야 머리에 찡하니 온다.
(그러나 과연 누구의 소위일가?)
그는 눈을 뜨자 한참동안 주위를 살펴보았다. 전신이 손가락 하나 옴짝할수 없었다. 그것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확인하려는 일종 애달픈 심정임에 틀림없었다.
풀밭에는 시체들이 너저분하게 흩어지고 불에 탄 기재들이 그가운데 여기저기 동댕이가 쳐져서 흩어져있다. 모든것이 어지럽고 적막하였다. 산은 거멓게 그슬고 나무들은 가지가 타버리고 둥치만이 앙상하게 남았다. 여기저기 흰 연기가 실머리처럼 오르고있다.
어데서인가 쓰르라미가 어처구니없이 울고있다.
《정말!》
놈들의 중포진지는 틀림없이 부서졌다. 쌓아올린 콩크리트는 강정이 되고 그우에 포신은 오그라진채 고개를 쳐들고있다. 몇시간전까지 부지런하게 불을 뿜던 놈이다. 쇠부스레기에 끼여서 적의 시체가 또한 너저분하였다.
《저놈에게 정면으로 부딪쳤으니.》
대대장은 그리고 새삼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포대는 지금 보아도 이만저만한것이 아니다. 산벼랑을 깎아 만들고 그우에 철근콩크리트로 쌓아올린것이다. 그리고 그 량익에 철조망을 둘렀다. 거기에 박격포, 중기 등 중강화력을 무수히 배치하였던것이다.

대대장은 다시 유심히 쳐다보았다.
정면으로 간다면 한개 대대의 병력으로는 맞다들릴 계제가 아니다.
《응―》
대대장은 별안간 놀랜듯 소리를 쳤다. 그리고 고개를 약간 쳐들고 눈을 몇번이고 껌벅거렸다.
적진지의 앞으로 비스듬히 넘어지다만 참나무 한그루― 그 가지끝에 공병삽이 하나 걸렸다. 분명히 삽이다. 삽은 타다남은 나무가지에 느직이 달려 아침해에 날이 번쩍이고있다. 그것은 확실히 눈에 익은 삽이다.
《역시― 김영복이였던가?》
대대장은 눈살을 찌프리고 아래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리고 하나둘 지난밤의 기억을 더듬었다.
적의 화망에 대하여 전사들은 끝내 용감하였다. 그들은 과감하게 적의 진지에 돌격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절벽과 철조망 그리고 적의 증강화력은 빈틈이 없었다. 공격은 절망적인 사태에 빠지게 되였다. 그때 뜻하지 아니한 적진지의 굉장한 폭발― 이 폭발에 앞서 그는 병돌이가 삽을 들고 철조망과 씨름을 하고있는것을 본 기억이 떠올랐다. 전사들이 여전히 절벽과 마주치고있을 때다. 전사들이 앞뒤에서 쓰러졌다. 시간은 급박하였다. 그러나 포는 한결같이 포연을 토하고있었다. 대대장은 모든 점에 희망을 잃었다. 물론 병돌이의 모양도 지금 생각하니 그때 얼핏 본 기억이 있을뿐이다.
《여기 계셨구만.》
그런 판에 정치부대대장이 달려왔다. 그는 대대인원을 정비하기 위해 두사람의 전사를 데리고 풀밭을 이리저리 헤매고있었던것이다.
《무사하셨습니까.》
무척 반가운 모양이다. 랭담하고 깔끔한 그의 얼굴에서 오늘까지 보지 못한 표정을 읽었다. 그도 어깨받이에 피가 배였다. 웃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살이 나오고 흙투성이가 되여서 본색을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전사들은 묵묵하였다. 그들 역시 정치부대대장과 같은 형용들이다. 그중 한사람은 눈언덕이 먹통이 되여 눈이 찌프러지고 쭈빗쭈빗한 수염자리에 피가 흘러 고약처럼 얽혀붙었다.
《대대는 어떻게 되였소?》
《지금 정리중입니다.》

《새벽에 붉은 신호탄을 보았소?》
붉은 신호탄은 전투임무의 완료를 의미하는 신호였다.
《봤습니다.》
《두시전이였지.》
그는 아직 의심이 풀리지 않았다. 적진의 폭발과 함께 그는 확실히 신호탄구령을 내렸다. 그것은 두시전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둘째번의 적탄을 받았던것이다.
《틀림없습니다. 두시 십분전이였습니다. 나는 그 신호로 적의 중포진지가 빠진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주력의 도하는?》
《오늘 새벽에 완료한것 같습니다.》
대대장은 비로소 눈을 감는다. 모든 불안은 사라졌다. 전투임무의 완료는 두시전 주력의 도하로 끝났다. 그는 그제야 가슴을 쓰다듬고 발을 뻗칠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적의 금강방어는 완전히 파쇄되였다. 놈들은 자연조건의 유리한 점과 기술기재의 절대성을 믿었다. 그러나 이편 주력은 도하진공의 작전을 성과있게 보장하였다. 권수도의 대대는 양동부대로서 적의 전위화점을 예정대로 말살하였으며 적의 공격을 일신에 모은 교두부대로서의 임무를 다하였다.
적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그동안 도하의 주력은 벌써 적진지를 크게 우회하여 그 후방으로 진출하였던것이다.
해빛이 하늘에 펴졌다.
전장은 한층 더 스산하고 어지러웠다. 아카시아소림은 그대로 쑥대밭이 되였고 집들이 여기저기 타다남았다. 금강의 7월이라면 강물이 흰모래사장에 넘쳐 출렁거리고 강기슭 자두나무숲에 열매가 농익어 불긋불긋 얼굴이 드러날 때다. 들은 기름지고 마을은 한가로왔다.
그러나 부러진 나무, 시들은 잎, 번져진 흙, 떠날 사이 없는 초연— 어느곳에서 한가로운 옛날모습을 찾아볼수가 없었다.
《만세! 만세!》
어데서인가 먼데서 들려오는 합성소리다.
그중에서도 승리의 대오는 힘차게 전진하고있었다.
《동무, 저걸 보시오—》
대대장은 한참 있다가 눈을 다시 뜨더니 진지에 남은 나무가지를 가

리켰다. 그리고 정치부대대장을 돌아다보는것이다.
《저 삽이 기억에 없소?》
《예?》
정치부대대장은 아무 말이 없이 한참동안 그것을 쳐다보았다.
《정치부대대장동무, 저 동무는 정말 용감하게 싸웠소. 그는 자기의 생명을 적의 진지에 던짐으로써 우리들의 전투임무를 보장하였소. 그야말로 최후의 피 한방울까지 바친 사람이요. 또 그는 자기의 생명을 가장 효과있게 조국을 위해 바쳤소. …》
대대장은 혼자말모양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의 머리에 다시 지난밤 생각이 떠올랐다.
《대대장동지!》
병돌이가 어제 밤 돌격중에 그를 돌아다보면서 이렇게 부르던 소리가 이제는 최후로 되였던것이다.
지금도 한편손에 삽을 뽑아들고 황소처럼 날뛰던 그의 모습이 완연하였다. 그는 필시 그 기세대로 적진에 뛰여들어갔을것이다. 그리고 적의 진지와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마쳤을것이다. 삽은 그 순간 그의 몸과 함께 날아난것이 분명하다.
《동무, 저 삽으로 나중에 꼬마전사의 시체를 걷어주시오. 우리는 어제 밤 그 약속을 하였소. 오늘 그는 꼬마전사의 무덤을 만들어주기로 하였소.》
대대장은 그리고 입을 닫는다.
정치부대대장은 말이 없이 고개만 끄떡거렸다.
대대장은 다시 피로와 고통을 느낀 모양이다. 그는 눈을 감은채 미간을 찌프리고 입을 다문다. 어깨와 다리의 상처에는 피가 굳어져서 자취가 보이지 않았으며 이마의 상처에서는 멀겋게 림파액이 흐르고 있다. 입술은 흙빛이 되여 거칠었다.
그는 조금 있다가 크게 숨을 한번 내쉬였다.
건너편 아카시아소림가운데서 이따금 기총소리가 들린다. 잔적소탕이 시작된 모양이다.
7월의 태양은 불볕이 되여 강물을 끓이듯이 반사하였다.

1952. 4.

첫 눈

변 희 근

1

적들이 강점한 거리는 불과 열흘동안에 수라장이 되였다. 길들과 공지마다에는 놈들의 땅크와 포차가 흙탕물같이 밀려들어왔다. 서슬이 푸르딩딩해서 거리를 싸다니는 미군과 리승만졸개들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혹심해가고 총성과 노성, 비명과 울음과 한숨의 폭풍이 거리를 휩쓸었다. 거리는 생지옥에 떨어져 허덕이고 사람들은 모두들 문을 굳게 닫아걸고 달팽이처럼 집안에 들어박혔다. 밤을 잡아들면 거리는 한층 소연해지는것이였다.

꼬리를 맞물고 질주하는 포차들의 소스라치게 짖어대는 경적이 무겁고 침침한 밤공기를 들부시는것이였다. 전조등빛이 몸부림을 치듯 가로세로 어둠을 째였다. 이럴즈음 제세상 만났다고 득실거리는 미군들과 괴뢰군졸개들은 소위 유쾌한 사냥을 시작하는것이였다.

《빨갱이사냥》, 《녀자사냥》, 《가축사냥》 등등. 그중에서도 《녀자사냥》에 놈들은 사족을 못썼다. 발끝부터 머리카락끝까지 수욕이 뻗쳐 발광하는 짐승들은 《녀자사냥》은 낮보다 밤편이 훨씬 흥미가 진진하다고들 지껄여댔다. 놈들은 낮에는 허물어진 집 처마밑이나 빈집구들에 죽은듯이 자빠졌다가도 밤이 되기만 하면 전연 딴 놈들처럼 거동이 재빨라지고 눈깔에는 징그러운 수욕이 펴뜩이는것이였다. 놈들에게 있어서 밤은 아편쟁이의 아편과도 흡사한것이였다. 아편쟁이가 약맞을 시간을 목마르게 기다리듯이 놈들은 수욕에 타는 목을 군침으로 추기며 밤을 기다리는것이였다. 비록 때때로 홍두깨 내밀듯 불쑥불쑥 일어나는 《빨갱이들의 소동》으로 생기는 죽음의 공포가 있다고 할지라도 놈들은 《사냥의 밤》을 찬미하였다, 하느님이 베풀어준 《성야》라고…

이렇듯 하루밤이 몇년 맞잡이로 지루하고 고달픈 밤을 꼬빡 뜬눈으

로 지새고 문살이 푸름푸름 해서야 명옥은 벽장에서 기여나왔다. 아들 순돌이를 안고 정주간에 오도카니 앉아있노라니 며칠밤새 그를 괴롭히던 오만가지 생각이 다시 구름같이 떠올랐다.

《정말 영영 우리 군대는 돌아오지 않을가?… 이 란장판에 어찌 살아가누?…》 하는 명옥의 무거운 생각을 다우치듯이 집뒤 길쪽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미군놈들의 노성이 오늘 아침따라 유독 더 가시같이 귀청을 찔렀다. 짜르릉짜르릉 고함을 치며 땅크가 행길을 지날 때마다 금시 집채가 물러앉을듯 삐걱거리고 구들장이 움씰움씰 들놀았다. 명옥은 자주 고개를 돌리여 불안스러운 시선을 부엌문에 던졌다. 그럴 때마다 금방 문짝을 부셔패고 승냥이같은 미국놈들이 우르르 쓸어들어오는것만 같아서 그는 품에 안은 순돌이를 더욱 꼭 껴안군 했다. 바깥소리에 질겁한 순돌은 조그만 눈을 깜박깜박하며 후두두 몸을 떨고 종알거리였다.

《엄마, 난 무서워. …》

《응, 내가 있지 않니.》

《아빠 언제 오나?…》

《이제 곧 오지.》

입버릇처럼 중얼거리며 명옥은 말똥말똥 자기를 쳐다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깊은 애정이 스민 두눈동자가 유난히 빛났다. 그제사 순돌이는 마음이 놓이는듯이 사뭇 얼굴이 밝아지며 《이렇게 자면 오나, 응?…》 하고 고사리같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인다.

《응, 그래. 다섯밤 자면 아빠가 온다.》

《정말?》

《그럼.》

《아이, 좋네. 난 아빠가 보고파. 아빠 오면 미국놈들 달아나지, 응?…》 하고 순돌이는 새쭉새쭉 웃었다.

평시에는 노상 대견하기만 하던 야무진 순돌이의 응석이였다. 그러나 요즘은 그 응석마저 류별나게 애처롭게만 여겨지는 명옥의 아픈 마음을 어찌하랴. 지금도 명옥은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운것이 쑥 치밀어올랐다. 그는 못 견디게 귀여운 감정보다도 애처로운 마음이 앞서 눈물이 흘러내린 뺨으로 아들의 통통한 볼따귀를 마구 비비대였다. 순돌은 어머니의 애무에 더욱 신이 나서 《나두 아빠처럼 인민군대가 될

테야. …》 하고 중얼거리고는 은방울소리같은 목청을 돋구어 인민군대행진곡을 읊조리는것이였다. 한순간 아들의 어리광에 마음이 끌려 히죽이 웃음을 짓고 순돌이를 내려다보던 명옥은 무엇에 놀란듯 얼굴을 흐리우고 얼핏 부엌문에 불안스러운 시선을 던지였다. 다시 얼굴을 돌리고 낮으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순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타일렀다.

《얘, 그만둬라.》

한창 신이 나서 웃음이 꽃송이처럼 함빡 피여올랐던 순돌이의 얼굴은 저녁때 나팔꽃처럼 단박에 시르죽었다.

《왜?!》

《미군놈들이 들으면 경친다.》

순돌은 오무렸던 조그마한 입을 비죽거리더니 엄마의 가슴에 울상이 된 얼굴을 묻어버리였다. 명옥은 가슴이 찡 저려나고 눈시울이 뜨거워났다. 부르고싶은 노래도 마음놓고 못 부르는 감옥속같은 세월— 그속을 헤여나갈 궁리를 하니 마음은 자꾸 천근 쇠덩이같이 무거워만 지고 눈앞은 그믐밤같이 캄캄했다. 아버지가 언제 오느냐는 순돌의 물음에 매양 입버릇이 되여버린 《곧 돌아온다.》는 자기 대답이 막연한 이상으로 남편의 생사 역시 막연한것이 명옥이 마음을 더 괴롭혔다. 그의 남편은 카바이드공장 전로공이였다. 그는 카바이드공장이 미국놈들의 폭격에 재더미가 된 이튿날 다른 공장 동무들과 같이 인민군대에 입대할것을 자원했다. 그는 군대가 되여 떠나가면서 명옥이더러 이렇게 말했다.

《나는 더 참을수 없소. 나는 공장을 재더미로 만든 원쑤를 갚아야겠소. 순돌이를 잘 길러주오. 모든것은 전쟁승리를 위해 바칩시다.》

그리고는 순돌이를 몇번이고 안아주고는 명옥의 얼굴을 정어린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 철웅이나 최동무를 찾아가서 상론을 하라고 신신당부하였었다.

철웅이는 남편이 다니는 직장세포위원장이였고 최동무는 남편과 가장 친근하게 지내는 기관구의 젊은 로동자였다.

싸움터에 나간 뒤 남편은 감감무소식이였다. 어떤 때는 (혹시 잘못되지나 않았나?…) 하는 불안도 치밀군 했다. 그럴 때마다 순돌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억측을 해서는 못쓴다고 떠미는 불안을 지워버리

는 명옥이였다. 그러나 우리의 군대와 기관들이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하고 원쑤들이 이 거리를 강점한 뒤부터 이 불안은 그의 가슴속에 검은 둥우리를 틀고 들어앉았다. 우선 놈들의 굉장한 무력장비가 그의 눈을 아찔하게 하였다.

게다가 엎친데덮치기로 후퇴한 우리 사람들이 산속에서 얼어죽고 굶어죽었다는 놈들의 허위선전이 그를 불안스럽게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아빠가 불원간 돌아온다는 자기의 말을 믿고 그날만 고대하고있는 철부지 순돌이와 마찬가지로 자기도 남편이 꼭 돌아온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꺾어지는 마음의 기둥을 추켜세우는 명옥이였다. 또 사실 그 믿음이 없이는 단 한시각이라도 더는 앞날을 살아갈수가 없을것만 같았다. (희망을 가지자. 순돌이를 잘 기르자. 그이는 꼭 돌아온다.)

명옥은 누구한테 다짐하듯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이대로 집을 지키고있을수는 없는 노릇이였다. 필경 이대로 앉아있다가는 입걱정은 젖혀놓고라도 원쑤놈들의 귀축같은 행패에 무슨 변을 당할지 알수 없었다. 그러지 않아도 어제 저녁때에 이 마을 《치안대》대장 김치부란 놈이 당장 집을 내라고 욱벼르고 간 판이였다. 게다가 집들을 땅크로 밀고 비행장을 닦는다는 풍설도 돌았다.

(어데로 갈가?…)

이런 생각을 하는 명옥이의 눈앞에는 김치부의 험상궂은 얼굴이 휙 떠올랐다. 쥐상에다 이마빼기에 엇비슷이 칼자리가 난 김치부는 그전부터 드소문난 개종패의 우두머리였다. 그놈의 아버지는 빚값으로 채무자의 송장을 전당잡은것으로 유명한 고리대금업자였다. 한때는 명옥이네도 그놈의 빚을 갚지 못해서 죽을 욕을 당했었다. 그러나 그놈은 8.15해방날에 뜻매를 맞아 뒤여졌다. 아들 치부는 도꾜가서 공부합네 하고 네뿔이 삐죽한 모자를 쓰고 우쭐대였는데 실은 공부가 아니라 싸움공부를 했던것이였다. 놈은 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대를 도피해서 어데 가 처박혔다가 적들과 함께 나타났었다. 그날부터 놈이 이 마을 《치안대》대장이 되여 놈들에게 허리가 부러지게 굽신거리면서 사람백정질에 눈깔이 발끈 뒤집혀 삽살개처럼 뛰여다니였다.

명옥은 철웅이 안해 정순이와 최동무의 아버지를 찾아가려고 생각한것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러나 적들이 들어온 뒤로는 그들의 종

적을 알수가 없었고 철웅이와 최동무가 무슨 공작을 하다 놈들에게 붙잡혔다는 풍설도 떠돌아 한결 불안만 늘어가는 판이였다. 여러가지 생각끝에 명옥은 금야에 있는 친척을 찾아가려고 속다짐을 했다. 그는 어느새 잠이 든 순돌이를 구들에 가만히 내려놓고 웃방으로 올라가서 옷가지들을 꾸려싼 보퉁이를 들고 나왔다. 그는 보퉁이를 끌러 옷을 한가지씩 뒤지였다. 빛갈이 흘러 떨어질듯 한 검자주깃을 놓은 불수저고리와 진홍빛갑사치마에 손이 갔을 때 그의 가슴은 울렁울렁했다.

그것은 결혼식때 입은 첫날옷이였다. 그는 무심히 저고리를 어깨에 걸치였다. 어둑침침하던 방안이 갑자기 훤해진것만 같았다. 그러는데 옷속에서 무엇인가 구들우에 흘러떨어졌다. 그것은 바로 다섯해전 결혼식날 남편과 둘이 찍은 기념사진이였다. 의젓이 외관을 갖춘 남편은 벙글벙글 웃는 얼굴이고 첫날옷을 차리고 남편곁에 짜뿌듯이 기대선 그의 얼굴엔 수집은 웃음이 아롱졌다. 부르면 금시 남편의 상냥스러운 음성이 들릴것만 같았다. 사진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는 명옥이의 눈에는 눈물방울이 맺혔다. 그의 머리속에는 지난 다섯해동안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의 기억들이 삼삼히 떠올랐다. 인민주권과 **김일성**장군의 은혜로써 얼마나 행복하고 희망에 차넘친 다섯해였던가! 그 생활이 귀중할수록 지금 그것을 빼앗고 무참히 흙발로 짓밟는 미군놈들과 리승만졸개들이 뼈속에 사무치도록 밉고 또 미웠다.

명옥은 가슴이 꽉 메여올랐다. 명옥이가 눈물을 훔치고 다시 보퉁이를 싸려고 하는데 별안간 와지끈 소리가 나며 부엌문이 으스러졌다. 명옥은 놀램에 소스라쳐 순돌이부터 뎅컹 안았다. 그러자 부서진 문으로 쓸어들어오는 맵짠 바람과 함께 주독이 올라 지지벌건 김치부의 낯짝이 쑥 나타났다. 그뒤를 따라 덫에 걸린 승냥이같이 눈깔을 희번득거리며 미군놈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걸렸구나!)

생각한 순간 명옥은 가슴에서 돌같은것이 철렁 떨어졌다. 그는 순돌이를 안고 자기도 모르게 움쭉 일어섰다. 그는 내빼려고 방문쪽으로 획 돌아섰다. 그러나 한놈이 껑충 뛰여올라 앞을 가로막았다. 구멍이 펑한 총부리가 명옥의 두근두근 뛰는 가슴패기에 겨누어졌다. 치부까지 모두 다섯놈이다.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놈들은 집안을 휘휘

살피더니 두놈은 부엌에 그냥 장승처럼 우뚝하니 뻗쳐있고 치부와 허리대가 꾸부정한 미군 애꾸눈이 구들우에 껑충껑충 뛰여올라왔다. 그러자 술독을 엎질러놓은듯이 술내가 획 풍기였다. 치부는 보퉁이부터 뒤지기 시작했다. 낯짝에 징그러운 웃음을 띠우고 명옥이 앞으로 슬금슬금 다가들었다.

명옥의 가슴은 방아를 찧었다. 잠을 깬 순돌이를 부여안고 불이 튕길듯 한 눈으로 놈을 지켜보며 명옥은 비실비실 뒤로 물러섰다. 그는 잔등이 선뜩했다. 그것은 부엌에 서있는 놈들이 들이댄 총부리때문이였다.

명옥은 더는 피할 자리가 없었다. 머리가 쭈빗하고 온몸이 오싹 가드라들었다. 살기가 엉킨 숨막히는 한순간이 흘렀다. 명옥은 소리를 치려고 애썼다. 그럴수록 소리는 더 속으로만 기여들어갔다.

《응앙!》

지금껏 놀란 눈만 또릿또릿 굴리고있던 순돌이는 별안간 울음보를 터뜨렸다. 그 순간에 애꾸눈은 후딱 명옥이에게 덧씌우며 두팔을 쩍 벌리고 덤벼들었다.

명옥은 두주먹을 내저으며 덤벼드는 애꾸눈을 밀치였으나 벌써 놈은 우악스러운 팔로 명옥의 목을 끌어안고 한쪽손으로 명옥의 입을 틀어막았다. 구들우에 떨어진 순돌이는 애꾸눈의 아래도리에 챙챙 휘감기며 자지러지게 울어대였다.

《엑, 시끄럽다. 이 빨갱이 씨야.》

곁에 섰던 치부란 놈이 돼지 멱따는 소리를 치고는 애꾸눈의 아래도리에 매달려 엉엉 우는 순돌이의 뒤덜미를 와락 끌어잡아 허공에 번쩍 추켜올렸다가 그냥 부엌으로 냅다 던지였다. 순돌이는 쿵 소리를 내며 부엌봉당에 떨어졌다. 명옥은 눈앞이 아찔했다. 부엌은 얼마동안 간간했다. 명옥은 넋나간 소리를 치며 용을 써 입을 틀어막은 애꾸눈의 팔목을 두손으로 잡아챘다. 그러나 우악스러운 놈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

《엄마!… 엄마!》

부엌에서는 정정 숨이 져가는 순돌이의 실낱같은 비명이 들려왔다.

《이걸 놔라, 이 개놈아!》

명옥은 발버둥을 치며 죽을 힘을 내여 입을 틀어막은 애꾸눈의 손목을 꼬집어뜯었다. 애꾸눈은 킥킥 다급한 비명을 올리면서 후닥닥 뒤

로 물러섰다. 그 틈을 타서 명옥은 몸을 빼려고 했으나 벌써 약삭바른 치부놈이 총부리를 겨누고 장승같이 뻗치고 서서 그의 앞을 떡 막아섰다.

《이년, 까딱 말아.》

치부는 눈을 딱 부릅뜨고 게두덜거렸다. 부엌에서는 연신 순돌이의 애처로운 비명이 점점 더 커졌다. 별안간 총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다. 그러자 으악 천을 찢는듯 한 순돌이의 비명에 뒤따라 놈들의 너털웃음소리가 일어났다. 명옥은 정신이 아찔했다.

《순돌아…》

《엄… ㅁ…》

명옥은 숨이 꽉 막혔다. 치부가 돌려댄 총부리도 인제는 눈에 비치지 않았다. 그는 이발을 오도독 갈아씹고 그냥 《이 개놈아.》 소리치며 치부의 가슴팍을 향해 총알같이 뛰여들었다. 그러나 애꾸눈이 몸을 돌리는 바람에 명옥은 제풀에 쓰러졌다.

마침 이럴 때였다. 밖에서 요란스러운 소리가 일어나고 집채가 움씰거리였다. 그러자 부엌에 지키고섰던 놈들이 《땅크, 땅크.》 하고 바쁜 소리를 치며 부서진 부엌문으로 굴러나갔다. 명옥의 이마를 구두발로 짓밟고 서있던 치부도 방문을 걷어차고 뛰여나갔다. 그 바람에 애꾸눈도 후닥닥 몸을 일구더니 꽁무니가 빳빳해서 달려나갔다.

놈들이 나가자 명옥은 구들을 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내려갔다. 그는 봉당에 쓰러진 순돌이를 얼마동안 멀거니 바라만 보고있었다. 그러다 순돌이에게 달려가 붙안았다.

《순돌아— 순돌아—》

그러나 벌써 순돌이는 숨이 진 뒤였다. 얼굴은 아직 조금전 그대로였다. 엄마의 품에 안기려는듯 고사리같은 손을 벌리고 누웠다.

《순돌아— 순돌아—》

명옥의 눈에는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다만 한순간 또다시 순돌이를 들여다보고 멍청해있을뿐이였다. 이런 사태가 한순간 흐르다가 별안간 명옥은 《웃—흣흣흣.》 오한이 나는듯 한 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땅을 빡빡 후비였다.

《순돌아— 순돌아—》

그러나 조금뒤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선 명옥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달려나갔다.

《내 아들을 살려내라, 이 악귀들아!》

이렇게 고함을 치며 그가 부엌문턱을 뛰여넘었을 때 집채가 한쪽으로 기우뚱 쓰러졌다. 그러자 천둥을 치는듯 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집채가 와르륵 물러앉았다. 그우를 놈들의 땅크가 잔해의 무더기를 짓깔아뭉개고 지나갔다. 이런줄도 모르고 명옥은 큰길 저쪽켠에 턱을 치여들고 멍청해 서있는 애꾸눈에게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불의의 습격을 받아 당황한 놈은 총을 쏘았다. 그러나 총알은 빗맞았다. 명옥은 놈의 가슴팍을 두주먹으로 내질렀다. 가슴팍을 질리운 놈은 으흐흐 소리를 치며 뒤로 히뜩 자빠졌다.

《이 짐승들아, 내 아들을 살려내라!》

명옥은 애꾸눈의 앞섶을 틀어쥐였다. 애꾸눈은 명옥이를 밀치고 일어나자 총대로 명옥의 옆구리를 갈기였다. 명옥은 그 자리에 꼬꾸라졌다. 그후는 정신을 잃었다.

《웬일입니까?…》

달려온 치부가 굽신거리며 묻는 말에 애꾸눈은 발끈 약이 치받쳐 명옥이가 자기에게 덤벼들어 가슴을 지르던 흉내를 해보이며 멱따는 소리를 쳤다.

《까—뗌.》

그리고 잡아가라는 손짓을 했다.

《예, 알았습니다.》

치부는 이렇게 대답하고 곁에 덤덤히 서있는 얼금뱅이 《치안대》놈에게 호령을 했다.

《이년을 끌어다 가두어. 불경죄야.》

《옛.》

얼금뱅이놈은 명옥의 팔을 잡아 질질 끌었다. 명옥은 잠꼬대같이 헛소리를 쳤다.

《순돌아! 순돌아—》

2

류치장안은 언제나 살기가 엉키였다.

두간짜리 비좁은 감방안에는 수십명의 사람들이 시루의 콩나물처럼 빼곡이 들어찼다. 그 대부분은 로동당원들이였다. 교량을 파괴

하다가 잡힌 사람, 놈들의 지시를 고분고분 듣지 않았다고 끌려온 철도로동자들, 미군놈들이 강간하려는것을 도망쳤다는 《죄》로 잡혀온 녀인들, 동무라는 말을 썼다 하여 빨갱이로 몰리운 사람들, 소와 돼지를 략탈당하지 않으려고 반항한 《죄》로 갇히운 농민들도 몇몇 있었고 심지어 례배당에 안 간다고 끌려온이들까지 끼여있었다.

이들중에서도 가장 고문을 많이 당했고 놈들이 무서운 빨갱이라고 치를 떠는것은 철웅이와 최동무였다. 철웅이와 최동무는 당에서 적들의 무기창고에 불을 지를것과 기관차를 파괴할 임무를 받고 공작하던중 불행하게 적들의 손에 잡히였던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끌려나가 지독한 고문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당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

금방 놈들의 총부리에 등을 밀리우며 최동무를 비롯한 여섯동무가 끌려나간 사찰계로 통하는 문이 삐걱 열리고 지지벌겋게 주독이 오른 김치부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또 누구를 끌어내가려는건가?…)

명옥은 불안에 설레는 마음을 누르고 감방안에 선 치부를 맞받아쳐다보았다. 치부는 피진 눈깔을 뚜릿뚜릿 굴리며 감방안을 휘휘 살피였다. 감방안에서 수십개의 얼음쪼각같이 차거운 눈들이 치부를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그 눈들에는 멸시의 랭소와 아울러 증오가 시퍼렇게 서리였다.

《왜 범상들을 하고 쳐다보는거야.》

자기를 쏘아보는 무서운 눈총에 기가 꺾이였는지 치부는 버럭 고함을 쳤다. 놈은 다급히 옆구리에 지른 권총을 빼여 감방안에 쑥 들여밀었다. 그러나 총총한 눈들은 못박은듯이 치부의 상판대기에 머무른채였다.

《이놈들아, 대가리를 숙여라.》

치부는 미치광이처럼 살창을 두들기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그래도 머리를 숙이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도리여 더 꿋꿋이 머리를 쳐들고 치부에게 눈총을 쐈다.

명옥이도 시퍼렇게 증오가 서린 눈으로 치부를 곧바로 쏘아보았다. 그는 살창만 가로막히지 않았다면 단박 뛰여나가 치부의 모가지를 물어뜯고싶었다. 명옥의 눈에는 치부가 꼬나든 펑한 총구멍이 비치지도

않았다. 다만 그놈을 죽이고싶은 일념에 숨이 가빠나도록 가슴만 높이 뛸뿐이였다.
《안 죽일테냐!》
빽 지른 치부의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총성이 류치장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감방사람들은 움쩍도 안했다. 그것은 치부의 이 수작은 그놈이 수가 모자랄 때 쓰는 상투적습성인것임을 아는터였다. 다만 뒤벽 유리창이 으스러졌을뿐 날카로운 눈총들은 여전히 치부의 얼굴에 화살처럼 박히였다. 권총발사로 위협해보았으나 누그러들기는 고사하고 도리여 용수철같이 버쩍 머리를 쳐들고 한본새로 자기를 쏘아보는 감방사람들의 기개에 억눌린 치부는 제풀에 비슬비슬 뒤걸음을 치면서 승냥이같이 짖어대였다.
《이년놈들, 죽어보아라.》
치부는 얼금뱅이간수놈을 보고 《철웅이를 끌어내!》 소리치고는 힝하니 돌아서 나가버리였다. 얼금뱅이는 감방문을 열고 눈깔을 부라리였다.
《이놈아, 나와.》
명옥이 곁에 동상같이 버티고앉아있던 철웅은 가까스로 일어나면서 명옥의 손을 꽉 잡았다놓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약속이나 한듯이 철웅의 얼굴에 쏠리였다. 벌써 수십차례의 혹독한 고문을 당하여 갈래갈래 찢어진 옷새로 드러난 울뚝불뚝한 근육이 비록 놈들의 불단근질에 살이 타서 부풀기는 했으나 그의 오랜 로동경력을 말해주는것이였다. 수염이 덥수룩이 덮인 검실검실한 얼굴속에서 커다란 눈이 영채를 띠여 빛났다. 열다섯해를 하루같이 2천도의 고열을 내뿜는 용광로의 화광에 다져진 동상같이 모나고 탐탁한 얼굴은 방금 죽음 아니면 그보다 못지 않을 어려운 형장으로 끌려나가는 사람같지 않게 추상같은 기상과 흔연한 웃음까지 띠였다.
《어서 나와.》
얼금뱅이가 발을 구르며 재우쳤다. 철웅은 다시 감방동무들을 휘 둘러보았다. 그의 영채도는 눈과 뭇눈들이 부딪쳤다. 명옥이의 눈과도 마주쳤다. 엄숙한 순간이였다. 명옥은 철웅의 그 눈에서 작별의 인사보다도 오히려 적들과 끝까지 굴하지 말고 싸우라는 격려와 굳센 힘을 느끼였다. 그것은 몇천마디의 말보다도 명옥의 가슴을 두드리고 원

쑤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였다.

(아주바이, 걱정마오.)

명옥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의 뜻이 전해진것인지 철웅인 입가에 빙긋이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다리가 부어 꼼짝을 못하던 그였으나 천천히 돌아서 놈들이 보라는듯이 꿋꿋이 머리를 번쩍 쳐들고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그를 바래우는 감방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벌써 몇동무인가?—)

명옥은 자기가 갇히운 뒤 놈들한테 끌려나간채 다시 돌아오지 않은 수십명 동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그려보았다. 끌날같이 젊은 최동무의 구리빛얼굴이 새삼스럽게 눈속에 새겨졌다. 그 누구도 모두 철웅이 마찬가지로 태연하게 죽음터로 나갔다. 그러나 명옥은 이번처럼 마음이 허전하기는 처음이였다. 지금 끌려나간것이 다른 사람 아닌 철웅이였을 때 명옥은 철웅이가 남편의 동무라는 리유만으로가 아니라 딴 의미로 그 누가 끌려나갈 때보다도 가슴이 아팠다. 명옥이가 류치장에 끌려들어와 철웅이를 만나게 된 뒤 불과 열흘을 남짓한 동안에 얼마나 귀중하고 많은것을 그에게서 배웠는가! 철웅은 명옥이에게 힘을 북돋아주었고 원쑤에 대한 증오와 순돌이 하나만의 죽음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더 큰 복수를 위해 원쑤들과 싸울것을 배워주었다. 명옥의 머리속에는 지난 열흘동안에 벌어졌던 일들이 하나하나 력력히 떠올랐다. 명옥은 견딜수 없는 슬픔속에서도 철웅이와 함께 있거니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지는것이였다. 순돌이를 생각하여 멍청하니 살창을 내다보고있는 때나 놈들에게 심문을 받고 돌아와 힘없이 앉아있노라면 철웅이의 손가락이 잔등을 꾹 찔렀다. 그러면 명옥은 손을 뒤로 가져가는것이였다. 철웅은 명옥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한자한자 꼭꼭 박아 글씨를 썼다. 이밖엔 서로 의사를 전할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없었던것이다.

《우리가 약한 빛을 보이면 저놈들의 행패가 더 심해지오.》

명옥이가 고개를 끄덕이면 다시 그의 손바닥에는 새 글들이 씌여지는것이였다.

《우리 군대가 후퇴한것은 림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요. 멀지 않아서 우리 군대는 꼭 돌아오오.》

《김장군이 엄연히 우리앞에 서계시구 우리들이 굴하지 않는 한 원

쑤는 패망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오.》
《나라를 위해서 원쑤와 싸우는 길이 곧 남편을 도웁는 길이며 순돌이의 원쑤를 갚는 길이요.》
이렇게 지난 열흘남짓한 동안 수천마디의 말들이 손바닥을 걸쳐 명옥의 가슴에 하나하나 새겨졌다. 그럴 때마다 가슴속에는 원쑤에 대한 새로운 증오와 적개심이 둥이를 틀었고 승리에 대한 신심이 봄풀처럼 새파랗게 싹텄다. 또한 모든 동무들이 원쑤들의 독수에 거꾸러지는 마지막순간까지도 조국과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놓아부르며 숨을 거두는것을 알았을 때 명옥은 자기의 복수심이 그들의 그것에 비하여 얼마나 적고 하찮은것인가를 깨달았고 더 큰것을 위하여, 조국과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싸워야겠다고 다짐할 때 그는 그들과 함께 고생을 겪고있는 자기가 자랑스럽게 느껴지는것이였다.
명옥은 창인리에 은신하여 무슨 일인가(철웅이는 다만 이렇게만 말했다.) 하고있다는 철웅의 안해 정순이의 생각이 났다. 정순이는 전지직장의 로동자였다. 검실검실한 둥그런 얼굴, 검고 빛나는 두눈, 꼭 다문 입술, 이런것들이 그의 눈앞에 새삼스럽게 삼삼히 떠오르는것이였다. 정순이를 잘 아는 명옥은 그전부터 항상 정순이의 성격을 부러워했었다. 얼핏 보기에는 그저 조용하고 얌전한 녀자로만 보이는 그였으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남성들같이 서둘렀고 과단성이 있었다. 언젠가 철웅은 자기는 살아나갈 가망이 없으니 명옥이더러 풀려나가면 정순이와 같이 싸워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다.
(살아만 나간다면…)
명옥은 주먹을 부르쥐였으나 앞에 막힌 창살을 바라보고 호― 한숨을 내쉬였다.

어느덧 뒤창이 어슬해들었다.
날이 저물면서 철웅이와 최동무가 어찌 됐을가?… 하는 생각에 명옥의 마음은 더한층 괴로왔다. 그러나 한편 놈들이 그에게서 모든 비밀을 알아내기 전에는 홀홀히 그를 죽이지 않으리라던 철웅이 말을 생각하면 명옥은 천근같이 무거운 가슴 한구석이 구름사이에 비치는 새파란 하늘쪼각처럼 약간 트이는것이였다.
날이 저물자 류치장 뒤쪽 산언덕에 있는 례배당에서 찬송가소리가 들려왔다. 명옥에게는 그 소리가 마귀들이 외우는 주문같이 들리는것

이였다. 그전날 명옥은 언제나 점잖게 차리고 선량한 웃음을 짓는 예수교신자들을 볼 때마다 악한짓이란 전연 모르는 사람들같이 생각되였다. 그러나 요즘 명옥의 생각은 달라졌다. 그것은 김치부란 놈이 예수를 믿는다고 간수놈들이 뇌까리는 말을 들은 뒤부터였다. 그놈이 믿을수 있는 《신》도 그놈과 한본새일것이라고 생각하니 명옥은 저절로 코방귀가 나갔다. 그래서 그후부터는 찬송가소리가 마귀의 주문같이 들려지는것이였다.

찬송가소리가 한창 높아가는데 별안간 몰방으로 터뜨리는 총소리가 뒤산쪽에서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류치장안은 그 순간 숨막힐듯 한 긴장으로 엉키였었다. 감방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지나온 경험으로 그들은 벌써 그 총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있는터이였다. 그것은 바로 례배당결 송림속에서 아까 끌려나간 동무들을 총살하는 총성이 분명했다. 아니나다를가 자지러지는 총소리를 억누르듯 **김일성**장군과 로동당과 공화국 만세를 웨치는 고함소리가 일어났다.

명옥은 온 전신의 피가 머리에 끓어올랐다. 으스러지게 틀어쥔 주먹에 땀이 흥건히 배여졌다. 살창이 물우에 어린 그림자처럼 얼른얼른 흔들리였다.

《명옥동무! 끝까지 싸우시오!》 하는 철웅이와 최동무의 당부하는 목소리도 들리는듯 하여 명옥은 가슴이 죄여들어 목이 칼칼 타들었다.

얼마후에 만세소리는 씻은듯 멎었다. 다만 그 주문같은 찬송가소리만이 한결 높아졌다. 명옥은 목구멍에 치밀어오르는 불같이 뜨거운것을 꿀꺽 삼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아주바이, 기어코 원쑤를 갚아드리겠소.》

그런데 밤이 이슥해서였다. 삐걱하고 문이 열리였다. 사람들의 눈은 일시에 문으로 쏠리였다. 명옥은 처음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착각이 아닌가?… 그러나 치부에게 잔등을 밀리우며 쓰러지듯이 류치장안으로 들어선것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철웅이가 아닌가?… 이리저리 째여지고 시퍼런 멍이 든 철웅의 얼굴은 쳐다보기 무서울 지경이였다. 그러나 철웅은 나갈 때처럼 꿋꿋이 머리를 쳐들고 들어왔다. 죽은줄만 알았던 그가 다시 자기앞에 살아서 나타났을 때 명옥의 눈에는 반가운 눈물이 핑 돌았다. 얼금뱅이놈이 살창으로 철웅이를 발길

로 처넣고 치부는 이마의 땀을 훔치며 소리쳤다.

《이 새끼야, 살고싶거든 잘 생각해.》

이따위 소리를 뇌까리고 치부는 휭하니 밖으로 나가버리였다. 철웅은 다시 비스듬히 벽에 기대여 명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빙긋이 웃음이 피여올랐다.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인가! 명옥은 아직까지 이렇게 엄숙하고 성스러운 얼굴을 본 일이 없었다. 그 웃음은 오직 승리자의 얼굴에서만 볼수 있는것이라고 명옥은 짐작했다. 그러나 다음순간 철웅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걷히더니 그의 눈동자에 슬픈 빛이 어리였다.

《최동무가, 최동무가… 희생됐소.》

하고 철웅은 슬며시 눈을 감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방울이 새여나와 움푹히 패인 눈망울에 괴이여 피묻은 볼로 흘러내렸다.

《아주바이!》

엉겁결에 명옥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르고 철웅이의 손을 꽉 잡았다.

철웅은 속삭이듯 가느다란 목소리로 토막말을 이었다.

《명옥동무… 우리는… 최동무의… 뜻을… 이루어줍시다.》

《…》

철웅이의 얼굴을 지키는 명옥의 눈앞에는 최동무의 얼굴과 함께 최로인의 잔주름이 거미줄처럼 엉킨 얼굴이 우렷이 떠올랐다.

3

어느날이였다.

놈들은 녀자류치인들과 남자들중에서도 《죄상》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뒤마당으로 끌어내왔다.

(무슨 일일가?…)

끌려나온 사람들은 흐린 얼굴들을 서로 마주보며 쑤군쑤군하였다. 명옥이도 끌려나왔다. 오래간만에 어둑시근한 감방에서 풀려나와 해빛구경을 하는 명옥은 눈시울이 시큰시큰하고 눈물이 쭈르르 흘러나왔다. 그는 경이에 찬 눈으로 사위를 한바퀴 휘－돌아보았다. 《치안대》마당 한구석에 짐들을 잔뜩 실은 우차들이 늘어서고있다. 필경 놈들이 탕을 쳐온 물건들이리라－ 늦가을 맑은 하늘은 류달리 푸르고

높았다. 명옥은 지금껏 저 하늘이 오늘처럼 정이 들고 아름답게 쳐다보인적은 없었다. 그 하늘을 와락 가슴에 한아름 품어안고싶었다. 그의 시선은 례배당이 거만하게 우뚝 솟아있는 언덕에 머물렀다. 언덕이 모두 불그스름하다. 그는 벌써 단풍이 들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산이 불그스름하게 보이는것은 필경 복수의 붉은 불길이 한시도 그치지 않는 자기의 마음의탓이나 아닐가?… 그것이 저 언덕에 어린것이 아닐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단풍인것이 알려졌을 때 명옥은 (벌써 가을이 깊었구나. …) 속으로 중얼거리며 새삼스러운 감회에 사로잡히였다.

언덕을 덮은 단풍이 푸른 하늘과 아울러 자아내는 풍경은 마치 그가 언젠가 수놓았던 푸른빛비단바탕에다가 붉은 실로 수놓은 자수그림같이 아름다왔다. 그러나 다시 명옥의 생각이 그 언덕에서 놈들에게 총살당한 동무들에게 비쳤을 때 그 붉은빛은 그 동무들의 피로 물들여진것 같아서 가슴이 선뜩하고 머리가 수그러지는것이였다.

얼마후에 놈들은 삽과 곡괭이를 하나씩 나눠주고 렬을 세우더니 걸으라고 했다. 대렬은 《치안대》문밖으로 나섰다. 대렬 앞뒤와 량옆에는 총을 멘 놈들이 따라섰다.

《임마, 너두 예수를 믿어라.》

놈들중 땅딸보가 말을 거니 《어째서?》 허리가 구부정한 키꺽다리가 받았다.

《그래야 출세한다.》

《출세?…》

《그럼— 그래서 대장님도 예수쟁이가 된거야.》

《허— 그럼 싫어두 믿을판이지.》

이따위 소리를 시시덕거리는 놈들이 명옥의 눈에는 모두 얼간이들만 같이 못나보이여 그 피둥피둥 술살이 오른 낯짝에다 가래침이라도 뱉고싶었다.

그새 거리는 무섭게 변모했다. 근 10년을 살아온 정이 들고 낯익은 거리건만 명옥은 생판 처음 들어서는 거리같이 서먹서먹했다. 지난 다섯해동안 **김일성**장군님을 받들고 수많은 자랑과 아름다운 전설을 간직한 거리— 활기있고 웃음소리가 범람하던 거리는 어데로 갔는가! 명옥의 눈앞에 벌어진 거리는 생지옥을 련상시키는 더럽고 치사

한 거리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은 들었지만 불과 한달도 못미치는 동안에 이렇게 변모할줄이야—

숨죽은 공장들이 폭탄에 날아난 지붕과 다 무너진 거무죽죽한 세멘트담벽새로 엿가락처럼 구부러 휘여들고 시뻘겋게 녹쓸은 철근뼈다귀를 드러내놓은채 저기 왼편에 쭉 드러누워있다. 하늘을 찌르고 수풀같이 솟은 굴뚝들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솟구쳐올라 하늘을 까맣게 뒤덮던 그때가 아득한 옛일만 같았다. 거리에는 미국놈들, 깜둥이들, 리승만의 졸개들, 흰 완장을 낀 《치안대》 삽살개들이 싸다니고있었다. 골목골목마다 쓰레기가 가득차있고 길에는 깡통이 뎅그렁뎅그렁 딩굴고있었다. 한쪽켠에서 미국놈들이 멀쩡한 집들을 헐어 불을 지르고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리승만의 졸개들이 소와 돼지를 몰고 지나갔다. 또 저쪽골목에서는 미군 두놈이 격투를 하는데 다른 놈들이 운동경기나 구경하듯 아가리를 헤 벌리고 서있었다. 거기는 그야말로 란장판이였다. 이 모든 추악한 광경을 보아야 하는 명옥은 눈부리가 저려나고 가슴에서 불이 활활 타올라 견딜수가 없었다.

(우리 집은 어찌 됐을가?… 순돌이의 시체는?…) 무중 이런 궁금증이 났으나 이런 란장판에 무엇인들 남았으랴고 슬며시 떠미는 어리석은 미련을 꾸짖었다. 그래도 자기 집이 가까와올수록 그의 가슴은 두근거리는것이였다. 얼마후 길로 나온 명옥은 눈을 내려감고 손으로 이마를 가리웠다.

(이것이 웬일인가?…)

명옥은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내가 정신이 나간게 아닐가?…) 눈을 비비고 다시 눈여겨 바라보았다. 그러나 마찬가지였다. 명옥의 눈에는 폭격에 지붕이 날아나고 찌뿌둥 기울어지기는 했으나 처마를 잇닿고 줄져있어야 할 주택거리의 집들은 한채도 비쳐들지 않고 운동장같이 펀펀한 평지를 걸쳐 저쪽으로 휑하니 내다보이는 싸늘한 바다만이 유독히 검푸렀다. 그 바다우에는 적들의 함선이 배때기를 해빛에 번뜩이며 떠있었다.

(놈들이 정말 땅크로 밀었구나—)

명옥의 눈앞에는 땅크가 집채와 함께 순돌의 시체를 짓깔아뭉개는 끔찍한 광경이 방불하게 떠올랐다. 그는 오싹 몸이 떨리였다.

《치안대》놈들은 바로 명옥이네 주택들이 있던 곳으로 대렬을 멈춰세웠다. 키꺽다리놈이 지금부터 비행장 닦는 작업을 한다는것을

선포하고 도망치는자가 있을 때는 용서없이 총살한다고 씨부렁대였다. 벌써 숱한 사람들이 놈들의 감시밑에서 일들을 하고있었다. 행길에 한놈이 버티고 서서 간혹 지나가는 행인들을 일터로 몰아넣고 있었다.

땅에는 아직도 땅크의 무한궤도자국이 도장을 찍은듯이 도드라졌다. 명옥은 다섯해를 살아온 자기의 집터가 어딘지 도무지 종잡을수가 없었다. 순돌의 시체가 이 땅속에 파묻혀있겠거니 생각하니 설음이 울컥 치밀어올랐다. 명옥은 울먹울먹 들먹거리는 안타까운 가슴을 누르고 흐르는 눈물을 꿀꺽꿀꺽 삼키며 놈들이 다그치는통에 삽으로 땅을 공구기 시작했다.

이럴즈음 길에 버티고섰던 놈이 마침 지나가는 흰 두루마기를 입은 로인을 불러세웠다.

《령감, 어데로 가는거야.》

로인은 움칠 놀란듯 걸음을 멈추고 그놈을 쳐다보다가 《예, 다리건너로 가오다.》 하였다.

《무슨 용무야?》

《딸집에 가오다.》

《일하고 가—》

《?…》

《일하고 가란 말야.》

《무슨 일 말이오다?》

《왜 뜬소경이야? 잔말말고 저기 들어가 일해.》 하고 놈은 로인의 가슴을 총부리로 꾹꾹 찔렀다. 그래도 늙은이는 쉬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여보 나으리, 이런 법두 있소?》

《무슨 법 말이야?》

감시병놈은 눈알을 부라리였다.

《행인을 붙잡아다 일시키는 법 말이오다.》

《뭣이 어째? 그래 어쨌단 말야! 엉—》

감시병놈의 얼굴에는 살기가 발끈 치밀었다.

《보내달라구 하지 않소다.》 하는 로인의 말이 채 떨어지기 전에

《헹— 너두 빨갱이로구나.》

꽥 소리치며 그놈은 총대로 로인의 아래종아리를 후려갈기였다. 로

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도 대꾸질을 했다.
《어째서 때리는것이오다?》
《빨갱인 죽어두 무관이야. 어서 일이나 해.》
감시병놈은 담배를 피워물고 저쪽으로 가버리였다.
《흥, 벼락맞아 뒈질 간나새끼들!》
놈의 등뒤를 흘겨보는 로인은 이렇게 두덜거리며 종아리를 썩썩 문지르더니 가까스로 일어났다.
아까부터 이 광경을 지키고있던 명옥은 처음에는 자기의 눈을 의심했고 어떤 착각이 아닌가 했다. 그러나 다시 찬찬히 쳐다본 순간 명옥은 그 로인이 틀림없는 최로인인것을 알았다. 명옥의 가슴은 두근거리였다. 반가왔다. 최로인이 놈에게 수모를 당하는것이 분하고 가슴이 아팠다. 감시병놈이 저쪽으로 멀어지자 명옥은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최로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불렀다.
《할아버지.》
저쪽으로 돌아서서 감시병놈을 노리고 서있던 로인은 움칠 놀라 뒤를 돌아다보았다. 그 순간 로인의 거미줄같은 잔주름이 얽힌 얼굴에는 놀라움인지 반가움인지 알수 없는 기색이 휙 떠올랐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다시 감시병놈을 뒤돌아보고 거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순돌 엄마, 어떻게… 된 일이요?》
《류치장에 갇히였댔어요.》
명옥은 울음이 치밀어오르는것을 꾹 참으며 속삭이듯이 말했다.
《어느 류치장 말이요?》
《구성리〈치안대〉야요.》
최로인은 뒤를 돌아다보며 다우쳐물었다.
《철웅이는 어찌 됐소?》
《아직 그대로 있어요.》 하고 대답했으나 차마 명옥은 최동무가 희생됐다는 말은 꺼낼수가 없었다. 그럴 때 마침 저쪽에서 감시병놈이 어슬렁어슬렁 걸어오고있었다. 최로인은 서서히 돌아서면서 입속말같이 중얼대였다.
《순돌 엄마, 철웅이한테 전해주오다. 모두들 잘있다구.》하는데 감시병놈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거기서 뭘하고있어?》

최로인과 명옥은 슬금슬금 떨어지며 일하는척 했다.

그새 그들곁으로 온 감시병놈은 한참 뚜릿뚜릿 눈알을 굴리며 둘을 번갈아보더니 《지금 무슨 말들을 했어?》 하고 최로인을 노려보았다.

최로인은 허리를 쑥 펴며 아까와는 딴판으로 싱글싱글 웃으며 《예, 저 공구가 없어 좀 빌려고 했수다. 예—》 하고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니까 감시병놈은 한참 흘겨보다가 내뱉듯이 뇌까렸다.

《공구는 없어. 손으루다 해.》

《그렇게 하지오다.》

최로인은 다시 손으로 흙덩이를 쪼개기 시작하였다. 명옥은 최로인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진것은 필경 감시병놈을 속여넘기여 자기와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자는 꾀라고 생각했다.

명옥은 줄곧 최로인과 이야기할 기회를 얻으려고 애썼으나 감시병놈이 거마리갈이 옆에 딱 붙어선데다가 나중에는 최로인을 저쪽켠에 몰고가서 일을 시킨탓으로 명옥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말았다.

4

어느덧 어둑어둑 땅거미가 깃들기 시작했다. 허기증이 나는데다가 찬바람이 옷깃에 스며들어 명옥은 으시시 몸이 떨리였다. 밤이 다가와도 놈들은 일을 거두는 눈치라군 보이지를 않았다.

명옥은 낮부터 불쑥불쑥 치밀던? 도망칠수는 없을가— 하는 엉뚱한 생각이 밤을 잡아들면서부터 더 자주 머리속에 피뜩피뜩 떠오르는것이였다. 류치장에서 그대로 썩다가 죽기보다 차라리 도망치다 총에 맞아 죽는편이 낫지 않는가! 도망친다는것은 잘만 되면 살아날수도 있고 만약 살기만 한다면 마음내키는대로 그만큼 원쑤들과 더 보람있게 싸울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나온 때가 다시 없는 기회일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수록 명옥은 감시병놈이 자기의 속심을 빤히 들여다보고 더 바싹 붙어서는것만 같이 느껴졌다. 그러나 명옥은 신경을 바늘끝같이 도사리고 감시병놈의 거동을 주의깊게 살피며 도망할 기회를 노리였다. 휘파람을 불며 지키고섰던 감시병놈이 추워서

인지 자라목같이 모가지를 쑥 움츠리고 망할 놈의 곰보새끼가 왜 나타나지 않느냐고 두덜거리는데 마침 저쪽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가까이 걸어왔다.
《누구야?》
《내야—》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며 어둠속에 나타난 놈은 바로 그 얼금뱅이였다.
《이새끼 또 얼었구나.》
한놈이 볼멘 소리로 뇌까리니 《빨갱이사냥 잘한다구 대장이 한상냈어.》 얼금뱅이는 어깨를 으쓱대며 뽐을 냈다.
《흥, 개새끼. 혼자만 쳐다지구 다녀.》
두덜거리며 한놈은 총대를 질질 끌며 어슬렁어슬렁 길쪽으로 걸어갔다.
《빨랑빨랑 일들을 해라.》
얼금뱅이는 혀꼬부라진 소리로 으르렁거리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거리에서는 알아듣지 못할 미군놈들의 고함소리가 자지러지고 총소리까지 섞이여 한층 소연해졌다.
그런데 별안간 싸이렌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리였다. 그러자 길건너 저편 《치안대》건물이 있는쪽이 노을이 타오르는것 같이 불그스름하게 밝아지더니 이윽고 시뻘건 불기둥이 어둠속에 솟구치며 타올랐다.
《엥이, 또 방화로구나.》
얼금뱅이놈이 넋나간 소리를 치며 길로 굴러올라가서 불붙는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있다.
순식간에 불길은 뾰족한 혀를 빼여물고 밤하늘을 태우며 하늘하늘 뻗어오르고 점점 옆으로 퍼져간다. 거리는 삽시간에 말짱 뒤집히였다. 명옥은 마음속으로 손벽을 치며 부르짖었다.
(모조리 타버려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재가 돼라.)
다음순간 명옥의 머리속에는 딴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명옥은 날카로운 눈으로 주위를 휘휘 둘러보았다. 얼금뱅이놈은 그대로 길가에 뻗쳐 서있고 다른 놈들은 모두 불길에 정신을 팔고있다.
명옥은 쥐였던 삽자루를 땅우에다 슬그머니 내려놓고 슬금슬금 뒤걸음을 쳐서 선자리를 물러났다. 놈들의 거동을 살피며 뒤걸음질치는

명옥은 금시 놈들의 총부리가 자기한테로 돌려질것만 같아서 가슴이 방아를 찧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동안 우물쭈물 망설이였다. 그러나 명옥은 많은 동무들이 죽음터로 나가면서 굴하는 기색 하나없이 꿋꿋이 서슬있게 나가던것을 생각하고 이지러지는 결심을 다우쳐 기운을 내였다. 다음순간 명옥은 그대로 휙 돌아서서 길건너 산둔덕에 있는 집마을을 향해 냅다 달렸다. 얼마간 간 때였다.

《서라, 쏜다!》

뒤에서 얼금뱅이놈의 돼지 멱따는 소리가 아찔하게 들리였다.

《서라, 서라, 쏜다, 쏴.》

련달아 일어나는 총성이 침울한 밤공기를 울리고 등뒤에서 자지러지게 핑핑 총알이 귀뿌리를 스쳐지나갔다. 명옥은 죽을 힘을 내여 내뛰였다. 길을 가로질러 그는 마을속에 들어갔다. 숨이 턱까지 치받쳤다. 그러나 놈들은 명옥의 꼬리를 물고 마을로 들어오고있었다. 발굽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올 때마다 명옥의 눈앞은 아찔아찔했다. 그러나 더는 내뺄 기력이 없었다. 명옥은 길에서 구석진 왼쪽 무너진 돌담밑에 들어가 박히였다. 숨소리를 죽이고 숨어있노라니 이윽고 놈들은 그가 숨어있는 담장앞에 이르렀다. 놈들은 그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근방을 두리번거리는것이였다. 명옥은 날카로운 눈에 신경을 도사리고 되려 놈들의 거동을 살피였다.

이럴 때 바로 뒤쫓아온 놈이 바쁜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아, 뭘하고들 있어? 날따라 와―》

그리고는 놈은 그냥 골목길을 내달았다. 다른 놈들도 그놈의 뒤를 따랐다. 명옥은 후― 모두숨을 내쉬였다. 그는 한참동안 어쩌면 좋을지를 몰라 담밑에 그냥 들어박힌채로 궁리를 짜내였다. 놈들에게서 단 한시각이라도 놓여났다는 기쁨보다도 앞으로 놈들의 철통같이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정순이를 찾아 창인리로 가야 할 앞일의 걱정이 머리를 어지럽게 했다. 한시각도 이곳에 머물러있을수는 없는노릇이였다.

설레는 가슴을 달래며 궁리를 돌리느라니 다급한 가운데서도 문득 언젠가 남편과 함께 해방공원으로 갔던 산길이 생각났다. 그 길로 몇개 산마루턱을 넘으면 창인리에 닿을수 있을것 같았다. 얼마후에 그는 담벽밑으로부터 몸을 일구어 산둔덕을 향해 걸음을 다우쳐대였다. 멀리서 총소리는 여전히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

명옥은 이튿날 새벽무렵에야 겨우 창인리에 다달을수가 있었다. 정순이가 다른 피난민속에 섞이여 은신하고있는 집은 철웅이에게서 들었던지라 대강은 짐작할수 있었으나 그래도 겨우 찾아낼수가 있었다.

(후에 정순에게서 들은것이나 놈들은 피난민들을 모두 조사를 했었다. 정순은 이곳이 낯설은 곳인지라 장사군으로 가장하고 놈들의 눈을 속일수 있었던것이다.)

명옥은 두근두근 뛰는 가슴의 고동을 누르고 조용히 부엌문을 두드리였다.

《뉘기요?》 하고 의외에도 무뚝뚝한 남자의 거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명옥은 가슴이 선뜩했다. (최로인인지도 몰라.) 생각하며 덤덤히 서있노라니 《뉘기요?》 하는 목소리와 함께 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얼굴을 비스듬히 내민것은 어둠속에서도 최로인임을 알수 있었다. 명옥은 반가움이 앞서 언뜻 말이 나가지를 않았다.

《뉘기요?》 하고 최로인이 다시 물어서야 겨우 대답했다.

《저야요, 할아버지.》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최로인은 그제야 명옥인줄 알아차리고 《아니, 순돌 엄마 아니요?》 하면서 손목을 잡고 반갑게 맞아들이였다. 명옥은 집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텅 비고 어수선했다. 가마뚜껑우에 놓여있는 기름등잔의 불이 가물가물하는것이 더 뼈속에 스며드는 쓸쓸함을 자아내였다.

《정순성님은 없어요?》

구들에 올라서 방안을 두리번거리며 명옥이 묻는 말에 최로인은 《어델 나갔소.》 할뿐 딴 말은 하지 않았다. 구들우에 올라가 앉으니 긴장이 풀리는것인지 맥살이 탁 빠지고 한숨이 후유 나갔다. 그러나 다음순간 최동무의 희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것인가?… 하는 생각이 명옥의 마음을 바위돌같이 지지눌렀다.

최로인은 여러가지로 명옥이를 위로하던 끝에 이런 말부터 물었다.

《철웅이는 몸탈이나 없는지?－》

그러나 명옥은 이 말속에 자기의 아들 최동무에 대하여 그 무엇을 물으려는 어버이의 아픈 심정이 섞여있는것을 감촉할수 있었다.

《몸은 건강해요.》 하는 명옥이의 대답으로 둘사이에 이야기가 끊어졌다. 한참동안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 두사람의 가슴을 꽉 내리눌렀다. 최로인은 무엇인지 말하려고 하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그것이 도리여 명옥이에게는 더 괴롭기만 하였다. 이윽고 최로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나서 흘끔 명옥이를 곁눈질해보고 무거운 입을 떼였다.

《우리 애가 못난짓이나 안했소다?》

그 말에는 천근 쇠덩이같이 육중한 무게가 있었다. 명옥은 처음 말머리를 찾지 못해서 우물쭈물하다가 《할아버지, 최동무는 끝까지 잘 싸웠어요.》 하고 말했다.

명옥의 눈앞에는 그날 아침 최동무가 형장으로 끌려나가던 모습이 사물거리였다. 그런데 의외에도 최로인은 《순돌 엄마, 정말이요?》 하고 다짐조로 묻는것이다.

《정말입니다, 할아버지.》 하는 명옥의 확답을 다 듣고서야 최로인은 《그래도 난 걱정했댔소다. 그놈이 미련한 구실이나 안했나 해서…》 하군 긴 한숨을 후— 내쉬였다. 그 한숨은 비관에 잠긴것이 아니라 마음에 웅쳤던 그 무엇이 풀리는 안도의 한숨이였다. 명옥은 가슴속에 뭉클 불덩이같은것이 욱— 치밀어오르고 눈시울이 뜨거워나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산같이 무겁고 침착한 로인의 가슴에도 헤아릴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잦아있을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슬픔과 고통을 누르고 도리여 아들의 떳떳한 최후를 알고 안심하는 최로인— 명옥은 다시 떨구었던 고개를 쳐들고 최로인의 얼굴을 경건한 마음으로 쳐다보았다. 얼마나 거룩한 얼굴인가?… 명옥은 저절로 머리가 수그러졌다.

로인은 전책이나 엮듯이 중얼중얼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이야기했다. 40년을 로동살이로 늙어온 최로인의 이야기의 마디마디는 그대로 조선인민이 걸어온 가시덤불의 길이였다.

《제 나라 없인 살아서 뭘하겠소. 우리는 우리 나라를 지켜야 하오다. 김장군께서두 지금 우리가 당하고있는 고충을 살피시구 무척 상심하구계실게오다. 그리구 원쑤들을 멸살시킬 계책을 꾸미구계실거란 말이오다. 우리는 용서없이 원쑤놈들과 싸워서 장군님의 은혜를 갚읍

시다.》
최로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가슴에 새기며 명옥은 조국이 얼마나 귀중하며 자기들의 모든 행복은 조국의 운명에 달려있다는 진리를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리고 어느곳에나 인민들은 모두 원쑤들을 미워하고 자기들편에 서있다는것을 알았을 때 명옥은 바위처럼 든든해짐을 느꼈다. 명옥은 새로운 투쟁에 나설 자기를 그려보며 정순이를 밤을 새워가며 기다렸으나 끝내 정순은 돌아오지 않았고 최로인은 정순이가 무슨 일로 어데로 나갔다는것만은 알리지 않았다. 명옥은 《정말 정순동무가 나따위것과 함께 일해줄가?…》 하는 걱정이 때때로 가슴을 들추고 불쑥불쑥 머리를 쳐들었다.
기실 정순이는 이날 밤 다른 동무들과 함께 적들의 무기창고를 폭파하는 공작에 참가하고있었던것이다.

5

명옥이가 정순이를 만난것은 그 이튿날 저녁이였다. 로동당원인 정순은 적들이 강점한 그 시각부터 남편과 같이 당의 지시로 지하공작원이 되였던것이다. 그날부터 정순은 적들의 삼엄한 감시속에서 당이 주는 공작을 실행해왔다. 그는 적들의 무기창고를 폭파하는 위험한 공작에도 여러번 참가했었다. 때로는 넘기 어려운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도 용케 넘었다. 남편이 놈들에게 체포되여 구금된 뒤에도 오히려 놈들에게 죽을 고문을 당하고있을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의 적개심은 더욱 불타올랐다.
뜻밖에도 명옥이를 만나게 된 정순은 남편과 같이 류치장에 갇히웠던 사람을 만난 기쁨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같이 일할수 있는 동무 하나를 구했다는 기쁨이 더 컸다. 그래서 그날 정순은 명옥이더러 서슴없이 《순돌 엄마, 우리 같이 일합시다. 우리 힘은 비록 조그마한것이지만 나라를 위해 불씨가 됩시다.》 하고 명옥의 손을 꽉 잡아주었던것이다.
명옥은 정순이가 자기를 믿어주는것이 고맙고 용기가 났다. 그는 어떤 일이든 정순이가 시키는 일이라면 기어코 해야겠다고 속다짐을 했다. 이날부터 정순이가 아지트에 가서 한묶음씩 가져오는 수백장의 삐라가 명옥이와 다른 동무들의 손을 거쳐 거리에 나붙었다. 바다가북

녘에 있는 적들의 의류창고에 누가 방화를 했다던가, 군자교건너에서 보자기속에 수류탄을 넣어가지고 들어오던 한 녀인이 적들에게 붙들리게 되자 수류탄의 심지를 뽑아 자폭하여 곁에 욱실거리던 미군놈들을 죽이고 녀인도 죽었다던가 하는 등의 소문들이 쭉 퍼져갔다. 그런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정순은 《이것엔 동무의 힘두 끼여있소.》 하고 명옥이를 격려해주는것이였다. 그러면 명옥은 겉으로 사양은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기쁘기 짝이 없었다. 명옥은 정순이와 함께 일하게 된 뒤부터 더 산 보람있고 벅찬 투쟁속에서 날을 보내였다. 정순이가 주는 지시를 하나하나 해낼 때마다 그는 순돌이의 원쑤를 하나하나 갚은 폭이 되였고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새에 자신이 생기는것이였다.

시 북쪽 매봉산에 은거한 인민유격대가 최로인을 통하여 정순이와 명옥이가 전한 정보를 받고 창인리를 습격한 그 이튿날이였다. 얼마전부터 구성리《치안대》정문앞에 구두수선점을 차린 최로인이 철웅이를 끝내 총살했다는 정보를 전해왔다. 최로인이 《치안대》앞에 구두수선점을 차린것은 명옥이가 정순이를 만난 얼마뒤였다. 최로인은 구성리에서 멀리 떨어진 상수리에 살았기때문에 구성리놈들은 그를 잘 몰랐던것을 리용하여 적들의 정보를 수집하게 한것이였다.

정순은 남편이 죽었다는 비보를 조용히 맞이했다. 그는 평시와 조금도 다름없이 단정했다.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았다. 눈물을 흘린것은 오히려 명옥이였다. 명옥은 정순의 태연한것이 이상스러워 나지막한 목소리로 가만히 물었다.

《성님, 왜 그러고만 앉아있소?》

《그럼 어찌란 말이요.》

정순은 평시처럼 조용히 말하고 명옥이를 바라보았다.

《그래두…》

하고 명옥이가 눈물섞인 소리를 하니 정순은 혼자소리같이 말하는것이였다.

《난 벌써 그이가 살아나오시리라곤 믿지 않았더랬소.》

명옥은 도리여 얼굴을 붉히였다. 정순은 말을 이었다.

《나도 남편을 무척 사랑했댔소. 그러나 나는 내 남편이 조국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는것이 자랑스럽소. 이러한 불행이 어찌 나뿐이겠소. 조선사람치고 그 누가 이런 설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소.

명옥동무만 해도 그렇지 않소. 우리는 슬픔과 고통을 증오와 복수로 바꿔야 하오. 우리가 당하는 불행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증오와 복수심은 그만큼 강해지는거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나를 더 힘찬 투쟁으로 고무해주오.》

이렇게 말하는 정순이의 얼굴은 상기되고 검은 눈에서는 시퍼런 불찌가 튕겨나오는듯 했다. 그 얼굴을 바라보는 명옥은 저절로 머리가 푹 수그러지는것이였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에 명옥은 정순이의 베개가 축축히 젖은것을 보았을 때 가슴이 갈가리 찢어지는것 같은 아픔을 느끼며 정순이 몰래 눈물을 닦았다.

명옥은 짬만 있으면 정순에게 당에 대해서 물어보군 했다. 그전날 명옥은 남편이 당원이라는 긍지만 있었지 자기가 당원이 된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그러나 명옥은 자기의 투쟁생활에서 당원들이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가를 알았다. 당원이란 말은 곧 이 세상에서 제일 참되고 굳세고 그 누구보다도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세상에서 훌륭한것중에서도 제일 훌륭한것을 모두 가진 사람들이란 말과 같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도 어서 그런 사람이 되고싶었다. 어느날 명옥은 정순에게 조심조심 물었다.

《성님, 어떡하면 당에 들수 있소?》

《당원이 되구싶소?》

《예—》

명옥은 얼굴을 붉히는데 《순돌 엄마생각엔 어떤 사람이 당원이 될상싶소?》 정순이가 되쳐 묻는것이였다.

《내 생각엔 나라를 위해서 원쑤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오.》 하니 정순은 싱긋이 웃으며 《옳소. 그런 사람만이 당원이 될수 있소.》 하였다.

《그럼 아직두 나는 멀었군!》

명옥이가 중얼거리는 말에 정순은 말했다.

《아니요. 명옥동무는 벌써 당원과 다름없소.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를 지도하는 당파견원의 말이요.》

《정말?》

《그럼.》

《나따위가 어떻게?…》

이렇게 명옥은 겸손하였으나 모름지기 정순의 말은 명옥에게 기운

을 북돋아주는것이였다.
(그렇지만 나두 기어코 당원이 되구말테야.)
명옥은 이렇게 속다짐을 했다. 정순은 계속해서 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던 끝에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명옥동무! 동무는 전쟁이 끝나면 뭘 할테요?》
이 갑작스러운 물음에 명옥은 어안이 벙벙해서 말문이 막히였다. 명옥은 지금껏 전쟁이 끝난 뒤 자기 처신에 대하여서는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기껏해야 그저 남편과 만날 기쁨 그것뿐이였다. 명옥이가 언뜻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고있는데 정순은 혼자말같이 입을 떼였다.
《나는 벌써 승리의 그날이 눈앞에 선하오. 나는 요즘 때때로 그전 평화시절의 나의 작업에서 많은 결함이 있은것을 뼈아프게 뉘우치군 한다오. 왜 좀더 열성을 내지 못했을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하지 못한 일도 참 많고 불미한 점도 많았지요. 나는 전쟁이 승리하는 그날부터 지금 마음에 꺼리끼는 일들을 모두 속시원하게 해버릴테요. 인제부터는 조국이 내 남편이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섬기듯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섬길테요.》
정순의 한마디한마디가 명옥의 가슴에 콕콕 박히였다.
(정순이 같은이도 나라를 위해 채 하지 못한 일들이 그렇게 많을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조국을 섬길것인가?… 나는 다만 남편에게 충실했을뿐이 아니였던가?…)
이렇게 명옥은 자기를 자책했다. 명옥은 나지막하나 힘이 배인 목소리로 말했다.
《성님, 나도 공장에 들어갈테야요.》
《참 좋은 생각을 했소. 순돌 엄마— 머리가 셀 때까지 나라를 위해 우리 같이 일합시다. 옳은 일을 할 때 사람은 제일 행복하고 옳은 생각을 하는거요.》
명옥은 이날부터 남편과 더불어 기대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그리며 흐뭇한 행복속에 잠기군 하였다.
지금도 혼자 집에 앉아 정순이에게 얻은 당강령, 규약을 읽고있노라니 지하당본부로 갔던 정순이가 돌아왔다. 이날따라 류달리 정순이는 서성거리였다. 그는 구들우에 올라서자 《순돌 엄마… 우리 아부님한테 갔다와야겠소.》 하고 빛나는 눈을 치떠 명옥의 얼굴을 말끔

히 쳐다보는것이였다. 명옥은 대답대신에 움쭉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다. 명옥은 언제나 거리로 공작하러 나갈 때면 중년부인의 차림을 하는것이였다.

옷차림을 다 하고난 명옥이를 훑어보던 정순은 《순돌 엄마두 이젠 늙었소.》 하고 롱을 걸며 생긋이 웃어보였다.

《그래요.》

명옥은 따가와지는 볼을 문질렀다.

《그럼 부탁하오.》

정순은 명옥의 손을 잡았다.

《념려마오, 성님.》

명옥은 자신이 있다는듯이 벙긋이 웃어보이고 밖으로 나섰다.

놈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요리조리 피하며 명옥은 구성리《치안대》가 먼발치로 바라다보이는 골목에 와서 머물러섰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로 사위를 한번 찬찬히 돌아다보고는 다시 《치안대》정문 한쪽가에 있는 판장으로 우그린 허수룩한 최로인의 구두수선점에 시선을 던지였다. 돋보기를 코등에 건 최로인은 안에서 구두를 깁고있고 그앞에 흰 완장을 낀 《치안대》원 두놈이 앉아서 무엇인지 지껄이고있다. 한참동안 그 광경을 지키고 서있는데 저쪽켠에서 바로 그 미군, 애꾸눈이 무엇인가 부질부질 씹으며 이쪽으로 걸어오고있었다. 명옥은 그놈을 보자 휙 돌아서서 저쪽으로 도로 걸어갔다. 애꾸눈은 명옥이를 발견하지 못한양으로 골목앞을 스쳐지나고말았다. 명옥은 다시 그 자리에 되돌아와서 최로인의 구두방을 지키고 서있었다.

한편 최로인은 묵묵히 앉아 구두를 기우면서 앞에 앉아 시시닥거리는 놈들의 말에 귀를 솔깃했다. 한놈은 얼금뱅이고 한놈은 조개턱이였다.

《야, 대장이 장로 딸과 어쩐다능기 정말야?》

조개턱이 얼금뱅이더러 속삭이듯 물었다.

《정말이다.》

얼금뱅이가 씨부렁댔다.

《언제?》

《래번 공일 례배당에서 식을 올린대.》

《허—〈해방〉덕은 대장이 혼자 독차지했구나.》

《그따위 식은소린 닥쳐.》 하고 얼금뱅이는 상판을 돌려 최로인에게 말을 걸었다.

《아직 멀었어?》

《예, 다 된것 같수다.》

로인은 혼자소리같이 대꾸를 하면서 금방 다 기운 구두를 내주었다. 얼금뱅이는 구두를 받아들고 깐깐하게 살피더니 트집을 걸었다.

《여긴 왜 이렇게 기웠어?》

《어디 말이오다?》

《여기 말야.》

하고 놈은 기운 자리를 가리키며 뇌까리였다. 최로인은 어쩔줄 모르고 덤덤히 앉아만 있는데 놈은 《돈은 래일 받어.》 하고는 신을 신고 《치안대》사무실로 들어가버리였다. 최로인은 쯧쯧 혀를 차고 조개턱에게 물었다.

《나리님은 무스기오다?》

《구두약 칠해줘.》

하며 조개턱은 신을 신은채 다리를 로인앞에 내밀었다.

최로인은 군소리 한마디없이 구두솔에다 약을 묻혀 구두를 닦으며 말을 걸었다.

《참, 경사가 났군. 나으리, 참 색시는 잘났소다?》

조개턱은 최로인의 물음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실은 다리뱅이야.》 하고는 곁을 흘깃흘깃 경계하면서 대장 김치부가 장로의 딸과 결혼하는것은 미군놈들이 가장 신임하는 앞잡이인 장로를 꾀여 출세를 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떠벌이였다. 로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날은 굉장하겠소다.》 하니 놈은 《암, 이 거리가 말짱 뒤집힐거야.》 하였다. 그리고 놈은 힐끔 최로인을 훔쳐보며 《령감두 톡톡히 선물을 해야 해. 그건 나를 통해 하란 말이야. 내 대장한테 잘 반영시켜 돈벌게 해줄테니.》 하는 말에 최로인은 갑자기 엄살을 떨며 《아무렴, 더 말 있소다.》 하고 헤벌쭉이 웃어보였다.

최로인은 잠간 잠자코 있다가 다시 말을 걸었다.

《참, 나으리.》

《뭐야?》

《어제 밤 덕산골에서 철도의 빨갱이들을 처치했다는게 사실이오다?》

돋보기밑에 최로인의 눈은 갑자기 날카로운 빛을 띠였다.
《어 ─ 그건 왜 물어?》
조개턱은 최로인을 쳐다보았다.
《글쎄 그런 끔찍한 일이 어데 있소. 기관차를 폭발시켰다니.》 하고 최로인은 자못 분격에 넘친 어조로 말하니 조개턱은 《그러기 모두 지옥으로 보낸거야.》 하고 움쭉 일어나서 그냥 저쪽으로 가버렸다. 잠시동안 점방앞이 즘즘해졌다. 최로인은 한번 밖을 살피고나서 조그마한 종이에다 무엇을 적어서 콩알만큼 돌돌 말아 꼬기더니 구두속에 집어넣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섰던 명옥은 점방앞에서 놈들이 물러가자 주위를 경계하며 재빠른 걸음으로 점방앞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최로인은 구두를 두루두루 어루만지는척 하다가 앞에 와서 앉은 명옥이에게 종이를 말아넣은 구두를 내주며 소곤거리였다.
《치부가 들어올 때가 됐소. 어서 가시오.》
명옥은 최로인이 내주는 구두를 받아가지고 그앞을 물러났다. 마침 명옥이가 골목에 들어서려는데 저쪽에서 치부란 놈이 미군놈들하고 떠들어대며 이쪽으로 오고있었다. 명옥은 움칠해서 발꿈치를 돌리여 반대쪽골목으로 내빼였다. 그러나 치부는 미군놈들과 시시덕거리느라 명옥이를 알아보지 못한 모양이였다.
명옥이가 구두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순은 밤에 내다붙일 삐라를 쓰고있었다. 명옥은 정순에게 구두를 내주었다. 정순은 다급히 구두속을 털었다. 콩알만 한 종이뭉치가 또르르 굴러나왔다. 정순은 그것을 차근차근 펼치여 가만가만 읽었다.
《1. 어제 철도동무들 60명 학살됨. 2. 오는 공일 김치부 잔치함. 장로 딸과 례배당에서. 3. 치안대정문앞 기관총 다른데로 옮겨갔음. 4. 어제 밤중에 미국군대가 장진방면으로 떠났음.》
다 읽고난 정순은 상기한 얼굴로 명옥이를 바라보다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움쭉 일어났다.
《어데 갈라우?》
《예, 좀 다녀와야겠소.》
대답하는 정순은 자기가 아지트로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명옥 역시 더 캐여묻지 않았다. 그것이 이제 와서는 두사람사이에 하나의

버릇으로 되여버린것이였다. 명옥은 정순이가 자기에게 자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리유를 모르는바가 아니여서 그는 《비밀은 생명이니까… 나도 정순이같이 싸워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것이였다. 정순은 명옥이가 벗어섬기는 옷을 주섬주섬 주어입고 사과함지를 이고 밖으로 나갔다.

《성님, 조심하우.》

《걱정마오.》

하고 걸음을 다우쳐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정순이를 바래며 명옥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번엔 어떤 지시를 가지고오려나?》

6

밤이 검은 나래를 펼쳤다. 하늘은 먹장같이 흐리고 별 하나 깜박이지 않았다. 코를 베여가도 모를 칠칠야밤이다. 거리는 여전히 소연했으나 며칠전부터 거리에 이변이 생겼다. 며칠밤사이로 미군놈들과 리승만졸개들의 수자가 푹 줄어들었다. 포차와 땅크의 대렬이 꼬리를 맞물고 북으로북으로 들어갔다. 한편 놈들은 인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다가 구성리뒤에 병풍같이 솟은 산꼭대기에다 전호를 파게 했다. 그리고 대포를 끌어올리느라고 야단을 쳤다. 그것도 그러할것이 때마침 장진방면에서 정비를 완료한 인민군과 중국인민들이 보낸 중국인민지원군부대들의 협동작전으로 적을 일격에 섬멸할 대포위진을 펼치고 방금 포위망을 압착하고있었던것이였다. 그러나 거리에는 아직도 놈들이 남아있고 행패질은 더 혹심했다.

욕설, 노성, 주정질, 개싸움질… 강간, 략탈, 총성, 비명 등등이 범벅이 되여 밤거리를 휩쓸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례배당에선 찬송가소리가 높았다낮았다 길게 여운을 끌며 어둠을 헤치고 거리의 소음에 호응하듯 들려왔다.

이럴즈음 바로 《치안대》 뒤마당에 있는 김치부의 집에서는 치부의 결혼식 피로연이 한창 질어가는양으로 새장구소리, 노래소리, 취성과 간들거리는 녀자들의 웃음소리와 놈들의 음탕한 소리가 자지러졌다. 안에서 춤추고 돌아가는 놈들의 그림자가 창문에 얼른거린다. 허리대가 껑충하고 팔이 길죽한 그림자는 분명 미군들이였다. 그러나

마당 저편구석에 치우쳐있는 당원들의 가족들이 갇히운 창고에서는 인기척 하나 나지 않았다. 이럴즈음 례배당 뒤산 관목이 우거진 언덕에서 별같이 빛나는 눈들이 바로 놈들의 그림자가 얼른거리고있는 창을 지키고있는줄은 그 누가 알았으랴.

모두 다섯사람이다. 관목뒤에 몸을 숨기고 땅에 배를 딱 붙인 그들은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불타는 눈들만이 어둠을 찌르고 그 창을 노려볼뿐이였다. 그들은 다름아닌 정순, 명옥, 최로인 그리고 당에서 파견된 젊은 남동무 두사람이였다.

전일 정순의 정보를 받은 지하당본부는 방대한 공작을 계획했었다. 김치부가 장가드는 날 밤을 기하여 치안대를 습격방화하고 적들의 혼란을 리용하여 창고에 갇히운 당원가족들을 해방시키며 이 습격을 신호로 거리에 산재한 놈들의 무기창고들을 폭파방화할것과 이 공작과 같은 시각에 매봉에 은거한 유격대들은 시내로부터 15리 동쪽에 상거한 적들의 소부대가 주둔하고있는 운동리를 습격할것이였다. 당은 이 공작을 위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지하에 거미줄같이 늘어진 매개 아지트들에는 해당한 임무들이 물샐틈없이 시달되였다. 이 중대한 공작을 앞두고 전지하조직은 고도의 긴장성을 띠고 움직이였다.

명옥은 최로인과 함께 치부네 놀음판을 부실것! 정순은 젊은 로동자동무들을 데리고 창고에 갇히워있는 당원가족들을 해방할 과업을 맡았다. 공작이 끝난 뒤에는 전원 산발을 타고 유격대의 은거지인 매봉산으로 들어오라는 당의 지시였다. 당에서 지하당원들을 부른것은 우리 인민군대의 새로운 진격과 더불어 대규모적인 유격전을 전개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들을 강구하기 위해서였다.

명옥이는 정순이를 통해 이 어려운 과업이 맡겨졌을 때 (내가 해낼가?… 망치면 어쩌나?…) 하는 불안에 사로잡혔었다. 그래서 꽤 해낼만 하냐고 정순이가 물었을 때 명옥은 어색하게 웃어뵈였을뿐이였다. 그러나 정순이에게서 지하당책임자동무가 (명옥은 아직 그가 누군지 몰랐었다.) 자기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있으며 지금까지의 공작성과에 대하여 높이 찬양했다는 말을 전해들었을 때 명옥은 저절로 기운이 솟고 이만한 과업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명옥은 투지가 빛나는 눈으로 정순이를 마주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다.

《성님, 기어코 해내고야말테요.》
명옥은 자기에게 서슴없이 이런 무거운 공작을 맡기는 자기에 대한 당의 신뢰에 대하여 엄숙해지고 한편 자기가 자랑스러웠다.
최로인은 동무들이 굳이 말리는것을 뿌리치고 참가했다. 그는 말했다.
《나도 내 아들의 원쑤를 갚겠소. 왜?… 나를 믿지 못해 그러우다? 그건 념려할것 없소다. 나도 당신들보다 못하지 않을테니.》라고.
더우기 최로인은 낮에 선물(닭 두마리였다.)을 가지고 치부를 찾아 들어가서 《치안대》내부의 자상한 정형을 낱낱이 탐지해서 오늘 밤 공작준비에 막대한 도움을 준터이라 공작엔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나섰던것이였다.
그러나 명옥은 낮부터 자꾸 마음이 뒤숭숭 뒤설레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물론 적들과 만나 싸우는것이 첫번은 아니면서도 이슥고 밤이 오면 그 미운 치부놈을 죽인다는 흥분에 그의 가슴은 두근거리였다. 온종일 그는 속절없이 안팎을 드나들었고 구들과 부엌을 오르내리며 이것저것을 공손질하며 부산하게 서성거리였다. 짧은 하루해가 한해같이 지루했다.
그런데 정순은 여느때와 다름없었다. 낯색 하나 변함없이 조용히 앉아 옷을 깁고있었다. 정순의 침착한 눈초리가 자주 명옥의 흥분에 상기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조용히 묻는것이였다.
《순돌 엄마! 어데 아프오!》
《아-니요.》 하고 명옥은 의아스러운 눈으로 정순을 보며 되물었다.
《왜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했으니 말요.》
《그래요?》
명옥은 얼굴을 문지르며 변명하듯 《아무데도 아픈덴 없소.》 하고 빙긋이 웃어보였다. 정순도 조용히 웃었다. 명옥은 그뒤부터 침착해지려고 무던히 애썼으나 떠미는 흥분은 그의 몸을 감싸고 놓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 놈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있는 창을 노려보는 명옥은 자기도 의아스러울만큼 가슴의 고동이 잠잠히 갈앉고 조용했다. 다

만 그는 방금 벌어질 광경? 저 창으로 던진 수류탄이 날아들어가자 그것이 천지를 뒤흔들고 작렬함과 동시에 놈들이 아우성치며 죽어나자빠질것이고 정순이가 열어놓은 창고에서 동무들이 쓸어나오고 쾅쾅 이곳저곳에서 유격대동무들이 폭발시킨 무기창고가 하늘로 날아올라가고 충천하는 불길이 밤하늘을 태우고? 이런 광경이 한폭의 그림이 되여 눈앞에 떠올라 통쾌했다.

명옥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슬며시 곁에 있는 정순이를 보았다. 정순이 역시 창을 쏘아보고있었다.

례배당의 찬송가소리는 한결 높아지고 놀음판은 한층 짙어가는듯 하다. 이윽고 정순이가 성큼 일어나서 앞으로 조심스럽게 걸어나갔다. 다른 동무들도 뒤를 따랐다. 정순은 그들의 앞길을 막은 가시줄을 재빨리 뻰찌로 소리없이 한줄한줄 끊었다.

《명옥동무! 시작합시다.》 하는 정순이의 나지막한 말에 명옥은 대답대신 고개짓을 해보였다. 정순은 명옥의 손을 덥석 틀어쥐였다. 명옥은 정순의 손이 이밤따라 류달리 투박하고 불같이 뜨거운것 같았다. 얼굴은 확실히 보이지 않았으나 빛나는 눈과 눈은 어둠을 찌르고 부딪쳤다.

명옥은 자기의 손을 잡은 정순이의 손을 통하여 전날 류치장에서 수천마디의 말보다도 그의 가슴에다 희망과 투쟁의 불길을 솟구치게 하던 철웅의 뜨거운 손길을 느끼였다.

정순은 다급히 돌아서서 가시철안으로 들어갔다. 다른 두 동무가 그의 뒤를 따랐다. 어둠은 례배당뒤켠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삼켜버렸다. 명옥은 그 어둠속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성님! 성공을 비오.》

7

《할아버지, 우리도 내려갑시다.》

명옥은 최로인에게 속삭였다. 최로인은 대답대신에 고개를 끄덕였다. 두사람은 발끝을 더듬으며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소리를 내지 말자고 주의할수록 숨소리마저 더 커지는것 같았다.

놈들의 노래소리와 웃음소리가 높아질 때를 틈타 크게 걸음을 옮겨놓다가도 무슨 소리가 나고 어데서 총부리가 쑥 내밀것만 같아 엉거

주춤하는 걸음이 조심스러워지군 했다.
50메터도 못되는 그 언덕이 몇백리길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명옥은 나무그루턱에 걸어채웠다. 앗! 앞으로 미끄러지려는것을 겨우 몸을 추켜세우며 번디디였다. 그러자 흙무더기가 부시시 소리내며 무너져 아래로 미끄러져내려갔다.
《누구야?》
별안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둠을 찔렀다.
(들켰나?)
두사람은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멈춰서 웅크리였다. 건너편 아래쪽 바로 치부네 집 창앞에서 전지불이 펀뜩 켜졌다. 그 불빛이 그들이 숨은 언덕을 이리저리 비쳐대였다. 명옥은 앞의 풀을 헤치고 그 불빛을 흘겨보았다. 순간 (들키면?…수류탄을!) 하는 의문과 대답이 퍼뜩 머리속을 스쳤다. 그는 옆구리에 찬 수류탄을 꽉 틀어쥐였다.
《누구야!》
또다시 고함소리가 어둠을 찔렀다. 숨이 지는듯 한 긴장한 순간이 흘렀다.
그러나 전지불은 이내 꺼지고 어둠만이 한겹 더 진해졌다. 명옥의 귀에 등뒤에 선 최로인의 가쁜 숨소리가 들리였다. 명옥은 자기의 숨소리도 그렇게 높은것만 같아서 손으로 코를 막았다. 그러면서도 정수틀리기만 하면 창을 향해 수류탄을 냅다 던질 작정을 했다.
그런데 저쪽에서 저벅저벅 발자국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와졌다.
명옥은 옷소매를 꾸겨쥐고 어둠속을 노려보았다. 걸음소리는 문뜩 끊어졌다. 말소리가 났다.
《어이, 있나?》
《누구야.》
《나야!》
《이자식 왜 이제야 와!》
《미안하네! 어 취한다. 너두 빨리 가 나팔을 불어!》
《엥이, 곰보새끼!》
다시 말소리는 중단되고 발자국소리가 나고 그 소리는 저쪽으로 점점 멀어져갔다. 명옥이와 최령감은 어둠속에서 얼굴을 마주보았다.

명옥은 잔등이 축축한것을 느끼였다. 진땀이 등골에 흐른것이였다. 그러나 《곰보》라는 말에 명옥은 밸굽이 울컥 동했다. 명옥의 눈앞엔 콩마당질한것처럼 숭숭 얽은 얼금뱅이의 험상궂은 상판이 휙 떠올랐다.

명옥은 주먹을 부르쥐였다.

어느덧 례배당의 찬송가가 뚝 멎었다. 그러자 김치부네 집에서 흘러나오는 놈들의 흥청거리는 소리만이 한결 높아졌다.

(파할 시간이 되였나?)

흘끔 례배당쪽에 시선을 던지고 명옥은 빨리 서둘러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례배당에서 사람들이 쏟아져나오는 시간과 치부네 집을 습격하는 시간 그리고 정순이가 창고의 사람들을 석방하는 시간이 딱 맞아떨어져야 할것이였다. 그래야만 공작원들과 또 창고에서 풀려나온 사람들이 적들의 혼란된 틈을 타서 례배당에서 쏟아져나오는 사람들속에 섞이여 적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수 있고 빠져나오기도 쉬울것이였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였다. 명옥이와 최로인은 다시 언덕을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지뢰원에나 들어선것처럼 발끝으로 언덕을 더듬으며…

겨우 언덕을 다 내려선 그들은 언덕밑에 파져있는 도랑에 몸을 숨기고 앞을 살피였다. 먹장같은 어둠이 앞에 맞설뿐이다. 다만 치부네 창만이 불빛이 훤했다.

얼마후 명옥이와 최로인은 도랑에서 기여나왔다. 명옥은 한치한치 땅을 주름잡듯 배밀이로 창있는쪽으로 기였다. 약 20메터가량 긴 다음 앞을 살피니 저만큼 앞에서 코고는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

(옳지, 놈이 잠이 들었구나.) 하는 추측과 함께 명옥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속도를 빨리하여 기였다. 앞으로 나갈수록 코고는 소리는 점점 똑똑히 들려왔다.

명옥은 슬며시 일어나 슬금슬금 걷기 시작했다. 몇발자국 못 가서 발끝에 무엇이 걷어채웠다. 명옥은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발끝에 채운것은 깡통인듯 뎅그렁 소리를 내며 딩굴었다. 명옥은 핫!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다급히 엎디였다. 코고는 소리가 문득 멎었다. 순간 명옥은 전신이 오싹 가드러드는것을 느끼였다. 그는 옆구리에 찬 수류탄을 뿌릴 태세로 앞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얼씬거리지 않았다. 잠시후 다시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명

옥은 최로인을 돌아다보았다. 최로인은 땅바닥에 웅크린채 잠잠했다. 명옥은 다시 기운을 내여 한치한치 배를 밀어 코고는 소리가 나는데로 다가갔다. 어둠속을 노려보는 명옥의 눈에 무엇인지 거뭇한것이 비치였다. 눈신경을 도사려 찬찬히 어둠속을 더듬어보니 바로 저만큼 앞에 보초놈이 땅바닥에 총을 짚고 앉아 건들건들 끄덕거리고있었다. 명옥은 불현듯 가슴에 솟구쳐오르는 적개심으로 하여 전신이 화끈거리였다. 그 괘씸한 원쑤— 얼금뱅이가 바로 눈앞에 있지 않는가!

(저놈을 어찌 죽이면 좋담!) 명옥은 이를 부드득 갈았다. 그러나 다음순간 명옥은 서뿔리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자기를 자책했다. 명옥은 낮에 정순이가 일러주던 말을 상기했다.

(보초가 잘 때에는 그놈을 건드려서는 안되오. 가만히 빠져들어가오. 동무의 공작임무는 보초를 죽이는것이 아니라 치부를 죽이는것이니까!)

그러나 보초한테 발각되였을 때는 그놈을 재빠르게 소리나지 않게 처리하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놈이 자꾸 땅으로 내려박히는 대가리를 용수철같이 번쩍 쳐들었다. 명옥이와 최로인은 가슴이 철렁했다. 둘이 숨소리를 죽이고있노라니 놈은 입을 쩝쩝 다시고 다시 건들거리기 시작했다.

바로 둘이 놈의 곁에 이르렀을 때 최로인이 놈한테 덤벼들려고 하였다. 명옥은 최로인의 옷을 잡아채여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만류했다. 그런 참에 놈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잠을 깨고만것이였다. 놈은 아무것도 모르고 두리번두리번 먼곳을 살피였다.

이럴 때 최로인은 인제는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놈이 소리치기 전에 처치하는것이 상책이라고 마음먹었다. 최로인은 범같이 벌떡 몸을 솟구어 일어나서 놈의 모가지를 그러안고 죄이였다. 늙었어도 옛날에 공장에서 단련된 힘이라 여간치 않았다.

《으흠—》

놈은 나지막한 신음소리를 내였다.

명옥에겐 그 소리가 산이 무너지는 소리같이 크게 들리여 몸서리가 쳐졌다. 금방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놈들이 덤벼들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명옥의 환각이였다. 아무도 얼금뱅이의 비명을 듣지 못했고 잠간 기다려야 별일 없었다. 선불을 맞은 얼금뱅이는 사지를 허우

적거리며 모대기였다. 명옥이는 놈에게 달려들었다. 버둥거리는 다리를 꾹 눌렀다. 생각 같아선 놈의 모가지에다 칼을 박고싶었으나 칼은 마침 없었다.

이럴 때에 치부네 창이 활짝 열리였다. 핫 하고 명옥이와 최로인은 놈을 짓누른채로 웅크리였다. 갑자기 안에서 떠들어대는 소리가 휑 밖으로 흘러나왔다.

(저놈들이 나오면 어쩌나?… 빨리 서두르자.)

명옥은 초조해졌다. 그런데 한놈이 열린 창으로 머리를 쑥 내밀고 퉈퉈 침을 뱉곤 다시 창을 꽉 닫아버리였다. 두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이윽고 얼금뱅이놈은 숨을 꿀꺽 들여긋고 얼마간 돌멩이에 맞은 지렁이처럼 후비적거리다가 그대로 간간해졌다. 명옥은 방소제를 할 때처럼 가슴이 시원했다. 최로인은 죽은 놈의 대갈통을 발길로 냅다찼다. 명옥은 놈의 총을 주어들었다.

례배당이 파한양으로 언덕쪽에서 말소리가 중얼중얼 들려왔다.

(때는 왔다.)

두사람은 약속이나 한듯이 수류탄을 꺼내들었다. 이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높았다. 창문과의 거리는 불과 10메터를 넘지 못했다.

언덕에서 중얼중얼 들려오는 말소리가 한층 높았다. 명옥이와 최로인은 바싹 김치부네 창밑에 붙었다. 명옥은 정순이한테 배운대로 수류탄의 안전고리를 뽑아 창으로 들여던졌다.

(이놈들아! 가고싶은 천당으로 가거라.) 최로인도 잇달아 들여뜨렸다. 안에서 으악소리가 나는것을 등뒤에 들으며 둘은 언덕을 향해 달려올라갔다.

그런데 이상하다. 수류탄이 터지는 폭음이 나지 않는다. 두사람은 걸음을 멈추었다.

(불발?…)

명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불발이면 어찌할것인가?…

이때였다. 섬광이 펀뜻펀뜻 어둠속을 찌르고지나자 쾅쾅 땅이 꺼질듯 한 요란스러운 폭음이 일어나고 잇달아 비명과 아우성이 자지러지고 언덕우에서도 넋나간 고함소리가 소란스럽게 들려왔다.

(됐다, 됐다. 성공이다.)

명옥은 발을 구르며 기뻐했다. 창에 불길이 달아오르고있었다.

《이놈들이 박살이 났겠지.》
최로인은 턱없이 큰소리로 말했다.
《쉬—》
최로인의 말을 제지했으나 명옥은 통쾌했다. 덮어놓고 통쾌했다.
《자, 어서 산으로 오릅시다.》
둘은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꽝! 꽝!
섬광과 함께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이 일어나자 창고를 지키고있던 감시병놈들은 혼비백산해서 땅바닥에 엎드렸다. 저쪽 한모퉁이에서 놈들의 거동을 지키고있던 정순이를 비롯한 두 동무는 불쑥 몸을 솟구고 일어났다.
두 동무는 땅바닥에 까투리처럼 대가리를 박고있는 놈들에게 쏜살같이 달려가서 놈들의 목을 비틀어죽였다. 그리고 총을 빼앗아가졌다. 그동안에 정순은 창고문에 밖으로부터 가로질러있는 각재를 빼내고 다급히 문을 열고 나지막하게 그러나 힘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동무들! 어서 달아나시오.》
그러나 안의 사람들은 서뿔리 서둘지 않았다. 얼굴은 알아볼수 없으나 분명 그들은 영문을 몰라 망설이는것 같았다. 정순은 다시 다우쳤다.
《동무들! 우리는 유격대입니다. 빨리 도망치오. 뒤산으로 해서 빨리!》
그러자 안의 사람들은 문으로 쓸어나왔다.
《동무들! 우리두 피합시다.》
정순은 곁에 서있는 동무들을 달구치여 언덕을 향해 달리였다. 저쪽마당쪽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콩볶듯 일어나고 놈들의 고래고래 지르는 고함소리가 요란했다.
《빨리 도망가오다.》 하고 최로인이 다그쳐서야 명옥은 불길이 타오르는 치부네 집에서 얼굴을 돌리였다.
그들은 언덕을 올라갔다. 언덕 저쪽켠에 눈길을 돌리니 거뭇거뭇한 그림자들이 얼핏얼핏 지나쳤다.
(옳지. 정순동무도 성공이다.)
짐작하고 명옥은 걸음을 다그쳐대였다. 최로인은 숨에 받쳐 헤벌떡

거리였다.
이윽고 아래쪽에서 총성이 자지러지고 왁자지껄 놈들이 떠들어대는 고함소리와 달음박질소리가 들리였다. 금방 그림자들이 지나간 언덕 아래쪽에서 놈들이 총을 쏘며 그 그림자들을 따르고있는것이 보였다. 명옥은 하나만 남은 수류탄을 끌러 안전고리를 뽑고 있는 힘을 다하여 내던지고 엎드렸다. 그러나 수류탄은 놈들한테 채 못 닿아서 터졌다. 그래도 비명이 일어났다. 명옥이네 머리우에도 파편이 쫑 날아서 지나갔다. 그다음엔 몇놈이 이쪽으로 굴러왔다. 명옥은 최로인의 손을 잡아끌며 언덕에 올라섰다. 언덕에서는 선불에 맞은 례배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쩔줄 모르고 어둠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우?》
《누가 아우!》
그들은 넋나간 소리로 이렇게 지껄이였다. 이럴 때에 또 거리의 이곳저곳에서 《꾸앙꾸앙…》 벼락이 치는듯 한 폭음이 울리고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솟구쳐올랐다. 이바람에 언덕우 례배당군들은 혼비백산해 어쩔줄 몰랐다. 아래쪽에서 놈들이 달려올라오고있었다. 팽팽 총알이 날아올라왔다. 명옥은 최로인의 손목을 끌고 아까 그림자들이 올라가던쪽과는 반대쪽언덕으로 내려굴렀다.
례배당군들은 모두 아우성을 치며 명옥이와 최로인이 달려간 뒤를 따랐다. 모두 넘어지며 자빠지며 언덕을 내려갔다.
명옥은 얼마간 내려오다 왼쪽숲으로 빠져 옆으로 달음쳤다. 그런줄 모르고 례배당에서 나온축들은 곧추 언덕을 굴러내려갔다.
《이놈들아, 서라, 쏜다.》
놈들이 지르는 고함소리가 등뒤에서 들리였다. 그러자 총성이 터지고 례배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내려간쪽에서 비명과 울음소리와 아우성소리가 뒤범벅이 되여 들려왔다.
명옥이와 최로인은 넘어지며 자빠지며 관목숲을 헤치고 놈들쪽에서 점점 멀어져갔다.
《숨 좀 돌리우.》
최로인이 뒤에서 씨근덕대며 명옥의 손에 박힌 손목을 채였다.
《안됩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명옥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주먹으로 문지르며 다우쳐대였다.

문득 옆 숲속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인기척이 났다.
명옥이와 최로인은 움칠 놀라 그 자리에 몸을 숨기였다. 청각을 바늘끝같이 사리고 인기척이 난쪽을 살피였다.
(?…)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나지막하나 락엽을 밟는 발자국소리가 가까와졌다. 명옥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총의 방아쇠에 손을 걸었다. 이윽고 거뭇거뭇한것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명옥은 숨을 죽이고 어둠속을 더듬어보았다. 그림자는 점점 그앞에 다가왔다. 순간 명옥은 《앗.》 하고 소리가 나가려는것을 놀라 손으로 막았다.
《성님!》
명옥은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불렀다.
앞으로 다가오던 그림자들은 멈춰섰다. 한순간 숲속은 잠잠했다.
《성님!》 하고 부르며 명옥은 그 그림자앞으로 달려갔다. 그제야 《순돌 엄마!》 하는 정순이의 낮은 목소리가 가늘게 났다.
《성님!》
명옥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순돌 엄마!》
정순이의 말소리도 가늘게 떨리였다. 둘은 화끈화끈 달은 손과 손을 굳게 마주잡았다.
《빨리 숲을 빠져 신흥리쪽으로 나가서 산줄기를 탑시다.》 하고 정순은 앞장에 서서 걸음을 다우쳤다. 동무들은 뒤를 따랐다. 여전히 총소리는 콩볶듯 들려왔다. 거리는 말짱 뒤집힌듯 소란했다. 충천하는 화광이 노을같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그들이 얼마후 관목숲을 나와 신흥리로 내려가는 고개길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웅동리쪽에서 먼 총소리가 콩볶듯 들려왔다. 그 총소리는 분명히 유격대동무들이 웅동리를 습격하는 총성이였다.
명옥은 목놓아 부르짖고싶은 충동을 지그시 누르고 마음속으로 웨쳤다.
《동무들! 원쑤들을 모조리 죽여주오, 씨도 남지 않게!》
어느덧 흐린 하늘에 눈송이가 꽃잎처럼 흩날렸다. 첫눈이였다. 눈송이는 명옥의 상기한 얼굴에도 한잎두잎 내려앉았다. 명옥은 덮어놓고 유쾌하고 기뻤다. 어떤 희한한 소식이 첫눈처럼 소리없이 북쪽으

로부터 훨훨 날아오고있는것만 같았다. 원쑤들의 더러운 발자국을 이 땅에서 씻어버리려는듯이 첫눈은 펑펑 쏟아져내리였다. 그 눈을 밟고 착하고 용감한 그리운 사람들은 이곳에 닿으리라.

불현듯 명옥의 눈앞에는 남편의 얼굴과 함께 수풀처럼 솟은 굴뚝, 하늘을 덮는 연기, 웃음이 넘쳐흐르는 거리 그리고 기대앞에 선 자기의 모습이 방불히 떠올랐다.

《그날은 눈앞에 있다. 승리의 날은!》

명옥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는 불덩이같이 달은 얼굴을 들어 하염없이 내리는 눈송이를 받으며 총탁을 든든히 쥐고 힘차게 걸음을 옮기였다.

새 투쟁생활이 기다리고있는 매봉산을 향하여…

1952. 5. 24.

나팔수의 공훈

윤 시 철

D시가 공략전이 한창 고조일 때 나팔수 기호의 중대는 적후로 차단의 임무를 받고 야간의 강행군으로 적진을 멀리 우회하여 D시가후면에 진출했다.

아군부대의 강력한 주력은 D시가정면과 좌우익측을 한걸음한걸음 제압해들어갔다. 적후로 차단의 임무를 맡은 구분대의 병력과 화력은 정면의 공격부대들보다는 비할바없이 적었다.

일대 포위섬멸전으로 급변된 전투정황이 적후에까지 큰 병력을 투입하게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전투원들의 사기는 산이라도 허물어뜨릴 기세였다. 밤사이에 100리의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온 그들은 한명의 적도 놓칠세라 서로 다짐하고 맹세를 가다듬고 하였다.

서울을 해방하고 수원전투를 지나온 그들에게는 거칠것 없는 용기만이 솟음쳐올랐다.

D시후면을 련결하는 공로로서는 호남방면으로 나가는 공주가도와 대구방면으로 빠지는 금산가도가 있었다. 그러나 금강을 도하한 아군부대가 공주와 론산을 점거하고있는 형편에서 적이 빠져나갈수 있는 길은 오직 금산가도가 있을뿐이였다.

중대는 적의 대부대가 빠져나올수 있는 이 유일한 큰길인 금산가도를 가로타고앉았다. 전투는 곧 시작되였다. D시로 들어오는 적의 련락장교와 통신병들이 탄 찦차들과 후방부대의 소부대들 또는 간혹 나오는 무장정찰대들까지 큰길옆 나지막한 고지중턱에 이르러 감쪽같이 생포되거나 소멸되군 하였다. 전화선들도 절단되였다. 오직 공중으로 래왕하는 항공로만이 차단할수 없는 지역으로 남았다. 적후부대의 동작은 기민하고 정확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D시안의 적의 지휘부에 큰 충격과 혼란을 주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유일한 출로인 배후에까지 인민군부대들이 잠복해들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적의 형편은 우리속에 갇힌 짐승과도 같은 신세로 되였다. 그들은

땅크를 앞세운 위력정찰을 내여보내기 시작했다. 후방련결선을 차단하고있는 아군의 동작이 확실한것으로 알려지자 당황한 적전투기떼들이 상공을 덮고 한차례, 두차례 날아오기 시작했다. 전투기들은 그럼직한 야산과 길옆 후미진 곳에 눈짐작의 기총사격을 들이퍼붓고 소형폭탄을 내려뜨렸다.

적들은 아군의 사면포위진을 뚫고나갈 유일한 혈로를 뚫어놓기 위하여 병력의 소모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시가정면에서 아군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있는때문에 큰 부대를 빼여돌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대대이하의 소부대는 계속 밀려나왔다. 중대에는 소총탄알까지 없어져갔다. 중대에서는 산중턱 제1선에 배치한 자동총수들까지 길옆의 땅크습격조들과 같이 수류탄으로 싸워야 했다.

대대와의 거리는 멀지 않았으나 쉴사이없이 나타나는 적정이 탄환공급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때에 습격조원들의 차단선을 빠져나온 적의 땅크 한대가 전초선인 자동총소대앞으로 기여올랐다. 땅크의 징그러운 쇠사슬바퀴에 수목이 뿌리채 곤드라져나가고 땅이 갈리여 와릉와릉 울리는 요란한 음향이 내장을 허비고 가슴을 쥐여뜯었다. 적들은 땅크로써 아군의 방어상태를 시험하고 그 틈에 대부대의 병력을 빼여보자는 심산이였다.

자동총소대의 전사들은 눈앞을 막고드는 땅크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련이어 수류탄을 던졌다.

땅크는 움씰하지 않고 전진해올뿐이였다.

소대원들은 몇개 남지 않은 수류탄을 가슴에 안고 서로들 땅크앞으로 맞받아나가려 했다. 나팔수 기호도 허리에 찬 수류탄을 빼여들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중대장 김인갑은 전사들에게 흥분하지 말고 침착히 행동할것을 지시하면서 각기 자기의 진지를 고수하라고 엄명하였다. 그리고 나팔수 기호에게는 적이 산협에 기여오른 틈을 타서 대대부에 갔다올 명령을 주었다.

《기호동무, 동무는 대대부에 가우. 어떻게든 탄약을 받아와야겠소.》

김인갑은 어깨를 틀어쥐고 흔들며 임무의 중대함을 알리는듯 이렇게 말했다.

기호는 미처 대답할 사이도 없었다.

이때 바로 곁에 서있던 그의 전우 현삼석전사가 땅크를 맞받아 달려나가는것이였다. 그 순간 수류탄 터지는 무서운 폭음이 온 고지를

뒤흔들었다.

땅크는 더 전진하지 못하고 불길속에 휘감기여 탔다.

전사들은 와왁 만세소리를 높이며 불타는 땅크뒤에 숨어 혼란에 빠진 미국병정의 무리속으로 족쳐나갔다. 그 선두에 사라진 중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기호는 한참후에야 고지를 떠나 골짜기길로 내려왔다. 머리속은 그냥 싸움속에 있는듯 왕왕거리고 눈앞에 보이는 빛갈모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주위의 조용함이 차츰 몸에 배이면서 이상하게도 홀로 떠나온 불안과 무서움이 온몸을 결박하는듯 했다. 전우들모두가 돌격에 나가던 때의 기세높은 함성과 만세소리… 화약이 터지고 쇠붙이가 부딪치는 귀아픈 음향… 모두가 차츰차츰 먼곳으로 사라져갔다. 바람소리를 따라 전투장의 함성과 아우성, 총포성의 가벼운 여음만이 불안스럽게 들려왔다. 꽉 짓눌리운듯 흔들리지 않는 나무숲과 풀섶들… 모든 정경은 깊은 구뎅이속처럼 침침했다.

기호에게는 이 너무도 조용함이 도리여 불안하였다.

탄환이 날아올 위험한 지역은 벗어져나온지가 오래였다. 아무런 위험이 없는 정황인데도 비발쳐오는 탄알속을 달려나가기보다 더 외롭고 불안한 무서움이 온몸을 조이고드는것이였다. 그것은 마치 어린 때 많은 아이들의 즐거운 유희속에서 홀로 떨어져나와 사람이 없는 오솔길을 걷는 때와 같은 감정이였다. 기호는 어린 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성장하였다. 그에게는 이와 같은 외로운 감정의 체험이 한두번만 있지 않았다. 기호는 그 어린 때와 같은 외로운 감정에 잠겨 서글퍼졌다. 그것은 고지를 멀리 떠나오면 올수록 더하였다. 생각은 고지우로만 달렸다. 발부리에 채여 쟁그랑쟁그랑 튀여나가는 작은 돌멩이들마저 소총알인듯 보이고 무릎우를 때리며 감겨치는 풀섶은 전진을 막는 칡덩굴로만 생각되였다. 땀방울이 흘러들어 깔끔거리는 눈앞에 전우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맴돌이치며 떠나지 않았다. 기호는 이 모든 환상을 지워버리려는듯 이마와 량볼의 땀방울을 문대씻으며 바삐 걸었다.

열은 골짜기에서 빠져 큰길에 올라서며 큰 도회 D시가가 우렷하게 바라보였다.

D시는 기호가 어린 때 전우 삼석이와 함께 어느 철공장의 소년공으로 일한 일이 있는 친숙한 도시였다.

포연이 자욱히 잠긴 D시가에서는 우뢰소리와 같은 포성이 《쿵—쿵—》 계속 들리고 디디고선 땅이 움찔움찔 흔들리는 진동도 그치지 않았다.

D시가는 현삼석의 고향이였다. 기호는 삼석에게서 그의 친척이 D시가에 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

《기호, D시의 해방전투는 우리 둘에게 의미가 있어. 우리가 같이 일하던 고장이 아니야!》

삼석은 밤행군으로 금강을 도하할 때에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 그때 기호는 삼석의 말에 동감을 느끼면서도 그의 친척이 시가안에 있다는것이 께름직하였다. 또한 자기의 고향이 도시가 아니고 농촌인것을 여간 다행으로 생각지 않았다. 도시안에 있으면 적을 협력하든가, 적에게 끌려가든가, 학살당할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때문이였다.

삼석은 이에 대하여 《기호동무, 소극적이야. 물론 협력하거나 학살당하거나 두가지 길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을수도 있어. 나는 가난하게 사는 친척들의 마음을 믿어. 내가 해방군으루 들어가면 환영나올것은 틀림없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한시각이라도 빨리 시가를 해방해야 하는거야!》 하고 말하였다.

삼석의 이 말을 들은 후 기호는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했다.

《나에게는 개인주의가 있는가봐!》

기호는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으나 마음속은 괴로왔다.

D시가를 바라보며 기호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하였다.

삼석이, 그는 땅크밑에 깔려 땅크를 불살랐다.

—삼석이, 너는 나보다 백배천배 용감하다—

기호는 눈물을 쭈르르 흘리며 D시가를 바라보고 떠나온 고지우를 다시 돌아보군 하였다.

《악—악—》소리치는 전투의 함성은 사라지지 않고 들려왔다.

고지에서도 싸움은 계속되고있었다. 오직 자기만이 싸움에서 떠난듯싶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큰길을 뛰여넘어 변전소를 멀리 돌아걸으며 《왜 하필 내가 와야 한담! 다른 사람이 올수 있는것은 물론 내게도 따발총이 있고 수류탄이 있지 않은가!》 하고 안타까운듯 혼자말을 중얼거렸다.

×

중대의 오랜 나팔수인 기호는 중대뿐만아니라 련대에까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있었다.

전사들은 그를 꼬맹이나팔수, 눈깜쟁이나팔수라 서로 좋아하는 별명으로 불렀다. 별명과 같이 그의 키는 작았고 눈섭이 진한 두눈은 총명하게 빛났다. 전사들에게 훈련과 학습, 식사때의 시간을 따라 나팔을 불어주는 그의 이름은 어머니마냥 정다운것이였다.

조국해방전쟁 첫날부터 나팔수로서의 그의 이름은 전사들의 힘을 고무하는 전달자로 되였다.

그는 여러 도시와 마을마을의 해방을 알리는 우람찬 나팔을 불며 돌격부대의 선두에 서서 행군했다. 그가 부는 나팔소리를 따라 그의 부대뿐만아니라 여러 린접부대들이 진군해들어가고 돌격으로 나갔다. 또한 그의 나팔소리에 의하여 해방지구 인민들이 환호소리를 높이며 달려나왔다. 이러한 순간은 그에게도 큰 자랑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나팔수보다 더 억센, 전투에 참가하고싶은 억제할수 없는 욕망이 있었다. 이 욕망때문에 전우들모두가 결전장으로 달려나가고 자기 혼자만이 전투에서 빠지게 될 때마다 섬찍한 생각을 저버릴수 없었다. 격렬한 전투속에서 떠나온 이날 또한 그와 같은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D시의 소년철공이였던 기호는 삼석이와 함께 1946년 10월 해방후에 북반부에 들어왔다. 그들은 흥남의 기계공장에서 일하며 직장학교를 다녔다. 그들이 학교를 졸업한 해는 1948년이였다. 그때 스무살 동갑이였던 두 청년은 고향에 대한 잊을수 없는 그리움과 강점자들에 대한 분격으로 군사동원부를 찾아갔다.

군사동원부에서 부대로 옮겨왔을 때 그가 배속된 부대에는 마침 나팔수가 없었고 나팔수양성을 위한 특별훈련반의 대상자를 선발하는중이였다. 기호는 이 훈련반을 거쳐 나팔수가 되였다. 그는 평화시기 적의 침습이 없었고 전투가 없었을 때까지 나팔수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 다만 막연하게 따발총이나 중기를 다루고싶은 욕망만이 있었다.

부대가 서울을 지나 간고한 한강전투를 계속하며 점점 더 간고한 전

투를 당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막연하게 생각해온 이전의 욕망을 한층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소대장에게 제의하고 전우들에게 하소했으나 나팔수는 중대와 련대에 직접 속하기때문에 누구도 해결할수 없다고 잡아뗴였다.

기호에게는 이 일이 안타까왔다. 그는 자기가 무슨 일에나 결단성있게 강한 의견을 제기하지 못하는것이 병집이라고 깊이 생각했다.

10월항쟁후 그와 같이 행동해온 한고향출신전우 현삼석의 장렬한 최후는 그를 더욱 흥분케 하였다.

—이번전투에는 꼭 나팔수가 아니라 습격조와 자동총소대에 가야 한다! 중대장에게 떼를 쓰자!—

대대부로 뛰여가며 기호는 이러한 속궁리를 몇번이고 다시 하였다. 대대부에 도착하여 탄약을 공급받은 기호는 수송소대원들과 함께 변전소근처까지 아무런 장애없이 도착했다.

이제 개활지의 논뚝을 지나 큰길을 넘어선 후 고지옆골짜기에 들어서기만 하면 임무는 완수되는것이였다.

자동총과 붉은 수실이 달린 나팔을 가슴앞에 모으고 등에 탄환상자를 진 그의 뒤에는 다섯명의 공급소대원들이 따랐다. 적의 배후에서 아무 사고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오는 이 사실은 유쾌한 자랑이 아닐수 없었다.

중대원들은 얼마나 기뻐할가?… 그에게는 전호마다에서 뛰쳐나올 전우들의 기뻐하는 얼굴이 눈에 보이는듯 하였다. 이 즐거운 기대를 갖고 기호는 바쁜 걸음을 더욱 재촉하여 걸었다.

몇시간 떠난 사이 고지우는 내내와 같은 포연이 자욱히 끼여있을뿐 인적기없이 고요하였다. 무거운 탄약상자를 논뚝우에 내려놓고 땀을 들인 후 잎담배에 불을 붙여물고 일어선 때였다. 멀리 시가쪽에 검은 연기와 불길이 확확 피여오르며 《꽈광—꽝—꽝—》대지를 온통 뒤흔들어놓는 포성이 들려오는것이였다.

포성은 련발로 계속 일었다.

한낮의 불볕에 맥없이 늘어진채 숨었던 벌판이 새로 생기를 내여 숨을 쉬고 일어서는듯 들썩들썩 흔들렸다. 시가를 포위한 아군부대의 포사격이였다.

의용군출신인 공급소대원들은 무거운 탄약상자를 진채 D시가쪽을 바라보며 《잘한다.》, 《양키놈들 녹아난다.》 하고 춤이라도 출

듯 신이 나서 떠들었다.
포탄 터지는 진동이 시가주변을 들썩들썩 흔들어놓는 이때였다.
포위된 시가안에서 큰길우로 온통 먼지로 휩싸는 자동차의 긴 대렬이 달려나오기 시작하는것이 바라보였다.
기호는 깜짝 놀랐다. 그는 공급소대원들을 바삐 재촉하여 패주하는 적의 큰 부대가 당도하기 전에 큰길을 넘어서려고 서둘렀다. 탄약상자를 둘러멘 기호와 그의 일행은 반달음으로 큰길을 향해 나왔다. 그러나 큰 길이 꽉 차서 달려나오는 적의 기갑부대는 어느덧 피할수 없는 거리에 당도하여 더 빠른 속력으로 육박해왔다. 기호의 일행이 큰길가에 당도하여 막 넘어서려고 할 때에는 벌써 긴 자동차대렬의 선두에 선 석대의 땅크가 손에 닿을듯 한 거리에 나타났다. 땅크뒤에 줄을 지어 달린 자동차우에는 철갑모에 방독면까지 쓴 어마어마한 무장의 미국병정들이 타있었다.
《이놈들이 36계의 주자를 빼는구나!》
보충병의 한 전사가 탄환상자를 끌고 큰길가에서 깊이 판 도랑에 뛰여내리며 웨쳤다.
뒤따라 도랑에 내린 기호는 여러개의 수류탄을 한줌에 묶어쥐고 큰길가에 기여올랐다. 큰길을 넘을수없이 된 그는 딴 계교를 생각하여야 하였다. 그는 가까와오는 땅크를 노려보며 (…중대에서는 지금 어찌고있는것일가? 탄환이 떨어진 그들은 지금 어떤 작전을 세우고있는것일가?) 하고 안타까운 생각을 하였다.
고지우는 의연히 잠잠할뿐이였다. 기호는 중대진지와 점점 가까와오는 적의 대렬을 번갈아살피며— 어떻게 해서든지 선두의 땅크를 까부셔야 한다. 중대의 차단지역을 빠져나가려는 적의 대렬을 정지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도망치려는 미국놈들을 장사지내야 한다— 하고 앙심을 먹었다.
이 순간 그는 자기에게 한개 중대의 병력이 있기나 한것처럼 공급소대원들을 돌아보며 모두다 수류탄을 틀어쥐라고 단단히 일렀다.
우릉우릉 땅을 흔드는 땅크의 진동은 점점 크게 울려왔다.
기호는 가슴에 배겨드는 나팔줄을 옆으로 돌리고 큰길을 노려보는 시선을 떼지 않았다.
드디여 선두땅크의 징그럽게 검은 그림자가 한걸음한걸음 가깝게 비쳐들었다. 땅이 와릉와릉 울리고 무쇠를 바수는듯 한 요란한 소리에 이가 갈렸다. 줄땀이 흘러내리는 뜨거운 얼굴에 찬바람이 훅 끼쳐오

고 검은 차체가 눈앞에 나타났다. 기호는 숨을 죽이고 단침을 삼키며 차체밑차륜을 감고도는 쇠사슬마디를 하나둘 세기 시작했다. 땅크의 전신부가 어른거려 지나고 중심부의 긴 차체가 나타났다. 기호는 그 중심부의 사슬을 겨누고 네개의 수류탄묶음을 밀어넣듯 던졌다.

땅크는 움찔하지도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

도랑에 내려와 몸을 숨긴 기호는 땅크가 지나간 그제야 자기가 던진 수류탄이 미처 뢰관도 뽑지 않은채 던져진것을 알았다. 숨돌릴 사이도 없이 두번째의 땅크가 몸체우의 기관총신을 빙빙 돌리며 접근해왔다.

기호는 수류탄묶음을 다시 틀어쥐고 몸을 움직였다. 눈앞이 으찔으찔 어지러워오고 등골로 찬땀이 쭉 흘러내렸다. 어지러운 눈앞 큰길우에 땅크앞을 맞받아나가던 현삼석의 담찬 모습이 떠올랐다.

《기호야! 우리는 고향으로 가게 됐어. 너는 고향사람들이 어떻게 되였을가고 그 근심이였지! 그러니 한시각이라도 더 빨리 고향을 해방시키고 고향사람들을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말하던 그의 음성이 바로 곁에서 들리는듯 하였다.

…잊혀지지 않는 6월 26일 새벽이였다. 자리에서 뛰쳐일어난 군무자들은 모두다 문화회관앞광장으로 달려나가 정렬해섰다. 라지오와 고성기에서 리승만《국군》이 38도선을 넘어 침습해들어오고있음을 알리는 **김일성**장군님의 방송연설이 울려나왔다. 그 무겁고 우람찬 음성에 귀를 기울여 새겨듣는 군무자들의 긴장한 얼굴에 서리발같이 차겁고 엄한 적의의 빛이 떠돌았다.

기호의 곁에 선 삼석이는 흥분을 누르는 떨리는 어조로 《우리의 고향인민들을 해방하라는거야!》 하고 말하며 두손목을 으스러져라 틀어쥐였다. 둘은 여러 말을 하지 않았으나 같은 결의, 싸움의 앞장에 나서 미제원쑤를 쳐없애고 고향인민을 해방하리라는 굳은 결의가 가슴속에 그득차 울렁거렸다.

—그 고향시가가 저기에 있지 않은가—

선두의 땅크를 놓친 실패에 어리둥절해진 기호에게는 전우 삼석이와의 모든 잊을수 없는 기억이 다시 회상되여왔다.

삼석이는 그렇게도 그리던 고향시가의 해방을 앞에 두고 적의 땅크와 운명을 같이했다.

현삼석에 대한 짧은 회상에 잠겨있는 동안 적의 두번째 땅크의 검은 그림자가 눈앞을 가리고 지나려 했다. 기호는 땅크와 정면하여 일

어섰다. 그는 일어선 자세 그대로 몸을 앞으로 숙이며 차체후면 기관부를 겨누고 수류탄의 무거운 묶음을 힘껏 던졌다.

무섭고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땅크는 멈춰서고 시뻘건 불길이 확확 타올랐다. 기호는 적의 땅크가 불타는것을 확인한 후에야 도랑에 내려 엎디였다. 이와 거의 같은 순간이였다. 20메터가량 앞서나간 선두의 땅크도 무서운 폭음속에 풀썩 공중에 떠올랐다가 내려앉으며 불길속에 잠기여 타고있었다.

—중대 습격조들이 저기에 나와있었구나! 기호는 자기가 놓친 땅크가 불타오르는것이 기뻤다. 선두의 땅크 두대가 큰길복판에서 시뻘건 무쇠덩이로 달아오르자 적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남은 한대의 땅크가 급히 방향을 바꾸려다말고 멈춰섰다.

자동차의 긴 대렬도 킥킥 급정지의 비명을 지르며 일제히 멈춰섰다.

자동차우의 미국병정들은 차가 미처 서기도 전에 어깨우의 총을 내려들고선 허겁지겁 길가에 뛰여내렸다.

이때 산중턱에 매복하고있는 아군부대에서의 사격이 시작되였다. 큰길우에 집중해오는 사격은 주로 소총과 자동총의 련발사격이였다.

적들은 죽어가는듯 목갈린 소리로 웨치고 부르짖으며 길옆 물도랑에 머리를 틀어박고 몸을 숨겼다. 개중에는 총을 거꾸로 들고 모자가 벗어져나간 맨머리로 오던 길을 되돌아 죽어라 달리는 패거리와 총이고 배낭이고 모조리 집어던지고 철갑모 하나만 들고서 논판에 뛰여드는 놈팽이들도 있었다.

기호는 도망치는 적의 무리를 겨누고 수류탄을 던지며 큰길복판에 멀쩡히 서있는 땅크우에 뛰여올랐다. 이 좋은 기회에 중대에는 탄환이 없어서 중기도 경기도 입을 다물고있지 않는가?… 기호는 이러한 생각에 잠시를 진정할수 없었다. 적의 땅크에 뛰여오른 그는 혼란에 빠진 이 틈을 타서 공급소대원들을 중대진지에로 떠나도록 높은 소리로 웨쳤다. 조금전까지도 적의 수중에 있은 땅크우에는 두문의 기관총이 장탄까지 한채 걸려있었다. 기호는 이 기관총구를 도랑에 숨어 아물거리는 적의 머리우에 돌렸다.

이때 길옆에 잠복해있은 네명의 습격조원들도 자동총을 란사하며 기호의 땅크옆으로 접근해나왔다. 이들은 선두땅크에서 내린 적병을 사살하고 나오는 길이였다. 파멸에 직면한 적들은 최후발악의 아우성을 지르며 대렬을 정돈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화력이 약한 고지우의 중

대진지에 주력을 돌리여 응전하려 했다. 기호는 이를 악물고 기관총의 방아쇠를 눌렀다. 적들은 또다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부대로 흩어져 산으로 기여오르며 한편으로는 늘어선 자동차그늘에 숨어들어 사격을 계속했다.

전후를 분간할길 없는 긴장속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갔다. 기호의 땅크를 겨누고 총알과 수류탄이 련속 날아왔다. 두번째의 기관총을 가지고 사격을 계속했다. 적은 기관총 한문으로 소탕하기엔 너무도 많은 수효였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순간 기호는 이마와 가슴에 무엇인가 차거운것이 부딪쳐오는듯 한 이상한 감각을 느끼였다. 그는 이 순간 기관총 방아쇠를 틀어쥔채 총탁에 의지하여 쓰러졌다.

기호는 아픔이 덜한 한팔을 움직여 몇번인가 다시 일어서려고 애썼다. 그러나 어떻게도 일어설수는 없었다.

이마의 아픔보다도 한쪽편 옆구리가 탁 무거워지며 힘없이 쓰러질 뿐이였다.

차츰 몽롱해지는 의식속에 고지로 접근해가는 자지러진 총성과 미국병정의 시꺼먼 얼굴이 어른어른 지나갔다.

미국병정들중 몇놈이 그의 땅크에 기여오르는것 같기도 하였다. 그런데 자기는 움직일수 없고 이상하게도 사위가 조용해갔다.

딱히 알아볼수 없는 여러 얼굴속에 현삼석의 담찬 모습이 환하게 떠올랐다. 그와 같이 북반부를 찾아 떠나기까지 일하고있은 D시가의 공장거리가 오래 사라지지 않고 어른거렸다.

×

중대나팔수 기호가 적의 땅크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에도 미국놈들은 지옥의 큰길우에서 군대를 빼여낼수 없었다.

기호가 쓰러진 직후 전초선에 나와있은 자동총소대원들이 탄환을 공급받아가지고 큰길옆까지 진출해나왔다.

자동총소대의 한 분대 아홉명의 자동총수와 미리 나와있은 네명의 습격조원이 합세하여 큰길을 막고 적병들을 얼씬 못하게 하였다.

적들은 고지로 몰리며 강력한 공격을 시도했다. 이때까지도 중대에는 탄환이 당도하지 못했다. 중대의 산중턱진지가 아무런 싸움없이 무너질 위험이 왔다.

열세명의 자동총수들은 고지를 향한 적의 배후를 역포위태세로 공격해나갔다. 몇배 더 강한 화력을 가진 적의 지휘관들은 고지를 공격하면서도 큰길을 뚫고나가려는 기본작전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자동총수들은 죽은 현삼석전사와 나팔수 기호의 복수구호를 웨치며 적을 산골짜기 외길에 몰아넣기 위한 과감한 공격을 계속했다.
큰길주변에서 전투가 계속되는 이때였다.
포성이 끊어졌던 D시가쪽에서 포위부대의 어느 련대에선가 돌격나팔소리가 가늘게 울려왔다.
넓은 벌판과 골짜기마다 퍼지는 나팔소리는 전투장에 흔히 있는 새로운 국면의 계기를 예고하듯 전사들의 가슴을 흔들며 계속 들려왔다.
열세명의 자동총수들은 이 나팔소리의 고무를 받아 한층 대담한 약진을 하며 적의 공격태세를 저지하였다. 고지우 전호안의 중대전사들은 총창만을 쥐고 앉아 한걸음한걸음 기여드는 적의 움직임을 내다보며 이 나팔소리를 들었다.
《어느 부대의 돌격나팔인가?》
《공격부대가 시가지에 돌입한것인지!》
《눈깜쟁이 고것은 왜 오지 않을가?》
중대장 김인갑은 전사들이 소란스럽게 떠드는 음성을 제지하며 나팔소리가 들려오는 시가쪽을 주의하여 바라보았다.
나팔소리는 계속 울렸다. 총공격의 돌격을 알리는 이 나팔소리는 기호의 흐린 의식을 흔들어깨웠다.
—기호야, 나팔소리가 들려온다. 돌격나팔이 들리지 않어… 이렇게 소곤거리기라도 하는듯 가는 음향이 그의 귀가를 때렸다. 그런데 자기의 의식을 흔들어깨우는 그 주인은 누구인지 분명치 않았다. 그러나 자기가 돌격나팔을 불어야 하겠다는 의식만은 분명하게 떠올랐다.
기호는 흐린 눈을 비스듬히 뜨고 정신을 가다듬으며 저려오는 가슴을 더듬었다.
나팔! 붉은빛 네모난 기폭에 부드러운 수실이 달린 나팔은 그대로 달려있었다. 나팔의 차거운 금속을 틀어쥐는 그의 손길은 맥없이 떨렸다.
피에 젖어 흐린 눈에는 아직도 주위의 정황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흐리터분한 안개속에 잠기여 희미할뿐이였다. 고지를 향해 날아가는 자지러진 총성과 고함소리와 메아리치는 희미한 음향들이 가늘게 들렸으나 이상하게도 잠잠한 느낌이였다.

고지우에서 큰길로 날아오는 탄환은 없는듯싶었다.

—아직도 중대에는 탄환이 가지 않은게지… 탄환이 없는 거기에서 중대전사들은 무엇을 기다리고있을가?—

이러한 의문은 그의 흐린 의식을 깨우쳐 한층 명료하고 밝은 의식세계로 이끌어갔다.

기호는 차츰 자기가 어떤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하리라는 생각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고지를 떠날 때 어떻게 해서든지 탄환을 가지고와야 한다고 이르던 중대장의 엄한 얼굴이 떠올라왔다.

시가에서의 나팔소리의 긴 여음은 사라지려 했다.

기호는 총탁에 기대인 몸자세를 다시 세우고 틀어쥔 나팔을 턱우에까지 끌어올렸다. 그는 온몸을 조리고드는 아픔을 참아가며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

따라—따라—따—따—띠—띠—…

전사들을 돌격전에로 부르는 나팔소리는 높고 류량한 음향으로 큰길과 온 고지를 울리며 퍼져나갔다.

시가에서 들려오던 나팔소리는 이미 끊어지고 기호의 나팔소리만 전사들의 가슴속을 흔들며 울려퍼졌다. 고지우에는 기적같은 정경이 나타났다.

중대 전사들은 《와—》 하고 만세를 웨치며 일떠섰다. 그들에게는 탄환도 수류탄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순간에 자기들의 힘과 용기가 백배나 더 크게 솟는듯 하였다.

중대장 김인갑은 전사들의 선두에서 돌격구령을 높이 웨치며 탄알처럼 뛰쳐나갔다.

탄약상자를 안은 공급소대원들이 중대진지에 다달은것은 이 순간이였다. 전사들을 돌격에로 불러내는 기호의 나팔은 계속 울렸다.

적을 찾아 달려나가는 전사들의 머리우로 중기총알이, 박격포탄이 윙—윙— 시위소리를 내며 날아가기 시작했다.

×

잠간사이에 큰길옆의 밋밋한 산비탈은 적의 시체로 덮이고 주위의 공기마저 눅눅한 피비린내에 젖었다.

큰길우에 흰 모래알과 풀이파리도 무지스럽게 짓밟히고 비방울에 젖

어 붉은 빛갈로 변했다. 그들에게 있어 지옥의 죽음터로 변한 큰길 상공을 할일없이 까지르고 돌기만 하던 적의 전투기떼들도 하나, 둘 자취를 감추고 남으로 날아갔다.

금산가도의 참혹한 상태는 D시가의 적들이 다시는 이 길로 빠져나올념을 못하게 했다. 시가는 불에 타고 백병전의 함성이 계속 울려왔으나 빠져나오는 적의 부대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죽고 포로당할뿐이였다.

자동총소대의 전사들은 시가에서의 포성도 차츰 잠잠해지는 그제야 나팔수 기호를 찾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도 기호는 큰길복판에 자연요새를 이루고 서있는 적의 땅크우에서 떠나지 않고있었다. 그가 지키고있는 큰길우에는 전리품으로 된 백여대의 자동차가 한렬로 쭉 늘어섰다.

자동총소대의 열세명 전사들이 먼저 땅크우에 뛰여올랐다. 중대장 김인갑이 달려오고 다른 소대의 전사들도 땅크를 에워싸고 《와—와—》 떠들며 올라섰다.

군복내의를 찢어 머리와 가슴의 상처를 동여매고 맥없이 쓰러진 나팔수 기호의 부상당한 몸이 전사들의 팔에 안겨 일어섰다. 줄줄이 흘러내린 피가 말라붙어 얼룩이 진 그의 좁은 얼굴은 무서운 형상이였다. 그 유난스레 빛나는 검은빛눈동자마저 빛나지 않았다면 알아보기조차 힘들 지경이였다.

《중대장동무!》

부축하는 전우들을 뿌리치고 피못이 진 얼굴을 쳐든 나팔수 기호의 보고가 시작되였다.

그의 성한 팔 오른손에는 누른빛금속과 기폭 모두가 온통 피투성이가 되여 붉게 물들은 나팔이 심장을 틀어쥘듯 꽉 쥐여있었다.

《중대장동무, 나팔수 기호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 적은 이 큰길에서 빠져나갈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호는 끝내 다음말을 계속하지 못하고 전우들의 가슴에 안겨 쓰러졌다.

그의 부상은 의외로 중하였다. 머리와 왼편가슴의 붕대를 풀고 상처를 조사하기 시작한 중대위생병 류일수하사가 《왼편가슴, 어깨로부터 심장 바루 우에 심한 타박상을 받으면서 파편도 들어간것 같습니다. 출혈은 상처에 비해서 적은듯싶습니다.》 하고 보고했다.

그의 공훈을 자랑하듯 보란듯이 늘어선 백여대의 자동차속에서 뛰여내린 자동총소대의 한 전사가 부릉부릉 발동을 걸고 경적을 울리며 《출발준비가 완료되였습니다.》 하고 높은 소리로 보고했다.

땅크우에서 그의 부상당한 몸을 안아내리려 한 이때였다.

잠간동안 잠잠하던 시가안에서 전투결속을 알리는 류량한 나팔소리가 다시 울려왔다.

승리를 알리는 이 나팔소리는 이어 시가를 에워싼 골짜기와 벌판 곳곳에서 호응하는 응답나팔과 합치여 크고 우람찬 화음으로 퍼졌다. 기호의 중대가 있는 큰길가만이 잠잠하였다.

《D시가 해방되였구나!》

《D시의 해방을 알리는 나팔이 울려온다.》

산허리에 매복하고있는 남은 전사들모두가 큰길가로 달려나왔다. 전사들은 감격에 찬 짧은 말을 주고받으며 전투모를 벗어 공중에 던지고 깨여진 땅크의 철판을 두드리며 기세높은 만세를 웨쳤다.

나팔소리는 넓은 벌판을 흔들며 계속 울렸다.

해방된 D시가를 향하여 달리는 자동차우에서 기호는 의식을 가다듬어 일어서려고 애썼다. 그는 간신히 가슴의 나팔을 그러쥐였다. 그러나 그러쥔 나팔을 입술에 대고 불수는 없었다. 옆에 앉아 부축하는 억센 팔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끝내 도망칠수없이 한렬로 늘어선 자동차와 포차옆을 지나 시가입구에 들어선 때 그의 고통을 참는 얼굴에는 빙긋이 가벼운 웃음이 떠올랐다. 그에게는 모두가 낯익고 잊혀지지 않는 거리였다. 그 잊혀지지 않는 시가로 들어가는 크나큰 자랑이 그에게 아픔을 잊게 하고 가슴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곧 슬픈 빛으로 수그러졌다. 그에게는 해방한 시가로 전우 삼석이가 없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가슴아팠다. 이 의식은 상처의 아픔보다도 더 괴로운것이였다. 그를 부축하는 전우들은 상처의 아픔이 더하냐고 근심스레 물었다. 기호는 머리를 가볍게 흔들며 빙그레 웃었다.

D시해방전이 끝났음을 알리는 각 부대의 나팔소리는 그를 태운 자동차가 시가에 들어설 때까지도 계속 울렸다.

1952. 8.

현대조선문학선집 60
단편소설집 《불타는 섬》

편 찬 엄 용 찬
편 집 석 선 영
편 성 리 설 희
교 정 김 경 희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1(2012)년 4월 20일
발 행 주체101(2012)년 4월 25일

ㄱ－16783 값 150원

ISBN 978－9946－22－470－1